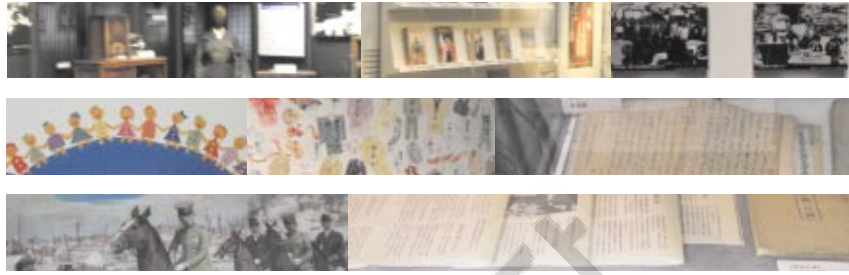


일본의 전쟁기록과
평화기념관 I _ 關東・東北 지역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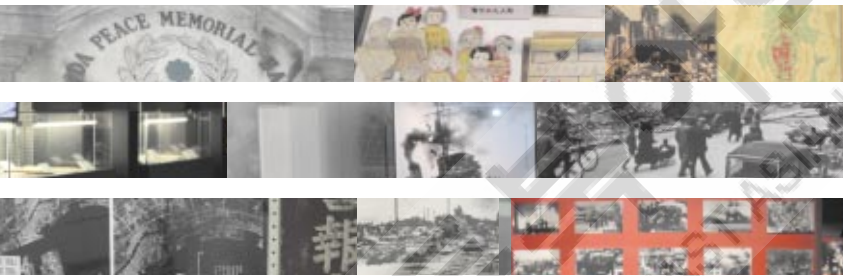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편





일본의 전쟁기억과 평화기념관 I _ 關東・東北 지역 편

동북아역사재단 편





전쟁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가장 잔인한 행위라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 20세기의 동북아시아는 정치적 갈등과 대립 속에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지난 전쟁에 대한 반성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기억함으로써 다시금 이러한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 이후 일본에서는 전쟁을 기억하는 많은 시설물이 만들어졌습니다. 평화기념(자료)관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전 세계 평화기념관의 50%는 일본에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 각지에 많은 평화기념관이 건립되었습니다. 이 중 다수의 평화기념관은 전쟁의 비참함, 대공습의 기억, 나가사키·히로시마의 원의 참상을 전함과 동시에 군인을 포함하여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그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에서는 전쟁에 대한 기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형상화되어 일본 국민들에게 계승되고 이해되고 있을까요? 그것을 평화기념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 것이 이 자료집입니다. 우선 이 자료집에서는 도쿄를 중심으로 한 關東 지역과 東北 지역 일대에 있는 주요 평화기념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關西 지역과 규슈·오키나와 지역의 평화기념관은 후속 자료집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본 자료집에 “평화를 지키는 투쟁은 망각과의 투쟁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최근 전쟁을 부정하는 헌법 제9조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생각할 때 과거 전쟁체험의 계승과 전쟁 기억의 전승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일본의 평화기념관 운동은 과거 전쟁에 대한 기억과 체험을 일본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며 무엇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를 향한 자각과 노력은 비단 일본 국민들만의 숙제는 아닐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하여 동북아

시아의 모든 사람이 함께 평화를 기원하며 노력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오랫동안 선린 우호의 관계를 지속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전쟁과 수탈, 지배라는 아픈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러한 아픈 역사 기억을 슬기롭게 치유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역사 이해의 수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 구축에 기여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으로 인해 일반 독자의 역사 인식이 심화되고 평화에 대한 공감대가 조금이라도 더 확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동북아역사재단은 역사 왜

에 대처하면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동북아시아의 역사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평화로운 동북아시아의 미래 구축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 3월 27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 용 덕

1 논문편

• 일본의 전쟁기억과 평화기념관	10
• 일본의 평화박물관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어떻게 전시하고 있는가	28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운동에서 평화박물관까지	45
• 중국의 박물관(기념관) 현황과 '난징학살기념관'의 변천	75
• '평화를 위한 박물관'의 조건 - 중일 양국의 평화적·공생적 관계 발전을 위하여	92
• 평화박물관과 군사박물관의 비교 - 비교사회학적 고찰	110
■ 자료 : 수도권에 개설이 기대되는 평화박물관 기본구상·시안	128

2 자료관편

1. 평화기념전시자료관(平和祈念展示資料館)	148
2. 쇼와관[昭和館]	152
3. 나카노구 평화자료전시실[中野區平和資料展示室]	158
4. 세타가야 평화자료실[せたがや平和資料室]	162
5. 도쿄대공습·전재자료[東京大空襲・戦災資料]센터	167
6. 쇼케이관[しょうけい館] - 전상병자(戰傷病者) 사료관	174
7. 부흥기념관(復興記念館)	178
8. 다이고후쿠류마루전시관[第五福龍丸展示館]	181
9. 가와사키시평화관[川崎市平和館]	185
10. 가나가와평화기념관[かながわ平和記念館]	190
11. 지구시민 가나가와 플라자 국제평화전시실[地球市民かながわプラザ國際平和展示室]	194
12. 도다평화기념관[戸田平和記念館]	200
13. 사이타마현 평화자료관[埼玉県縣平和資料館]	203
14. 마루키미 관[丸木美術館]	212
15. 시즈오카평화자료[静岡平和資料]센터	214
16. 센다이시 역사민속자료관[仙台市歴史民俗資料館]	221
17. 센다이시 전재부흥기념관[仙台市戦災復興記念館]	226
18. 태평양전사관(太平洋戦史館)	232
19. 기타가미평화기념전시관[北上平和記念展示館]	236
20. 아오모리공습자료상설전시실[青森空襲資料常設展示室]	241
■ 부록 1. 국제평화박물관 목록	246
■ 부록 2. 일본의 평화기념관 목록	248



- 일본의 전쟁기록과 평화기념관
- 일본의 평화박물관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어떻게 전시하고 있는가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운동에서 평화박물관까지

- 중국의 박물관(기념관) 현황과 '난징학살기념관'의 변천
- '평화를 위한 박물관'의 조건 - 중일 양국의 평화적·공생적 관계 발전을 위하여
- 평화박물관과 군사박물관의 비교 - 비교사회학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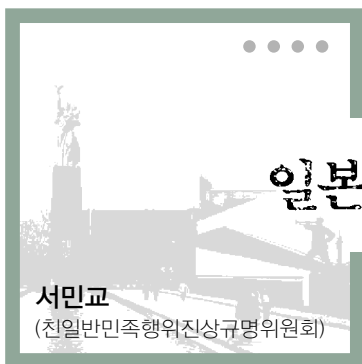
• 자료 : 수도권에 개설이 기대되는 평화박물관 기본구상·시안

평화기념관 I
일본의 전쟁 기억과

논문편

동북아시아역사재단
동북아시아역사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민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일본의 전쟁기억과 평화기념관

I

머리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60여 년이 지나, 이제는 전후에 출생한 세대가 노인층이 되면서 과거는 아스라한 기억의 저편으로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러나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전쟁의 기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일본의 전후 처리가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고, 특히 동아시아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그 영향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1990년대 본격적인 냉전체제 붕괴 이후, 최근 일본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경화의 움직임은 좀처럼 그 방향을 선회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19세기 말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국가 만들기에 들어갔던 일본은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국화’ 정책을 국가경영의 목표로 삼았다. 그 과정은 제국주의 열강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이었고, 침략전쟁을 주저하지 않고 아시아 근린 국가들을 식민지·반식민지화하면서 ‘천황제 제국주의’의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1945년 8월 15일의 참담한 패배로 막을 내리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사에 일찍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초래한 전쟁이었다. 사망자만 전체적으로 5,000만 명에 이르렀고, 부상자나 전쟁난민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인류역사에서 전쟁이란 과연 무엇일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만 하더라도 1950년에 한민족 역사상 최대의 민족 분쟁이자 국제 전쟁인 한국전쟁을 경험했고, 베트남전쟁을 비롯하여 최근

의 이라크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전쟁에 대한 기억의 속박(束縛) 속에서 살고 있다. 도대체 전쟁이란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 그 어떠한 절대성이라도 갖고 있다는 것일까? 그것과 전후 처리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전후 일본과 각국의 국교정상화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과 아직 미수교 상태인 점을 제외하면, 대체로 1972년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경계로 일본의 전후 강화(講和)가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의 책임, 일본군 위안부, 원폭피해자, BC급 전범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책임문제 등 전쟁책임문제는 여전히 그 끝닿는 곳을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후 일본에서는 (전전의 전쟁에 대한 기념관을 포함해서) 다양한 평화기념관이 만들어졌고, 특히 1930·1940년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중심으로 전쟁에 대한 기억을 전승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후 일본에서의 전쟁에 대한 기억이 어떠한 형태로 형상화되어 일본 국민들에게 계승되고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써 이른바 평화기념관이 갖는 의미와 활동성과, 이에 대한 일본 국민의 반응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식민지 체험을 비롯하여 다양한 전쟁체험을 겪었던 한국에서도 이웃 국가인 일본의 전쟁에 대한 기억과 전후 처리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분단국가 한국의 전후와 현재를 살펴보는 시금석이 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전쟁 종결 후의 일본의 전쟁인식에 대한 변화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전개과정에서, 특히 1940년대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일본 국내외의 국민생활의 궁핍화와 무분별한 군정(軍政)을 통한 전시 착취 체제는 동남아시아 경제의 파탄 등을 초래하였고, 전쟁으로 인한 휴유증이 점차 현실적인 문제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서의 인적·물적 자원의 강제동원과 징병제의 실시 등을 통해 식민지도 일본의 침략전쟁에 본격적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과정에 주목해야 할 점이

많다.

더불어 총력전(total war)의 수행은 일본 내외의 사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다. 전후방이 따로 없고 본국과 식민지의 구분이 불명확해지는 총동원체제의 전개는 비전투원인 일반 국민과 식민지인들에게도 궁핍과 고통뿐만 아니라 전쟁체제로의 동원을 강요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1943년 초 과달카날 섬 전투의 패배 이후 전쟁의 구도는 일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였고, 이른바 ‘옥쇄(玉砕)작전’을 강조하는 극단적인 저항체제를 일본 본토 내외의 지역에 강요하는 기현상을 초래하였다.

결국 객관적인 국력의 차이를 무시하고 시작했던 무모한 전쟁은 일본 내지·외지의 경제력을 파멸적인 상황으로 몰고 갔고 무차별적인 전장으로의 동원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전쟁 말기의 극한적인 저항은 이오지마[硫黃島]·오키나와 전투에서와 같이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포함한 옥쇄와 자학적인 학살을 일상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본의 태평양에서의 제해권과 제공권의 상실은 해상운송 과정에서 엄청난 인적·물적 손실을 가져왔고 극단적으로 특공공격이라는 자살공격의 형태로까지 나타나면서 세계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충격을 주는 상황까지 야기하였다.

결국 참담한 패배로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되는데, 아시아·태평양전쟁은 1945년 8월 중순 천황이 주도하는 어전회의의 결정에 따라 종결되게 되었다. 더불어 포츠담선언 수락 방침이 결정되자마자 일본 정부가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전쟁과 관련된 대량의 공문서를 처분하는 방침을 정해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 행정단위인 시정촌(市町村) 그리고 조선을 비롯한 각지의 일본제국 식민지에서도 대량의 자료를 소각하거나 은닉하였다.

전후 미국이 주도하는 미군정기를 거쳐 패전에서 냉전체제로 이어지는 과정은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으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조약은 요시다[吉田茂] 총리의 표현대로 ‘관대한 강화’로서 일본의 전쟁책임을 불문에 부치거나 애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전후 일본인의 전쟁에 대한 기억 형성은 몇 가지 특징을 초래하게 된다. 그 첫째는 가해자로서의 기억이 봉인(封印)되어 일본 국민은 전쟁의 희생자이자 피해자라고 하는 의식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평화의식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히로시마[廣島], 나가사키[長崎]의 원폭 투하는 이러한 관점의 형성에 일조하였다. 두 번째는 국가 지도자의 국민에 대한 책임까지도 애매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이것은 국민들 마음속에 큰 응어리로 남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 ‘도

교재판' 등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적인 전쟁관이 형성되어, 전쟁책임은 군인을 중심으로 한 국가 지도자에게 있고 자신들은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된 정책의 희생자라는 국민의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 번째로 냉전체제의 돌입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과의 정치적 화해를 재촉하는 논리가 전쟁책임의 망각을 강요하는 힘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일본인의 전쟁의식은 1980~1990년대에 큰 기로에 처하게 되었다. 그 원인의 하나는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신사 문제 등으로 아시아 근린국가의 대일비판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본식의 평화의식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 하나는 한국과 중국의 대일비판이 한·중 양 국가의 내셔널리즘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일본의 전전의 네거티브한 내셔널리즘의 유산이 현재 한국과 중국의 내셔널리즘을 강화시키는 역사의 연쇄(連鎖)를 일으키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전후 일본 국민의 역사인식과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의 변화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다.

패전 이후 일본에서는 전쟁의 비참함을 호소함에 따라 전쟁을 부정하고 평화를 존중하는 국민 감정이 커다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후 60년이 지나가면서 전쟁을 체험한 세대는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전쟁체험을 전승하는 과정에서 역사자료를 보존하고 조사하며 이를 전시하는 박물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전후 일본 역사학이 맡게 된 역할과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 일본 사회에서는 1980~1990년대에 들어가면서 일본의 침략과 가해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990년대 이후의 신보수화 경향은 이를 강하게 부정하는 반발을 표면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 정부의 전후 책임, 전쟁에 대한 인식문제는 1982년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1982년 8월 26일 '역사교과서에 대한 정부견해-미야자와(宮澤喜一) 관방장관 담화'에서 "과거에 우리나라의 행위가 한국·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국민들에게 다대한 고통과 손해를 끼친 점을 깊이 자각하고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과 결의 위에서 평화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고 발언하였다. 또 우파내각으로 유명한 나카소네[中曾根康弘] 총리도 1986년 9월 3일 교도통신 가맹 사회편집국장회의 석상의 강연 중에

“나는 그 전쟁(아시아·태평양전쟁)은 침략전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 역사의 흐름에서 생각해 보아도 역시 침략행위로서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1993년 8월 23일 호소카와(細川護照) 총리는 취임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과거 우리나라의 침략행위와 식민지 지배 등이 많은 사람에게 전달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주었던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발언하여 국내외의 커다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어서 전후 50주년이 되는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村山富市) 총리 담화에서는 “우리나라는 가까운 과거의 한 시기에 국책을 잘못하여 전쟁의 길을 걷게 되어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지게 하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국가, 특히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 …… 여기서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본 정부 수뇌진의 전쟁에 대한 반성표명이라는 인식은 1998년 10월의 한일 수뇌 공동선언과 같은 해 11월의 중일 공동선언에서도 일본이 한국과 중국 등에게 끼쳤던 손해와 고통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는 뜻을 표명하고 있다. 즉 1980년대 이후 일본 정부의 수뇌진은 적어도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해 아시아 근린국가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반성과 사죄의 표명이라는 점에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성 이후에도 수시로 벌어지는 ‘망언’은 이러한 반성과 사죄의 의미를 일거에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근린국가가 일본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가 일부 우익과 ‘자유주의 사관’에 따른 역사교과서 공격, 즉 ‘자학사관’ 공격이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의 사죄에 대한 비판도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침략과 가해를 공식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 일본의 침략과 가해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일본 사회에 정착됨에 따라 일본에서도 전쟁책임·전후보상문제가 커다란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관점은 이미 1980년대 나가소네 내각 당시부터 일본이 ‘경제대국’만이 아니라 ‘정치대국’으로서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장악하려는 의도와 관련되면서 제기된 문제이다. 즉 일본의 직접적인 침략의 대상이 되었던 아시아 제국에서는 일본이 정치·군사적으로 대국화하려는 경향에 대해 강한 의구심과 불신감이 존재하고 있다.

보수파 자민당 정권에서도 이러한 점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이와 같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전쟁책임문제를 ‘청산’하려는 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그 이후의 2국 간 협정에 따라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취하고

새로운 보상요구를 거부하면서도,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일본의 전쟁책임 부분을 인정하고 최소한도의 사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일본 보수세력의 ‘현실주의적 실용노선’은 1990년 대에 들어와 자민당 정권이 흔들리게 된 이후에도 그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전쟁책임과 가해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의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국내적으로 국민들에게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의 대외적 언설과 일본 국민의 역사의식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필요한 것이 일본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실태와 가해의 실상을 해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실현시키는 것 그리고 일본 정부의 대외적 언설을 역사교과서에 반영시키는 것, 그와 동시에 일본 국내의 각 지역에서 민중들의 역사체험을 수집하고 기록하여 이러한 체험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전쟁체험이 점차 희박해져 가고 가정에서도 전쟁체험의 계승이 곤란해지는 과정에서 전쟁의 비참한 체험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역사자료를 보존하고 조사하며 전시하는 평화기념관의 역할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어서는 일본에서의 평화박물관, 전쟁기념관 또는 이를 아우르는 평화기념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일본에서의 ‘헤이와[平和]’라는 개념과 한국에서 말하는 ‘평화’의 개념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일본의 평화기념관과 전쟁의 기억 1

1. 전후 평화기념관의 설립과 그 운영의 특징

일본의 경우 패전 이전부터 자국의 전쟁을 찬미하고 전사자를 기리며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고 군사교육을 위한 전쟁자료관이 군대와 지방 공공단체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패전 이후 폐쇄되었는데, 전후 일정 시기가 지나면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전사자를 기리는 전쟁자

료관이 신사, 자위대, 개인 등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거나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 패전 직후부터 원폭, 오키나와 전투, 공습 등에 관한 자료관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평화자료관이 지방자치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이것이 평화기념관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먼저 원폭과 오키나와전과 관련하여서는 1949년에 히로시마에 원폭자료전시실(1955년에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으로 확대 개관됨)이 만들어지고, 1955년에 나가사키 국제문화회관(현재의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이 개관하였다. 1975년에는 오키나와현립 평화기념자료관이 개설되었고, 1989년에는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도 만들어졌다. 이 자료관들은 주로 각각의 지역에서 전쟁의 비참함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시아·태평양전쟁 전체를 반영하고 있는 전시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공습과 관련된 기념관으로는 센다이시 전재부흥기념관(仙台市戰災復興記念館, 1981), 하마마쓰 부흥기념관(浜松復興記念館, 1988), 도쿄도 부흥기념관(東京都復興記念館) 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나 그 전시내용은 빈약한 편이었다. 본격적인 평화기념관 건설과 관련된 움직임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일어나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시민, 노동조합, 교사,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평화우호운동단체, 기관지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평화를 위한 전쟁전(戰爭展)운동이 도쿄, 오사카, 교토 등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그 내용은 피해, 가해, 반전, 저항 등 전쟁을 종합적으로 전시하는 것으로서 한정된 시기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모아 개최하는 운동이었다. 물론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고 자료와 관련된 전시도록 등도 발행되었다.

이후 전국적으로 지역 역사박물관이 전시전·특별전의 형태로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전시가 본격적으로 행해지게 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도 이러한 전시는 계속되었다. 특히 전후 50주년에 해당되는 1995년에는 110곳을 넘는 지역 역사박물관에서 전쟁과 전후 50주년과 관련된 특별전이 행해졌다. 또 많은 박물관이 전시만이 아니라 도록과 자료집을 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199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기념관이 개관되기에 이르렀다. 또 원폭 관련 기념관과 자료관이 개축되었고, 전쟁을 종합적으로 개관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오사카 국제평화센터[大阪國際平和センター, 일명 Peace 오사카], 교토 리쓰메이칸[立命館]대학 국제평화뮤지엄 등이 있다. 둘 다 전국적인 시각에서 일본인의 피해만이 아니라 가해라는 시점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1990년대에 들어와 일본에서도 과거의 전쟁을 비판적인 시점에서 파악하는 전국적인 규

모의 기념관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어서는 평화기념관의 전쟁 전시에 대한 현상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 박물관의 성격을 가지는 평화기념관은 유물, 유품 등 실물자료를 통해 전쟁체험을 전승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와 같은 실물전시품을 중심으로 사진, 영상, 모형 등도 보조자료로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보조자료에 대해서는 엄밀히 고증하고 제작자의 작위 등이 들어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잘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의 전쟁체험이나 실물자료에 대한 경험담 등을 같이 전시하는 것도 보다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전시 그 자체가 의도하지 않게 전쟁을 선동한다거나 전쟁으로의 동원, 전쟁에 대한 미화 등으로 비쳐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이다. 평화기념관에서는 전쟁의 무서움과 공포, 전쟁이 사람에게 주는 직접적인 피해, 살상과 파괴가 중심이 된 전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전시의 형태에 관한 특징을 보면, 전쟁 전시에 관한 것은 상설전시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테마를 정해 보다 심도 있는 기획전시, 즉 특별전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전시를 위해서는 조사 연구 작업도 평화기념관의 중요한 기초적인 기능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전시에는 그러한 연구 성과가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사 연구와 실물자료의 수집, 사진·영상에 대한 연구를 축적하여 그 성과를 전시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불어 그러한 연구 성과를 전시에 반영하도록(圖錄)을 작성하며, 나아가 연구보고서의 작성, 논문집·단행본·자료집 등의 발간을 통해 학계에도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2. 일본의 평화기념관의 유형과 전시의 현황

1) 1931년에서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취급하는 평화기념관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廣島平和記念資料館], 나가사키 원폭자료관[長崎原爆資料館],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沖縄縣平和祈念資料館], 오사카 국제평화센터[大阪國際平和センター], 가와사키시 평화관[川崎市平和館], 사이타마현 평화자료관[埼玉縣平和資料館], 가나가와현립 지구시민 가나가와 플라자[神奈川縣立地球市民かながわプラザ], 사카이현립 평화와 인권자료관(피닉스 뮤지엄)[堺縣立平和と人權資料館(フェニックス・ミュージアム)], 스이타시 평화기념자료실[吹田市平和祈念資料室], 히메지시 평화자료관[姫路市平和資料館], 후쿠야마시 인권평화자료관[福山市人權平和資料館], 다

카마쓰시 시민문화센터 평화기념실[高松市市民文化センター平和記念室], 세타가야 평화자료실[せたがや平和資料室], 우수이 평화기념자료관[井平和記念資料館], 사에키시 평화기념관 아와라기[佐伯市平和記念館やわらぎ], 센다이시 전재부흥기념관[仙台市戦災復興記念館], 하마마쓰 부흥기념관[浜松復興記念館], 고베시 전재기념자료실[神戸市戦災記念資料室], 아오모리 공습자료상설전시실[青森空襲資料常設展示室], 기후시 평화자료실[岐阜市平和資料室], 나가오카 전재자료관[長岡戦災資料館], 니시노미야시 평화자료관[西宮市平和資料館], 오키나와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 리쓰메이칸대학 국제평화뮤지엄[立命館大學國際平和ミュージアム], 시즈오카 평화자료센터[静岡平和資料センター],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岡まさはる記念長崎平和資料館], 홋카이도 슈마리나이 사사노 묘표전시관[朱鞠内笹の墓標展示館], 구사노 이에 병사·서민 전쟁자료관[草の家、兵士・庶民の戦争資料館], ‘소국민의 방’ 자료관[「小國民の部屋」資料館], 태평양전쟁사관[太平洋戦史館], 평화문화자료관 유키노시타[平和文化資料館ゆきのした], 도쿄대공습전재자료센터[東京大空襲戦災資料センター] 등

2) 전쟁 시기 군수공장, 군 비행장, 군 주둔지, 군사시설과 관련된 지역의 기념관

홋사시 향토자료실[福生市郷土資料室], 히라쓰카시 박물관[平塚市博物館], 가카미가하라시 역사민족자료관[各務原市歴史民族資料館], 누마즈시 메이지사료관[沼津市明治史料館], 히로시마시 향토자료관[広島市郷土資料館],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広島平和記念資料館] 등

3) 원폭·공습 관련 미군 자료와 일본인의 체험기록을 전시하는 기념관

히라쓰카시 박물관[平塚市博物館], 시즈오카 평화자료센터[館静岡平和資料センター], 오사카 국제평화센터[大阪國際平和センター], 와카야마시립 박물관[和歌山市立博物館], 다카마쓰시 시민문화센터 평화기념실[高松市市民文化センター平和記念室],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広島平和記念資料館], 스미다 향토문화자료관[すみだ郷土文化資料館], 오키나와현립 평화기념자료관[沖縄縣立平和祈念資料館],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 등

4) 일본의 가해 사실을 종합적으로 전시하는 기념관

오사카 국제평화센터[大阪國際平和センター], 사카이시립 평화와 인권자료관[堺市立平和と人権資料館],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岡まさはる記念長崎平和資料館], 리쓰메이칸대학 국

제평화뮤지엄[立命館大學國際平和ミュージアム], 시즈오카 평화자료센터[静岡平和資料センター], 홋카이도 개척기념관[北海道開拓記念館], 시즈오카 평화자료센터[静岡平和資料センター], 사이타마 평화자료관[埼玉平和資料館], 스와시 박물관[諏訪市博物館], 도쿠시마현립 박물관[徳島縣立博物館], 도시마구립 향토자료관[豊島區立郷土資料館], 이시카와현립 역사박물관[石川縣立歴史博物館], 누마즈시 메이지사료관[沼津市明治史料館] 등

5) 조선인·중국인 강제연행·강제징용 등을 취급하는 기념관

홋카이도 개척기념관[北海道開拓記念館], 홋카이도 슈마리나이 사사노 묘표전시관[朱鞠内笹の墓標展示館], 이와테현립 박물관[岩手縣立博物館], 히라쓰카시 박물관[平塚市博物館], 나가노현립 역사관[長野縣立歴史館], 스와시 박물관[諏訪市博物館], 가카미가하라시 역사민속자료관[各務原市歴史民俗資料館], 시즈오카 평화자료센터[静岡平和資料センター], 누마즈시 메이지사료관[沼津市明治史料館], 오사카 인권박물관[大阪人權博物館], 사카이시립 평화와 인권자료관[堺市立平和と人權資料館], 스이타시 평화기념자료실[吹田市平和祈念資料室], 와카야마시립 박물관[和歌山市立博物館], 다카마쓰시 시민문화센터 평화기념실[高松市市民文化センター平和記念室] 등

이상의 평화기념관은 각각의 항목별로 중복되는 경향도 있지만, 크게 구분해 보면 위에서 지정한 바와 같은 항목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더불어 몇 가지만 덧붙이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전시하고 있는 곳으로는 오사카 인권박물관이 있으며, 식민지와 군 점령지에서의 황민화 정책을 전시하고 있는 곳으로는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과 가나가와현립 지구시민 가나가와 플라자를 들 수 있다. 특히 가나가와 플라자와 오사카 국제평화센터, 리쓰메이칸대학 국제평화뮤지엄에서는 아시아에서의 항일운동에 대해서도 전시하고 있다.

또 일본 국내의 반전운동에 대해서 전시하고 있는 곳으로는 홋카이도 개척기념관, 센다이시 역사민속자료관, 도시마구립 향토자료관, 이시카와현립 역사박물관, 기후시 평화자료실, 리쓰메이칸대학 국제평화뮤지엄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유형별 분류에서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만, 바꾸어 말하면 전쟁에 관한 종합적인 전시시설을 갖춘 곳이 다수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며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또 전후 일본에서는 지방자치제의 발달과 더불어 각 지역에서 경험한 전쟁체험이라는 것을 테마로 한 평화기념관 등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졌고, 단순한 전쟁에 대한 기억을 전시하는 것에 그치

지 않고 꾸준한 연구 조사활동과 더불어 각종 학술세미나의 개최, 자료집·목록집의 발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공개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어서는 일본의 전쟁기억의 유형과 평화기념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IV 전쟁기억의 유형과 군사박물관과 평화기념관

1. 전쟁기념관과 평화기념관

일반적으로 전쟁을 취급하는 기념관을 평화박물관(peace museum)과 군사박물관(military museum)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자의 개념정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군사박물관은 군대, 병기, 전쟁, 군대생활 등 군사에 관련된 전시를 하고, 군대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시설로서 전시방향이 반전·평화적이지는 않은 박물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국의 군이 직접 개설·운영하거나 일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다.

한편 평화박물관 혹은 평화기념관은 문헌자료, 그림, 사진, 예술품 등의 전시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그것들을 평화에 대한 가치관에 입각하여 전시하는 것을 통해 평화교육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군사박물관과 평화박물관을 완벽하게 구분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특징적인 면에서 박물관의 운영 주체가 군(軍)이라면 군사박물관으로 분류될 수 있고, 전시 목적이나 전시 내용이 평화지향이라면 평화박물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군사박물관과 평화박물관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그 박물관이 전쟁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전쟁을 부정적으로 보며 평화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평화박물관이라면, 반대로 군사박물관은 반드시 전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대조직과 군대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과거의 전쟁에서의 전몰자·부상자 등 군인들을 추모하고 현창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 일본의 군사박물관

일본의 『방위백서』(『平成12年度版防衛白書』, 2001. 2)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자위대 홍보시설’은 육상자위대가 103개, 해상자위대가 12개, 항공자위대가 15개의 시설 등 전국에 130개의 홍보시설이 개설되어 있다고 한다. 홍보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칭은 자료관·사료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곳이 많다.

1955년부터 개설되기 시작하여, 특히 1964~1969년에 당시까지 개설되었던 90개 시설 중에서 47개 시설이 집중적으로 개설되었다. 또 과거 일본군 각 연대 전우회와 사관학교를 비롯한 군사학교 동창회 등이 사료관 개설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전시자료를 제공하는 등 군사박물관 개설과 자료 수집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대규모 시설을 자랑하는 군사박물관이 1990년대 후반에 세 개나 개설되었다는 점이다. 해상자위대 사세보 사료관(海上自衛隊 佐世保史料館, 일명 셀 타워, 1997년 개설)과 항공자위대 하마마쓰 홍보관(航空自衛隊 浜松広報館, 일명 에어 파크, 1999년 개설)과 육상자위대 홍보센터(陸上自衛隊 広報センター)가 도쿄 부근 사이타마현 육상자위대 주둔지 부근(埼玉縣)에 설립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자위대 홍보시설은 연간 입장객이 각각 10만 명 이상이나 되어 100여 개의 소규모 홍보시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홍보능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특징적인 군사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러일전쟁 당시 일본 연합함대의 사령관 기함이었던 전함 미카사(三笠)가 1926년부터 ‘기념관 미카사’[요코스카시(横須賀市)]로 활용되었는데, 패전 후 폐관되었다가 1961년에 재개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 군사박물관의 대표적인 존재인 유슈칸(遊就館)은 육군성 관할하에 1882년에 개설된 시설이었는데, 이 역시 전후 일시 폐관되었다가 1961년부터 야스쿠니신사(國神社) 경내에 ‘유슈칸(遊就館)’으로 재개관되었고, 최근에 대규모 시설 확대를 단행하여 일본 근현대의 전쟁(이른바 ‘대동아전쟁’)의 정당성과 전몰군인 등 이른바 ‘영령(英靈)’에 대한 추모사업과 현장사업을 전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평화기념관(평화박물관)

한마디로 평화기념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설치 목적이나 전시 내용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크게 구분하자면 평화기념관의 개설 목적이 전쟁의 어리석음과 두려움을 전달해 주는 ‘반전 사상의 형성을 명확히 지향하는 것을 중시하는 기념관(반전 평화박물관)’과 이른바 평화로운

사회와 평화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하자는 ‘평화지향’의 태도와 방법을 중시하는 기념관(‘평화지향 박물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본의 평화기념관의 대부분은 지역에서의 전쟁체험을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시 내용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쟁 당시 일본 국민의 부정적인 전쟁체험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거나 활성화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전쟁체험과 전쟁기억의 계승은 피해자로서의 체험의 계승이 오랫동안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 겨우 가해자로서의 체험과 기억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대도시를 중심으로 오사카, 교토, 가와사키,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의 평화기념관을 중심으로 전쟁의 피해에 대한 체험뿐만이 아니라 가해에 대한 체험도 전시에 덧붙여지게 되었다.

참고로 연간 입장객 수가 많은 평화기념관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원폭피해를 직접 경험했던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2001년 현재 1,113,864명)과 나가사키 원폭자료관(동 808,444명)을 선두로, 1945년 3월에서 6월까지 오키나와 전투로 전쟁피해의 참상을 가장 집중적으로 겪었던 오키나와 현의 평화기념관인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동 758,194명)과 오키나와현립 평화기념자료관(동 336,245명), 그리고 요코하마에 있는 지구시민 가나가와 플라자(동 221,084명)로 이어진다.

다만 여기서 놀랄 만한 것은 평화회관이란 명칭이 붙어 있지만, 오히려 군사박물관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가고시마현[鹿兒島縣] 지란[知覽]에 있는 가미카제 특공대 관련 기념관인 지란특공평화회관[知覽特攻平和會館]이 2001년 현재 연간 719,573명의 입장객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상과 같이 분류해 볼 때 군사박물관과 평화기념관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 군사박물관은 군대의 역사와 역할에 대해 홍보하고, 자국이 행한 전쟁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들의 국방의식을 계발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사박물관의 전쟁기억의 전승은 조국이 행한 전쟁에서 순국했던 사람들을 기리고 현창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겠다.

평화기념관은 어떠한 전쟁에도 반대하는 평화주의를 주창하면서,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애국주의’에 대한 일말의 불신감을 가지면서 평화활동가, 평화운동, 인도적 활동과 행위들의 소개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사회 만들기를 지향하고 있다.

한편 평화기념관의 설립, 특히 지방자치체가 운영하는 평화기념관은 지역 주민의 요망에 따라 설립되는데, 개설을 요청하는 주민운동의 확대과정을 거쳐 지방자치체의 장이나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설립된다. 즉 주민들의 의지와 의견이 평화기념관의 설립과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새삼스럽게 지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일본 사회의 변화, 즉 1990년대 일본의 우경화 과정에서 새로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우익세력들이 평화기념관의 현상과 가해체험을 포함하는 전시 현황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고 평화기념관의 존재 형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어서는 그러한 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두겠다.

2. 일본 우익의 평화기념관에 대한 공격과 그 대응

1990년대에 들어 냉전체제의 종식 등과 맞물리면서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극체제로 들어가는 듯이 보였고, 전후 60년 이상 수면하에 숨어 있던 일본 국민의 보수성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게 되었다.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기조와 보조를 맞추는 듯한 형태로 일본에서도 신보수세력의 등장, 즉 우경화의 현상이 가속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우익세력의 평화기념관에 대한 공격은 1996년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개장(改裝)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난징대학살 관련 자료 등 가해사실에 대한 전시물을 철거하라며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나가사키 기념관 측에서는 일부 전시물을 교환하는 수준에서 대응하였다.

나가사키에서 공격의 성과를 본 우익세력은 전국에 있는 평화기념관을 상대로 포문을 확대하기에 이른다. 그 방법으로는 우익 시민운동의 전개, 협박, 우파 저널리즘을 통한 선동, 지방의회 활동 등을 통해 공격이 이루어졌고, 특히 오사가 국제평화센터를 주된 공격대상으로 삼아 일본의 가해·침략과 중국의 항일운동에 관한 전시물의 철거를 요구했다. 이렇게 시작된 공격은 오사가 국제평화센터의 해체를 포함하여 그 전시의 성격을 우경화시키려는 획책도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우익들의 공격에 대하여 1998년 7월 ‘포스 오사카’ 시민네트워크가 결성되어 우익들의 공격에 대항하기 시작하였다.

우익세력의 공격은 기존의 평화기념관뿐만 아니라 새로 설립될 예정인 평화기념관을 저지하는 운동, 혹은 그 전시물의 내용을 변질시키는 활동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1997년 5월 가나가와현에서 지구시민 가나가와 플라자 국제평화전시실의 전시 개요가 공표되었다. 그 내용 중에 일본군 위안부의 출신지와 위안소가 있던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를 전시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것을 알게 된 현 의회 자민당 의원들이 ‘자학적’이라며 비판을 하게 되었고,

극우파 차량들이 동원되어 현청과 현지사 사택 부근에서 매일같이 항의활동을 벌였다. 이에 따라 동년 6월에 현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지도 패넬 전시를 포기하고, 전시계획의 대폭 수정계획을 공표하였다. 결국 1998년 2월 1일 개관은 했지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전시는 완전히 사라졌고 침략이라는 표현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이러한 우익들의 공격에 대응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났다. 1997년 5월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요코하마 시민들의 모임’이 결성되었고, 같은 해 9월 23일에는 ‘〈지구시민 가나가와 플라자〉 문제를 생각하는 긴급 시민집회’가 개최되어 군위안부문제 전시의 부활을 요구하는 항의문이 채택되었고, 동시에 모임의 이름도 ‘가나가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으로 변경하였다.

그 외에도 1997년도에 도쿄도 평화기념관 건립문제가 우익들의 반대로 현재까지 건설계획이 중단되고 있다. 또 1999년에는 오키나와현 평화자료관 신관 건설에 대해서도 우익세력이 공격을 가하였는데, 현민들과 현 내부의 매스컴의 반격으로 결국 당초 계획대로 신관이 건설되어 개관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 경우에도 일본군의 가해 사실 전시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역사학계에서도 우익세력의 공격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가하면서 한편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학예원의 배치와 학계의 성과를 전시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아무튼 우익세력에 대한 공격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는 지역 시민들의 역사인식과 시민운동을 통해 일본의 침략과 가해 사실을 전시하는 방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맺음말 – 일본에서의 ‘평화’의 의미와 평화기념관에 대한 전망

“평화를 지키는 투쟁은 망각과의 투쟁이다”라는 말이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은 인류는 곧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되었고,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참담한 패배를 맞본 일본에서도 전쟁을 부정하는 헌법 제9조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최근 일본 국민들에게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전쟁체험의 계승과 전쟁기억의 전승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를 끊임없이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역사학에서 말하는 과거와 현재의 연결을 통해 전쟁체험의 전승이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는 지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바로

‘망각’과의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박물관이나 기념관은 집합적 기억의 메커니즘이면서 ‘공중의 교육, 계발에 공헌하는’ 주요한 기관이다. 그리고 박물관과 기념관은 기억의 공유화(公有化) 행위를 조작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기억장치로서의 박물관에 대한 요네타니 유리아[米谷ジュリア]의 견해에 공감할 수 있다. 즉 권력의 장(場)으로서의 박물관에서는 전쟁은 국권, 영웅의 상징으로서 기념되어 왔다. 특유의 메시지와 이데올로기에 영합한 나머지 전쟁의 트라우마를 억제하거나 부정하는 경우도 있다. 트라우마에 관한 사회의 불안을 위무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희생의 상징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박물관은 권력의 장인 동시에 항쟁의 장이기도 하다. 또 그러한 항쟁의 핵심에는 전쟁을 기념하려는 소망과 전쟁을 좀 더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른 해석과 시점으로 포함하여 묘사되도록 하고 싶다는 소망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평화기념관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평화박물관에서는 어떻게 해서 전쟁의 트라우마적인 영향에 대해 시선을 맞추어 전쟁을 묘사할 것인가라는 논점에 주목하면서, 결국 전쟁의 역사는 동시에 트라우마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전후 일본의 경우를 생각할 때, 일본에서 ‘평화’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의문을 항상 느끼게 된다. 즉 일본에서 말하는 ‘헤이와[平和]’는 우리가 사용하는 평화(平和), 혹은 영어의 ‘peace’란 단어와 상통하는 것일까? 혹자는 일본의 ‘헤이와’는 이미 일반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전후 일본 사회에서 ‘평화’란 말이 가지는 의미는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뜻이었다. 1945년 패전을 맞이하며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일본 국민들은 한편으로 이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살게 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는 기록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즉 ‘전쟁이 없는 상태’로서의 ‘평화’가 패전 후 일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고, ‘헤이와’가 전후 최대의 유행어가 되었다는 것이다.

근대 일본에서 ‘평화’의 개념은 근대 문명국가라는 목표의 달성, 즉 선진 문명국가로서 강대국이 되었을 때, 질서체계가 완전히 잡힌 사회체계가 누릴 수 있는 ‘평화’의 개념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른바 대륙침략사상을 주창했던 ‘아시아주의자’들의 ‘동양평화론’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냉전체제 붕괴 이후에도 아시아에서 경제대국만이 아니라 정치 강대국의 역할을 하고 싶은 현재의 일본에 아직도 존재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후 일본 사회에서 나타난 ‘평화’ 개념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 이를 위해서 일본은 외국과의 교전권을 허용하지 않고, 더구나 이를 추진할 군대를 갖지 않겠다는

일본국 헌법 제9조로 상징되는 ‘평화’ 개념이다.

이것을 굳이 구분하자면 일본에는 현재 ‘전쟁을 긍정하는 평화’ 개념과 ‘전쟁을 부정하는 평화’가 공존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두 개념이 결국 일본의 전쟁기억에 대해서도 양대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일본의 평화기념관의 현상과 전시 현황에 대해서도 갈등 국면을 초래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현재 세계는 각국이 경험했던 전쟁의 트라우마가 서로 연결되면서 뒤섞이는 관계로 진전되고 있다. 그럼에도 열려 있는 과거를 향한 길을 찾으려는 평화기념관의 노력과 능력은 강한 정치적 압박과 재정적 환경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다. 또 그와 동시에 일본의 평화기념관에 대한 우익들의 공격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의 표상, 트라우마의 역사, 타자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지각(知覺), 우리 자신의 생존의 의미를 둘러싼 문제가 아직은 잠재되어 뿌리 깊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일본은 서구의 외압에 따라 서구 중심의 근대적 문명국가 만들기 과정에 편입되어 들어갔고, 서구를 모델로 한 근대국가 만들기의 목적을 서구 열강과 대오를 나란히 하는 ‘대국화’에 두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의 기본은 ‘부국강병화 정책’이었고, 이것이 결국은 일본이 서구 열강에게는 비굴하게 우호적이면서, 동아시아 근린국가에게는 고압적이고 침략주의적인 제국주의 정책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국가의 확대·발전 과정에서 미국·영국 등에 창끝을 돌린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참상을 겪었고 참담한 패전을 경험하였다. 근대 일본은 제국주의자로서의 가해자의 모습과 히로시마·나가사키·오키나와로 대표되는 전쟁 피해의 참상을 겪었던 국가, 공습의 공포심을 극한까지 경험했던 몇 안 되는 국가의 하나로서 피해자의 모습도 공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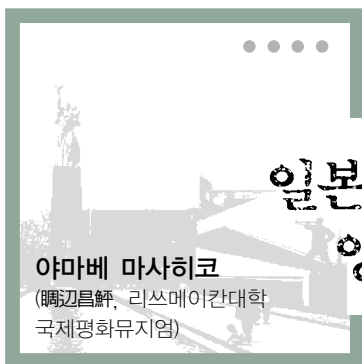
일본의 평화기념관의 전망은 이러한 전쟁에 대한 기억이 전쟁체험의 계승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일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방향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전쟁의 기억에서 중요한 것은 타자의 죽음과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행히 희생당하지 않고 살아 남은 자로서 죽은 자를 기념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또 후세에 태어나 과거의 아픈 기억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역사는 체험을 통해서 다시는 그러한 트라우마를 겪어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을 갖고 전쟁의 기억을 전승하고 평화를 실천해 나가려는 노력은 현재 우리들의 몫이다.

일본의 평화기념관 문제는 물론 일본 국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주변 국가인 한국이나 중국

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도 아시아·태평양전쟁의 비참한 체험, 동족상잔의 비극을 거쳐 최근 국제분쟁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체험을 하였다. 전쟁이 없는 평화, 전쟁을 부정하는 평화의 지향성이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방향성을 지향하기 위한 노력을 국내외를 막론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吉田裕(1994), 「平和博物館の今日的な意義」.
- 吉田裕(2007), 『アジア・太平洋戦争』, 岩波書店.
- 米谷ジュリア(2006), 「記憶装置としての博物館」, 『20世紀の中のアジア・太平洋戦争 岩波講座アジア・太平洋戦争 8』, 岩波書店.
- 山辺正彦(2005), 「日本の平和博物館はアジア・太平洋戦争をいかに展示しているのか」, 『立命館平和研究-立命館大学国際平和ミュージアム紀要』第6号.
- 山辺正彦(2006), 「戦後60年と歴史博物館・平和博物館の戦争展示」, 『季刊 戦争責任研究』第51号.
- 小山仁示(1998. 4), 「『ピースおおさか』をめぐる-平和資料館への右翼からの攻撃」, 『地方史研究』第227号.
- 岩波ブックス『戦争博物館』(1994. 1).
- 村上 司文(2003), 「平和博物館と軍事博物館の比較-比較社会的な考察」, 『広島平和科学』第25号.
- 인터넷신문 프레시안(2008. 10. 14), 「권혁태의 일본 읽기 (21), '평화'와 '헤이와'」.



야마베 마사히코
(岡辺昌輝, 리쓰메이칸대학
국제평화유지팀)

일본의 평화박물관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어떻게 전시하고 있는가

이 글에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을 다루고 있는 박물관을 들어 검토하는데, 아시아·태평양전쟁을 다루고 있는 박물관 전체가 아니라 평화의 시점에서 다루고 있는 박물관을 대상으로 한다. 부정적·비판적인 입장에서 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것이 평화박물관이다. 여기서는 평화 전문의 박물관뿐만 아니라 전쟁을 부정적·비판적으로 다루는 역사박물관도 언급하겠다. 따라서 야스쿠니신사의 유슈칸(遊就館)과 같이 반성 없이 아시아·태평양전쟁을 다루는 전쟁박물관은 거론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각지의 호국신사나 자위대의 박물관도 거론하지 않는다. 또 평화박물관이라도 아시아·태평양전쟁을 다루지 않는 것은 거론하지 않는다. 더욱이 평화를 위한 전쟁전(戰爭展)과 같이 박물관이 아닌 전시도 거론하지 않는다.



전쟁전시의 배경, 국민의 역사 인식과 일본 정부의 공식 태도

전후 일본에서는 전쟁의 비참함을 전함으로써 전쟁을 부정하고 평화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적 감정이 형성되었다. 거기서 전쟁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맹세가 이루어졌다. 동시에 전쟁이 군부의 독재로 수행되고 확대되었기 때문에 전쟁을 방지하는 의미에서도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는 생각이 정착되었다. 이것이 일본국 헌법의 민주주의,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의 확립이라는 기본 3원칙이 되어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무렵부터 전쟁 체험의 희박화에 따른 평화 의식의 약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근년 들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부모는 전쟁 체험이 없으나 조부모가 전쟁 체험이 있을 경우 아이들은 전쟁에 대해 많이 알게 된다. 가정에서는 전쟁 체험의 계승이 곤란해졌다. 그 때문에 학교 교육·사회 교육을 통해 전쟁의 비참함을 전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의미가 커지고 있지만, 전쟁 체험을 한 교사가 없다. 따라서 비참한 전쟁 체험을 계승하면서 역사 자료를 보존하고 조사하고 전시하는 박물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또 전쟁 체험의 희박화와 함께 전쟁 체험만이 아니라 어린이·여성의 체험을 포함하여 전쟁을 다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되고 있다. 전쟁 체험의 계승에는 가해·침략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위험성이 있다. 전쟁은 어린이를 포함해서 국민 생활에도 비참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어린이 역사 교육에서도 중요해졌다.

전후 역사학은 일본의 가해·침략 사실을 일관해서 밝혀 왔으며, 1980·1990년대가 되어 일본의 침략이나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반성하고 사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일본 사회 속에 정착되어 왔다.

1982년의 교과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도 변하기 시작한다. 1982년 8월 26일 ‘역사교과서에 대한 정부 견해-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관방장관 담화’에서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행위가 한국·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나라들의 국민에게 커다란 고통과 손해를 끼친 것을 깊이 자각하고 이러한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과 결의 위에 서서 평화 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고 하였다. 1980년대에 이미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는 침략 전쟁이라고 해도 된다, 침략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즉 1983년 2월 18일 나카소네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기시마[木島喜兵衛, 사회당 의원]의 “다시 묻지만 침략전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그렇다”라고 답변하였다. 또 1986년 9월 3일 나카소네 총리는 교도통신[共同通信] 가맹 사회편집국장 회의 강연에서 “나는 그 전쟁을 침략전쟁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침략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역사의 흐름에서 생각하면 역시 침략행위이며 반성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1990년대에는 총리가 침략전쟁에 대해서 명확히 반성하게 되었다. 1991년 5월 3일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총리는 심포지엄 정책연설에서 “나는 …… 많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람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안겨 준 우리나라의 행위를 엄중히 반성한다. …… 일본 국민 모두가 과거 우리나라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믿는다. 다음 대를 담당할 젊은이들이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중시해서 그 면에서의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1993년 9월 10일에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나 자신은 침략전쟁이었다,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는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오래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에 국책을 잘못하여 전쟁의 길을 걸어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리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통해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각국 사람들에게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는 미래에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의심할 바 없는 이 역사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마음으로부터 사과의 감정을 표명합니다. 또 이 역사가 초래한 내외의 모든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라고 하였다.

1998년 10월 8일 한일 수뇌 공동선언에서는 “양 수뇌는 한일 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기 위해서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 오부치[小淵] 총리는 금세기의 한일 관계를 회고하고 우리나라가 과거 한 시기 한국 국민에 대해 식민지 지배에 따른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의 역사 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것을 평가함과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넘어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기초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라는 취지를 표명했다. 또 양 수뇌는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견해를 공유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1998년 11월 26일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 파트너십의 구축에 관한 중일공동선언에서는 “쌍방은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일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한다. 일본 측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과 1995년 8월 15일 총리의 담화를 준수하고 과거 한 시기 중국에 대한 침략으로 중국 국민에게 다대한 재난과 손해를 끼친 책임을 통감하고 이에 대해 깊은 반성을 표명했다. 중국 측은 일본 측이 역사의 교훈에서 배우고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할 것을 희망한다. 쌍방은 이 기초 위에 오래도록 우호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

다. 그 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도 무라야마 총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우익이나 자유주의 사관에 따라 제3차 교과서 공격이 일어나고 정부의 사죄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이 공격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가해 문제를 드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주저하는 곳이 보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침략·가해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일본의 전쟁 목적을 공적으로 변호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15년 전쟁에서 침략이나 가해가 있었다고 하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정착함과 함께 일본에서도 전쟁책임·보상문제가 커다란 현재적 과제가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일본 독자의 전쟁 부정을 기초로 가해에 대한 반성·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해지고 있다. 일본의 박물관도 일본인의 피해를 전달하고, 전쟁을 통한 해결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알려 주는 것과 함께 일본의 가해나 전쟁책임을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며 필요해지고 있다. 전쟁의 피해를 전하는 것은 인권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중요해지고 있다.

II 일본에서의 전쟁전시의 역사

일본에서도 전쟁 전부터 자국의 전쟁을 찬미하거나 전사자를 찬미하여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고, 병사에게 군사 교육을 하기 위한 전쟁자료관을 군대나 지방 공공단체에서 만들었다. 이런 전쟁자료관의 많은 수가 15년 전쟁 말기에서 전후에 걸쳐 폐쇄되었다. 그 후 평화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전사자를 찬양하는 것 같은 전쟁자료관이 신사나 자위대, 개인을 통해 부활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 공개를 하지 않는 곳도 있으며,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근년 들어 일본의 전쟁을 당시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반성 없이 전시하는 박물관도 출현하고, 적극적인 주장을 하기도 되었다.

전후에는 오히려 원폭·오кина와전[沖繩戰]·공습 등의 자료관을 비롯하여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는 평화자료관을 지방자치체에서 만들고 그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1949년에는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廣島平和記念資料館]의 전신인 원폭자료전시실(原爆資料展示室)을

만들고, 1955년에는 나가사키 원폭자료관[長崎原爆資料館]의 전신인 나가사키 국제문화회관[長崎國際文化會館]과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이 개관했다. 또 1975년에는 오키나와전을 다룬 오키나와현립 평화기념자료관[沖縄縣立平和記念資料館]이 개관했다. 이들은 15년 전쟁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전쟁 피해를 입은 지역에 세워져 그 피해를 생생하게 전시함으로써 전쟁의 비참함을 전하는 커다란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15년 전쟁을 전면적으로 포착하여 전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원폭이나 오키나와전에 비해 공습과 관계된 박물관을 만드는 것은 늦어졌다. 1981년에 센다이시[仙台市] 전쟁부흥기념관[戰災復興記念館]이, 1988년에는 하마마츠 부흥기념관[浜松復興記念館]이 개관했다. 도쿄의 부흥기념관은 관동대지진 관계가 중심으로, 공습 관계의 전시도 있기는 하지만 단지 몇 가지 전시품을 늘어놓을 정도로 빈약하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는 베트남전쟁의 북폭 등 공습이 격렬해지는 중에 공습을 기록하는 시민과 지방자치체의 운동이 고조되었다. 이것은 자료집·체험기 등의 출판이 주된 사업이었다. 동시에 공습전(空襲展)을 열려는 노력이 주효하여 신문사 등의 주최로 공습전도 개최되었다. 1981년에 만든 오사카 국제평화센터의 전신인 오사카부 평화기념전쟁자료실[大阪府平和祈念戦争資料室]은 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고치[高知]에서는 1979년 이래 공습전을 개최하였는데, 그 성과로서 평화자료관 구사노이에[草の家]가 개인에 의해 만들어졌다. 도쿄에서는 평화박물관을 만드는 모임의 운동이 1983년에 개시되었고, 상설 전시는 없지만 기획 전시를 개최하는 미니 평화박물관을 만들고, 또 지방자치체에 평화박물관을 만들도록 설득해 왔다. 그러나 그 후 미니 평화박물관은 폐쇄되고 전시도 그만두었다. 또 도쿄 대공습을 기록하는 모임의 운동 성과와 협력으로 에도도쿄박물관[江戸東京博物館] 안에 공습 전시가 도입되고, 더욱이 독립된 관으로 도쿄도 평화기념관[東京都平和記念館, 가칭]도 만들게 되었지만 우익의 공격과 재정난으로 중단된 채로 있다.

본격적인 평화박물관 건설로 직접 연결되는 움직임은 1980년대에 일어난다. 1980년대에 기관지협회·노동조합·생협·평화우호운동단체·시민·교원 등의 평화를 위한 전쟁전 운동이 도쿄·오사카·교토 등에서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또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그것은 피해·가해, 반전·저항 등 전쟁을 종합적인 시점에서 전시하는, 시기를 제한한 모금을 위한 운동이었다. 거기서는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잡다하게 나열한 전시도 있었다. 오사카·교토·사이타마[埼玉]·신슈[信州] 등에서는 전시 도록을 발행하고 『난징사건경도사단관계자료집(南京事件京都 團關係資料集)』, 『전쟁을 발굴하다(戦争を發掘する)』, 『지금 평화입니까(いま平和ですか)』 등 자료 발굴이나 출

판으로도 성과를 올렸다.

이 전쟁전 운동은 1990년대에도 계속 이어졌고 아이치[愛知]와 같이 새롭게 시작한 지역도 있다. 교토·오사카에서는 전쟁전의 역사를 정리하여 『평화를 위한 교토의 전쟁전-14년간(14회)의 사진 기록[平和のための京都の戦争展-14年間(14回)の寫真記録』, 『전쟁전을 보았습니까[戦争展を觀ましたか』 등을 간행하였다.

전쟁전 운동 중에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설 박물관을 지향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교토 등에서 운동이 일어나고, 늦기는 했지만 나가사키·아이치 등에서도 일어났다. 이들 전시의 경험이 15년 전쟁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평화박물관을 만드는 자극제가 되고, 그 성과가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의 전쟁전의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그것과는 별개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역 역사박물관에서 특별전·기획전 등으로 15년 전쟁의 전시가 시도되었다. 비핵도시 선언 등이 행해지고 자치체에서 평화를 과제로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단지 일반적인 반핵만이 아니라 국지전쟁을 주시함으로써 평화를 생각한다는 관점에서 박물관의 특별전이 개최되었다. 거기서는 전쟁전과 같이 운동으로서가 아니라 박물관의 방침에 따라 생활사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전시되었다.

선구적인 것으로는 1975년에 있었던 홋카이도립 개척기념관[北海道立開拓記念館]의 특별전 1945년-그때 당신은[昭和20年-その時あなたは]이 있다. 전후 40년에 해당하는 1985년 무렵에는 1985~1989년까지 매년 개최된 도시마구립 향토자료관[豊島區立郷土資料館]에서의 전중전후구민생활전·학동소개전[戰中戰後區民生活展・學童疎開展]을 비롯하여 도쿄와 사이타마의 지역 박물관에서 15년 전쟁 관계의 특별전이 열렸다. 그중에서 도시마구립 향토자료관에서의 전중전후 구민생활전[戰中戰後區民生活展]에서는 전쟁 수행체제 속에서의 행정이나 죠카이[町會]·도나리구미[隣組] 등 행정 보조조직이 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에서의 반전운동이나 치안유지법에 따른 탄압을 보여주는 전시도 행해졌다. 이들 박물관의 전시 시도가 독립된 평화박물관을 건설하고 그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1990년대에도 지역박물관에서 15년 전쟁 관계의 특별전이 개최되었는데, 특히 전후 50년인 1995년에는 110개가 넘는 지역 역사박물관에서 전쟁과 전후 50년 관계의 특별전이 행해졌다. 지역 역사박물관의 전후 50년 관계의 기획전·특별전은 대부분이 전쟁의 비참함을 전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취지로 열렸다. 지역에 뿌리를 내려 지역사 연구와 연결시킨다든지, 자료 정리의 성과를 살린다든지, 사물과 연관된 이야기를 넣어서 자료를 심층적으로 표현한 전시도 보였다.

그와 함께 침략·가해는 물론 반전도 거론하는 등 넓은 시야를 가진 전시회도 있었다. 또 많은 박물관이 전시뿐만 아니라 도록·자료집도 간행했는데, 그것은 평화박물관의 결함을 넘은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성과는 학예원이 박물관에서 조사·연구 활동의 축적을 해 왔던 것이 큰 요인이다.

그 후에도 지역 역사박물관 중에는 전쟁 관계의 특별전을 매년 개최하거나 새롭게 전쟁 관계의 기획전을 개최한 곳도 있다. 전시회뿐만 아니라 조사·연구 활동이나 자료 수집·정리도 포함하여 지속적인 노력으로 성과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립이나 대규모 시립 역사박물관의 상설전에서 근현대 전시는 적었으나 그중에서도 전쟁전시는 비교적 많은 상황이었다.

이상과 같이 전쟁전이나 지역 역사박물관이 실천을 축적하다가 1990년대가 되어 본격적인 15년 전쟁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박물관이 개설되었다. 또 원폭이나 오키나와전 관계의 자료관이 개축되고 15년 전쟁 전체상을 다루는 종합적인 평화박물관이 되었다.

특히 이중에서도 오사카 국제평화센터(약칭 피스 오사카)는 '평화의 수도 오사카'의 실현을 지향하며, 교토의 리쓰메이칸대학[立命館大學] 국제평화뮤지엄은 대학이 설립했기 때문에 전국적 시야를 가지고 일본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가해의 시점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1990년대에 자국의 전쟁을 비판적인 시점에서 파악하는 전국적 규모·내용을 가진 평화박물관을 만드는 곳까지 생겼다.



평화박물관에 대한 공격의 영향

평화박물관이 전쟁을 종합적으로 포착하여 평화 교육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자 우익 세력은 위기를 느끼고 공립 평화박물관에 대해 공격을 시도했다. 중학교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의 삭제를 요구하고 새로운 교과서 만들기를 진행한 제3차 교과서 공격과 연동한 것이다.

공격의 발단은 1996년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의 개장 문제였다. 난징대학살 전시 사진의 진위를 들고 나왔지만 노린 것은 가해전시 자체의 철거였다. 원폭자료관은 난징대학살 등의 사진이나 설명을 바꾸었으나 가해전시 자체를 철거한 것은 아니었다. 1996년 9월 1일 나가사키의 원폭 전시

를 바로 세우는 시민의 모임이 『이래도 되는가,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을 간행했는데, 그 비판에서 원폭 용인의 자료관에서 핵무기 폐기를 세계에 발신하는 자료관으로 재생하라고 하고, ‘가해와 침략’의 자료관은 원폭 용인의 자료관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전시 감수자에 대한 사례금 지불에 관한 주민감독청구를 제기하였고 이것이 각하된 후 주민소송을 제기했으나, 1999년 3월 제1심 판결에서 소송은 기각되었다.

나가사키의 ‘성과’에 우익은 세를 몰아 공격을 전국화해 왔다. ‘시민운동’, 협박, 우파 저널리스트의 캠페인, 의회에서의 질문 등의 형태로 공격이 행해졌다. 공격은 오사카 국제평화센터에 집중하고 일본의 가해·침략이나 중국의 항일운동 전시의 철거를 요구했다. 의회의 압력을 배경으로 오사카부·오사카시의 보조금을 폐지하고 오사카 국제평화센터를 해체시키려는 공격으로 발전했다. 더욱이 오사카 국제평화센터에서 ‘프라이드’를 상영하고, 난징대학살을 부정하는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오사카 국제평화센터를 변질시키려고 교묘히 공격했다.

이런 공격에 대해 1998년 7월 26일 ‘〈피스 오사카〉와 전국의 평화박물관을 생각하는 심포지엄[「ピースおおさか」と全国の平和博物館を考えるシンポジウム]’이 개최되고 ‘피스 오사카’ 시민 네트워크가 결성되었다. 오사카 국제평화센터 등에 대한 우익의 공격에 대해서는 고야마 히토시[小山仁示]가 적극적으로 반론을 쓰고 있다. 고야마는 미군의 일본 본토에 대한 무차별 폭격이 비인도적이라는 것을 규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본의 지배층이 일으킨 침략전쟁의 결말이며 일본군의 중경(中慶)에 대한 무차별 폭격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람들에게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것이 자국민의 희생자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 때문에라도 일본인의 가해와 피해 체험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본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에 대한 공격이나 뒤에서 살펴볼 도쿄도 평화기념관[東京都平和祈念館]에 대한 공격에 대한 반론도 되고 있다.

우익의 공격은 개관한 평화박물관뿐만 아니라 평화박물관을 만들려는 곳으로도 확대되었으며, 그 내용을 축소시킨다든지 나아가 평화박물관을 못 만들게 하는 운동이 되어 갔다.

하나는 가나가와현립 지구시민 가나가와 플라자[神奈川県立地球市民かながわプラザ]에 대한 공격이다. 1997년 5월 15일 현의회의 현정조사회 경찰 협의회에서 지구시민 가나가와 플라자의 국제평화 전시실의 전시 개요가 공표되고, 일본군 위안부의 출신지와 위안소가 있었던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도 전시하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나라의 조사 결과에 기초한 것인데, 이것을 마쓰다 요시아키[松田良昭] 의원(자민당) 등 일부 의원이 자학적이라 비판하고, 우익의 가두선전 차량이

현청과 현지사 자택 주변에서 연일 항의 활동을 했다. 이에 따라 6월 20일 현은 일본군 위안부 지도 패널 전시의 중지를 결정하고 6월 24일 현의회에서 전시 계획을 대폭 재검토할 것을 발표했다. 전시 내용을 미래지향으로 하고 아시아에 국한하지 않으며 세계사적 시야로 한다고 했으며, 15년 전쟁을 전쟁의 세기로 바꾸고 황민화 정책·대동아공영권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998년 2월 1일 개관했는데, 일본 지배하의 아시아의 모습은 전쟁시대의 여성과 어린이로 바뀌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것은 전혀 없으며 침략이라는 표현도 없었다. 겨우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고 치유할 수 없는 견디기 어려운 체험에 지금도 괴로워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라는 정도로 표현되었으며, 노력 동원된 여학생, 방공호 내의 여성, 공습으로 도망치는 어린이 등의 전시가 되었다.

이 공격에 맞선 시민의 운동으로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요코하마 시민의 모임(歴史教育を考える横浜市民の會)’이 1997년 5월 결성되었다. 9월 23일에는 ‘〈지구시민 가나가와 플라자〉 문제를 생각하는 긴급시민집회(地球市民かながわプラザ問題を考える緊急市民集會)’를 개최하고 위안부 문제 전시의 부활을 요구하는 주장을 채택했으며, 동시에 회명을 ‘가나가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かながわ歴史教育を考える市民の會)’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10월 1일에는 현에, 6일에는 현의회 각 파에 각각 위안부 문제 전시의 부활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도쿄도평화기념관(가칭)의 전시 기본 계획에 대한 공격에 대해 살펴본다.

1997년 10월에 도지사 사적 자문기관에서 연구자·도의회 의원·공모 위원들이 만든 건물·건설이나 전시 내용을 검토해 온 건설위원회가 도쿄도평화기념관의 전시 기본 설계(안)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10월 도의회에서 민주당의 쓰치야 다카유키(土屋敬之) 의원이 반일 자료일 뿐만 아니라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했다. 그 후에도 도의회에서 공격이 계속되었다. 1998년 3월 도의회에서는 전시 내용은 의회의 합의를 얻어서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부대 결의를 첨부해서 관련 예산을 가결했는데, 그 심의에서 자민당의 다시로 히로시(田代博嗣) 의원은 군사도시 도쿄라는 표현은 자학적인 역사관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발언했다.

도의회 내에는 도쿄도평화기념관 구상을 비판하는 의원연맹이 ‘도쿄의 평화를 생각하는 모임(東京の平和を考える會)’을 만들고, 시민 레벨에서는 ‘도쿄의 평화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東京の平和を考える市民の會)’이 만들어졌다. 여기서는 도쿄도평화기념관을 짓혀 두고 위령비를 세우는 서명 운동 등이 추진되었다.

도쿄도평화기념관 비판의 캠페인은 ‘피스 오사카’ 공격과 엮어서 『산케이신문(産経新聞)』, 잡

지 등에서 행해졌으며 공격하는 책까지 간행되었다. 거기서는 도쿄도평화기념관 전시 기본 설계에 대해 군사도시 도쿄라는 것은 도쿄 대공습을 정당화하는 것이 되고,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가해만이 일방적으로 강조되며, 도쿄 대공습은 일본의 아시아 침략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한다고 비판하였다. 그와 함께 건설위원회, 특히 공모위원을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도쿄도평화기념관 건설 자체를 중지하라고 주장하기에 이르고 있다.

또 다카하시 시로[高橋史朗]는 역사교과서에 준거한 평화박물관의 전시 내용과 일본이 희생을 강요한 면을 드러내는 것을 비판하고, 특히 평화박물관을 만드는 모임에 대한 공격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권박물관인 리버티 오사카의 일본군 위안부 전시나 워크시트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다.

더욱이 1998년 2월 12일 오사카·도쿄·가나가와·나가사키의 의원 6명이 평화박물관 문제를 생각하는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자치체립 평화박물관의 자학 전시의 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일으켰다.

도쿄도평화기념관에 대한 비판에 대항하는 움직임으로서 1998년 3월 13일 ‘도쿄대공습희생자 추도, 도쿄도평화기념관(가칭) 건설을 함께 생각하는 모임[東京大空襲 犠牲者追悼, 東京都平和祈念館(假稱)建設を考えるつどい]’이 열렸다. 6월 12일 ‘도쿄도평화기념관(가칭) 건설을 함께 생각하는 모임[東京都平和祈念館(假稱)建設をともに考える會]’이 발족되고, 9월 2일에는 ‘도쿄도평화기념관(가칭) 건설을 생각하는 모임’이 개최되어 주장을 채택했다.

7월 15일, 건설위원회는 지사에게 보고했는데, 전시계획안은 종래의 안과 함께 평화를 위협하는 오늘날의 문제에 핵무기를 넣는 것과, 당시의 항일운동이나 아시아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한 면을 아시아·태평양으로 확산된 전쟁을 이해한다는 것의 두 가지 안을 병기하는 형태였다. 그 후 도쿄도는 건설위원회의 보고를 공표하고 널리 도민의 의견을 구했다.

여기에 대응하여 역사교육자협의회·역사학연구회·도쿄역사과학연구회 등 역사학 관계 학회에서도 의견을 내었다. 이런 중에 기본 구상의 이념을 견지하고 일본이 아시아에 희생을 강요한 측면의 전시를 할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학예원의 배치나 학회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 등을 요망하였다. 그러나 그 후 건설 계획은 재정난을 이유로 동결되었다.

또 오키나와현 평화자료관의 신관 건설에도 공격이 가해졌다. 이것은 일본군의 주민에 대한 가해를 묘사한 것에 대한 지사의 공격이었다. 1999년 3월 23일 지사는 “반일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였고, 6월에는 현이 전시의 재검토를 시작하는 와중에 가마(전쟁 때 피난했던 동굴-역주)의 일본병의 총이 없어졌다. 가마의 일본병의 총이 없어진 것이 8월 11일 보도되자 현민·현 내의

저널리즘이 반격에 나섰다. 8월 26일 현은 일본병의 충을 원래대로 돌려놓는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해서 현의 공격을 철회시키고 당초 계획대로 만들어 개관했다. 더욱이 시민이 만드는 평화박물관에서도 공격이 두려워서 가해에는 손대지 않는 곳도 생겼다.

이런 공격은 사진이나 영상 자료의 부적절한 이용·오용을 치고 들어온 것이다. 전시업자에게 맡기거나 평화박물관의 연구 역량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과학적이고 연구가 뒷받침된 전시가 필요하다. 공격에 대해 평화박물관은 전쟁의 비참함을 전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설립 이념을 지키고, 전쟁을 종합적으로 전하는 상설 전시의 취지에 따라 전시 갱신을 했다. 그러나 집요한 공격으로 적극적인 사업 전개를 스스로 규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결국 공격에 대한 대처 방식은 지역 주민의 의식이나 운동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IV

박물관의 전쟁전시 등의 양상에 대하여

전쟁전시에서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사실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물관 전시의 경우 유물·유품·피재품(被災品) 등 실물자료를 통해서 전쟁 체험을 전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에 따라 사진집이나 책, 비디오·영화 등의 영상으로는 불가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실물자료의 박력·무게에 따라 전쟁 당시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현실감·절실한 느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다. 피재품 등은 전쟁의 피해를 실감하게 한다. 그러나 실물자료만으로는 이야기를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체험 등 실물자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전시하면 보다 심층적인 전시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실물자료 수집 단계에서 조사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여기서도 전시를 위한 조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 문헌자료도 실물자료이며 이것을 읽게 하는 전시도 유효하다. 나아가 증언도 전시자료가 된다.

전시는 물론 실물전시가 중심이지만 사진·영상·모형 등도 실물자료의 보충으로 필요하다. 젊은 사람이 받아들이기 쉬운 수단으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진이나 영상물은 실물자료 이상으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은 작위나 조작이 가해지거나 많은 경우 잘못된 설명이 붙어서 유포되기 때문이다. 모형이나 체험적인 전시에 대해서도 역시 확실한 조사결과에 기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쟁전시에서는 전쟁의 잔혹함·두려움을 실감하게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또한 전쟁을 선동한다든지 전쟁에 사람을 앞세운다든지 전쟁을 멋지다고 생각하게 하는 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시하는 것 자체가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이기 쉬우며, 의도하지 않더라도 전쟁 찬미로 파악될 위험이 전쟁전시에는 있다. 비판 없이 단지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전쟁이나 침략의 긍정이 된다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전쟁을 선동하지 않기 위해 제동이 필요한데, 병기나 무기를 나열해서 그 성능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전시를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전쟁의 잔혹함·두려움은 전쟁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사람의 살상과 사물의 파괴가 중심이다. 전쟁에서 인간이 살상이나 비인간적인 행위를 함과 동시에 그것을 정당화함으로써 인간을 미치게 하고 인간의 존엄을 빼앗는다는 두려움도 생긴다. 나아가 전쟁 수행 체제나 파시즘의 전제지배의 공포도 있다. 거기서 천황을 위해 국가를 위해 일원화되고, 생각을 못하게 하며,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인권은 없고 생활의 모든 것이 전쟁에 바쳐지게 되었다. 교육이나 매스미디어·문화도 전쟁을 선동하고 사람을 전쟁에 앞장세웠다. 그리고 생명을 빼앗겼다. 이러한 전쟁의 두려움을 전시해서 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침략전쟁과 전제지배의 반성의 결과 만들어진 일본국 헌법의 원칙적 입장이 된 전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의 피해를 전시로 전하는 것은 그럼으로써 피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 비난한다든지 복수를 다짐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 오히려 피해를 초래하는 전쟁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물론 일본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에 끼친 피해도 전시하고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쟁의 잔혹함을 전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만을 강조해서는 역의 폐해가 있다. 특히 전쟁의 잔혹한 장면 사진을 전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역반응을 낳고, 전쟁을 본질적·이성적으로 이해하거나 전쟁 부정을 심화하는 데 역효과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도 전쟁 중의 일본의 침략전쟁에 반대한 일본인이나 아시아인들의 반전이나 평화에 대한 노력을 전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현재도 남아 있는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해서도 전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전쟁전시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하며, 제기를 받아들여 생각하도록 무엇을, 어떻게 전시하고 전시하지 않을 것인지 등 전시 방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는 어디까지나 전시를 보는 쪽의 문제이며, 강제할 수는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연구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은 행동제기의 장까지 진행해서는 안 된다.

전쟁전시의 경우 상설전이 보다 중요하지만 테마를 압축해서 심화한 특별전 개최도 필요하다. 조사·연구는 박물관의 기초적인 기능이며, 거기까지의 연구 성과를 충분히 흡수하는 것과 함께 독자적으로 지역사 연구나 실물자료군·사진·영상자료의 연구를 진행하여 그 성과를 기초로 한 전시를 할 필요가 있다. 또 연구 성과를 전시나 도록으로 발표할 뿐만 아니라 조사보고서·논문·저서·자료집 등의 형태로 발표하는 것도 박물관의 중요한 일이다. 거기에는 증언을 모은 영상자료나 활자자료로 남기고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더욱이 연구회나 강연회·심포지엄 등의 개최도 중요하다. 영화회, 강좌, 전쟁 체험자의 이야기를 듣는 모임, 지역의 전쟁유적 답사 등도 필요한 사업이다. 박물관에는 친구모임이 만들어지고, 적극적으로 열심인 사람들이 결집하고, 자주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하거나 전시 가이드 등으로 박물관에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박물관으로서도 친구모임에 원조하는 것이 과제이다. 이렇게 조사연구를 기초로 전시와 함께 교육보급 활동도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전쟁관계 자료나 서적을 수집·정리·보존하는 것과 함께 책자나 시디롬 등의 목록을 간행하고 인터넷에서도 공개하며, 연구·학습을 위한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박물관의 기능을 해 가면서 자료정리는 물론 조사연구 기능을 담당하며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학예원을 배치하고, 그 직능이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박물관끼리 연계·연대를 강화하고 박물관의 발전을 위해 서로 돕는 것도 필요하다.

V 평화박물관·역사박물관의 전쟁전시 등의 현상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취급하는 평화박물관으로는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 오사카 국제평화센터, 가와사키시 평화관, 사이타마현 평화자료관, 가나가와현립 지구시민 가나가와플라자, 사카이[堺]시립 평화와 인권자료관(피닉스 뮤지엄), 스이타[吹田]시 평화기념자료관, 히메지[姫路]시 평화자료관, 후쿠야마[福山]시 인권평화자료관, 다카마쓰[高松]시 시민문화센터 평화기념실, 세타가야 평화자료관, 우스이[井] 평화기념자료관, 사이키[佐伯]시 평화기념관 야와라기, 센다이[仙台]시 전재부흥기념관, 하마마쓰 부흥기념관, 고베시 전재기념자료실, 아오모리[青森] 공습자료상설전시실, 기후[岐阜]시 평화자료실, 나가오카[長岡] 전

재자료관, 니시미야[西宮]시 평화자료관,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 리쓰메이칸대학 국제평화뮤지엄, 시즈오카[静岡] 평화자료센터, 오카 마사하루[岡まさはる] 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 슈마리나이[朱鞠内] 대나무묘표전시관[笹の墓標展示館], 구사노이에[草の家] 병사·서민의 전쟁자료관[兵士・庶民の戦争資料館], ‘소수민의 방[少數民の部屋]’ 자료관, 태평양전사관[太平洋戦史館], 평화문화자료관 유키노시타, 도쿄대공습·전재자료센터 등이 있다.

역사박물관 중에서 홋카이도 개척기념관, 센다이시 역사민속자료관, 에도도쿄박물관, 히라쓰카[平塚]시 박물관, 이시카와[石川]현립 역사박물관, 누마즈[沼津]시 메이지자료관, 나고야[名古屋]시 박물관, 하에바루[南風原] 문화센터 등은 상설전으로 전쟁전시가 충실하다.

역사박물관 중에서 계속적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 관계의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는 곳은 와라비[蕨]시립 역사민속자료관, 도시마구립 향토자료관, 홋사[福生]시 향토자료관, 릿토[栗東] 역사민속박물관, 미노오[箕面]시립 향토자료관 등이 있다. 평화박물관인 사이타마현 평화자료관, 시즈오카 평화자료센터, 오사카 국제평화센터, 히메지시 평화자료관,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 등에서도 아시아·태평양전쟁 관계의 특별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사이타마현 평화자료관, 와라비시립 역사민속자료관, 도시마구립 향토자료관, 시즈오카 평화자료센터, 릿토 역사민속박물관,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에서는 도록 등을 간행하고 있다.

박물관이 전쟁에 대해 어떤 시도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물론 박물관이나 학예원이 어떠한 주제적인 시도를 하는가, 특히 어떤 지역사 연구를 하며 그것을 전시나 논문·보고서 등에 정리해 가는지에 따르지만, 한편으로 지역 주민의 역사인식 등 지역 상황에 규정되는데, 특히 가해전시 등이 그렇다. 여기서는 특징적인 시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겠다.

도나리구미[隣組]·배급·대용품 등 통제된 전시하의 생활이나 공습·피난 등에 대해서는 전쟁전시를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다. 군수공장이나 비행장 등 군 주둔지가 있던 군사도시였다는 시점은 홋사시 향토자료실, 히라쓰카시 박물관, 가카미가하라[各務原]시 역사민속자료관, 누마즈시 메이지자료관, 히로시마시 향토자료관,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등이 있다. 일본 공습에 관한 미국 자료의 조사를 전시에 살리고 있는 박물관으로는 히라쓰카시 박물관, 시즈오카 평화자료센터, 오사카 국제평화센터, 와카야마[和歌山]시립 박물관, 다카마시 시민문화센터 평화기념실 등이 있다. 대용품에 대한 조사나 전시는 세토[瀬戸]시 역사민속자료관, 기후현 도자자료관, 미즈나미[瑞浪] 도자자료관, 와라비시립 역사민속자료관, 나고야시 박물관, 후쿠시마

현립 박물관 등에서 하고 있다. 학동 피난에 대해서는 도쿄의 구립 박물관, 에도도쿄박물관, 릿토 역사민속박물관 등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도시마구립 향토박물관에서는 수집한 서적이나 공문서 등 관계 문헌자료를 읽게 하는 전시를 하는 동시에 전부에 대해 영인을 진행하고 있다.

원폭이나 공습체험 그림은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오사가 국제평화센터, 시즈오카 평화자료센터, 스미다 향토문화자료관 등에서 전시하고 있다. 증언 전시는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가해를 종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곳은 오사가 국제평화센터, 사가이시 평화와 인권자료관,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과 리쓰메이칸대학 국제평화뮤지엄 등이다. 그 외에 홋카이도 개척기념관, 시즈오카 평화자료센터 등에서는 향토 부대의 가해를 들고 있다. 전장에서서의 가해는 사이타마현 평화자료관, 스와(諏訪)시 박물관, 도쿠시마(徳島)현립 박물관 등에서도 전시하고 있다. 니가타(新潟)시 역사박물관, 히로시마시 향토자료관에서는 군대가 출발하는 항구 역할을 전시하고 있다. 점령지로의 개척단 등의 이민 문제를 든 박물관으로는 홋카이도 개척기념관, 센다이시 역사민속자료관, 사이타마현 평화자료관, 가나가와현립 지구시민 가나가와플라자, 니가타시 역사박물관, 이시카와현립 역사박물관, 나가노현립 역사관, 스와시 박물관, 누마즈시 메이지자료관, 오사가 인권박물관, 스이타시 평화기념자료관,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 등이 있다. 홋카이도 개척기념관, 도시마구립 향토자료관, 시즈오카 평화자료센터 등에서는 일본군의 중국 도시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전시하고 있다. 일본군이 중국에서 뿌린 전단이나 포스터 등을 전시하고 있는 곳은 홋카이도 개척기념관, 이시카와현립 역사박물관, 누마즈시 메이지자료관 등이다. 조선인·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을 들고 있는 것은 홋카이도 개척기념관, 슈마리나이 대나무묘표전시관, 이와테(岩手)현립 박물관, 히라쓰카시 박물관, 나가노현립 역사관, 스와시 박물관, 가카미가하라시 역사민속자료관, 시즈오카 평화자료센터, 누마즈시 메이지자료관, 오사가 인권박물관, 사가이시립 평화와 인권자료관, 스이타시 평화기념자료관, 와카야마시립 박물관, 다카마쓰시 시민문화센터 평화기념실 등이다. 와카야마시립 박물관은 아편재배나 생화학병기에 대해 전시했다. 오사가 인권박물관에서는 식민지 지배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전시하고 있다.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 가나가와현립 지구시민 가나가와플라자 등에서는 식민지·점령지의 황민화 정책을 전시하고 있다. 가나가와현립 지구시민 가나가와플라자에서는 싱가포르에서의 중국인 처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지역이나 지역출신자의 반전운동에 대해서는 홋카이도 개척기념관, 센다이시 역사민속자료

관, 도시마구립 향토자료관, 이시카와현립 역사박물관, 기후시 평화자료실, 리쓰메이칸대학 국제 평화뮤지엄 등에서 전시하고 있다. 오사카 국제평화센터, 리쓰메이칸대학 국제평화뮤지엄, 가나와현립 지구시민 가나가와플라자 등에서는 아시아의 항일운동에 대해서 전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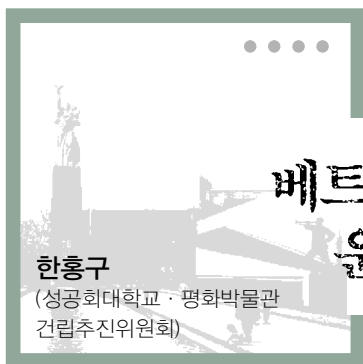
센다이시 역사민속자료관에서는 지역의 연구단체와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그 성과를 전시나 보고서 등으로 발표하고 있다. 히라쓰카시 박물관에서는 주민단체인 ‘히라쓰카의 공습과 전재를 기록하는 모임[平塚の空襲と戦災を記録する會]’과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그 성과를 전시나 보고서 등으로 발표하고 있다. 무쓰자와[睦澤] 역사민속자료관은 주민을 대상으로 밀도 높은 조사를 하고 주민의 전쟁 체험을 엄밀하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으며, 그중에는 포로학살 등의 증언도 포함되어 있다. 가카미가하라시 역사민속자료관에서는 시민의 전시 체험 기록을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3권의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사이타마현 평화자료관 등에서는 피폭 체험이나 전쟁 체험 증언의 영상화를 진행하고 있다. 사이타마현 평화자료관, 스이타시 평화기념자료실, 오사카 국제평화센터 등에서는 영화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이타마현 평화자료관, 도시마구립 향토자료관, 오사카 국제평화센터 등에서는 전쟁 체험자의 이야기를 듣는 모임이나 전쟁관계의 유적 탐방을 개최하고 있다. 오사카 국제평화센터에서는 평화를 생각하는 연속 세미나와 종전·개전·오사카 공습의 날에 평화기념(平和祈念) 사업을 개최하고 있다. 도시마구립 향토자료관, 이시카와현립 역사박물관, 가카미가하라시 역사민속자료관, 나고야시 박물관, 리쓰메이칸대학 국제평화뮤지엄, 오사카 국제평화센터,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등에서는 자료 목록을 간행하거나 인터넷 등에서 공개하고 있다.

참고문헌

- 鎌田定夫(1996.12), 「長崎原爆資料館の加害展示問題」, 『季刊・戦争責任研究』14號.
- 高嶋伸欣(1997. 3), 「近現代史教育〈改〉運動の問題点」, 『季刊・戦争責任研究』15號.
- 久慈千里(1996. 6), 「埼玉縣内の地域博物館・資料館における戦後50年關係展示」, 『埼玉地方史』35號.
- 吉田功(1998. 5), 「〈15年戦争のレポート〉と歴史認識」, 『歴史科學』153號.
- 名古屋歴史科學研究會研究委員會(1995. 12), 「95年夏・戦争展レポート」, 『歴史の理論と教育』93號.
- 武内善信(1996. 12), 「地域博物館における戦争展の課題と問題点」, 『歴史科學』147號.
- 山辺昌彦(1992. 6), 「平和博物館のあり方について—大阪國際平和センターについて」, 『歴史科學』129號.

- 山辺昌彦(1994. 10), 「平和博物館の現状と課題」, 『歴史學研究』664號.
- 山辺昌彦(1995. 4), 「日本の平和博物館の到達点と果たすべき課題」, 『平和博物館・戦争資料館ガイドブック』.
- 山辺昌彦(1995. 9), 「戦争資料の収集・保存・公開と戦争博物館」, 『記録と史料』6號.
- 山辺昌彦(1996), 「地域に根ざす平和のための戦争展示」, 『歴史評論』8月號.
- 山辺昌彦(1996. 12), 「地域の歴史博物館における戦後50年關係の特別展・企画展の概観」, 『歴史科學』147號.
- 山辺昌彦(1998), 「立命館大學國際平和ミュージアムと來館者の反應について」, 『月刊社會教育』8月號.
- 山辺昌彦(1998. 7), 「平和博物館の侵略・加害展示に對する攻撃」, 『南京事件をどうみるか』.
- 山辺昌彦(1999. 8), 「平和博物館の課題」, 『歴史教育・社會科教育年報1998』.
- 山辺昌彦(1999. 12), 「第3回世界平和博物館會議について」, 『博物館問題研究』26號.
- 山辺昌彦(2000. 7), 「日本の平和博物館の到達点と課題」, 『新版・平和博物館・戦争資料館ガイドブック』.
- 西田勝・平和研究室(1995. 8), 『世界の平和博物館』.
- 船越幹央(1995. 12), 「展示批評：戦後50年・戦争展を見て」, 『地方史研究』258號.
- 『世界の戦争と平和博物館』(1995. 4).
- 小山仁示(1998. 2), 「本土空襲は侵略の結果である」, 『歴史と神戸』206號.
- 小山仁示(1998. 4), 「〈ピースおおさか〉問題－最近の経過について」, 『ヒストリア』159號.
- 小山仁示(1998. 4), 「〈ピースおおさか〉をめぐる一平和資料館への右翼からの攻撃」, 『地方史研究』272號.
- 小山仁示(1998. 6), 「大阪大空襲について－戦略爆撃・無差別爆撃」, 『季刊・戦争責任研究』20號.
- 岩波ブックレット『戦争博物館』(1994. 1).
- 有元修一(1998. 3), 「戦後50年にみる平和博物館の動向」, 『八潮市史研究』19號.
- 伊藤暢直(1996. 9), 「戦後50年企画展を振り返って－地域史の視点から」, 『首都圏形成史研究会會報』4號.
- 伊藤暢直(1998. 7), 「地域博物館と戦争展示」, 『アーキビスト』44號.
- 田中伸向(1997. 12), 「『戦争の記憶』その隠蔽の構造－國立戦争メモリアルを通して」.
- 第3回世界平和博物館會議組織委員會(1999. 3), 「平和をどう展示するか」.
- 酒井みな, 「行ってみよう平和・戦争博物館」, 『毎日新聞』1996. 1～1999. 3 連載.
- 青木哲夫(1998. 5), 「歴史認識と博物館」, 『歴史科學』153號.
- 「特集・終戦50年と博物館事業」, 『ミュージアム多摩』(1996. 2) 17號.
- 平和博物館を作る會(1994. 4), 「平和博物館を考える」.
- 布川庸子(1997. 12), 「立命館大學國際平和ミュージアムのガイド」, 『平和教育』53號.
- 戸田恭司氏(1996. 3), 「博物館 設における「戦後50年」に関わる企画の調査」, 『釧路市立博物館紀要』20輯.

※ 출전: 『立命館平和研究－立命館大學平和ミュージアム紀要』제6호, 2005. 원제는 「日本の平和博物館はアジア・太平洋戦争をいかに展示しているか」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운동에서 평화박물관까지

한흥구

(성공회대학교 ·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I

‘미안해요, 베트남’

1999년 9월 2일자 『한겨레21』(273호)은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의 학살 의혹을 보도했다. 이 기사는 같은 해 5월 6일자(256호)에서 민간인 학살 문제를 간단히 언급한 것을 이어받아 본격적인 취재를 통해 작성된 것이다. 같은 달 9월 29일 AP통신은 한국전쟁 당시 충청북도 영동군 노근리에서 한국 피난민 수백 명이 미군에게 학살되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다. 단 한번도 남을 침략해 본 적이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이 베트남의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사실이나, 한국전쟁 당시 위기에 빠진 우리를 구해 준 고마운 우방으로만 여겼던 미국의 군대가 한국민을 상대로 총을 겨누었다는 사실은 평균적인 한국인들의 상식을 뒤흔들어 놓는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었다.

노근리 사건에서 한국인이 피해자였고, 베트남에서는 한국인들이 가해자가 되었다. 한국인들이 맡은 역할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두 사건은 너무나 다른 사건이었다. 그러나 한 발 떨어져서 사건의 본질을 살펴본다면, 두 사건 모두 ‘동맹군’이라는 이름의 군대가 주둔국의 비무장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불행한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시간적 거리는 겨우 16~17년, 그렇게 길다고만은 할 수 없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우리의 배역만 달라졌을 뿐이다.

베트남에서의 한국인의 민간인 학살은 당시에 40세를 넘은 세대들에게는 사실 처음 듣는 이야

기라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당시 우리는 동네 이발소에서, 교회에서, 목욕탕에서, 중국집에서, 교련시간에, 군대에서, 예비군 교육장에서 한국군이 너무나 용감하기 때문에 베트남들은 감히 한국군의 털끝이라도 건드릴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 만약 우리 편에 사상자가 나기라도 한다면 반드시 쫓아가 인근 마을까지 불태워버리기에 베트남들은 한국군을 피해 간다는 것이었다. 이런 그럴싸한 무용담으로 포장된 한국군의 보복전술에 대한 이야기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민간인 학살의 이야기였다.

미국에서 한국전쟁은 흔히 잊혀진 전쟁(the forgotten war)이라 불린다. 한국에서 잊혀진 전쟁이란 베트남전쟁이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격동의 세월을 정신없이 달려온 한국 사회는 갑자기 베트남전쟁이라는 잊혀진 전쟁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들과 고통스럽게 대면해야 했다. 『한겨레21』 독자들은 이 끔찍한 보도를 외면하지 않았다. 몰랐었다면 모를까, 알고서 외면한다는 것은 ‘증언을 들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었고, 잡지사가 판을 벌여서도 아니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독자들은 저금통을 보내고, 성금을 보내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과 상처가 우리의 성금 몇 푼으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한겨레21』은 독자들의 이런 반응에 자극을 받아 후속보도를 시작했고, 이 후속보도는 1~2회에 그치지 않고 꼬박 1년이 넘게 계속되었다.

이미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이후, 베트남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 온 몇몇 시민단체는 『한겨레21』 보도 이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와 우리’는 민간인 학살 피해지역에 대한 현지답사를, ‘베트남을 생각하는 작가회의’는 베트남 작가들과의 교류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민간인 학살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진료단을 파견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국제민주연대는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사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과엽서쓰기 거리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이 민감한 주제를 갖고 몇몇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1999년 12월 10일, ‘나와 우리’,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함께 가는 사람들’로 구성된 베트남 연대는 ‘세계 인권선언’ 51주년을 기념하여 ‘베트남에도 노근리가 있다 - 베트남전 당시 과월 한국군의 양민학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0년 1월 초 국제민주연대는 좀 더 지속적인 진상 규명과 사과 촉구 활동을 위해 베트남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회단체와 개인들의 연대를 모색하며 사회단체 간담회를 제안하였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나와 우리’, ‘나눔의 집’, ‘천주교인권위원회’, ‘함께하는 사람들’, ‘인권실천시민연대’ 등의 단체와 조용환 변호사 등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인사 몇몇이 한자리에 모였고, 그 자리에서 베트남전 양민학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구성이 논의되었다. 이후 ‘베트남을 생각하는 작가회의’, ‘부산 청년정보센터’, ‘마산희망연대’, ‘민족음악인협의회’ 등이 추가로 진실위원회에 결합했다. 진실위원회의 사무국은 당시 간담회를 제안했던 국제민주연대가 맡기로 하였고, 집행위원은 각 단체의 베트남사업 집행실무자 또는 사업책임자가 맡기로 결의하였으며 연구와 실무집행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베트남전 양민학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의 대표로는 이해동 목사와 강정구 교수가 선임되었고, 집행위원장으로는 국제민주연대의 차미경 사무국장과 ‘나눔의 집’의 혜진 스님이 선임되었다. 베트남전 양민학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2000년 4월 28일 명칭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로 변경하였다.¹⁾ 진실위원회는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국가 차원의 베트남 민중들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2000년 여름에는 문화제를, 9월에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준비에 착수했으며, 그 일환으로 기사자료집²⁾을 간행하였다.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보도는 한국 사회 전체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당혹스러워 했던 집단은 당연히 참전 군인들이었다. 한국군은 연인원 32만 명이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최일선에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나게 되는 수색섬멸작전에 참가한 병사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반공주의, 국가주의가 강력했던 한국에서 많은 참전 군인에게 베트남 참전이라는 사실은 남들이 높이 평가해 주지 않아서 그렇지 개개인들에게는 자부심의 원천이었다. 그런데 『한겨레21』의 보도가 있는 후 다수의 언론매체와 방송 프로그램이 민간인 학살을 떠들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아들딸이 “아빠도 그랬어?”라고 물어보기 시작했다. 더구나 이 무렵은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이 고엽제 피해를 호소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던 무렵이었다. 참전 군인들로서는 피해자로서의 상처와 고통을 호소해야 하는 마당에 갑자기 학살의 가해자라는 감당하기 힘든 부정적인 그림자가 드리운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참전 군인들은 강력히 대응하기 시작했다. 2000년 6월 27일 약 4,000여 명의 성년 참전 군인들은 최초로, 그리고 끈질기게 민간인 학살에 대해 보도해 온 한겨레신문사를 습격하였다.³⁾ 베트남전



- 1) 이름을 바꾼 이유는 ‘양민’과 ‘불량민’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학살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또한 군측 입장에서 ‘불량’한 사람인 ‘통비분자’라 하더라도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용납될 수 없다.
- 2) 베트남전양민학살진상규명대책위원회(2000),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
- 3) 『베트남전 공포 체험! - 고엽제전우회원들의 난동, 한겨레신문사 습격사건의 전말』, 『한겨레21』(2000. 07. 13),

진실위원회가 준비한 평화문화제 ‘사이공, 그날의 노래’는 2000년 7월 6일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에서 1,400명의 관객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는데, 이 행사에도 일부 참전군인들이 와서 위력시위를 벌였지만, 6월 27일 한겨레신문사 습격사건의 여파로 참전군인단체 간부들이 다수 사법처리 대상이 되었던 까닭에 심각한 폭력행사는 벌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런 일련의 사태는 진실위원회로 하여금 참전군인들이 민간인 학살의 가해자일 수도 있지만, 젊은 나이에 전쟁에 휩쓸려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문화제에서 발표된 노래들은 2001년 1월 ‘미안해요, 베트남’이라는 타이틀의 CD로 제작되었다.

2000년 상반기에 베트남전 진실위원회의 활동은 평화문화제에 집중되다보니, 일부 방송프로그램에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를 집중조명해 준 것을 제외하고는 진상규명작업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진실위원회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던 베트남전 문서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관련 사진과 문서자료를 입수하여 2000년 11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⁴⁾ 피해자 측인 베트남의 문서와 증언만이 아니라 미군의 문서를 통해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의 일단이 공개된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민간인 학살 문제를 공론화하는 과정은 평탄한 것이 아니었다. 진실위원회는 2000년 10월 13일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루는 학술토론회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가질 예정이었으나 행사 당일에 참전군인들의 행사장 점거로 심포지엄은 무산되었다. 이에 진실위원회는 베트남전 당시 주월한국군 사령관이었던 채명신 장군을 만나 참전군인 측과 진실위원회가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하여 공동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하였다. 그 결과 2000년 12월 15일에는 베트남전 진실위원회와 참전군인 측을 대표한 한국군사학회의 공동주최로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 - 그 빛과 그림자’라는 합동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합동토론회에서 양자 간의 입장 차이는 전혀 좁혀지지 않은 채 팽팽한 대립만이 확인되었다.

전쟁기념관이 우뚝 서 있는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전쟁에서의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하여 베트남 사람들에게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노근리 사건 등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피해자였을 뿐이었다. 전쟁이 우리에게 남기



제316호.

4) 「베트남전 미국비밀보고서 최초공개」, 『한겨레21』(2000. 11. 15), 제334호.

고 간 상처를 한번도 제대로 치료해 본 적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려는 우리의 손길은 어색하기만 했다. 여느 때처럼 전쟁은 늘 정당화되었다. 베트남 파병에 대한, 그리고 학살에 대한 성찰이 시작되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은 ‘반공십자군’이었고, 자유우방에 대한 보은이었고, 국위선양이었고, 베트남 특수를 통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인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다는 주장이 울려 퍼졌다. 때로 베트남전 진실위원회는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를 부러워하였다.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관련 운동의 경우, 피해자의 절절한 목소리가 바로 운동의 동력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베트남전 진실위원회의 경우 ‘가해자’는 너무 가까이에, ‘피해자’는 너무 먼 곳에 있었다.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를 놓고 본다면 아직 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폭은 넓지 못하였다.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 중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진실규명과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활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체험에 대하여 한 증언을 듣고, 험난한 진실규명과 사죄추구활동에 나선 것이다. 반면,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은 베트남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한국에 대하여 진실규명, 사죄, 배상을 요구하기 전에 한국에서 먼저 자기 반성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국제법정까지 열었던 일본의 ‘군위안부’ 운동과 비교한다면, 책임자 처벌 문제에 대하여는 침묵해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II

베트남에 평화역사기념관을

1.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성금

2000년 6월, 베트남전 진실위원회는 뜻밖의 기부금을 받게 되었다. 일본군 ‘위안부’로 중국에 끌려가 홀로 남겨졌다가 뒤늦게 ‘발견’되어 귀국한 문명금 할머니가 정부 지원금과 시민단체가 정착금으로 지급한 전 재산 4,300만 원을 진실위원회에 기탁한 것이다. 처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 관계자가 귀국한 문명금 할머니께 이 돈을 드리자, 할머니 당신은 ‘나눔의 집’에서 먹여 주고 재워 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 주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다며 한사코 이 돈 받기를 거부하였다고 한다. 긴 실랑이 끝에 할머니는 “이 돈을 좋은 데 쓰라”고 내놓았고, 주변에서는 “좋은 일에 돈 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 보았더니 할머니는 “기왕이면 전쟁 피해자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문제를 갖고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주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더니 “아, 그거 너무 좋다”고 하여서 사연 많은 돈이 진실위원회에 건네지게 된 것이다. 문명금 할머니의 전 재산 기탁에 이어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인 김옥주 할머니의 유산 정리과정에서 2,700만 원이 진실위원회에 추가로 기탁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는 온몸으로 전쟁의 참혹함을 겪은 분들이다. 그런 할머니들이 전쟁의 다른 피해자들의 아픔을 헤아려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라고 전 재산을 내놓은 것이다. 우리 옛말에 “과부 사정 홀아비가 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처럼 누구보다도 심하게 전쟁의 아픔을 겪은 분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린 것이다. 할머니들이 보여 준 마음, 즉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은 베트남전 진실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다. 베트남전 진실위원회는 고통을 겪어 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며 손을 내미는 그 마음을 ‘고통의 연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 ‘고통의 연대’는 베트남전 진실위원회의 핵심적인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새만금의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삼보일배에서 수경 스님은 「유마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란 말씀을 중생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인기드라마 ‘다모’는 ‘고통의 연대’라는 딱딱한 개념을 아주 쉽게 표현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2. 베트남에 평화역사기념관을

베트남전 진실위원회는 두 분 ‘위안부’ 할머니가 남긴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이 돈은 그냥 사업비로 써 버릴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진실위원회는 두 분 할머니의 뜻을 기려 전쟁의 아픔과 평화를 향한 염원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어떤 성격의 평화역사기념관을 어디에 짓느냐는 것이었다.

역사적 기념공간의 건축에서 장소가 갖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 베트남전 진실위원회가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만 하여도 한국에서 역사적 기념공간의 건립을 둘러싼 논의가 아주 미미한 단계였다. 진실위원회에 참여한 단체와 개인들에게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사죄가 일차적인 목표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넘어서는 또 다른 과제를 분명히 갖고 있었다. 베트남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베트남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는 전쟁과 학살, 군사주의의 찌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역할에 익숙했던 우리가 때로 가해자가 되었음을 아프게 깨달았다. 베트남에서의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한국인들에게 실로 감당하기 힘든 역사적 비극이지만, 이 고통스러운 사실과 대면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과정을 통하여 한국인들은 거듭날 수도 있는 것이다. 전쟁기념관은 있어도 평화박물관은 한 곳도 없는 한국에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의 파병을 중심 테마로 한 평화역사기념관이 건립된다면, 그곳은 매우 요긴한 평화교육의 공간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진실위원회 안에서도 평화역사기념관이 들어서야 할 곳은 가해자들이 사는 한국이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강력히 대두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었다. 한국의 어마어마한 땅값과 인건비를 고려할 때, 진실위원회와 같은 시민단체의 힘으로 박물관을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반면, 베트남에 평화역사기념관을 짓는다면 부지를 베트남 -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피해 마을이든 - 측에서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인건비도 싸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다. 한국에 지을 경우, 막대한 건축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진실위원회는 평화역사기념관을 베트남에 짓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베트남에 기념관을 지을 경우,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역사적 현장이라는 장소의 역사성을 십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이었다.

평화역사기념관의 장소를 일단 베트남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전시의 방향과 내용은 자연스럽게 민간인 학살을 중심으로 구상되었다. 당시 진실위원회가 구상했던 전시의 주요 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 : 한국과 베트남은 너무나 공통점이 많은 나라였다. 중국의 주변에서 독자성을 유지했고, 같은 유교국가였으며, 근대 이후에는 식민지로 전락하는 아픔과 민족분단의 아픔을 연이어 겪었다.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두 나라가 아시아의 정글에서 슬프게 만났다.

둘째, 한국군의 파병 : 한국은 남베트남과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군대를 파견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기초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어디에도

한국이 미국을 위해 제3국에 출병해야 한다는 구절은 없다. 당시 한국 정부는 한국군의 파병을 ‘국위선양’이라고 찬양했고, 일부 언론은 한국군의 해외 ‘진출’을 환영했다.⁵⁾ 자국에서도 수없이 많은 학살을 자행한 군대가 외국에 파견되었다. 스무 살 남짓의 젊은 군인들은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를 넘어 “빨갱이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셋째, 민간인 학살 1 :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마을 중에서 대표적인 마을 한 곳을 선정하여 학살의 현장을 복원한다. 민간인 학살의 구체적인 모습을 미시적으로 보여준다.

넷째, 민간인 학살 2 : 하나의 마을에서 일어난 비극을 넘어, 베트남에서 한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의 전체상을 보여준다. “한국군만 이런 짓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변명이 되지 않도록 최대의 유의하면서 미군에 의한 미라이 학살이나, 남베트남군에 의한 학살을 살펴보면서 베트남전쟁 자체의 비극적 성격을 보여준다. 나아가 20세기의 수많은 전쟁이 왜 비무장 민간인을 공격하였는가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다섯째, 전쟁의 상처 :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절대로 전쟁을 겪기 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오랜 전쟁이 끝난 뒤에 돌아보면, 모두가 상처 입은 사람들뿐이다. 승리자도 패배자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예외일 수 없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베트남 유가족들의 아픔과 아울러, 월남의 정글에서 자신이 쓴 총알에 결국 자신의 인생을 관통당한 수많은 ‘월남에서 돌아온 새끼만 김상사’들의 피폐한 삶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전쟁은 모두에게 비극일 뿐이라는 점을 돌아보도록 한다.

여섯째,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 : 한국에서 뒤늦게 베트남전쟁의 비극을 자각하면서 발생한 진실규명과 사죄를 향한 운동의 역사를 기록한다.

한편, 『한겨레21』은 그동안 독자들이 보내 온 성금으로 베트남 중부 푸이호아시에 한·베평화공원을 건립하여 2003년 1월 준공식을 갖게 되었다. 진실위원회도 베트남 평화역사기념관의 부지 선정과 건립을 위한 준비를 겸하여, 정기용·김영준 등 건축가들과 더불어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였다. 그동안 진실위원회는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마을을 중심으로 몇 군데 부지를 검토하였는데, 자연스럽게 의견은 『한겨레21』이 건설하고 있는 평화공원 내부 또는 바로 인접한 곳이 가장 적합하다고 모아졌다. 평화공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었다.



5)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의 우파 역사교과서가 일본군의 해외 침략을 ‘진출’이라고 서술한 것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파동에서 주요 쟁점 중의 하나였다.

3.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2003년 1월, 진실위원회의 베트남 현장 방문은 기존에 베트남전 진실위원회 활동을 해 온 사람들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10여 명의 전문가가 진실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였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베트남 방문은 평화역사기념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장 방문과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진실위원회는 자신들이 지으려고 하는 평화역사기념관의 장소와 성격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되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평화역사기념관이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었다. 진실위원회가 처음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을 시작했을 때, 일부 언론은 베트남은 민간인 학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 한국의 일부 진보단체들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와 베트남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의 보수층은 베트남 정부가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원조와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민간인 학살 같은 과거의 민감한 문제들은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실위원회가 만난 푸옌성 공산당 서기장은 진실위원회나 자기네 베트남이나 민간인 학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지는 똑같지만, 다만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베트남 피해자들의 문제제기 이전에 스스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문제를 제기한 것에 놀라움과 고마움을 표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진실위원회가 오랫동안 감추어진 상처를 드러내어 깨끗이 물로 씻으려 한다면, 전쟁의 참화로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너무 큰 고통을 당한 베트남으로서는 일단 이 아픔을 잊고 벗어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었다. 그의 설명은 진실위원회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베트남에 지으려고 했던 평화역사기념관의 전신내용은 베트남 피해자들보다는 가해자 측인 한국 사람들을 주된 관객으로 해서 구상된 것이었다. 베트남을 찾은 한국 관광객들, 특히 지난 날의 참전용사들에게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겠지만, 민간인 학살의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 일상의 평화를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 베트남 피해자들의 코앞에 끔찍한 학살 사진을 들이민다는 것은 어쩌면 또 다른 폭력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만약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담아 짓는다면, 이런 식의 평화역사기념관보다는 어린이 도서관, 한국어학당, 기술원, 노인정, 문화시설 등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을 지으면서 그 한구석에 어떤 취지에서

한국의 시민들이 뜻을 모아 이런 시설을 짓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면 되지 않을까?

한편, 민간인 학살 문제가 처음 보도된 이후 김대중 정부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공개발원조) 자금을 사용하여 베트남에 약 40여 개의 학교를 건립했다. 이 학교의 대부분은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이 발생한 지역에 건립되었다. 비록 이 학교들이 민간인 학살에 대한 사죄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 세워진 것은 아니지만, 누가 보아도 학살 현장에 건립된 학교가 그런 미안한 마음을 나타낸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베트남 방문 기간, 진실위원회는 호치민시에 소재한 전쟁유물박물관에서 오랫동안 남베트남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던 비전향장기수를 만날 수 있었다. 그와 그의 아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해방전사가 된 그의 외동딸은 한국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한다. 우리가 ‘미안해요 베트남’이란 말이 쓰여진 티셔츠를 선물하자, 그는 조용히 웃으며 “미안하다는 말로만은 안 돼”라며 잠시 숨을 고르더니, “지금도 여러 곳에서 학살이 벌어지고 있어. 반전과 평화를 위해 힘써야 돼”라고 말하였다. 그의 말에는 미안하다는 사죄를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자신들에게 와서 하기보다는 아직도 전쟁의 참화에 시달리고 있는 다른 지역에 베트남을 기억하며 들어가 말 대신 행동으로 보이라는 뜻이 깔려 있었다. 지금도 세계의 여러 곳에서는 우리가 만난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소년·소녀들이 자기 키만한 총을 들고 복수심에 불타는 소년전사가 되고 있다. 그의 지적은 한국이 베트남에 사죄하는 것만으로 ‘파병국가’로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우쳐 주었다.

베트남에서의 깨달음은 진실위원회로 하여금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평화역사기념관을 정작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은 베트남보다는 한국이 아닌가”라는 원래의 질문과 다시 대면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돌아본 한국은 ‘전쟁을 기념하는 나라’였다. 평화박물관은 단 하나도 없지만, 서울 용산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전쟁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치른 전쟁이 세계에서 가장 큰 전쟁은 아니었건만, 한국은 요란하게 전쟁을 기념하고 있다. 이 기념관에서 베트남은 ‘통일’된 것이 아니라 ‘패망’했다. 이곳에서 한국군의 파병은 반공십자군으로서 자유세계의 우방들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이자 국위선양을 위한 해외 ‘진출’이었다. 진실위원회의 활동이 예외였을 뿐, 과거청산운동 전반을 보면 한국은 대개 피해자로만 그려졌다. 진실위원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시점은 마침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이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논의가 심각하게 제기되던 때였다. ‘국익’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 쉽게 한국군의 파병이 결정되는 모습은 이 땅의 평화옹호세력 모두에게 크나큰 충격이었지만, ‘미안해요, 베트남’이라는 구호 아래 한국군의 해외파병이

가져온 비극적 역사를 반성할 것을 촉구해 온 베트남전 진실위원회에게는 더더욱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미안해요, 베트남’으로 모자라 ‘미안해요, 이라크’라는 구호를 새로이 외쳐야 할 정세 앞에서 베트남전 진실위원회는 평화역사기념관이 마땅히 세워져야 할 곳은 이 땅이라는 사실을 건축비를 핑계로 들어 외면할 수 없었다.



평화박물관 건설을 위한 논의

1. 평화 그리고 평화 불감증

막상 한국에 평화역사기념관을 짓기로 하자 고민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졌다. 베트남에 기념관을 짓는다고 하면 다루어야 할 주제의 범위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민간인 학살로 자연스럽게 좁아지지만, 한국에 짓는다고 하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과 청일전쟁, 러일전쟁, 의병전쟁, 식민지화와 독립전쟁, 항일무장투쟁,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제2차 세계대전, 원폭, 광복과 분단, 제주4·3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군사독재와 인권침해 등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굵직굵직한 사건이나 주제들만 해도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비단 전시의 주제만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베트남에 평화역사기념관을 짓는다고 할 때에는 세세하게 검토하지 못했지만, 대체로 진실위원회 안에서는 평화역사기념관을 건립하여 베트남 사람들에게 기증 또는 위탁한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전제가 늘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전제가 다 깨진 것이다. 평화역사기념관은 모금과 건축, 전시와 운영, 교육과 프로그램 등 일체의 사무를 총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전 진실위원회는 1980년대 이후 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평화박물관 운동에 주목하게 되었다.

베트남전 진실위원회가 지으려고 하는 평화박물관은 이와 같은 평화 불감증을 치유하고, 평화에 대한 감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에 기초하고 있다. 베트남 문제에서 출발했다는 역사성 때문에 필연적인 것이지만, 베트남전 진실위원회가 지으려고 하는 평화박물관은 우리가 당한 피해만이 아

나라, 우리가 범한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죄, 가해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했다. 그리고 이곳은 전쟁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 전쟁 후에 돈을 번 사람들이 만들어 낸 이미지가 아니라 전쟁이 나면 실제로 가족을 잃고 피를 흘려야 하는 사람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한국이 바야흐로 이라크전쟁에 또 다시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려는 마당에서 전쟁과 평화의 기억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우리의 평화 감수성을 어떻게 새롭게 형성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베트남전 진실위원회가 먼저 고민해야 했었던 것은 평화라는 넓은 주제였다. 베트남전 진실위원회는 평화운동단체로 출발했다기보다는 과거청산운동이라는 성격을 보다 더 갖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평화운동의 역사는 매우 짧았으며 평화에 대한 이해도 그다지 깊지 못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나 자주 전쟁에 휩싸이면서 한국 사회는 평화에 대한 갈망이 넘쳐나기보다는 평화에 대한 무신경과 불감증에 물들어 버렸다. 1970년대 내내 “때려잡자 김일성, 쳐부수자 북괴군, 무찌르자 공산당, 이룩하자 유신과업”만 외친 나라에 평화가 깃들 곳이 어디 있었을까? 다른 나라의 경우 대중운동이 활발하지 못하다가도 전쟁과 평화의 이슈가 부각되면, 수십만 명이 모여들곤 하는데 한국은 정반대였다. 미선이·효순이 추모시위 때나 탄핵문제 때에는 십수만의 인파가 어립지 않게 모여들었지만, 막상 이라크전쟁을 전후하여 반전평화문제가 이슈로 제기되었을 때에는 일만 명이 모이기도 힘들었다.

한국 사람들의 무딘 평화 감수성을 증거하는 예는 수없이 많다. 한 예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살펴본다면 지금까지 1만 3,000여 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중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사람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 한국의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 중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천한 사람은 거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는 1만 2,000여 명의 병역거부자가 발생하였는데, 이 중 여호와의 증인은 600여 명뿐이고 나머지에서 절반 가량은 퀘이커, 메노나이트, 루터교, 아나뱃티스트 등 평화주의 교단 신자들이고, 나머지 절반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가톨릭, 성공회 등 전통적인 교단 출신들이었다. ‘불살생’을 최고의 교리로 삼는 불교 신자들 중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천한 사람은 거의 없다. 종교뿐이 아니다. 군사독재와 치열하게 맞서 싸웠던 한국의 민주화운동 역시 병역거부란 것이 있는지도 몰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사람들의 평화 불감증이 잘 드러나는 또 하나의 사례는 원폭문제에 대한 태도였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일본에 투하된 원폭이 한국에 해방을 가져다주었으며 일본 제국주의에게 고통을 가한 고마운 무기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서 수만 명의 무고한 조선인들이

한방에 날아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 1958년 이후 30여 년 동안 한반도에 600~1,000여 발의 미국 핵무기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2. 어떤 평화박물관인가?

베트남전 진실위원회는 2003년 6월 15일, ‘평화박물관 건립운동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데 이어 11월 15일에는 진실위원회를 ‘(준)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로 개편하였다. 베트남전에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실규명과 사죄를 목표로 출발한 과거청산운동 성격의 베트남전 진실위원회가 이제 평화운동단체로 거듭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평화박물관은 종래의 과거청산운동으로서의 늘 첨예한 문제를 제기해야 했던 기본 정신은 놓지 않되 평화운동단체로서의 조금은 부드러운 외형을 추구하게 되었다.

베트남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우리 사회에 촉구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한겨레신문사는 평화박물관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신문지면을 할애하여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건립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모금액수는 기대만큼 많지 않았다. 아무래도 대중들에게 평화는 극히 추상적이고, 박물관은 고루하고 따분한 이미지이다보니, 평화박물관이라는 개념이 매우 낯설게 느껴졌던 모양이다. 이 문제는 평화박물관이 장기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였다.

일단 평화박물관이란 깃발을 들자 사람들은 평화박물관을 어디에다 지을 것이냐를 물어왔다. 사실 한국에 짓는다는 것 이외에는 정해진 것이 없었다. 전 국토가 역사의 현장인 한국에는 평화박물관이 들어설 만한 좋은 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다. 분단의 상처가 어린 판문점이나 비무장지대, 학살의 현장이었던 골짜기, 미군부대가 있다가 떠난 자리 등등 역사적 의미도 있고, 접근성도 좋은 탐나는 자리는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그런데 과연 평화박물관을 서둘러 짓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내놓아야 했다. 한국에 아이들 손잡고 평화를 보고 만지고 느끼고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평화박물관은 ‘파병국가’의 지원을 받아 세울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최소 수십억 원 이상, 땅값까지 치면 백억 원 이상은 쉽게 넘는 방대한 예산이 드는 박물관의 건립을 시민단체의 모금만으로 충당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이 무렵 평화박물관을 추진하던 사람들은 “평화박물관을 어디다 세울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농담 반 진담 반 “우리 마음속이에요”라고 답하곤 했다. 이는 평화박물관의 부지를 결

정할 만한 단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평화의 심성을 키우는 작업이야말로 평화박물관 운동의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평화를 사랑하는 내 마음만 확실하다면 제아무리 부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부술 수 없는 곳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과연 한국에서 건물이 없어서, 전시공간이 부족해서 평화를 위한 좋은 전시를 못하는 것일까?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각 지방에는 아주 멋지게 지어진 컨벤션 센터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스스로의 콘텐츠를 갖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문제는 평화박물관이 좋은 전시를 기획할 수 있는가이지, 공간이 없어서 좋은 전시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기존의 박물관이나 기념관이 대중과 만나는 방식은 일정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좋은 전시를 하니 이곳에 보러 오시오” 하고 고답적으로 전시를 여는 것보다, 대중들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까? 전시를 준비해서 대중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시민운동, 평화운동에 기반을 둔 전시라면 전시물을 들고 대중 속으로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평화박물관은 이동순회전시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물론 이동전시를 한다고 해도 평화박물관이 독자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 속에서 평화박물관이 건물보다는 방향과 콘텐츠, 그리고 실제 대중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지역과 부문을 가로세로로 엮어 주는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평화박물관을 어디에다 지을 것이냐는 질문은 대개 평화박물관을 하나만 짓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평화박물관은 꼭 하나만 지어야 하는 것일까? 변변한 평화박물관 하나 갖고 있지 못한 처지에 꿈만 야무진 것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이 땅에 수많은 평화박물관이 세워지기를 바란다. 꼭 평화박물관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좋고, 독자적인 건물을 마련하지 않아도 좋다.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고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평화교육을 실시하거나 평화의 심성을 키우는 작업을 하는 학교, 단체,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등의 일정한 공간을 전시공간으로 꾸밀 수 있지 않을까?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어 교실이 남는 곳도 많이 있고, 남는 교실이 없다 하더라도 학교라면 긴 복도와 큰 벽과 계단이 있다. 그곳을 평화의 교실로, 평화의 벽으로, 평화의 복도로, 평화의 계단으로 꾸며 나가고, 시민 단체나 지역의 공부방 같은 곳도 한쪽 벽을 평화의 벽으로 꾸미거나, 평화의 책꽂이를 마련하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공간을 마련해 놓고, 이 공간을 다양하게 채워 나가는 작업 자체가

뜻깊은 평화교육의 시간이 될 것이다. 평화박물관은 이런 다양한 공간을 채워 나가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며, 생산하고, 보급하는 그런 센터의 기능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평화박물관은 스스로를 ‘평화바이러스’의 배양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평화바이러스의 배양기로서의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각 지역에서 스스로의 활동에 기반한 평화의 기록과 기억을 수집, 보존, 전시하는 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각 지역에 일상 속의 작은 평화박물관이 건설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3. 평화운동으로서의 재출발

베트남전 진실위원회가 벌여 온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은 민간인 학살 문제의 재조명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부각시켜 반전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평화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군복을 입은 참전군인과의 격렬한 접촉이나 베트남 파병이 한국 사회의 병영국가화에 끼친 영향의 분석 등을 통해 베트남전 진실위원회는 군사주의의 폐해를 절감하였다. 베트남전 진실위원회의 활동 속에는 평화운동이나 인권운동으로서의 성격이 처음부터 분명히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진실위원회 관련자들 스스로는 아직 평화운동을 하고 있다는 뚜렷한 자각은 별로 없었고, 오히려 과거청산운동으로서의 자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그런데 베트남전 진실위원회에서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것은 단순한 명칭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다. 단체의 이름에 ‘평화’라는 말이 들어가고, 활동가들의 명함에도 자연스럽게 ‘평화’라는 말이 새겨지자, ‘평화’라는 단어가 갖는 규정성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전 진실위원회가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로의 전환을 모색하던 시기가 마침 한국에서 평화운동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는 전기가 되었던 이라크전이 발발한 시기였다는 점도 ‘평화’라는 말의 규정성에 힘을 보태 주었다.

군사주의, 국가주의, 반공주의가 지배해 온 한국의 평화운동의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짧았다. 평화라는 말이 전면에 내걸린 역사는 짧았지만, ‘적극적 평화’가 추구하는 가치의 많은 부분은 한국이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민주화운동이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평화운동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각은 없었다고 해도, 평화운동의 요소를 충분히 갖고 있었다. 이 점은 평화박물관 운동을 포함한 한국의 여러 분야의 평화운동이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 역시 한국 사회가 민주화운

동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태어날 수 없는 운동이었다. 그것은 민주화운동의 경험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일어난 운동이었다.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지만, 베트남전 진실위원회와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1987년 6월항쟁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이 많았다. 한 예로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된 사건으로 6월 10일 국민대회를 마친 시민과 학생 200여 명이 아무런 사전 계획 없이 명동성당에 들어가 6일간 농성을 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농성은 김동원 감독을 통해 ‘명성, 6일간의 기록’이라는 다큐멘터리로 영상화 되었는데, 나중에 이 비디오를 보니 등장인물 수십 명 중에 나중에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과 평화박물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여럿 나왔다. 이런 경험과 적극성이 자연스럽게 민주화운동 → 과거청산운동 → 평화운동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다.

평화운동의 역사가 워낙 짧고 저변이 넓지 못하다보니 급박하게 전개되는 현실 속에서 평화운동은 늘 상황을 쫓아가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 문제가 터지면 여기에 몰두해야 하고, 대추리 싸움이 터지면 다들 하던 일 멈추고 그곳으로 달려가야 하고, 북핵문제가 불거지면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이렇게 평화운동 단체들은 매일매일 터지는 이슈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다. 평화운동으로서의 평화박물관 운동 역시 이런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의식적으로 ‘제1선’의 평화운동과 조금은 구분되는 ‘제2선’에서의 역할을 자임하고자 한다. 평화박물관은 ‘제1선’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평화운동이 미처 챙기기 힘든 역사적 기록과 기억들을 수집, 정리, 보존하는 한편, 이런 투쟁을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는다. 이런 작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1선’에서 뛰고 있는 활동가들과 끊임없이 교감하고 든든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하지만, 또한 ‘제2선’을 담당하는 평화운동으로서의 독자적인 전문성 역시 요청된다고 하겠다. 만약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이런 역할들을 방기하고 문자 그대로 ‘건립’만을 위해 움직인다면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운동이란 단순한 모금운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주요 활동

1. 건립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어떤 평화박물관을 짓느냐를 현실적으로 결정하는 데는 예산의 제약성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역시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을 짓느냐 하는 것을 전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차원의 모금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건물을 짓거나 매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두 분 ‘위안부’ 할머니가 남기신 7,000만 원을 종자돈으로 하여 출발한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현재 약 3억 5,000만 원의 건립기금을 모금했다. 시민사회의 모금으로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돈으로 박물관을 짓기에는 태부족이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좁은 의미의 ‘건립’ 또는 건축물로서의 박물관 세우기는 잠시 미루어 놓은 상태이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모금액을 건축물보다는 프로그램에 쓸 생각이고, 모금액이 10억 원 수준이 된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0억 원짜리 프로그램을 수용할 건축물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생각이다. 그 이전에 만일 민간 독지가가 나타나 건물을 제공한다면 그 또한 대환영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지은 박물관이나 기념관 등을 보면 전시의 내용과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내용을 채우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곳이 대단히 많다. 평화박물관은 이런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평화박물관은 자기 나라 평화운동의 역량과 수준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한국의 현실과 평화운동의 역량에 맞는 평화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한국의 현실을 분석하는 한편, 평화박물관이 많이 세워진 일본의 경험을 깊이 연구하였다. 2004년 일본 평화박물관 답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⁶⁾ 일본의 평화박물관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



6)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2004, 11), 『‘전쟁의 기억과 성찰’ - 2004 일본평화박물관 답사보고서』.

고 또 부러워했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한국의 답사단이 충격을 받았던 것은 답사단이 일본을 방문한 시점이 이라크전쟁 발발 후 15개월 가량이 지난 뒤였음에도 불구하고, 답사단이 방문한 10여 개의 대표적인 평화박물관·전쟁박물관 중에 이라크전쟁에 대하여 발언하고 개입하는 곳이 없었다는 점이다. 답사단이 찾은 박물관 중 딱 한 곳 바우넷(VAWW-NET JAPAN)만이 한국의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라크전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자기 건물도 없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었다.⁷⁾ 전쟁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평화박물관이라면, 그런 평화박물관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중앙정부나 일본의 우경화가 심해지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평화박물관들이 자기 목소리를 잃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한국의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건물에 조급한 마음을 갖다가 독자성을 침해당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2008년 개관한 제주 4·3평화기념관, 수유리 4·19국립묘지의 전시관, 전쟁기념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등의 기념공간이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구상, 노근리대책위의 노근리 평화기념관 건립구상 등의 건립계획처럼 비교적 규모가 큰 기념시설과 아울러 나눔의 집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신촌의 이한열 기념관 등 규모가 작은 기념공간 등의 장단점 역시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2. 전시

현재 평화박물관은 인사동 인근에 ‘평화공간(space* peace)’라는 이름의 30평 가량의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1980년대 민중미술의 거점이었던 ‘그림마당 민’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고, ‘대안공간 풀’도 최근 인사동을 떠났기 때문에 인사동 인근에서는 ‘평화공간(space* peace)’이 유일한 평화예술 공간으로서 예술가들에게 전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가난한 평화운동 단체가 미술계에



7) VAWW-NET JAPAN (Violence Against Women in War-Network Japan :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본네트워크)이다. 바우넷은 2005년 8월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을 열었다.

공간을 제공하면서 예술을 통한 평화운동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공간(space* peace)'에 작품을 선보인 작가들은 이미 평화를 주제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 왔거나, 이 기회를 통해 새롭게 자신의 예술 세계에 평화라는 표현하기 쉽지 않은 주제를 끌어들이는 분들이다. 경기도 미술관이 2007~2008년에 걸쳐 개최한 '경기, 1번 국도' 전시회에 '평화공간(space* peace)'에서 전시회를 가진 이종구, 최병수, 노순택, 박준식, 문미희 등의 작가들이 초대된 것은 '평화공간(space* peace)'이 나름대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평화공간(space* peace)'은 평화운동이 미술계에 제공한 전시공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평화운동이 자신의 활동성과를 예술이라는 장을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려는 실험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대추리 투쟁의 경우 많은 예술가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하였는데, 그 작품들은 대추리의 농협 창고에도 전시되었지만 서울에서는 '평화공간(space* peace)'에서도 전시되었다. 평화박물관은 대추리 투쟁에 대한 전시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국가보안법 역사 전시회', '국가보안법 만화전', '국가보안법 금서전', '국가보안법 피해자 얼굴전' 등 네 차례의 전시회를 열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 전시회를 기획하였으며, 원자폭탄 투하 60주년을 기억하는 전국순회 전시회, 결혼이주 여성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2세들을 위하여 어머니라의 그림책을 이중언어로 발행하는 프로그램인 '엄마나라 이야기' 전시회,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들의 사연을 담은 '미세스 사이공' 전시회,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들의 추억과 고통을 담은 '베트남 귀국박스전', 부시 미대통령과 전쟁의 시대를 되돌아보는 '굿바이 부시전' 등을 개최하였다. 이 밖에도 '버마 인권 사진전', 손문상 화백의 '이라크 기행전', 암살당한 팔레스타인 만화가 '나지 알 알리의 만화전시회' 등을 개최하였다.

3. 평화교육

평화교육은 모든 평화운동단체들이 대단히 중시하는 분야이지만, 전시와 교육을 주된 활동으로 삼는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에게는 특히 중요한 분야이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실시하는 평화교육의 주요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평화교육 직무연수가 있다. 각급 학교의 교사들 중에는 평화교육을 시행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매년 두 차례

방학 때 실시되는 평화교육 직무연수는 평화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교사들에게 학교 현장에서 평화교육을 실천에 옮기도록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회원과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연회와 대중강좌를 제공해 왔다. 강연회는 주로 회원모임이라는 형식을 빌려 그때그때 주제를 달리하여 개최되었다. 2007년도에는 단발성 강연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심도 있는 연속강좌를 기획하였다. 대표적인 디아스포라 지식인인 서경식 교수가 한국에 방문교수로 온 기회를 이용하여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재일조선인은 누구인가?”, “국민주의를 비판한다”, “누가 그 기억을 이야기하는가?”, “예술은 전쟁에 저항할 수 있는가?” 등의 연속강좌를 가졌다.

평화박물관의 전시공간 ‘평화공간(space* peace)’에는 아직 방문객이 그다지 많지 않지만, 평화교육 직무연수를 이수한 교사들이나 다른 방식으로 인연을 맺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박물관을 단체로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평화박물관을 단체로 방문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평화박물관은 이렇게 단체 방문한 학생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전시의 내용과 평화박물관의 역사를 중심으로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전쟁기념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강화도, 서울 성곽 등지에 대한 답사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평화운동이 다루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하여 각 수준별로 교안이나 교육자료를 준비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 하겠으나 아직 이 작업들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4. 트라우마 치유

오랜 기간 전쟁과 국가 폭력에 시달려 온 한국 사회에는 트라우마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이 철저하게 외면되고 방치되어왔다. 이 고통을 치유하는 작업은 일개 평화운동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다양한 실천 과정을 통해 이들의 고통스러운 증언과 신음소리를 들어야 했던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 국가와 사회가 더 이상 이들의 트라우마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이들의 고통을 시민사회에 알려 무언가 대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촉발하는 역할을 감히 자신의 사업으로 설정하였다.

평화박물관은 베트남전 진실위원회 활동을 통해 참전군인들의 내면에 자리잡은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이 폭력적으로 투사되고 전가되어 가족들에게 가해진 또 다른 트라우마를 단편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었다. 진실위원회의 활동 초기에 참전군인들을 주로 가해자로만 생각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그들 역시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가슴 아프게 깨달아갔다. 그들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이 가해자로서의 가해책임을 경감시켜 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스무 살의 어린 그들을 베트남의 정글로 내몰았던 국가는 그들의 고통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평화박물관은 2005년 베트남전쟁 종전 30주년을 맞이하여 '베트남전과 한국 사회, 정신의학자가 본 전쟁의 상처'라는 제목으로 워크숍을 열어 참전군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문제를 한국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평화박물관의 국가적·사회적 트라우마와 관련된 사업은 2008년부터 본격화되었다.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 한국에서는 워낙 오랜 기간 전쟁과 국가폭력이 자행되었기에 전쟁과 국가폭력이 초래한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단히 다양하다. 평화박물관의 트라우마 치유 사업은 평화박물관의 직접 활동 또는 평화박물관 주요 인사들의 다른 장에서의 활동을 통해 그 인사 또는 평화박물관과 일정한 신뢰가 쌓인 피해자들을 일차 대상으로 한다. 그 대상으로는 평화박물관의 전신인 베트남전 진실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쌓인 인연을 바탕으로 베트남 참전군인과 그 가족들, 평화박물관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정부의 각종 과거사 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연을 바탕으로 조작간첩 등 각종 공안사건 피해자들과 군의문사 유가족들, 평화박물관 주요 관계자들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활동을 기반으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가족들, 평화박물관의 원폭관련 사업을 바탕으로 원폭 1세와 2세 피해자들, 평화박물관 주요 관계자들의 매항리 사격장 폐쇄운동에 대한 참여를 바탕으로 매항리 사격장 주민 등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꼽을 수 있다. 이 피해자들에 대한 주요 사업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고통과 직접 대면하는 동시에 자신만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말하기 프로그램이나 피해자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들을 위로하는 치유 캠프 등을 준비 중이다. 지난 2008년 11월, 1980년대의 대표적인 조작간첩 사건인 송씨일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유 캠프는 참가자 모두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주었으며, 치유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인권평화단체 활동가들을 위한 프로그램 : 일찍부터 조작간첩 사건이나 군의문사 사건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민가협, 천주교 인권위, 인권운동 사랑방 등 인권단체나 평화운동, 과거사 진실규명운동 관련 단체 활동가들의 경우 피해자들과 많이 접촉하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트라우마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교

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평화박물관은 일상적으로 피해자들과 접촉해야 하고, 피해자들과 누구보다도 신뢰를 쌓고, 감정적 교류를 해 왔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피해자들의 고통 어린 증언을 끄집어내고 들어 주는 과정에서 자신들 또한 고통스러운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준비 중이다.

트라우마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 정신과나 심리치료, 간호학 분야에서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재난이나 일반적인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전문가들도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양성되어 왔다. 때문에 트라우마 전문가들은 전쟁과 국가폭력 등이 초래한 특수한 성격의 트라우마 피해자들과 만나 본 경험이 많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의 고통의 근원이 된 전쟁이나 국가폭력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역사적·사회과학적 이해가 충분하다고 하기도 어렵다. 이에 전문가들이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이들에 대한 치유방법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5. 엄마나라 이야기

베트남전 진실위원회에서 평화박물관으로 거듭나면서,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평화문제를 다루어야 했던 사정 때문에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등 베트남 문제는 당면한 과제로 제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평화박물관에게 베트남 이슈는 박물관의 탄생과 결부된 근원적인 문제였다. 한동안 한국 사회에는 어디를 가나 길거리에서 “베트남 신부와 결혼하세요”라고 쓰인 펼침막을 볼 수 있었다. ‘완전 후불’, ‘절대 도망 안감’, ‘만족하실 때까지’ 등 입에 담기 부끄러운 내용들이 큰 길가에 버젓이 나붙어 있었다. 근 40여 년 전 베트남의 정글에서 슬프게 만났던 한국과 베트남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민망하게 다시 만나게 되었다.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과 사죄, 배·보상 문제도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이지만, 베트남 신부 문제 역시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는 문제였다. 다행히 한국의 여러 이주 노동자단체나 여성단체에서 베트남 신부를 포함한 아시아 결혼이주 여성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이주 여성과 한국인 남편 사이에 태어난 2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혼이주 여성과 한국인 남편 사이에 태어난 2세들의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어머니가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서툴다보니 아이들도 자연히 또래에 비해 한국말이 어눌했다.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알 만한 상식적인 일들도 이 2세들이 모르는 경우

가 허다했다. 인지능력이 형성되는 유아기의 결정적인 몇 년 동안 언어라는 외부세계와의 소통장치를 충분히 가질 수 없는 아이들이 입는 지적·문화적 피해는 대단히 심각하다. 때때로 아이들은 단순히 말이 어눌하거나 어휘력이 부족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발달장애, 언어장애를 갖고 살아야 한다.

많은 한국 사람에게 가장 푸근하면서 가장 만만한 곳은 외갓집이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외할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한 것은 세상에 다시는 없다. 그런데 결혼이주 여성의 자녀들에게 외갓집은 너무 먼 곳에 있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준비하는 ‘엄마나라 이야기’ 프로젝트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전래동화를 한국어와 자국어의 이중언어로 출판하여, 이 2세들이 문자 그대로 엄마나라의 이야기를 일찍부터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2세 아이들은 아빠는 한국말로, 엄마는 엄마나라의 언어로 읽어 주는 엄마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나라에 대한 친밀감과 자존감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뒤떨어지고 소외된 집단으로 남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과 엄마나라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하고,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모두 친숙하게 자라 두 나라를 이어 주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인가? 그 대답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국 사회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엄마나라 이야기’ 프로젝트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2008년 8월부터 경기, 강원, 서울 세 곳에서 베트남 동화 순회전을 열었다. 첫 프로그램으로 베트남을 택한 것은 결혼이주 여성 중에서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은 것도 있지만, 평화박물관이 베트남에 대해서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베트남 전래동화를 그린 이중언어 그림책을 잘 만들어 내어 이를 모범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이중언어 그림책을 편찬하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6. 반핵 평화운동과 원폭 피해자 지원사업

아직도 많은 한국인은 1945년 일본에 떨어진 두 발의 원자폭탄을 ‘고마운 원폭’으로 생각한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은 것은 자업자득이고, 한국은 원폭 덕에 해방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으로 한국인이 4만 명 정도 희생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국가로 본다면 일본이 세계 유일의 피폭국일지 모르지만, 민족으로 따진다면

한국 민족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낸 피폭민족이다. 그런 우리에게 원폭의 기억은 희미해져 버렸고 피해자들, 특히 2세 환우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입을 열기 어려운 형편이다.

한국인들의 ‘핵 불감증’은 놀라울 정도이다. 많은 한국인은 1951년 맥아더 장군이 북한과 만주에 1차로 26발의 원자폭탄을 투하하자고 했다가 해임당한 것을 매우 안타까워한다. 그때 원자폭탄을 썼어야 우리가 통일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많은 한국인은 1958년부터 냉전이 끝난 직후인 1991년까지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가 적을 때는 600여 발, 많을 때는 1,000여 발가량 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미국의 ‘핵우산’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 참으로 안전한 것이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당시 소련이 미국의 모든 핵 기지를 핵무기로 겨냥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쓰고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소련의 핵공격의 일차적인 목표가 되어 있었다고 해야 옳다. 한반도에서 핵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고, 핵무기의 숫자도 매우 많았다. 북한이 최근 개발하여 핵실험에 성공한 구식 원자폭탄 몇 발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한국 사회의 보수층들은 북한이 가진 핵무기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진보세력의 일부, 특히 통일운동세력은 북한이 보유했다고 알려진 핵무기에 대하여 대단히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수구세력이 ‘반핵평화’를 외치고, 진보진영의 일각에서는 오히려 핵무기를 용인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곤 한다.

한국의 평화운동 진영을 돌아보면 북한이 개발했다고 알려진 핵무기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핵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했었다고 할 수 있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2005년의 광복 60주년을 준비하면서 2004년부터 원폭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원폭 2세 환우로 활발히 활동 중이던 고 김형률 씨와의 만남은 평화박물관으로 하여금 원폭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어 주었다. 특히 김형률 씨가 2005년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후 평화박물관은 때로는 박물관의 이름으로, 때로는 ‘김형률 추모사업회’의 이름으로 그가 남긴 뜻을 이어가야 했다. 김형률 씨가 염원했던 원폭 1·2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17대 국회에서의 개혁입법의 좌절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하였고, 특별법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원폭문제 공동대책위원회도 활동중단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2008년 18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원폭피해자지원 특별법이 다시 발의되고 원폭문제 공동대책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되어 활동을 재개하였다.

평화박물관은 한국의 히로시마라 불리는 합천 답사를 비롯하여 원폭 60주년기념 특별순회전시회, 『맨발의 겐』 독후감 대회, 김형률 추모 다큐멘터리 제작, 평화네트워크 등과 공동으로 반핵

평화강좌 개최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이런 다양한 사업 중에서 평화박물관이 특히 힘을 쏟아야 하는 부분은 2세 환우의 문제이다. 원폭 피해의 유전성은 원폭의 가해자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하여 원폭피해를 입게 만든 일본 역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이나 일본뿐 아니라 사실 이 문제는 원폭 1세나 2세들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우산 장사와 짚신 장사 아들을 둔 부모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걱정, 날이 맑으면 맑은 대로 걱정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원폭 2세 문제이다. 원폭 2세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원폭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사정을 다르겠지만, 2세들 중에는 건강하게 태어나 별다른 불편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많다. 이런 형편에서 원폭 2세 환우의 후유증 문제가 불거진다면 일반인들은 모든 2세가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울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2세들이 결혼이나 취업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입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통받고 있는 원폭 2세들이 있는 한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기반으로 이 사회에서 아프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7. 춤추는 평화

〈춤추는 평화〉는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에 평화박물관을 만들고자 시작한 평화와 희망의 공연이다. 〈춤추는 평화〉를 이끄는 가수 홍순관은 1994년부터 6년간 정신대할머니돕기공연 〈대지의 눈물〉을 이어왔다. 그의 고요한 노래와 평화이야기는 평화에 대한 깊은 영감과 감동을 선사해 왔다. 〈대지의 눈물〉 모금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홍순관은 혼자서 평화센터 건립을 꿈꾸며 〈춤추는 평화〉 공연을 구상해 오다가, 베트남전 진실위원회가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로 개편되어 평화박물관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힘을 합치기로 하였다.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 홍순관이 추진해 온 〈춤추는 평화〉 공연은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의 공식 모금활동의 일환이자, 해외동포들과 만나는 중요한 통로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출생지인 미국 애틀랜타에서 시작한 〈춤추는 평화〉는 2005년 미국 전역을 순회한 뒤, 10월에는 뉴욕 링컨센터(Alice Tully Hall)에서 공연되었고, 한국에서는 7월 여의도 KBS홀에서 많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그 뒤 현재까지 한국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세계 각국에서 200회 가까운 공연이 이어졌다.

평화박물관 건립기금 모금을 위해서 시작한 공연이지만, 〈춤추는 평화〉는 평화에 대한 시민교육과 감수성 소통의 장이기도 하다. 초대된 관객들은 공연을 통해 평화는 사회의 낮은 곳으로 흐르는 마음이고, 폭력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며, 더불어 사는 일이라는 것을 몸으로 함께 느끼게 된다.

공연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춤추는 평화〉는 이제 ‘평화박물관 건립기금’이라는 목적과 함께, 지금 현재 요구되는 평화를 위한 과제와 함께하는 공연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가정에 게 모국의 문화와 언어를 접하게 함으로써 이주가정의 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인 ‘엄마나라 이야기-국제결혼 이주가정을 위한 이중언어 동화책 발간 사업’을 위한 공연, ‘어린이평화책 전시회’ 기금 마련을 위한 공연 등이 추진되고 있다.

8. 사이버 평화박물관

평화박물관 건립은 대지와 건물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시 콘텐츠 마련, 운영의 경험 등이 함께 요구된다. 그래야만 ‘건물만 있고 내용은 없는’ 평화박물관을 극복할 수 있다. 현재 요구되는 평화의 과제와 함께하는 내용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평화박물관은 2005년부터 전시문화공간인 ‘평화공간(space* peace)’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공간은 어찌 보면 그곳을 찾아오는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공간일 수 있다. 그렇기에 박물관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발품을 팔아 전시공간을 직접 찾아오지 못하는 더 많은 대중과 소통하는 수단과 방식이 요구된다. ‘사이버 박물관’은 이런 더 넓은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다.

온라인은 그 엄청난 파급력과 쌍방향성으로 말미암아 이미 새로운 의사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들과의 소통을 핵심으로 하는 평화박물관 사업에서 ‘사이버 박물관’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와 같은 가난한 시민단체에게 땅값도 건축비도 특별히 부담할 필요가 없는 사이버공간은 대중들을 만나는 너무나 중요한 공간이 아닐 수 없었다. 오프라인상의 전시공간의 경우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는다는 것이 어렵지만, 사이버 전시관의 경우 양적인 면에선 거의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이버 전시관은 갈무리만 잘 해 놓는다면 초등학교생부터

전문연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료를 찾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2004년 9월 사이버 평화박물관을 개관했었으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눈에 띄어 현재는 재편을 준비 중이다. 현재 평화박물관의 홈페이지에는 ‘사이버 전시관’이 있는데, 이곳은 아직 평화박물관이 구상했던 본격적인 사이버 평화박물관은 아니다. 현재 이곳은 ‘평화공간(space* peace)’에서 열렸던 다양한 전시회들을 다시 둘러보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상에서 평화를 보여주기로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반면, 전쟁이나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같이 평화를 위협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작업은 보다 구체적으로 와 닿는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 평화박물관 역시 한편으로는 전쟁과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보여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폭력에서 우리의 일상과 평화를 지켜내려는 평화운동 또는 평화를 염원하는 일반 시민들의 활동을 담으려고 한다.

사실 제대로 된 사이버 평화박물관을 준비한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오프라인상의 거대한 건물을 짓는 데 소요되는 땅값이나 건축비와는 다른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의 정력을 요구하는 것이 사이버 평화박물관의 준비 작업이다. 예컨대 전쟁이라는 큰 개념하에 사이버 박물관의 한 영역을 설정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전쟁의 개념과 역사에서 우리가 겪은 다양한 전쟁에 대한 소개가 들어갈 것이다. 그 전쟁 중 하나로 한국전쟁을 든다면, 남북과 미국, 중국, 소련 등 국가 단위의 이야기에서 골짜기 골짜기마다 벌어진 크고 작은 민간인학살과 전투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한국전쟁이라는 카테고리 밑에도 민간인 학살, 폭격, 피난, 유엔군과 중국군의 참전, 남북 양측의 점령정책과 그 밖의 수많은 사건으로 하위범주가 무수히 확산될 수 있다. 이 하나하나를 어느 수준에서 준비할 것인가를 정하는 문제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된다. 평화박물관은 처음에는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등 20세기 후반의 주요한 전쟁들을 당장 상세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작업을 모두 감당한다는 것은 현재의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에게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런 작업은 평화박물관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작업이다. 평화박물관은 예컨대 한국전쟁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 등과 같이 한국전쟁의 어떤 특정 분야나 행위자에 대하여 깊이 천착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전시관을 채워 나가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2005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역사자료 전시회 ‘충을 들지 않는 사람들’이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과 결합하여 2006년 금서, 만화, 연

루된 사람들, 역사라는 네 개의 연작 전시회로 구성된 ‘안녕, 국가보안법’ 전시회는 오프라인상의 재미있는 전시회인 동시에, 사이버 평화박물관의 한 코너를 건설하는 것이자, 장차 오프라인상에 세워질 평화박물관의 자료수집과 준비라는 복합적인 목적을 갖고 추진된 전시회였다.

9. 어린이 평화책 순회 전시회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평화 감수성을 키우는 작업이야말로 평화운동의 첫걸음이라고 믿는다. 또한 대중운동으로서의 평화박물관 운동은 박물관을 차려 놓고 대중들에게 구경 오시오라고 외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전시를 들고 박물관 운동이 대중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 두 가지 믿음이 결합하여 추진된 작업이 어린이 평화책 순회 전시회이다. 평화 감수성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중요한 것이지만 특히 어렸을 때부터 잘 보고 키워야 한다. 21세기 초반 한국에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군사주의와 폭력에 찌들었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평화 속에서 키우기를 염원하는 젊은 부모들이 많이 있다. 또한 많은 출판사가 어린이들에게 평화의 심성을 키워 줄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국의 여러 곳에 어린이 도서관이 지어지고 있는 중이다. ‘책을 매개로 하는 평화이야기’로서의 ‘어린이 평화책 순회 전시회’는 이런 조건과 딱 들어맞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 평화책 순회 전시회’는 2006년에 ‘모르는 척 하지마’란 이름으로 수도권 5개 어린이도서관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2007년에는 ‘우리 애길 들려줄게’란 이름으로 전국 20개 어린이도서관과 문화공간 등에서 진행되었다. 이어 2008년에는 ‘네 얼굴을 보여줘’라는 이름으로 전국 42개의 어린이도서관, 초등학교, 공부방, 문화공간 등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해가 가면서 동화작가, 현장 교사, 어린이도서관 담당자와 평화활동가들이 포함된 선정위원회⁸⁾도 보다 많은 책을 검토하여 알차게 책을 선정하고 있고, 전시를 유치하는 기관의 수도 급격히 늘어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참여 프로그램도 다양해졌다.



8) 2007년 기준으로 선정위원은 김중미·이현(이상 동화작가), 배성호(서울 당산초등학교 교사), 이재란(어린이책 문화활동가), 임영신(평화활동가), 정지영(서울 혜화초등학교 사서교사), 최지혜(부평 기적의도서관 관장), 윤석연·주진우(이상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등 9명이다.

어린이 평화책으로 선정된 도서들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면 2007년에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장애인, 아동인권, 미혼모 가정의 아이 등을 다룬 책들, 그리고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를 다룬 책들로 확대되었다.⁹⁾ 2008년에는 아이들이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와 다른 것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울림이 있는 책들, 어른들이 정해 놓은 고정관념을 다르게 생각해 보는 상상력이 담긴 책들을 선정하려고 노력했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2007년에는 책 전시와 함께, ‘열어 보렴’이라는 제목이 붙은 36개의 서랍장을 준비하여 아이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서랍을 열면 안대나 귀마개(자신이 장애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도록), 점자로 된 평화책 문구들, 씨앗이 담긴 병, 거울, 평화를 위해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단체의 인터넷 사이트 주소들, 히로시마 원폭 투하 때 타버린 아이 자전거 전시 사진 등이 들어가 있다. 아이들은 서랍장을 열어 자기 손으로 만져 보고 체험하며 평화에 대한 자기 멋대로의 상상을 할 수 있다.

전시를 유치한 도서관이나 학교, 공부방은 각각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공통 프로그램으로는 타일에 평화 느낌 그리기를 했고, 그 밖에도 영상슬라이드로 책 읽어주기, 평화 메시지 만들기, 평화 놀이, 평화 다짐 선언 등 책 전시를 매개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느낌을 나누고, 자기 생활에서 평화적 삶을 살기 위한 작은 실천들을 찾아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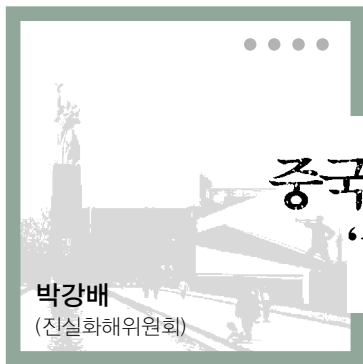
9) 주진우(2008), 「감수성의 소통으로서의 평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편, 『평화백서 2008 - 시민, 안보를 말한다』, 아르케.

10) 주진우(2008), 위의 글.



흔히들 박물관(기념관)이라고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존해서 몇백억 원의 거금을 들여서 세우는 세련되고 웅장한 건축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평화박물관 운동은 이런 관성을 벗어던지고 평화교육, 전시, 기억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적절히 결합하여 아래로부터 만들어가는 '생활 속의 네트워크형 박물관 운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다른 기념관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갖는다. 평화박물관 운동은 건축물 건립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평화박물관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평화교육 운동, 사회적 기억운동에 보다 의미를 둔다. 평화박물관 운동은 스스로 의제를 개발해서 하나의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내고, 정치적 조직을 움직인다고보다는 일상 생활, 시민들의 뿌리에서 확산시켜가는 운동을 지향한다.

평화박물관은 “무엇을 기억하고 전시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해답을 풍부히 해야 한다. 다양한 전시, 수집 자료의 항목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평화박물관이 말하는 '평화'의 개념에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실천적·이론적 연구가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평화박물관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예산에서의 자립성과 독자성이 반드시 요구된다. 평화박물관이 근본적으로 전쟁과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해서 반대하려면, 그런 평화박물관은 재정면에서 다수의 시민들의 성금에 기초하여야 하고, 내용면에서는 다양한 평화운동과 깊은 신뢰에 기반한 연대를 굳건히 하여야 한다. 평화박물관의 전시내용 역시 이런 연대에 기초하여야 한다. 평화박물관은 유명한 몇몇 평화운동가들의 업적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다. 평화박물관은 지금 이 땅의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고,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작은 실천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남기는 기록을 수집, 보존하고 전시하여야 한다. 평화박물관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과 기억과 희망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



박강배
(진실화해위원회)

중국의 박물관(기념관) 현황과 ‘난징 학살기념관’의 변천

I

중국의 박물관(기념관) 현황¹⁾

1905년 남통박물관(南通博物苑) 개관으로 시작된 중국의 근대 박물관은 신중국 성립 이후 박물관 사업의 중시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약 2,400개(협의 분류)에서 3,000개(광의 분류)에 이르는데,²⁾ 이는 상주인구 12만 명에 1개 정도이다. 중국 박물관의 수장(收藏) 총량은 약 2,000만 건,³⁾ 박물관 총 종사자는 약 5만 명, 매년 총 1만 회 정도의 전시에 총 관람객은 약 1억 5,000만 명에 이른다.



1) 광화문문화공사 엮음, 박지민 옮김(2004), 『대륙의 찬란한 기억』(북폴리오)은 중국의 100개 박물관을 소개하고 있는데, 각 박물관의 전시품 설명을 훨씬 뛰어넘어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 다만, 항일·혁명류 박물관은 제외되어 있다.

리씨앤야오·루오저원 지음, 김지연 옮김(2008), 『중화문화2 중국박물관』(대가)은 중국의 57개 박물관을 소개하고 있는데 ‘국가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된 박물관 중심이다.

2) 民國 초기 ‘국립역사박물관’, ‘고궁박물관’ 등이 설립된 이후 1936년에 77개에 이르렀으나 1949년 중화민국 성립 때에는 25개로 줄어들었다가 신중국 성립 이후 박물관 사업의 중시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1978년 349개, 2000년 1,397개로 급증하였고 종합류, 사회역사류, 혁명사류, 군사류, 명인류, 예술류, 자연류, 과기류, 산업류, 민족민속류 등으로 다원화되었다.

3) 河南박물관은 약 130만 건을 보유하고 있다(『대륙의 찬란한 기억』).

박물관의 일반적인 구분법과 중국 내 박물관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의 박물관을 분류하면 ①역사류, ②예술류, ③자연·과학과 기술류, ④종합류 등으로 할 수 있는데 갈수록 다양화⁴⁾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박물관은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관이나 1980년 이후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사립 박물관도 약 300개에 이른다. 사립 박물관은 동부연안인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항저우[杭州] 등지에 90% 이상 집중 분포되어 있다. 한편 대학 박물관은 약 100개로 북경대학 지질박물관(1909)이 있고 사천대학 인문박물관(1914)은 중국 서부지역 최초로 세워진 박물관이다.

서안반파(西安半坡)박물관(1958년 중국 최초로 개방된 유적지 박물관), 진시황병마용(秦始皇兵馬俑)박물관(1979)이 있는 섬서성(陝西省)은 중국에서 가장 많은 153개의 박물관을 가지고 있는데, 연간 관람객이 1,000만 명에 이른다.

중국 국가문물국은 2008년부터 박물관을 총 3등급으로 구분하여 공시하기 시작했는데, 1등급 박물관으로 79개를 선정했다. 이 중 항일·혁명류는 17개이다. 한편 중국의 세계문화·자연유산은 1987년 만리장성을 등록한 것부터 현재까지 37개소에 이른다.

1961년 공포된 ‘문물보호관리조례’와 1982년 제정된 ‘문물보호법’⁵⁾은 중국 박물관의 법적 근간인데, ‘문물보호법’은 ‘중대한 역사적 사건, 혁명운동 혹은 저명인물의 기념의의 시설’도 문물로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혁명류 기념관의 설치와 운영은 1985년 공포된 ‘혁명기념관공작시행조례’와 1995년 공포된 ‘혁명열사기념건축물관리보호판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한편 2005년 발표된 ‘문화유산 보호강화 통지’에 따라 매년 6월 둘째 주 토요일을 ‘중국문화유산일’로 제정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박물관은 국무원 문화부 - 국가문물국 - 성·시문물국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하에 있고, 관련 협회는 ‘중국박물관학회’⁶⁾ ‘중국문물학회’⁷⁾ 등이 있다. ‘중국박물관학회’ 산하의 ‘기념



- 4) 중국에는 지질, 석탄, 수리, 우정, 항공, 과기, 재정, 세무, 경찰, 희곡, 영화, 민속, 섬유, 차, 식물, 도자기, 청동기, 불교조형물, 가구, 中醫藥 등 다종의 박물관이 있다.
- 5) 문물보호 강화,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문화유산 계승, 과학연구 촉진, 애국주의 혁명전통 교육진행,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건설을 위해 제정, 2002년 개정.
- 6) 1979년 성립, 『中國博協通訊』 발간, 설계·전시, 보관 등 12개 전문위원회 운영.
- 7) 1984년 성립, 문물의 연구·보호·합리적 이용 등의 활동을 위해 전국적 학술단체, 사단법인 단위로 구성. 15개

관전문위원회'는 민족정신 발양, 혁명전통 교육, 애국주의 교육 발전 등을 목표로 2007년 성립되어 『중국기념관』을 발간하고 있다. 항전(抗戰)계열기념관(혁명·성지, 유적지, 생가, 기념관, 박물관 60여 개소)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중국 건설 60주년, 난징학살 70주년 등을 계기로 '혁명·항전' 계열기념관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활동이 기대된다.

중국의 박물관과 기념관은 '사회주의 문화발전·번영 실천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료개방⁸⁾을 하고 있는데, 무료개방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계속 감소⁹⁾하여 전국 3분의 2 박물관과 기념관이 생존곤란¹⁰⁾을 겪고 있다. 이는 일부 유명 전시¹¹⁾와 노동절·국경절 연휴에만 관람객이 몰리는 문제로 중국 박물관 관계자들은 '일류전시품 - 삼류전시 문제 해결, 박물관·기념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 고품격·차별화된 전시, 핵심 관람객 고정 확보와 관람객 저변확대'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베이징 '二七기념관'¹²⁾을 사례로 중국 박물관의 운영난을 살펴보면, '二七기념관'은 베이징 청소년 교육기지와 철도애국주의 교육기지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접근성 불편, 전시물 낙장교체 등 운영능력 부족, 외부지원 부족, 관리소속 복잡, 일상적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연간 관람객이 3,000여 명에 불과하여 폐관 위기에 처해 있다. 아울러 '중국공예미술관', '수도(물)박물관' 등 1일 10인 미만 관람객 박물관·기념관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0년 상하이 국제박물관대회를 기점으로 중국의 박물관은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여 100년 중국의 박물관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박물관의 최근 큰 변화 중 하나는 1990년대 초부터 급속히 진행 중인 '사이버 박물관'과



전문위원회 운영. 『중국문화과학연구』 발간.

8) 2004년 5월, '공공문화시설 미성년 등 무료개방' 시행.

2008년 1월, '전국 박물관·기념관 무료개방' 시행, 1천 개 박물관·기념관 무료개방 중.

2009년부터, 문물건축과 유적박물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 무료개방 시행 예정.

9) 베이징 청소년 64.8%가 일상 활동 중 '친구와 만남', '음악듣기', 'TV시청', '인터넷하기'를 최고로 원하고, 7.8%만 박물관·기념관 참관을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朱薇(2008)의 글, 『中國記念館』 창간호, 베이징 청소년 1,000명 대상 조사].

10) 杭州网 - 『杭州日報』, 2006년 7월 23일자. 특히 중서부 지역의 중소박물관의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11) 2006년 郭沫若 기념관 등 7개 名人 기념관 합동 베이징 학교 순회전에 30만 명 관람.

12) 베이징 교외 소재, 1923년 철도노동자 파업을 기념하기 위하여 1987년 개방, 중국 최초 노동자 클럽 탄생지.

‘박물관의 디지털화’이다. 특히 별다른 유물과 유적이 없는 개인을 기억·추모하는 기념성 사이버 박물관(기념관)¹³⁾의 증가는 눈여겨 볼 만하다.

중국 박물관(특히 기념관) 관람 경향의 큰 특징은 ‘홍색여유(紅色旅遊)’인데, 이는 역사의 비극적인 현장을 여행하며 재발방지의 메시지를 체험하는 1990년대 이후 등장한 ‘Dark Tourism’과 유사하다.

‘홍색여유’는 혁명전쟁 시기 형성된 기념지, 기념물, 혁명정신 발양지 등을 참관하며 혁명정신을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주로 학생·군인 등이 단체로 참가한다.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의 ‘2004~2010년 전국 홍색여유 발전계획 요강’에 따라 ① 전국 중점 홍색여행지구 12개소 지정, ② 홍색여행 정품(精品) 30개 노선 지정, ③ 100개 홍색여행지 조성 등의 계획이 시행 중이다. 관련 기관에서는 2010년까지 홍색여행 관련 수입을 1,000억 위안, 직접종사를 200만 명, 간접종사를 1,000만 명으로 추산하는 등 홍색여행을 여행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홍색여행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장소	배울 점
신민주주의 혁명시기 창건·창군 등 중대 사건	중국공산당과 인민군대 창건 초기 역정
중국공산당의 토지혁명 전쟁시기 혁명근거지	홍색정권의 혁명활동
홍군 장정의 험난한 역정과 불굴의 의지	용맹 강대한 혁명정신
중국공산당의 항일구국 지도	민족과 인민을 구원한 빛나는 역사정신
해방전쟁시기의 중대 전투, 중요 사건지	중국 인민의 해방, 승리 쟁취와 공화국 건설 역정
중국공산당 지도하 각 민족의 애국통일전선	단결과 투쟁의 정신
무산계급 혁명가의 성장경력과 위대한 업적	무산계급 혁명가의 혁명정신, 인격
각 역사시기 중요 혁명열사 사적	민족독립, 인민해방에 보여준 열사의 정신과 신념



13) 사회적 재난, 혁명열사, 유명 연예인 등을 기념하는 사이버 기념관 ‘<http://www.jn99.com>’과 개인의 의로운 죽음을 기념하고 있는 ‘李曉紅 기념관’은 사이버 박물관(기념관)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네티즌들이 ‘抗戰 SARS 白衣戰士 李曉紅’으로 명명하여 기억되고 있는 李曉紅은 1974년생으로 베이징 군 병원 의사였는데, 2003년 SARS 환자 치료 중 본인도 감염되어 “만약 SARS 치료의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자신을 대상으로 시험하라”고 유언을 남긴 후 수많은 사람의 눈물을 뒤로 한 채 4월 16일 숨졌다. 이를 기려 소속병원과 군, 학교 동문 등이 사이버 기념관을 운영 중에 있다.

중국의 박물관 중 기념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각종 기념관은 총 300여 개로 이 중 항일전쟁 소재 박물관·기념관¹⁴⁾이 150여 개소¹⁵⁾인데, 홍색여행과 연계하여 애국주의 교육 기초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항일전쟁 소재 박물관·기념관은 1970년대의 중일 양국의 국교회복에 따른 역사문제 소홀과 1982년 일본의 교과서 파동 등이 시작된 이후인 1980년대에 역사문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

중국 정부는 7·7(노구교 사변 발발일), 9·3(중국항전 승리일), 9·18(9·18사변 발발일), 12·13(난징대학살 기념일) 등을 항일전쟁 중요 기념일로 지정하고 매년 9월을 애국주의 교육의 달로 지정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¹⁶⁾ 항일전쟁 소재 박물관·기념관은 ① 중국 내 넓게 분포되어 있고, ② 전시유형이 다양하며, ③ 사료가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기념관 외 개인(항전과 혁명열사)의 생가, 활동지, 유적지, 회의지, 관련 장소, 기념공원, 기념비 등도 다수이다.

한편 중국 내 각종 열사 기념시설은 2007년 말 기준으로 약 14,634개소인데, 대부분 신중국 성립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열사의 범위는 1980년 공포된 ‘혁명열사포양(褒揚)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중국박물관학회’ 산하의 ‘전국혁명기념관전문위원회’는 매년 혁명계열 기념관 종사자 학술회의와 연차 회의를 개최(2008년 제16차)하여 발전방향 토론과 정부의 방침 등을 숙지한다. 학술회의는 매년 주제를 달리하여 개최되나 대체적으로 ① 애국주의 교육기지 건설, ② 기념관 - 홍색여행 발전, ③ 항전연구 등이다. 그런데 2005년부터 ①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방안, ② 기념관 건축과 기념물이 혁명 활동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역사 진실성 상실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고, ③ 교육 성공사례 등도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교육을 위한 교안, 교구, 교재 개발 등은 미진한 편이다.

한편, 항일·혁명류 기념관¹⁷⁾은 실물 기념관 외에 사이버 기념관으로도 운영되는데, 민족혼(民

14) 중국의 항일소재 박물관·기념관의 현황, 전시내용 등 자세한 상황은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편(2005), 『한·중·일 3국의 8·15기억』(역사비평사) 중 「8·15와 중국의 항일전쟁기념관」(李宗遠)을 볼 것.

15) 비교적 큰 기념관은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베이징, 1987년 준공), 난징대학살수난자동포기념관(난징, 1985년 준공), 9·18역사박물관(선양, 1991년 준공)이다.

16)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편(2005), 앞의 글.

17) 이 중 ‘毛澤東’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는 기념관은 10개이고, ‘모택동 기념 관련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모택

族魂)¹⁸(<http://mzh.china5000.cn/>)과 혈주중화(血鑄中華)¹⁹(<http://xzzh.china5000.cn/>)는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II 중국 - 난징의 평화 관련 활동 현황

중국의 ‘평화’ 관련 활동은 아직 사회적 인식이 낮은 편²⁰이다. 중국의 ‘평화’ 관련 활동은 난징시가 가장 선진적인데, 2001년부터 난징학살기념관과 난징대학을 중심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37년 일본군의 대규모 학살만행이 있었던 난징(南京)에서의 ‘평화’ 관련 활동은 ‘수난의 도시’라는 이미지와 ‘수난자’를 기반으로 전개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폭넓고 신속하게 확산되는



동 출생 115주년(2008)을 맞이하여 전국의 모택동 기념 홍색여행지 70개를 선정하였다.

- 18) 民族魂은 1840년 아편전쟁 후 그리고 중국공산당 성립 이래 무수히 배출된 중화민족의 영웅, 즉 혁명선열들의 위대한 업적을 배우고자 운영되는 사이버 기념관이다. 특히 중국공산당 성립 이래,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2만여 저명열사의 평생 삶을 소개하고 있고 이후 10만 명의 열사 소개로 사이버 상 ‘인민영웅 기념비’를 세울 예정이다. 共青團中央, 中央黨史研究室, 國家 案局 주관.
- 19) 血鑄中華는 ‘중국공산당 창당 80주년에 즈음하여 아편전쟁 이래 중화민족의 독립 쟁취와 해방 전투 등 백년 역정의 무수한 선열의 업적을 회고’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사이버 기념관이다. 1840~1949년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중대한 역사적 사건 위주이다. 共青團中央, 中國社會科學院 주관.
- 20) 2003년 11월, 난징학살기념관과 난징국제평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전문가의 눈으로 본 평화학’이라는 좌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총 9명(교수, 의사, 변호사, 시 공무원, 출판사 주간 등)의 참석자 중 ‘평화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 본다는 사람도 있었고 朱成山(난징학살기념관장) 외 대부분의 참석자는 평화 관련 활동의 세계적 흐름이나 평화의 개념 등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2005년 12월, 난징시사회과학원 국제평화연구소 창립식에서 南客(난징사회과학원장)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곧 평화를 의미한다는 명제는 이미 오래된 것이니 경제, 문화, 민족 등으로 평화의 의미와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징시에서의 ‘평화’ 관련 활동은 난징국제평화연구소의 朱成山 소장 등 폭이 넓지 않은 소수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난징대학의 평화 관련 일련의 활동도 있는데, 역사학과 陳仲丹 교수는 세계 평화활동과 중국의 활동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추세는 아니다.²¹⁾

한편 난징을 제외한 중국의 ‘평화’ 관련 활동을 보자면, 호남성 지강시(芷江市²²⁾)에서 ‘중국지강(中國芷江)·국제화평문화절(國際和平文化節)’이 두 차례(2003, 2005) 열렸고 공연 중심의 행사 중 ‘지강(芷江)평화선언’이 발표되었다. 또한 베이징 조양공원(朝陽公園)에 항전승리 6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2005년 8월 ‘베이징 평화의 벽[北京和平牆]’이 설치되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참전자들이 참석하여 평화의 벽에 ‘베이징 평화선언’을 각인하였다.

2001년 난징학살기념관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난징대학살 사실전(史實展)’과 ‘세계평화기원 종교의식’ 그리고 난징대학의 평화학 연구 활동이 난징의 국제평화 활동의 시작점이다. 이러한 맥락 아래 2003년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 심포지엄’이 한·중·일 3개국 관련자가 참여하여 난징에서 개최되었고, 그해에 일본의 평화 관련 단체와 난징 청년단체가 합동으로 ‘평화 촛불기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난징 YMCA 초청으로 일본의 청년단체가 난징을 방문하여 ‘제7회 중일 청년 평화우호 교류회’를 열었다.

2003년 12월, 난징학살 66주년 기념 활동의 일환으로 ‘난징국제평화집회’와 ‘촛불순례’ 그리고 ‘청년 평화토론회’ 등이 열렸는데, 이것이 난징학살기념식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평화 관련 행사였다. 특히 기념식장에서 발표된 ‘난징평화선언’²³⁾과 난징학살기념관 안에 설치된 ‘평화의 종’은 중국에서 평화 관련으로는 처음이었다.

2003년 ‘난징국제평화연구소’²⁴⁾와 ‘난징평화비둘기예술단’이 창립되었고 ‘세계평화기원 중일



21) 2002년, 난징시 政協위원들이 ‘난징학살기념관’이 애국주의 교육과 세계평화의 중요 기지로 발전되어야 한다며 기념관의 명칭을 ‘중국난징국제평화센터’로 바꾸자고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자 난징학살 수난 당사자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이 명칭 변경은 “일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난징학살이라는 기념관의 본질을 드러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센터라는 이름의 시설은 세계 어느 도시에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없었던 일로 되었다.

22) 芷江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항복에 따라 같은 해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일본과 중국 간 항복 후 속조치 등을 서명한 곳이다. 그래서 芷江 사람들은 ‘芷江 降’이란 표현을 쓴다.

23) 2003년 12월 13일, 제66주년 난징학살기념식에서 선포. 난징학살의 참상과 일본 우익의 활동을 비판하고, 중국 인민은 평화를 애호하고 孔子의 ‘仁愛’, ‘和爲貴’ 정신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한 후, 세계 여러 나라의 인민들이 세계평화와 발전을 위해 한길로 나아가자,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치단결하여 평화를 유지보호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인류의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 지혜와 두 손을 맞잡자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4) 2003년 9월 3일, 평화연구, 교육과 교류, 전쟁·공포·폭력반대, 인권보호, 세계평화보호 활동 등을 목표로 난징

(中日)법회'가 개최되었으며 난징공업대학, 난징사범대학, 하해(河海)대학 등에 '국제평화학 계열 강좌'가 개설되었다.

한편, 난징대학²⁵⁾은 중국에서 평화학 연구를 가장 먼저 시작하였는데, 2001년 영국문화위원회의 원조로 영국의 대학과 평화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였고, 세계사학과 교사 6명을 해외에 연수시켰다. 아울러 중국 최초 평화 관련 학술논문집인 『폭력후의 정의와 화해』를 출판하였고, '평화와 충돌', 20세기 국제충돌과 평화화해 등 평화학 전문과정을 개설하였다.

난징대학은 2006년 '존 라베(John Rabe)와 국제안전지구²⁶⁾ 기념관' 과 '존 라베 국제평화와 충돌화해연구 교류센터'를 개관하였다. 이렇듯 2003년 시작된 난징의 평화 관련 활동은 현재까지 계속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난징의 평화 관련 활동 의의와 난징국제평화연구소의 구상²⁷⁾을 보면 난징의 평화활동은 첫째, 제2차 세계대전 중 특별한 상처를 입은 도시인 난징인이 먼저 평화의 깃발을 든다는 의의, 둘째, 세계평화발전의 조류에 맞춰 활동한다는 시대적 의의, 셋째, 공동발전의 측면에서 난징의 평화활동 확장은 전략적이고 실천적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에 ① 평화발전이 난징시 도시건설의 주제가 되도록 하고, ② 평화의 정신이 난징 시민정신과 난징시의 특색이 되도록 하며, ③ '평화학' 교육을 보급²⁸⁾하여 평화가 난징 청년들의 마음속에



학살기념관 주도로 창립하였다[소장 朱成山(난징학살기념관장), 『남경국제평화연구』 발간]. '난징국제평화연구소'는 2005년 12월 2일, 난징학살기념관과 난징사회과학원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난징시사회과학원 국제평화연구소'로 변경되었다[소장 주성산, 부소장 趙德興(난징사회과학원문화·역사연구소 교수), 『南京构建國際平城市研究』 과제 수행].

25) 난징대학은 1937년 '난징안전지대'로 사용되어 난징학살과 깊은 연관이 있다.

26) 1937년 11월, 일본군이 난징을 공격해 오자 당시 난징에 살고 있던 존 라베(John Rabe)와 선교사, 의사, 교수, 기업인 등 수명의 외국인은 '난징국제위원회'를 만들고 '난징안전지구'(혹은 '국제안전지구')를 난징대학 등에 설치하여 그곳으로 피난 온 난징 인민 약 25만 명을 수용·보호한 후 1938년 5월 문을 닫았다. '난징안전지구'를 주도하였던 독일인 존 라베는 선교사 존 머기가 촬영한 난징학살 필름을 가지고 1938년 2월 난징을 떠난 후 1946년 극동군사재판에도 등장하지 않아 수십 년간 잊혀졌는데, 아이리스 장(The Rape of Nanking 저자)의 노력으로 존 라베의 후손들에게 전해져 오던 존 라베의 일기가 1996년 12월 처음 공개되었다. 『拉貝日記 發現始末』가 중국에서 출판되었다.

27) 주성산(2004), 『南京開展和平活動的實踐』, 義及 展構.

28) 『평화학 입문』(주성산 저, 2004) 등 관련 서적을 출판하고 평화주제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자리 잡도록 한다. 이를 위해 ① 대학에 국제평화학과와 강좌,²⁹⁾ 초중등학교에 난징국제평화학교를 개설하고 평화학 교육³⁰⁾을 하며, 관련 교재 등을 편찬하고 난징평화장학금을 설립한다. ② 평화 관련 주제 활동³¹⁾을 확대하여 난징인이 평화를 추구하고 난징이 평화의 이미지를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³²⁾

그러나 ‘난징국제평화연구소’와 ‘난징대학’ 등의 여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난징시의 원래 도시 계획 이미지인 ‘녹색난징(綠色南京)’에 ‘평화도시’의 개념이 아직까지 적극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침화일군난징대학살우난동포기념관 (侵華日軍南京大虐殺遇難同胞紀念館)의 변천³³⁾

‘남쪽의 수도’라는 의미의 난징[南京]은 강소성(江蘇省)의 성도(省都)로 양쯔강[揚子江]에 연해 있는 항구도시이자 산업과 교통의 중심지이다. 난징은 중국 역사상 10개 왕조의 수도였으며, 1912년 중화민국 임시정부에 이어 1927년 중화민국의 수도가 되었고 중일전쟁 중에는 일본의 괴뢰정권인 왕조명(汪兆明) 정권이 수립되기도 하였다.

29) 2007년 中日 학자들이 난징대학, 난징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국제평화학 강좌를 하였다.

30) 2007년 9~12월, 난징시교육국과 난징학살기념관 등이 주관하여 난징 시내 10개 초중등학교를 ‘난징시 청소년 평화교육학교’로 지정하고 평화 관련 교육과 실천 활동을 하였다.

31) ‘난징평화비둘기예술단’은 중국민족교향악 ‘和平頌’ 제작에 참여하였다.

32) 「南京构建國際平城市研究」, 난징시정부와 南京市委 요청에 따라 ‘난징시사회과학원 국제평화연구소’가 2006년 11월 연구발표. 주요 내용은 “난징시는 이미 평화문화의 이념적 조건과 평화도시 건설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평화공원, 기념비 등을 건립하여 역사상 수난을 받은 난징시를 표현함과 아울러 평화의 분위기를 발현한다. 이를 위해 병원, 박물관, 도로, 다리 등에 ‘평화’라는 단어를 넣어 작명하고 평화교육·교류 공간 등을 확보·확충하여야 한다.”이다.

33) 이하 구관 설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06), 『세계의 역사기념시설』 중 「‘잊혀진 홀로코스트’- 남경」(박강배)에서 부분 발췌하였다.

일본군은 193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6주 동안 난징에서 중국인을 비열하고 잔인하게 유린하였는데 이를 일컬어 ‘난징대학살’이라 한다. 희생자는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고 난징시의 3분의 1이 파괴되어 ‘난징대학살’은 제2차 세계대전 3대 학살 중 하나로 불린다.³⁴⁾ 이렇듯 난징은 ‘남쪽의 수도’라는 명칭과 ‘중국인의 아픔’을 동시에 간직한 곳이다.

난징학살기념관은 1차로 1985년 8월 15일, 2차로 난징학살 60주년을 맞아 1997년 12월 11일 개관³⁵⁾(이하 舊館)하였다. 그리고 난징학살 70주년을 기념하여 구관 터에 2007년 12월 13일 확대 건설한 신기념관³⁶⁾(이하 新館)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구 관

1) 구성과 시설

난징학살기념관은 난징시 서쪽 외곽의 난징학살터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역사성과 장소성을 담고 있는데 ① 두 개의 전시관과 두 곳의 유골 전시관, ② 파괴된 도심과 살해된 죽음을 의미하는 부조물 금릉겁난(金陵劫難), ③ 수난상황을 부조한 벽(屠殺, 劫難), ④ 생존 수난자와 극동국제군사법정에 관여하였던 중국인 등 222명의 족적을 탁본해 만든 동판로(南京大屠殺歷史 證人腳印銅版路),³⁷⁾ ⑤ 기념물이 아닌 듯 느껴지나 실제로는 기념관의 주제인 삶과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자갈밭과 초

34) 난징학살의 피해에 대해서는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편(2003), 『글로벌화와 인권 · 교과서』(역사비평사) 중 「난징대학살이 난징 시민생활에 끼친 영향에 대한 간략한 분석」(劉燕軍)을 볼 것. 아울러 중·일 양국의 전쟁배상 문제 처리경과와 민간의 대일본 손해배상 청구현황은 「일본의 침략전쟁 손해배상책임 회피 경과에 대하여」(孟國祥)를 볼 것.

35) 난징 東南大學 齊康 교수 설계. 제강 교수는 약 200여 개의 건축물을 설계하였는데, 그중 기념성 건축물은 20여 개이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南京雨花台烈士紀念館(1988), 淮安周恩來紀念館(1999), 河南省博物院(1999), 沈陽“九·一八”歷史博物館(1999), 福建省歷史博物院, 鎮海口海防歷史紀念館 등이 있다. 제강 교수는 1993년 중국과학원 원사가 되었고, 중국 당대 15위 국가급 건축대사이며 1980년대 중국 10대 우수 건축 예술 작품 중 두 작품을 설계하였다.

36) 설계경기를 거쳐 華南이공대학 건축학원장 何鏡堂 교수 설계. 何鏡堂은 西漢南越王墓博物館(1985)을 설계하였고, 1994년 中國工程院 설계대사가 되었다.

37) 2002년 학살 6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설치.

지(草地)로 구성되어 있다.

구관은 10년 이상의 차이를 두고 1차에는 주 전시관, 유골 전시관, 자갈밭과 초지, 부조벽, 2차에는 통곡의 벽, 부조물 금릉겁난과 부조물(屠刀下的人頭, 的手)로 나누어 시설하였음에도 매우 조화롭다.

2) 설계정신

설계자는 기념관의 주제를 삶과 죽음[生與死], 고통과 한[與]으로 설정 한 후 수난자의 고통, 살아남은 자의 한, 관람자에게 전해질 감염력(感染力)을 건축물·장소·벽·나무·언덕·부조물·주변과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표현³⁸⁾하였다.

설계자는 국치(國恥)와 민족의 피와 눈물의 재난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깊게 고민하였고, 기념관이 사회·국가·민족감정의 결정체가 되도록 설계하였는데, 이를 위해 겁난(劫難)·비분(憤)·억압(抑壓)이라는 ‘깊은 언어’를 채용하여 재난의 역사는 영원히 소멸할 수도 없고 소멸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기념하기’를 반영하였다.

3) 기념관 설명

(1) 엄숙하지 않은 기념관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념관과 기념시설은 정문에서부터 엄숙하기 그지없고 중앙에 우뚝 솟은 추모탑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이 뚜렷하여 한없는 위용을 품는다. 무릇 기념관이란 웅장하고 규모 있고 네모반듯해서 권위가 하늘을 찌러야 기념되리라는 우리식 기념 관념은 이곳 난징학살기념관에는 없다.

도심의 길거리와 맞닿아 차이를 두어 구분하지 않은 정문 입구, 기념관 주변 민가와 어울리는 자연스런 높이, 네 방향 어디로든 소통되는 울타리, 원래 구릉이라는 지형을 그대로 살리어 높고 낮음에 맞춰 시설한 난징학살기념관은 70여 년 전 난징학살의 현장에 있지 않았던 관람자들에게도 충분히 숙연감을 준다.

그래서 난징학살기념관은 부끄러움이 한 치라도 있는 자는 감히 근접을 못하도록 벽을 치는



38) 侵華日軍南京大屠殺遇難同胞紀念館(1999), 『齊康 建築設計作品系列 2』, 遼寧科學技術出版社.

성스러운 기념물이 아니라 수난에 살아남아 고통스럽고, 삶에 지쳐 좌지은 세인들에게 되돌아 반성케 하고 힘을 주는 곳이다.

(2) 관람동선

기념관 정문에 '1937. 12. 13 - 1938. 1'이라는 학살기간이 각인된 13미터 높이의 '십자가 탑'을 지나 '300,000'이라 새겨진 벽(中山)을 향해 걷는 동안 관람자는 학살의 기간과 희생의 정도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설계자의 오래된 역사의 현장이 아닌 바로 지금도 계속되는 듯한 '감염력'이라는 설계의도에 빨려 들어간다.

상처받은 난징의 상징 '중산문'과 거기에 남은 기관총 사격 흔적, 도살용 칼에 잘리어진 머리, 생매장당할 때 묶여져 발버둥치는 손 부조물 그리고 파괴된 난징의 도심 벽, 이 각각의 부조물을 마치 하나처럼 형상화해 놓은 조형물 '금릉겁난'을 뒤로 하면 동관로 위에 상처를 드러내고 서 있는 두 명의 할머니를 만나게 된다. 생존자들의 발 모양 탁본을 하나하나 새기며 '동관로'를 걷다 보면 계단이다.

계단을 올라 언덕의 정상에 서면 한없는 흰색 자갈밭과 새파란 초지이다. 자갈밭 끝자락에 고목(枯木) 두세 그루와 강렬한 인상의 '모친상(母親像)'이 홀연히 서 있고 그 너머에 죽음을 모시는 관 모양의 '유골 전시관'이 있다.

난징학살기념관에서 계단 고개를 넘는 것은 현실에서 과거로, 즉 70여 년 전 학살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다. 계단 고개를 넘어 과거로 가면 양쯔강가에 쌓이고 쌓였다던 30만 주검의 유골을 표



그림 1_구기념관과 삶과 죽음을 표현한 자갈밭과 초지

현한 자갈밭과 민족의 피 흘림을 보고 그토록 슬피 울며 흘렀다는 새파란 양쯔강 강물의 초지이다. 그래서 자갈밭을 둘러싸고 있는 풀과 그 안의 자갈은 강렬하게 대비되어 삶과 죽음[生과 死]으로 관람자에게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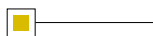
자갈밭과 초지를 따라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표현한 50여 미터의 ‘부조 벽’이 펼쳐져 있다. 부조 벽은 도심과 기념관을 경계지어 놓은 외벽에 감싸여 있으나 결코 도심과 기념관을 분리하지 않는다. 외벽을 낮게 하고 부조 벽의 높낮이를 일정치 않게 하여 도심 전체의 학살과 이곳 기념관의 학살이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념관 내에 학살터 16곳을 상징하는 비석을 세워 난징 시내 전체가 학살터였음을 기억케 해 준다.

부조 벽 끝자락의 ‘통곡의 벽[哭牆]’에서 사망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나면 유골 전시관이다. 어떻게 엮혀 있는지 기늙조차 할 수 없게 뒤엉켜 있는 유골을 땅속에 그대로 전시하고 있다. 유골 전시관을 지나면 유리벽으로 에워싸인 유골 발굴현장 ‘만인항[滿人抗]’이다. 1차 기념관 건설 과정에서 발견된 208구의 유골이 죽음 당시 모습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

‘주 전시관’은 사건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진상규명 과정 등을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는데, 사진자료와 영상물 그리고 총·칼·의복 등 1차 자료도 전시되고 있다. 난징학살기념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주 전시관 운영인데, 설계자는 주 전시관 실내를 어둡게 구상하여 관람객의 집중을 의도하였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열어 둔 창문으로 투사된 햇빛에 온도조절이 안 되거나 햇빛 때문에 관람객의 주의가 분산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전시장의 상대습도와 온도조절이 되지 않고 개별 전시물에 직접조명을 하면서도 시간조절 스위치나 방산기를 부착하지 않아 전시물의 국부적 손상이 있다.

역사적 장소에 자연적 요소를 거르지 않고 아담하고 소박하게 시설된 기념관은 설계와 전시 그리고 운영이 함께 호흡하지 못하여 많은 아쉬움이 있다. 특히 당의 영도성을 주장하는 전시물과 전시관이 국가와 성정부 등으로부터 어떤 지정³⁹⁾을 받았다는 과시성 팻말을 수도 없이 내걸어 기념관에 들어서면서 받은 감동과 흥분을 완전히 삭감시킨다.

관람을 끝내고 주 전시관을 나서면 다시 처음 오르던 계단 고갯길이다. 관람자는 그때서야 현실에서 과거로 그리고 다시 현실로 이어지는 설계자의 충실한 안내를 깨닫게 된다. 설계자는 학살



39) 난징대학살 기념관은 全國愛國主義教育示范基地 등 77가지의 각종 영예지정을 받았다고 한다.

현장이 구릉임에 착안하여 이를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주 전시관을 땅 밑에 배치한 것이다. 결국 관람자가 처음 섰던 고갯길의 계단은 주 전시관의 지붕으로 관람객은 현실 → 과거 → 다시 현실로 되돌아오게 된다.

2. 신관

1) 확대논리

난징학살기념관은 갈수록 늘어나는 관람객 수용⁴⁰⁾과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필요한 크기를 확보⁴¹⁾하기 위하여 기념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기념관 확대에 따른 대형화, 장엄성 강조에 따른 소박함 상실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005년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의 기념관 확대 비준에 이어 2005년 3월 설계경기를 거쳐 설계자를 화남(華南)이공대학 건축학원장 하경당(何鏡堂) 교수로 결정하였다. 2005년 12월 기공하여 2년간의 공사를 거쳐 2007년 12월 개관하였다.

2) 현황과 설계정신

신관은 구관의 3배로 총면적은 2만 2,000평, 총 건축면적은 7,500평이다. 구관의 시설을 중간에 두고 양측에 ‘신전시관’과 ‘평화광장(평화여신상, 명상의 방, 승리의 벽, 숲 등으로 구성)’을 배치했다. 신관은 부지 형편에 따라 기다란 배 모양이다.

신관은 ‘전쟁’, ‘살육’, ‘평화’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설계되었고, 공간개념은 ‘전쟁을 종식시키고 민생에 힘쓴다(鑄劍爲犁)’⁴²⁾이며, 평면개념은 ‘평화의 배(和平之舟)’이다. 이런 설계 개념으로 시설된 신관은 ‘절단의 칼날(신전시관) - 죽음의 정원(구관의 자갈과 초지) - 평화의 목소리(평화공



40) 난징학살기념관은 1985년 개관부터 20년 동안 1,400만 명이 관람하였고 그중 외국인은 약 10%였다. 2004년 3월 부터 시작한 무료관람으로 휴일에는 1만 5,000여 명, 평일에는 5,000여 명이 관람하였다.

41) 난징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3대 피해지로 일컬어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히로시마 평화공원이 세계문화유산인 것에 비해 난징학살기념관은 세계문화유산 등록 기준인 5.33헥타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크기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논리.

42) ‘鑄劍爲犁, 馬放南山’-칼을 녹여 쟁기를 만들고, 말을 남산에 풀다. 전쟁을 종식시키고 민생에 힘쓰다.

원'라는 세 개의 경계로 구분된다.

설계자는 '입구에 들어선 관람객의 진동하는 심정(신전시관)이 깊고 무거워졌다(만인항의 유해, 자갈밭과 초지) 결국 시원스럽게 확 트이는(평화광장) 마음을 갖게 되어 마치 정신적 세례를 받는 것'을 의도하였다고 한다.

난징학살기념관 신관은 '일본의 중국 침략과 난징 인민 학살의 확증을 충분히 표현하는 전시관,⁴³⁾ 전국 애국주의 교육기지, 난징 인민이 동포의 수난을 애도하는 장소, 신세기 난징의 상징적 건축'을 목표로 건설하였고, '세계일류, 국내최고, 국가상징적 전쟁기념관'이라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

3) 기념관 설명

날카로운 칼날 모양의 신전시관 끝에서 기념관 입구로 향하면 사건 발생 당시 수난 상황을 형상화한 '주제조각'⁴⁴⁾을 볼 수 있는데, '승리의 벽'의 조각과 함께 조각은 신관의 클라이맥스 중 하나이다.

입구의 '기념광장'을 거쳐 '신전시관'을 관람하고, '만인항' 유골 전시관을 지나 '명상의 방'에 도착하면 '평화광장'이다. 평화광장 중간으로 물이 가득 담긴 수로가 흐르고 그 끝에 '평화'여신상⁴⁵⁾이 우뚝 서 있다. 수로 우측으로는 '승리의 벽'이, 좌측으로는 숲이 조성되어 있다. 결국 신관의 끝 자락이 선수(船首)가 되고, '평화'여신상이 선미(船尾) 모양이다.

'신전시관'은 7,500평의 복층·다면·다각형으로 관람객이 한눈에 전시물을 다 볼 수 없게 하는 최신 전시관 설계경향을 반영하여 시설되었다. 구관의 전시관에 비해 다층·다양한 전시물을 세련된 기법으로 전시하고 있다. 신전시관 공사 중 난징학살사건 희생자 19구의 완전유해가 발굴되어 7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난징학살이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었다.



43) 신기념관이 개관된 이후인 2008년 2월, 상하이 주재 일본 총영사가 기념관을 방문하여 “난징기념관의 전시내용이 일본인의 잔학성을 반복 강조하고 있고, 희생자가 30만이라는 숫자가 옛날보다 더욱 강조되어 있는바, 난징은 기타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기념관을 참관하는 일본인들에게 반감을 줄 수 있으니 전시내용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일본과 중국에서 있었다.

44) 中國雕塑院院長 吳爲山 창작.

45) 沈陽魯迅美術學院 孫家彬 교수 창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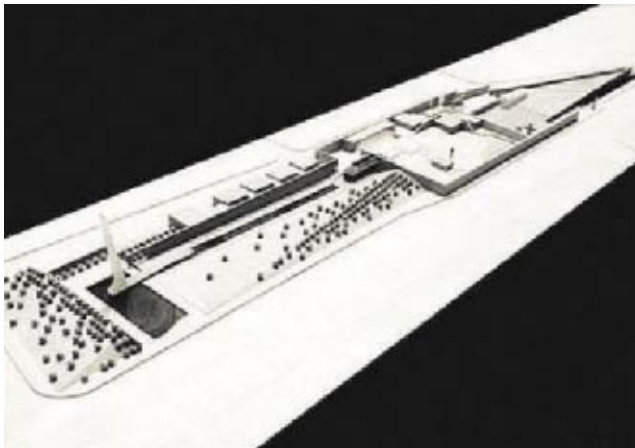


그림 2_신기념관 조감도



그림 3_ '평화광장'의 '평화'여신상과 '승리의 벽'



그림 4_신전서관

‘평화광장’은 ‘전쟁이 가져온 죽음과 상흔을 평화가 모두 약동케 한다.’는 설계정신이 반영되었는데, ‘평화광장’ 맨 끝의 ‘평화’여신상의 높이 30미터는 30만 희생자를 의미하고, 떠오르는 태양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 중국 어머니의 위대한 품채를 표현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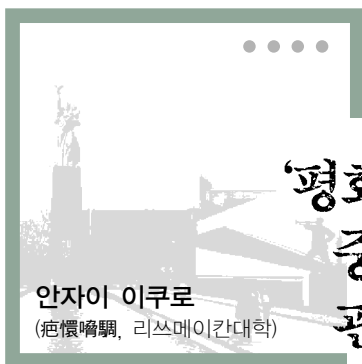
‘평화광장’ 오른쪽을 차지하고 있는 ‘승리의 벽’⁴⁶⁾은 140미터로 중국 인민이 피 흘려 쟁취한 승리의 장면이 부조되어 있다.

신관은 구관을 가운데에 두고 양측에 신전시관과 평화광장을 시설하였는바, 웅대하고 장엄한 신관의 건축물과 조형물에 구관의 소박하고 아담한 시설이 묻혀 조화롭지 못하다. 또한 구관은 주위의 민가 및 도로와 자연스럽게 어울렸으나 신관은 좌우측으로 큰 도로를 내고 기념관 주위 건물을 후방 30미터로 밀어내 대형 성이 자리 잡은 듯 자연스럽지 못하다.

결국, 신관은 웅대한 건물, 가로막힌 벽, 높은 기념탑 등으로 대단히 서사적이고 장엄성을 강조한 건축물이 되었는바, 역사적 장소에 자연적 요소를 거스르지 않고 건축되어 소박하였던 구관의 매력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46) 中國雕塑院院長 吳爲山 창작.



안자이 이쿠로
(疤痕嚙駒, 리쓰메이칸대학)

‘평화를 위한 박물관’의 조건 – 중일 양국의 평화적 · 공생적 관계 발전을 위하여

현대 평화학에서는 ‘평화’는 ‘전쟁의 대치 개념’에서 ‘폭력의 대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다. ‘폭력’이란 ‘인간 능력의 전면 개화를 막는 원인’을 의미하여 전쟁은 물론 가장 거친 폭력이지만 기아 · 빈곤 · 차별 · 인권 억압 · 사회적 불공정 · 환경 파괴 · 교육이나 의료 지체 등 자기실현을 방해하는 원인들도 포함된다. 따라서 평화박물관이 드는 주제도 다양화되고 있는데, 세계의 평화박물관 노력을 결집하기 위해 ‘평화를 위한 박물관 국제 네트워크’가 공동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평화를 위한 박물관’이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고찰하고 과거와 성실하게 마주하면서 평화적인 미래를 개척하는 중일 양국의 박물관이 공동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제언한다.

저자는 소위 난징학살사건으로부터 70년째에 해당하는 2007년 12월 13일 · 14일, 난징에서 개최된 침화일군난징대학살사학술연토회(侵華日軍南京大屠殺史學術研討會, 주최: 중국항일전쟁사학회, 침화일군난징대학살사학회)에 참가하여 본고와 같은 제목의 보고에 기초하여 중국 측의 연구자 · 교육자와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때마침 침화일군난징대학살우난동포기념관(侵華日軍南京大屠殺遇難同胞記念館, 중국에서는 ‘紀念館’이라고 표기하지만 일본식 표기에 따라 記念館이라고 표기한다. 또 이하 필요에 따라 ‘난징학살기념관’이라고 약기한다)이 대규모의 개장 공사를 끝내고 개관해서 새로 단장한 기념관을 견학할 기회도 되었다.

본고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난징의 학술회에서의 보고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하 1~4), 둘째, 그에 대한 연구회에서 한 토의의 개요(5), 셋째, 새로 단장한 난징학살기념관의 성격을 첫째의 논점과 관련해서 검토하는 것(6)이다. 예상하던 것이기는 하지만 이하 1~4에서 소개

하는 ‘평화를 위한 박물관의 조건’에 관해 저자가 제기한 것에 대해 격렬한 반응이 있었고, 출석자의 일부는 혐오감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또 새로 단장한 기념관을 논할 때 난징학살사건에 대해 최근 일본에서 출판된 저작에 대해서도 언급하겠다.

I 머리말

2005년 5월에 스페인 게르니카에서 개최된 제5회 국제평화박물관회의에서 ‘평화박물관 국제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f Peace Museums)’를 ‘평화를 위한 박물관 국제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f Museums for Peace)’로 명칭을 변경했다. ‘평화박물관(Peace Museum)’과 ‘평화를 위한 박물관(Museum for Peace)’는 어떻게 다른가? 본고에서는 먼저 현대 평화학에서의 ‘평화’에 대한 정의를 개괄하고, ‘평화박물관’과 ‘평화를 위한 박물관’의 차이를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평화를 위한 박물관’이 충족해야 할 몇 가지 조건에 대해 고찰하겠다.

II ‘평화’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고찰하기에 앞서 현대 평화학이 ‘평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다.

현대 평화학에서는 평화는 ‘전쟁의 대치 개념’이 아니라 ‘폭력의 대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력이 없는 상태’이다. 여기서 ‘폭력’이란 “인간 능력의 전면 개화를 막는 원인”이다. 노르웨이 출신의 평화 연구자인 요한 갈통(Johan Galtung)의 표현을 빌리자면 “잠재적 가능성과 현실적 가능성의 차이를 낳은 원인”이라는 것이다.¹⁾



1) Johan Galtung(1969),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VI, No. 3,

전쟁은 인간을 살상하고 삶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빼앗기 때문에 가장 거친 폭력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현대에도 평화학의 제1급 문제이다. 전쟁에서의 살육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를 직접 간파할 수 있을 경우 이것을 ‘직접적 폭력(direct violence)’이라고 한다. 살인이나 왕따도 행위 주체가 가시적이며 직접적 폭력이다.

그러나 인간 능력의 발로를 저해하는 요인은 이 밖에도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기아·빈곤·사회적 차별·인권 억압·환경 파괴·교육이나 의료의 지체 등은 모두 인간 능력의 전면 개화를 방해하는 사회적 원인이며 그런 의미에서 폭력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에서는 5초에 1명 비율로 아사자가 나오고 있다. 하루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절대적 빈곤자’의 비율은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상당하는 13억 명이나 된다. 인간으로서 건강하게 자라고, 필요한 교육을 받아서 능력을 개발하며, 적절한 직업을 발견하여 왕성하게 노동을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자기 실현의 길이지만 우리의 세계에는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원인이 있다. 이들 원인은 식민주의가 초래한 남북 간 격차가 원인일 때도 있으며, 또 시장경제의 구조가 원인일 때도 있는데, 종합해서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 또는 institutional violence)’이라고 부른다.

더욱이 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하는 문화의 양상을 ‘문화적 폭력(cultural violence)’이라고 부른다. 전쟁의 시대에는 국민을 전장에 앞세워서 적을 증오하며, 목숨을 아끼지 말고 용맹과감하게 싸움에 임하기 위하여 구조적·문화적 폭력이 거칠게 난무한다. 1931년 만주사변(Manchurian Incident)으로 시작하여 1937년 중일전쟁을 거쳐 1941년 태평양전쟁에 돌입하여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침략한 일본의 ‘15년 전쟁’ 시대에는 일본 국민에게는 사상·신조·표현의 자유가 없고,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삶이라는 국가주의적 가치관을 철저히 주입하는 교육이 행해졌으며, 그림도 음악도 연극도 영화도 문학도 모두가 국민을 전쟁 정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총동원되었다. 국가에 의한 여러 가지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가 만들어지고 전쟁 정책에 반대 또는 저항하는 사람을 투옥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기까지 하는 억압적인 정치 체제가 시행되었다. 전쟁이라는 직접적 폭력을 실행하기 위하여 모든 구조적·문화적 폭력이 버젓이 통하는 시대였다.

따라서 ‘평화’를 현대적으로 다시 정의하면 “평화란 인간의 잠재적 능력이 표출되는 것을 저해



하는 원인인 폭력의 부재를 의미하여, 폭력에는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 이외에 기아·빈곤·차별·인권 억압·환경 파괴·교육이나 의료의 지체라는 구조적 폭력 및 그것들을 조장 또는 정당화하기 위한 문화적 폭력이 있다"가 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전쟁이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평화를 ‘소극적 평화’, “직접적 폭력뿐 아니라 구조적·문화적 폭력이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평화를 ‘적극적 평화’와 구별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다. 또 직접적 폭력에 대해 구조적·문화적 폭력을 간접적 폭력이라고 포괄하기도 한다.



‘평화박물관’이란 무엇인가?

현대 평화학의 ‘평화’의 개념 규정에서 보면 ‘평화박물관’은 단지 전쟁 문제만을 다루는 박물관으로 한정되지 않게 된다. 넓은 의미로는 인권에 관한 박물관이나 환경 문제에 관한 박물관도 평화박물관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래서는 너무 무한정하고 막연해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여기서 통상 ‘평화박물관’이라고 할 경우에는 대상을 협의의 평화 개념 즉 직접적 폭력으로서의 전쟁이나 분쟁의 문제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권이나 환경 문제에 관한 박물관은 각각 인권박물관이나 환경박물관으로 상대적으로 구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International Network of Peace Museums가 발족한 당초 ‘Peace Museum’을 염두에 둔 것은 반전(反戰)·부전(不戰)·비전(非戰) 등의 메시지를 사회에 발신하는 것을 기본적인 취지로 한 박물관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범주에 속하는 여러 박물관은 전쟁이나 분쟁의 실태를 실질 자료나 사진, 디오라마, 해설 패널 등을 통해 전시하고 전쟁의 비참함이나 비인도성을 밝힘으로써 평화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수법을 취해 왔다. 일본의 평화박물관을 예로 들면, 히로시마(広島) 평화기념자료관이나 나가사키(長崎) 원폭자료관은 3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내고 피폭에서 60년 이상이 지나도 여전히 피폭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핵무기 사용의 비인도적인 실태를 전시하는 것을 통해 핵전쟁을 방지하고 핵무기를 폐기하는 인류사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오키나와현(沖縄縣) 평화기념자료관(平和祈念資料館)은 오키나와 현민의 4명 중 1명이 사망한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오키나와에서 있었던 비참한 지상전의 실태를 전시하고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

켜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호소한다. 도쿄대공습·전재(戰災)자료센터는 1945년 3월 10일 미군의 도쿄대공습으로 하룻밤에 10만 명 이상의 생명이 빼앗긴 어마어마한 전략폭격의 비참상을 전시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발신하고 있다.

이런 범주에 속하는 평화박물관은 이하의 두 가지 문제의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전쟁 피해의 비인도적 실태를 묘사하는 것은 그러한 피해를 끼친 공격 쪽의 가해 행위의 비인도성을 폭로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의 비참함을 리얼하게 묘사할수록 참관자에게는 “이런 피해를 끼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감정을 자극하여 평화박물관의 참관을 통해 적개심을 일으키고 가해국 국민에 대한 비우호적인 감정을 증가시키기 쉽다. 즉 평화박물관이 “과거의 원한을 증폭하는 장”으로 기능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필자가 관장인 리쓰메이칸(立命館)대학 국제평화뮤지엄(國際平和ミュージアム)은 1992년 4월, 개관에 앞서 한국독립기념관을 방문하여 참관을 끝낸 한국인 관람자와 출구 인터뷰를 시도한 적이 있다. 이 기념관은 1982년에 일본 문부성이 역사교과서에 대한 검정 과정에서 ‘침략’이라는 용어를 ‘진출’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개신 의견’을 송부한 것이 보도되면서 이에 반발한 한국 정부가 전 국민적인 모금을 호소하여 건설한 거대한 박물관이다. 식민지 지배 시대에 일본인이 한국인에 대해 행한 여러 비인도적인 행위를 호소력 있는 디오라마 등도 사용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출구에서 인터뷰에 응한 한국인은 하나같이 “일본 민족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감상을 말했다.

평화박물관은 과거는 과거로서 사실에 따라 엄밀히 응시하면서 그것이 단지 원한을 상기시키는 적개심을 선동하는 장으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그러한 비극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양 국민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장이 될 것을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 피해를 묘사하는 것에만 역점을 두어 결과적으로 적대 관계를 증폭시키기만 하는 시설로 끝난다면 그것은 ‘평화박물관’이라기보다 오히려 ‘전쟁박물관’ 또는 ‘폭력박물관’으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과거 전쟁의 역사뿐 아니라 전쟁 종결 후에 가해국 정부나 시민이 그 전쟁을 어떻게 반성하고 화해나 평화 창조를 향해 어떤 활동을 경주했는지도 포함하여 소개할 것이 기대된다.

리쓰메이칸대학 국제평화뮤지엄이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중국의 침화일군난징대학 살우난동포기념관(侵華日軍南京大屠殺遇難同胞記念館)은 그 명칭에서도 1937년에 일본군이 일으킨 대학살 사건의 피해를 전시한 박물관인 것이 분명하지만 2002년 3월에 이 기념관의 명칭을

‘중국난징국제평화센터’로 변경하는 안을 난징정치협상회의의 위원이 제안한 것이 보도되자 난징 시민의 80%는 “(이런 명칭 변경은) 구일본군이 저지른 범죄의 기억을 흐리게 할 뿐이다”라고 반대했는데 “이름을 ‘국제평화센터’로 고침으로써 기념관의 의의가 깊어지고 인류 평화라는 주제에 접근한다”라고 찬성한 5%의 대부분이 젊은 층이었다고 한다(『인민일보』 일본어판, 2002. 3. 25). 이 정보는 후에 ‘오보’라고 알려졌지만(동 3월 26일) 설령 이런 명칭 변경이 제안되었을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찬성할지 어떨지는 중일 양국 간의 긴장 상태에 좌우될 것이 분명하다. 전쟁 수행의 정신적 근거이며 A급 전범까지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에 일본의 각료가 참배하거나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과거의 공식담화(1993년 카와노 담화)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어려울지도 모른다.

둘째, 특히 일본과 같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침략 행위 끝에 원폭이나 공습, 오키나와의 지상전과 같은 비극을 체험한 나라의 평화박물관이라면, ‘피해’ 측면에 대한 묘사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가해’의 역사에 대해서도 전시할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은 1994년까지는 오로지 원폭 피해를 전시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참관한 많은 외국인이 왜 일본에 원폭이 투하되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가해 행위를 묘사하지 않았는지 자료관의 양상에 혹독한 비판을 가했다. 동 자료관은 1994년, 히로시마에는 1894년 청일전쟁 때 천황이 직접 전쟁을 지휘하기 위한 ‘대본영’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과, 전시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제국의회 가설 의사당도 건설되어 있었다는 것, 그 후에도 러일전쟁·제1차 세계대전·15년 전쟁을 통해서 서일본 최대의 군사도시였다는 것 등을 전시하는 코너를 개설하여 어느 정도 해외에서 오는 참관자의 이해를 개선하는 시도를 했다. 즉 일방적으로 일본 국민이 받은 피해만을 전시하고, 그러한 사태를 초래한 이전의 역사에서 일본의 가해 행위를 전혀 전시하지 않는 자료관으로는 이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에도 나가사키 원폭 투하에 앞선 15년전쟁의 역사를 묘사하는 코너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본의 많은 평화박물관이 가해 측면을 전시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리쓰메이칸대학 국제평화뮤지엄은 “과거와 성실하게 마주하다”를 전시 원리로 하여 가해와 피해를 균형 있게 전시하는 데 특히 신경을 써서, 전시의 리쓰메이칸대학이 국방색이 짙은 학원이었던 것을 숨기지 않고 전시하고 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일본 식민지 시대의 비인간적인 민족적 피해의 실태뿐 아니라 베트남전쟁에 파견된 한국군이 행한 가해 행위도 전시하는 평화박물관을 건설할 것을 목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와 성실하게 마주하자”는 노력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 평화박물관은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본 어린이들이 ‘인간성 불신’에 빠질 만큼 과도하게 잔학한 전시물에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잔학 행위를 하는 인간끼리 협력해서 평화를 창조하는 것이 가능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인간 불신’에 빠진다면 평화박물관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평화박물관이 전시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어야 하지만 사실이라면 뭐든지 전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설령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인도적인 사진이라도 사실은 사실로 피하지 않고 직시해야 한다”라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특히 심리적 충격을 객관화해서 처리할 수 없는 참관자의 경우에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전시물을 봄으로써 인간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잃고 평화 창조를 위한 공동 노력의 가능성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을 안게 될 수도 있다.

이전에 교토 시민이 개최한 ‘전쟁전’ 입구에, 왜 그랬는지 베트남전쟁 고엽제의 영향을 상징하는 기형 태아를 포르말린에 담근 사진을 건 적이 있다. ‘사건’은 이 사진 앞에서 일어났다. 회장 앞에서 떠돌고 있던 여고생 그룹이 회장에 들어왔는데, 이 기형 태아 사진 앞에서 패닉 상태에 빠져우는 사람, 복통을 호소하는 사람 등이 계속 나와서 그 이후 전시를 전혀 볼 수 없었다. 전쟁의 비인도적 실태에 접한 적이 없는 참관자들은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견디지를 못하고 정신적 파탄에 빠졌을 것이다.

이미 말한 대로 평화박물관이 전시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어야 하지만 어떤 사실에 대해 전시 가치를 인정하고 어떤 사실에 전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가는 박물관으로서의 가치관에 의존한다. 평화박물관은 단지 역사박물관이 아니라 ‘평화 창조를 위한 사회교육 시설’이며 참관자의 평화 창조나 화해의 의사를 저해할 만한 전시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시의 양상에 대해서 아동심리학이나 인간발달학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용하다.



‘평화를 위한 박물관’이란 무엇인가?

‘평화박물관’과 ‘평화를 위한 박물관’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첫째, 통상 ‘평화박물관’은 직접적 폭력으로서의 전쟁 참화나 비인간성을 전시하는 것을 통해

서 평화의 소중함으로 호소하고 부전·평화의 메시지를 사회에 발신하는 박물관을 의미하지만 ‘평화를 위한 박물관’의 경우에는 보다 넓게, 평화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구조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박물관도 포함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본 고치현[高知縣]에 ‘고치 시립 자유민권기념관’이 있는데, 일본 근대에서의 자유와 민주주의 획득의 투쟁을 그 선진지역인 고치현과 관련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전시한 훌륭한 박물관으로, 넓은 의미로 ‘평화를 위한 박물관’에 포함된다.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법제도나 행정 실패는 의심할 바 없이 구조적 폭력이며 그에 대한 투쟁은 평화를 실현하는 투쟁의 일환이 틀림없다.

둘째, 본래는 민속박물관 또는 미술관이지만 거기에 평화적 가치를 발신하는 코너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수도 도쿄에 있는 ‘에도도쿄박물관[江戸東京博物館]’은 도쿄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함과 동시에 도쿄의 역사와 문화를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미래의 도쿄의 모습을 생각하는 박물관으로서 1993년에 개설되었는데, 거대한 상설 전시실에 도쿄 대공습의 모습을 전시하는 코너가 있다. 이 박물관은 전체를 ‘평화박물관’이라고는 결코 부를 수 없지만 전략 폭격의 비참한 실태를 전시하는 것을 통해서 평화의 가치의 소중함을 발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의심할 바 없이 ‘평화를 위한 박물관’으로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박물관은 일본 각지에 존재한다. 또 교토에 있는 ‘탐바망간기념관[丹波マンガン記念館]’은 일본 최대의 망간광 채굴 지대에 개설된 박물관인데, 그 일각에 전쟁 시대에 조선반도에서 강제연행된 노동자에 관한 전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것도 부전·평화의 가치를 발신하는 (광의의)평화를 위한 박물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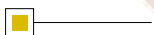
‘국제평화박물관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f Peace Museums)’를 ‘평화를 위한 박물관 국제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f Museums for Peace)’로 개칭한 것은 반전·부전·비전 등을 주제로 하는 ‘협회의 평화박물관’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구조적·문화적 폭력을 취급하는 ‘광의의 평화박물관’으로 평화 전시를 일부 포함하는 민속박물관이나 미술관 등도 포함해서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의 넓은 범주에서 많은 출구를 통해 평화적 가치를 발신하는 것이 네트워크 활동을 한층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평화를 위한 박물관’도 앞에서 말한 ‘평화박물관’에 기대되는 조건을 만족시킬 것이 기대된다. 즉 ① 비참한 폭력의 실태를 전시하면서도 원한을 증폭시키는 장이 아니라 평화 창조를 위한 공동의 마음을 배양하는 장일 것을 지향할 것, ②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별도로 하고, 피해와 가해 양면을 과부족 없이 응시하기 위하여 “과거와 성실하게 마주한다”는 자세를 가질 것,

③ 참관자를 인간성 불신으로 유도할 만한 전시 방식에는 주의를 기울일 것 등이다.

2004년 6월 교토에서 일본학술회의 평화문제연구 연락위원회와 리쓰메이칸대학이 공동 개최하는 심포지엄 ‘아시아에서의 평화박물관의 교류와 협력’이 개최되었는데, 침화일군난징대학살우난동포기념관에서는 주성산(朱成山) 관장이 출석했다. 관장은 ① 중일 양국 간의 역사 문제는 사실 인식의 문제이며 일본이 역사와 성실하게 마주하여 자기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중일 양국은 솔직한 태도로 역사 문제를 취급하여 해결하고, 상호 이해를 기본으로 미래지향의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③ 중일 양국민 사이에 있는 심리적 장벽을 넘어 평화적·공동적·안정적인 중일 관계의 구축을 지향할 것이라는 세 가지 점을 제기했는데,²⁾ 이것은 ‘평화를 위한 박물관’이 충족해야 할 조건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박물관이 침략국의 범죄적인 만행을 폭로하여 중국 인민이 받은 말도 못할 피해를 추궁하고 침략 전쟁의 비인도성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평화 창조와 우호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발신하는 것은 박물관이 평화를 위한 사회교육 시설이기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③의 기능을 유효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 교전국의 시민들에게도 ‘평화 창조를 위한 협동’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나라의 틀을 넘은 ‘평화를 위한 박물관’끼리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 기대된다. 필자가 관장을 맡은 리쓰메이칸대학 국제평화뮤지엄은 침화일군난징대학살우난동포기념관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상호 교류를 강화하여 공동 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자 한다.

또 2008년 10월에는 리쓰메이칸대학에서 ‘제6회 국제 평화박물관 회의’가 개최된다. 이 기회에 ‘평화를 위한 박물관 국제 네트워크’ 총회가 개최되어 금후의 활동 강화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교환할 것이 기대된다. 이 네트워크의 취지하에 제1회는 브래드포트(영국, 1992), 제2회는 슈타트슬라이닝(오스트리아, 1995), 제3회는 오사카·교토(일본, 1998), 제4회는 오스텐트(벨기에, 2003), 제5회는 게르니카(스페인, 2005)에서 5회의 국제 평화박물관 회의를 개최해 왔는데, 네트워크 자체는 정관도 없기 때문에 회원 규정이나 임원 선출 규정도 없으며, 정해진 재원도 없이 기부금에 의존해서 부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데 머물러 왔다. 빨리 정관을 확정해서 조직 체계를 정비



2) 朱成山(2005), 「平和博物館が国際平和交流促進の中で占める位置とその影響について—中日兩國青年の南京虐殺事件に對する歴史認識から」, 『立命館平和研究』第6號, 13~17쪽.

하고 금후 활동의 비약적 발전을 도모할 것이 기대되며, 이를 위한 예비적 토의는 이미 2007년 10월 27일과 28일에 로마에서 개최된 Board Meeting(집행위원과 자문위원의 합동회의)에서 했고 정관이나 사무국 체제의 양상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했다.

중국의 박물관 관계자가 제6회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이 기회에 세계의 ‘평화를 위한 박물관’ 관계자와의 공동관계를 비약적으로 강화할 것을 중심으로 기대한다.



침화일군난징대학살사 학술연토회에서의 반응

필자는 2007년 12월 14일 침화일군난징대학살사(侵華日軍南京大屠殺史) 학술연토회(學術研討會)의 문화분과회(문화조)에서 위에서 말한 1~4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를 했다. 보고는 ‘일본어로’ 보고집에 수록되어 있었는데,³⁾ 일본인 이외의 참가자는 틀림없이 읽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필자는 동 분과회의 ‘부조장’으로서 모두에 순차 통역의 형식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취지는 이하의 점들이다. 즉 (1) 난징사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주장의 잔존을 극복하지 못한 것에 일본 주최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2) 평화박물관은 ①비인도적인 전시를 통해 원한을 재연시키는 장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史實)을 성실히 응시하면서 장래를 향한 평화 창조를 위한 협동을 배양하는 장이어야 할 것, ② ‘피해’ 측면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가해’의 역사에 대해서도 성실히 전시해야 할 것, ③ 평화박물관은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도 그것을 본 어린이들이 ‘인간성 불신’에 빠질 만큼 과도하게 잔학한 전시물에는 배려해야 할 것, (3) 새로 단장한 난징학살기념관이 ‘평화를 위한 역사자료관’으로서 중일 양 국민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평화 창조의 공동 의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이 보고에 대해 주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다. 즉 필자가 “평화박물관은 비인도적인 전시를 통해 원한을 재연시키지 말고 평화 창조를 위해 양 국민의 협동의 의사를 배양하는 장이어야 한다.



3) 『侵華日軍南京大屠殺學術研討會會議手冊(2007. 12. 13~12. 15)』, 13~17쪽.

인간성 불신에 빠질 만큼 과도하게 잔학한 전시물에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그것을 ‘사실의 은폐로 이어지는 위험한 사고방식’으로 느낀 중국계 캐나다인[Canada Association for Learning & Preserving the History of WW II in Asia <ALPHA> 공동 주석인 열국원(列國遠)<Thekla Lit> 씨 등]으로부터 약간 감정적이라고 할 격렬한 비판이 가해졌다. 기본적인 주장점은 “잔학한 전시라도 그것이 사실인 한 손을 빼서는 안 되며, 설령 불쾌하더라도 그것을 직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라는 취지이다. 비판자와 필자는 첫 대면이며 열국원씨는 저자가 리쓰메이칸대학 국제평화 뮤지엄의 관장으로서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 설립의 평화박물관 운영에 15년간에 걸쳐 관련해 온 것과, 제3회 국제평화박물관 회의(1998)와 아시아 평화박물관 교류회의를 조직하고 현재 평화를 위한 박물관 국제 네트워크의 자문위원으로서 제6회 국제 평화박물관 회의의 일본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더욱이 난징학살기념관의 주생산 관장으로도 협력하면서 박물관끼리의 교류를 심화하고 있다는 것 등을 전혀 모른다. 따라서 필자에 관한 예비지식에 따라 스스로를 억제하는 일도 없이, 그 발언은 매우 신랄했다. 또 중국 측 참가자로부터는 관련 발언 중에서 “난징학살은 중국 측의 일방적인 피해 사례이지만 일본에 대한 원폭 투하는 일본의 가해 행위를 그치게 하기 위해 필요했다”라는 의미의 발언도 있었다.

필자는 1995~1996년에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의 종합 감수 작업을 담당하여 난징사건에 관한 사진 전시와 관련해서 ‘히노마루회’라는 이름의 시민 그룹에게 공격당하고 나가사키시가 필자들에게 지불한 사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주민감사 청구와, 시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필자도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에서 증언한 것(재판은 나가사키시 측이 승소), 또 앞에서 말했듯이 교토의 ‘평화를 위한 전쟁전’에서 베트남전쟁의 피해자 사진(포르말린에 담긴 기형아의 사진 등)이 아이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결과 토하거나 복통을 호소해서 전시를 볼 수 없었다는 경과 등도 말하면서, 난징사건과 같이 일본의 가해 행위에 관한 전시를 일본에서 개최하는 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어려움이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배려 문제와 더불어, 인간성 불신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참관자의 정신적 발달 단계에 대응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등을 설명했다. 또 동석한 다와라 요시후미(俵義文) 씨(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 사무국장)의 일본의 평화박물관에 대해 우익세력의 관민에게서 받은 격렬한 공격의 실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통적인 설명이 있었다. 또 ‘원폭 투하 필요론’에 대해서도 다와라 씨가 원칙적인 비판을 가했으며, 필자도 피폭에서 60년 이상 지난 현재도 25만 명의 피폭자가 생존해 있으며, 많은 피폭자가 건강이나 생활상의 곤란에 직면해서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일으키고 있는 사정도 언급하며 반론을 시도했다.

이런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초기의 ‘적의’와 비슷한 감정은 진화되고 중일 간의 평화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 의사가 공유된 것처럼 느껴졌다. 캐나다의 열국원 씨 등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활동을 수록한 DVD와 책자를 증정하고 2008년 10월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6회 국제 평화박물관 회의에 강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런 논의를 통해 난징학살사건에 관한 인식을 중일 쌍방의 국민이 공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념관의 전시 방식을 포함한 더욱 솔직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강해졌다.



새 단장한 침화일군난징대학살우난동포기념관의 성격을 둘러싸고

2007년 12월 13일 난징학살사건으로부터 꼭 70년째인 기념일에 ‘침화일군난징대학살우난동포 기념관(이하 난징학살기념관)’이 대대적으로 새로 단장하여 개관했다. 부지면적 74,000m², 건축면적 25,000m², 전시면적 9,800m²의 광대한 면적으로, 이런 대개장 사업을 총괄 지휘한 주성산 관장의 역량을 느낄 수 있었다.

관의 기본 개념은 난징사건의 유골 등의 발굴 현장에 만들어진 ‘유적형 역사박물관’으로 자기 규정되고 있지만 관 전체의 조형은 ‘평화의 배’, 옆에서 보면 ‘부러진 도검’, 위에서 보면 ‘화검위려(化劍爲犁)’(검을 쟁기로 바꾼 모습)를 상징하고 있으며 회관과 동시에 발행된 새로운 가이드북에는 “싸우던 양국이 평화적 관계가 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를 위한 역사박물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⁴⁾

마침 일본에서는 난징학살사건에 관한 저작이 잇달아 출판되었는데, ① 가사하라 도쿠시[笠原十九司]의 『南京事件論争史－日本人は史實をどう認識してきたか』(平凡社新書), ② 후 쇼코[巫召鴻] 역 『ザ・レイプ・オブ南京』(同時代社), ③ 후 쇼코[巫召鴻] 저, 야마다 마사유키[山田正行] 해설 『ザ・レイプ・オブ南京を読む』(同時代社) 등이다.



4) 가이드북 『侵華日軍南京大虐殺遇難同胞記念館』(2007. 12), 1~2쪽.

①의 가사하라의 저서 권말 정보를 정리하면, 1960년대 이후의 난징사건 관계 저작의 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⁵⁾

연대	사실파	부정파	학살 소수파	합계
1960년대	1	1	0	2
1970년대	14	3	0	17
1980년대	27	6	3	36
1990년대	30	11	1	42
2000년대	12	20	2	34
합계	84	41	6	131
	64.1%	31.3%	4.6%	100%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의 만화를 포함한 소위 ‘부정파’의 간행 물이 건수로는 능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대학생을 포함한 현재의 젊은이들은 이 시대에 양육 되었다. 그 논점은 이미 사실파(史實派)의 연구를 통해 파탄을 초래한 것이라고 해도, 크게 쫓는 개 를 무서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먼저 사실 자체를 과부족 없이 성실히 응시하는 것이 기본이라면, 왜곡된 역사 인식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것을 방지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음은 틀림없다.

다행히 중국에서도 새 자료의 발굴 노력을 포함하여 난징학살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학술적 인 풍조가 싹트고 있으며, 일본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가사 하라도 앞의 책 272~276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난징사건 연구의 환경과 조건의 진전은 현저하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걸쳐 일 본의 교과서 문제나 일본에서의 난징대학살 부정론의 횡행에 대한 경계, 반발, 대항으로 정부 당 국 주도로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철저화하고, 역사 교과서 등을 통해 ‘난징대학살 30만명’을 ‘국 민의 기억’으로 정착시키기에 이르렀다.



5) 笠原十九司(2007), 『南京事件論争史－日本人は史實をどう認識してきたか』, 平凡社新書, 285~293쪽의 「南京事件関係の書籍の出版」에 관한 연표에서 安齋가 표 작성.

…… 1998년에는 난징사범대학에 난징대학살 연구센터가 설립되고, 2006년에는 강소성(江蘇省)과 난징시와 난징대학의 공동시설로서 난징대학 국민사연구센터에 침화일군난징대학살연구소가 설치되었다. 이보다 먼저 1995년에 난징시에 조직된 침화일군난징대학살연구회는 난징시와 강소성 내에 있는 대학과 연구소의 젊은 연구자를 널리 결집, 회원이 대등한 자격으로 공동연구를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말하는 학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선구적인 민간적 성격을 가진 조직이다.

이렇게 대학을 중심으로 한 난징사건 연구기관의 설립과 젊은 연구자의 육성이 진행되어 난징, 강소성을 중심으로 난징사건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조건이 정비되고 있다. 그 결과의 하나가 중국의 중화민국사 연구의 제일인자인 장헌문(張憲文) 난징대학 교수를 주편자로 해서 편집, 번역 출판한 전 28권의 『南京大屠殺史料集』(江蘇人民出版社·鳳凰出版社, 2006)이다. …… 2007년 11월에는 그 후 수집된 사료를 편집, 번역하여 27권의 사료집을 발간해서 합하면 55권에 이르는 대사료집이 된다. …… 금후 이 방대한 사료집을 기본으로 유연한 사고를 가진 젊은 연구자들의 역사학적인 난징사건 연구가 진전될 것이다.

본고의 저자(安齋)는 현재 난징학살기념관 부속 난징국제평화연구소(소장: 동 기념관의 주성산 관장)의 명예소장이라는 입장인데, 일본인을 명예소장으로 임명한 배경에는 중국과 일본 연구자 사이에 자리한 틈을 메우고자 하는 주관장의 고려가 있었을 것이다. 앞에 소개한 “중일 양국은 솔직한 태도로 역사 문제를 취급하여 해결하고, 상호 이해를 기본으로 미래지향의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성산 관장의 인식도 이러한 흐름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중일 양국의 역사 연구자의 솔직한 학문적 교류가 가능하게 되며 난징학살사건에 관한 공통의 인식이 배양될 것이 기대된다. 개장 후의 기념관의 전시는 개장 전에 비해 매우 현대화되어 난징사건에 대한 전시도 근년의 조사·연구 활동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일 역사 연구자의 공동 노력이 축적된다면 전시 내용이 한층 객관성과 보편성을 획득하여 중일 어느 쪽 참관자에게도 더욱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개선될 것이 틀림없다. 동 전시관은 난징사건 자체의 사실 관계에 대한 전시에 더하여 일본병 출신의 증언이나 난징사건 관계의 일본에서의 재판 판결, 정부나 민간 레벨에서의 중일 우호 활동 등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공간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일본군의 잔학하고 무도한 살육행위를 끊임없이 묘사함으로써 ‘일본인 증오’라는 원한을 북돋운 채 관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개장 후 기념관을 참관한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장대한 전시를 보고 어떤 감상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동 기념관의 협력

을 얻어 상세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새 단장한 동 기념관이 “원한을 재생산하는 사회시설”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실을 성실히 응시하면서 장래의 평화적 관계 구축을 향해 화해와 공동의 마음을 배양하는 평화박물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게 될 것이다.

제3절에서 정리한 것처럼 난징학살기념관이 ‘평화를 위한 역사박물관’으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과거는 과거로서 사실에 따라 객관적으로 응시하면서도, 그것이 단지 원한을 상기시켜 적개심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양 국민이 어떻게 공동으로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위에서 말한 중일의 연구동향 속에서 사실 인식에 대해서는 더욱 양국민의 공통 이해를 증진시키는 성과가 기대되지만, 필자는 금후의 전망에 대해 중일 각각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첫째, 일본에는 여전히 난징사건 부정파의 우익적 조류가 존재하며 때로는 폭력적 언행으로 이 문제에 관한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일본 정부나 여당 관계자가 난징사건·야스쿠니 문제·위안부 문제·교과서 검증 등에 대해 중국 측의 반일 여론을 자극하는 언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현재도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확실히 한때 소리 높여 역사 교과서를 공격하던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몇 번이나 내부 항쟁을 반복하여 분열하고 그 모임이 편집한 교과서는 10% 이상의 채택률이라는 희망적 예측과는 달리 역사도 공민도 1%를 훨씬 밑도는 채택률로 저조하고, 마침내 후쇼샤[扶桑社]에서 출판을 거절당하는 데 이르는 등 상황의 변화도 보인다.⁶⁾ 그러나 정권 여당에서는 “난징학살은 날조”라고 주장하며 교과서에서 침략이나 가해리는 기술을 삭제하는 운동을 제창해 온 관계자를 포함해서 다수의 우익적인 세력이 소란을 피우며, 여전히 중일 간의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불식된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난징사건을 사실로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외무성 홈페이지에도 “일본 정부로서는 일본군의 난징 입성(1937) 후 많은 비전투원의 살해나 침략 행위 등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1월 25일, 난징사건을 부정하는 입장의 영화 「난징의 진실[南京の眞實]」 시사회에 내각총리대신 보좌관인 야마타니 에리코



6) 俵義文(2008), 『〈つくる會〉分裂と歴史偽造の深層－正念場の歴史教科書問題』, 花傳社.

[山谷えり子](참의원 의원)가 출석해서 무대 인사를 했다.⁷⁾ 이런 행동도 양국 간의 신뢰성을 해치고 과학의 문제로서 냉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장애물을 놓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둘째, 중국 측에도 국가의 정치 중추의 인식이 역사박물관의 전시 내용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 난징학살기념관의 개장으로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전시 내용이 계통성과 객관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지만 일본의 참관자에게 걱정되는 점이 적어도 두 가지 있다.

첫번째는, 여전히 “우난자(遇難者) 300,000”이라는 수치에 대한 매우 강한 집착이 보이는 것이다. 개장 전의 기념관 벽면에도 ‘300,000’이라는 수치가 조각되어 “논의의 여지가 없는 확정적인 수치”라는 주장을 인상지웠는데, 개장 후의 기념관에는 사진에서 보이듯이 일본어·한국어·영어·러시아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 등 수많은 언어로 “우난자 300,000”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연구자가 보면 우난자의 수는 충분한 자료에 기초한 포괄적인 연구를 한 “결과로서 명백해지는 것”이며 “최초에 수치가 있음”이라는 인상에 혼란을 겪을 것이다. 난징학살사건은 일본군의 침략의 결과 중국의 무고한 백성이 목숨을 빼앗기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당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며, 희생자 수의 다과는 잔인성의 정도를 표현하는 하나의 지표는 될 수 있지만, 300,000명은 용서할 수 없지만 50,000명이면 허용된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또한 명백하다. 필자로서는 ‘300,000’이라는 숫자에 한층 더 집착을 표시했다고 보이는 기념관의 이러한 양상이 사건에 대한 일본인의 접근에 악영향을 미치고 상호 이해의 증진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두 번째는, 난징학살기념관이 ‘전국 청소년 교육 기지’, ‘애국주의 교육 모범 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시실의 마지막 패널에도 “애국주의의 기를 높이 들고, 스스로 부단히 노력하여 미래를 개척하고 중국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해서 조국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신한다. 난징학살사건의 실상을 과부족 없이 밝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학의 문제’이지만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념관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참관자에게 발신할지는 특별히 ‘가치 선택의 문제’이다. 과학적 명제의 진위는 가치관에 의존하지 않지만 가치적 명제의 진위는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 역사적 사실과 성실히 마주하면서 난징사건의 진실을 모색해 온 결과 “애국적이라고 하더라도”라는 가치관을 제시하는 것이 특히 ‘일본적 애국주의’에 끌려서 침략전쟁에



7) 「映畫〈南京の眞實〉試寫會レポート(K-K)」(2008-01-28), 「戦争責任ドットコム」.
(<http://d.hatena.ne.jp/dotcom-sengo/>)

끌려들어간 일본인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에 대해서는 기념관으로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난징학살기념관은 “싸우고 있던 양국이 평화로운 관계가 되는” 데 공헌해야 할 ‘평화를 위한 역사박물관’으로서의 성격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역사과학적으로 보강된 전시를 통해 사건 자체의 실상을 명백히 해도 마지막에 “애국주의의 깃발 아래에서의 국가 건설”이라는 가치관을 강제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결국은 국가에 종속된 정치주의적 자료관이 아니냐”는 이미지를 주고, 가치관의 다양성을 전제로 해서 우호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양국민의 상호 이해를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남을 것이다.

VII

맺음말

난징의 학술연토회에서의 저자의 보고에 대한 격렬한 반응으로 상징되듯이 본고의 내용을 “반중국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300,000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이나 “애국주의를 통한 국가 건설의 호소”는 빈번하게 반중국적인 우익적 언론이 비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필자의 목적은 평화를 희구하는 중일의 연구자가 가장 솔직한 입장에서 ‘평화를 위한 박물관’의 모습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통 인식을 심화하는 데 있다. 필자는 난징학살기념관과의 이제까지의 교류를 통해 적어도 본 논문을 침화일군난징대학살사 학술연토회에서 보고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반발’이 예상되더라도) “문제없이 허용된다”라고 느낄 정도로 상호 이해를 심화해 왔다고 확신하고 있다. 분과회에서의 필자의 보고와 그에 대한 격렬한 비판은 그것에 이은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를 배양하고, 분과회 코디네이터인 풍역동(馮亦同) 씨를 통한 전체회 보고에서도 참가자로부터 격론이 교환된 것에 대해 놀랍다는 표현은 있었지만 전체로서 나름대로 수용되고 있었다. 가해-피해, 침략-피침략의 역사이기 때문에 풀기 어려운 대립 감정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듯한 2국 간에는 자칫하면 연구자 수준에서도 ‘거절적’ 또는 역으로 ‘영합적’인 태도를 불식시키기 어려운 사정이 생길 수 있다.

필자는 중일의 역사박물관·평화박물관 관계자 사이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불신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느끼지만 상호 교류를 통해서 신뢰 관계를 구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솔직한 문제 제기와 의견 교환을 쌓아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난징의 토론회에 참가한 미국 웨스턴 미시건대학 사학부의 요시다 다카시[吉田俊] 교수는 (야스쿠니신사의) 유슈칸[遊就館]이나 리쓰메이칸 대학 국제평화뮤지엄 등을 실제로 방문하여 전쟁이나 평화에 관한 기념관을 비교분석하는 시점을 가진 연구자인데, 필자의 보고 내용에 일종의 ‘대담함’을 느낀 것 같다. 그도 새로 단장한 침화일 군난징대학살우난동포기념관을 참관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감정이나 인식을 가지는지, 치우치지 않는 양케이트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으며, 가능하면 잘 만든 조사표에 기초한 공동조사를 계획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사계획의 책정에는 중일 연구자의 협동이 불가결하며 그 결과로부터 교환을 끌어내고 ‘평화를 위한 박물관’으로서 한층 발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중일 양국민의 화해와 협동의 조건을 개척하는 데 공헌할 것이다.





평화박물관과 군사박물관의 비교 - 비교사회학적 고찰

평화박물관은 1990년대 이후 일본 국내에 다수 개설되고 있다. 한편, 미영을 비롯한 외국에는 전쟁을 전시하는 군사박물관이 많이 있으나, 그 실태는 일본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에도 자위대 홍보시설이 다수 개설되어 있고, 최근에는 국내에 3개의 대규모 홍보시설이 개설되었다. 국내·국외에 개설되어 있는 평화박물관과 군사박물관을 비교·대조한 연구는 지금까지 행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평화박물관과 군사박물관을 비교하고, 나아가 일본과 외국의 박물관을 교차 비교하여 양 박물관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어떤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나아가 양 박물관에 대한 역사적 요인, 정치적 요인, 지역적 요인 등의 사회적 규정 요인이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평화박물관 · 군사박물관이란

전후 55년 이상이 경과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전쟁체험은 역사적 기억으로 변해 가고 있다. 전쟁체험의 계승은 평화지향의 시점에서만 계승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전쟁을 기념하는 박물관이 많이 있다. 전쟁을 다루는 박물관은 크게 평화박물관(peace museum)과 군사박물관

(military museum)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군사박물관이란 군대, 병기, 전쟁, 군무 등 군사에 관한 전시를 하여, 군대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개설되며, 전시 방침으로 반전평화적이 아닌 박물관이라고 규정한다. 그 의미로 군사박물관은 군대 발전에 유리한 기능을 하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군사박물관의 다수는 군에서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이 독자적으로 개설·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평화박물관이란 문헌, 그림, 사진, 예술품 등의 전시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그 수집물에 평화에 대한 역사적인 시야를 주어, 평화교육의 목적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일반대중에게 전시하는 박물관이다. 그런 뜻에서 평화박물관은 평화 사회의 형성을 위한 박물관이다.¹⁾ 다만, 전쟁과 평화를 전시하는 박물관을 평화박물관 또는 군사박물관으로 완전히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박물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면 좋은가. 전쟁과 평화를 전시하는 박물관의 분류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생각할 수 있다.

① 운영 주체부터 판단하여, 군에서 개설·운영하고 있는 것은 군사박물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민간이 개설한 것은 더욱 검토가 필요하다.

② 전시목적과 전시내용에서 평화지향(평화주의, 국제이해, 화해, 용서)의 정도가 강한 것은 평화박물관으로 분류한다.

③ 평화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는 입장에 있는 것은 평화박물관으로 한다. 정의를 위해서는 전쟁과 군사력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지지하고, 방위전쟁과 해방전쟁을 적극적으로 배정, 전시하는 것은 군사박물관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④ 평화박물관 또는 군사박물관 어느 쪽으로 분류하는가는 '누가' 분류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사회학적 상대주의). 예를 들어 가이드북의 편자에 따라 특정 박물관으로 분류된다.²⁾ 또한 편자가 가진 정보량에 따라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범위가 결정된다.



1) 村上登司文(1998), 『平和博物館による戦争体験継承とこれからの役割』, 京都教育大學教育社會學研究室, 23~26쪽.

2) 제국전쟁박물관이 평화박물관으로 분류된 곳도 있다(The United Nations Library at Geneva, The Archives of the League of Nations 1995, Peace Museums Worldwide, UNESCO Paris).

1. 군사박물관

1) 일본의 군사박물관

『2000년 방위백서』(2001. 2)에는 부속자료로서 전국의 「자위대의 홍보시설 등」이 게재되어 있다. 그것에 따르면 육상자위대에 103관, 해상자위대에 12관, 항공자위대에 15관, 합계 130관의 홍보시설이 개설되어 있다.

일본은 헌법상 자위 이외에는 군사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위를 위한 이상의 군대를 가질 수 없다. 구군대와 자위대 관련 사료·자료를 보관하고 전시하는 시설을 개설해도 ‘군사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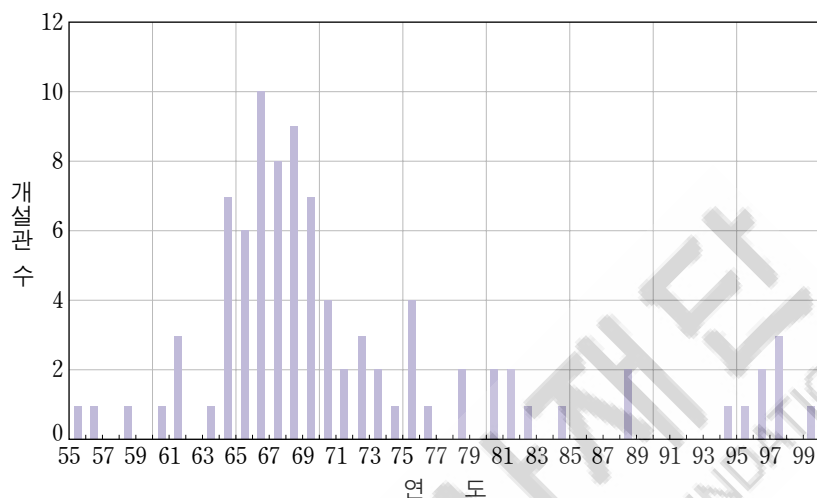
홍보시설이라는 명칭을 『방위백서』에서는 사용하지만, 실제 각 시설의 명칭은 여러 가지이며, 그중에는 자료관과 사료관의 명칭이 많다. 자위대 홍보시설 등은 자위대라는 군대를 위한 전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박물관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위대 홍보시설 등의 대부분은 자위대에서 개설·운영하고 있다. 그것들은 전력(戰歷), 군복, 무기, 병기, 전쟁영웅 등을 전시하여, 관람객에게 국방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시내용과 사회적 기능에서 비교 대조하여, ‘자위대의 홍보시설 등’이 외국 군사박물관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1955년 이후 각지의 자위대 주둔지와 기지에서는 홍보시설 등(사료관을 포함)이 개설되기 시작했다. 그림 1에서 보면, 특히 1964년부터 1969년에 개설 시기가 집중되고 있다. 개설 시기가 확인된 자위대 홍보시설 등 90관 중, 반 수 이상에 해당하는 47관이 그 기간 중에 개설되었다. 그 후 개설 수가 감소하는데, 특히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전반에는 3관에 지나지 않는다.

1960년대 후반에 전국에서 일제히 자위대 홍보시설 등이 개설된 요인으로는 주둔지, 기지 개설 10주년 사업과 15주년 기념사업으로 기념시설의 개설이 진행되어,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의 자위대에 널리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기념사업으로서의 시설 개설이 사단장과 항공대장 또는 기지

그림 1_ 자위대 홍보시설 등의 개설
년도



※ 주 : 2001년의 우편질문조사에서 확인한 자위대 홍보시설 등 90관의 개설 시기를 표시.

사령의 발의 형태로 시작되어, 기지 전체의 시책으로써 기지 이외의 사람들의 협력을 얻어서 개설 되기에 이른 것이다. 방위청에서 전국 각지의 군 주둔지와 기지에 홍보시설 등의 개설을 재촉하는 통달 등의 지시를 1960년대에 했다는 자료나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가나자와 주둔지에서 의 답신에 따르면, “중앙의 전통 계승의 방침에 기초하여……”라는 기술이 있어, 방위청 본부의 의향이 있었을 수도 있다.

또한 각 연대의 전우회와 군사학교의 동창회 등이 사료관의 개설을 요청하고, 전시자료를 제공하는 등 개설과 전시자료의 수집 등에 적극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후반 이후, 대규모(크면서 본격적인)의 자위대 홍보시설이 세 곳 개설되었다. 1997년에 해상자위대 사세보 사료관(통칭 세일 타워)이 먼저 개설되고, 1999년에는 항공자위대 하마마쓰 홍보관(통칭 에어백)이, 2002년 4월에는 육상자위대 홍보센터(사이타마현 아사가 주둔지 인접)가 개관했다. 이러한 해·공·육 자위대의 대규모 홍보시설이 규슈, 추부, 간토 지역에 한 곳씩 세워졌다. 방위청은 이 세 홍보시설을 통해 자위대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홍보시설 등의 관람객 수에서도 엿볼 수 있다. 표 1은 관람객 상위의 자위대 홍보시설 등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이것 이외의 자위대 홍보시설 등은 관람객이 1만 명 이하의 소규모가 대부분이다. 표 1에서 최근 개설된 세 곳은 모두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있고, 이전까

지 개설되어 있던 100관 이상의 홍보시설보다도 훨씬 많은 관람객을 모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에 기재된 ‘기념관미카사’는 러일전쟁에서 활약한 전함 미카사[三笠]를 1926년에 기념관 미카사(요코스카 시)로 개관하였다가 전후 1961년에 재개관된 곳이다. 유슈칸[遊就館]은 육군성 관할하에 1882년 개관, 전후 폐관하였다가 1961년부터 야스쿠니신사의 유슈칸으로 재개관한 군사 박물관이다.³⁾

표 1 _ 자위대 홍보시설 등과 민간 군사박물관의 관람객 수

개설연도	시설명(주둔지·기지 등과 장소)	1999년	2000년	2001년
1999	浜松廣報館(浜松基地)	343,374	299,425	285,153
1997	佐世保史料館(佐世保地方總幹部)	120,134	121,261	99,839
2002	陸上自衛隊廣報センター(朝霞基地) (2002년 : 106,746)*	—	—	—
1972	鹿屋航空基地史料館(第1航空群)	75,347	83,259	90,533
1960	教育參考館(第1術科學校, 廣島縣江田島)	60,091	70,220	70,924
1999	市ヶ谷記念館(市ヶ谷駐屯地, 東京)	15,543	39,250	27,589
1964	北鎮記念館(旭川駐屯地)	15,112	15,021	14,320
1981	北洋館(大湊地方總監部)	10,415	5,051	11,098
1961	記念館みかさ	104,613	111,625	103,737
1986	遊就館(2002년 : 170,000)**	—	—	—

※ * : 육상자위대 홍보센터는 2002년 4월 6일 개관부터 2003년 3월 23일까지 약 11개월 간의 관람객 수.

※ * : 유슈칸은 2002년 7월 13일부터 2003년 2월까지 약 7개월 반의 관람객 수.

2) 영미의 군사박물관

영국에는 제국전쟁박물관과 그 분관 및 육·해·공군에서 각각 개설한 군사박물관이 있어 두 가지 계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제국전쟁박물관은 영국 문화성 관할하에 있는 시설이다. 군사박물관은 1914년부터 현재까지 영국과 영연방이 관여한 분쟁을 기록하는 것이 설립목적이다.



- 3) 椎名仙卓(1989), 「軍事博物館の誕生“遊就館”」, 『博物館研究』 24(10); 山晋吾(1994), 「軍事史關係資料館探訪 5—靖國神社遊就館」, 『軍事史學』 30(1).

군사박물관은 군대의 발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영국 국민에게 자국이 치른 전쟁에 대해 상세하게 전시하여, 이에 대한 교양을 높이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시방법의 어프로치는 관람객에게 좀 더 객관적으로, 전쟁에 대해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관람객에 대한 사회적 기능은 많은 나라의 군사박물관의 사회적 기능과 같고, 정의 위한 전쟁이라면 군사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애국심을 고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제국박물관을 군사박물관의 하나로써 고찰한다.

표 2는 영국의 주요한 군사박물관을 관람객이 많은 곳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관람객이 10만 명을 넘는 박물관을 기재했는데, 그것들은 영국의 대규모 주요 군사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전쟁박물관 본관은 연간 6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있어, 런던시의 중요한 관광명소가 되었다.

표 2 _ 영국의 군사박물관 관람객 수

개설연도	시설명	1999년	2000년	2001년
1920	본관(Lambeth Road)	495,308	661,804	646,978
(1977)	다스포드	396,064	392,407	438,238
(1981)	전시내각의 방(Cabinet War Rooms)*	291,063	304,197	274,376
1978		210,359	250,971	244,761
2002	전함 벨파스트 북관(맨체스터)** (2002년 7~9월 : 198,289)	—	—	—
1960	전국육군박물관	242,944	266,441	284,985
1972	왕립공군박물관***	128,807	145,516	172,871
1963	해군항공박물관(Fleet Air Museum)	115,000	107,000	100,000

※ : 전시내각의 방은 1981년에 일반 공개를 내각에서 결정하였다.

** : 전쟁박물관 북관은 개관 후 3개월 (2002. 7~9) 만에 198,289명의 관람객가 있었다.

*** : 매년 6월에 개최되는 항공쇼의 견학자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의 군사박물관에서는 관람객의 애국심을 노골적으로 고취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물을 통해서 관람객에게 각자 생각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국 육군박물관을 설명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이것들은 수집물에 축적된 지식을 통해서 육군박물관이 묻고, 그것에 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물과 군인 생활의 틀을 구성하는 전시물을 통해서 박물관은 관람객 여러분이 스스로의 회답을 발견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⁴⁾

미국에도 군사박물관이 다수 개설되어 있다. 1846년에 해군학교박물관이, 1854년에는 웨스트 포인트 육군박물관이 개설되었다. 표 3에서 보듯 관람객이 많은 군사박물관이 몇 개가 있다.

표 3 _ 미국 군사박물관의 관람객 수

개설연도	시설명	1999년	2000년
1976	스미스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	9,401,990	8,999,968
1962	애리조나 기념관(Arizona Memorial)	1,410,218	1,452,707
1923	미공군박물관(U.S. Air Force Museum)	1,107,516	1,198,059
1982	Intrepid 해사항공우주박물관	—	600,000이상
1846	미해군 아카데미 박물관	—	110,000
1973	루이스 주둔지박물관	60,120	61,875
1968	USS Cobia/Manitowoc Maritime Museum	55,520	56,732
1991	해군해중박물관(Naval Undersea Museum)	54,282	56,961
1966	공군우주박물관(Air Force Space Museum)	21,068	42,137

스미스소니언(Smithsonian) 항공우주박물관은 1976년에 개관하였는데,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군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박물관이다. 이 항공우주박물관에는 매년 1천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다녀간다. 항공우주박물관에는 23개의 전시실이 있는데, 100기 이상의 항공기, 우주선, 미사일, 로켓 등 비행에 관한 것을 전시하고, 견학자에게 항공우주기술의 진보를 체험시키는 박물관이다. 항공우주박물관은 스미스소니언 협회에서 개설·운영하고 있어, 설치자의 입장에서 말하면 군사박물관이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전시실의 한 곳이 ‘제2차 세계대전의 항공’인데, 그것은 대전에 참전한 군인과 비행기를 기념하는 곳이다. 그 전시실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의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전투기가 전시되어 있다. 그 밖의 넓은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비행기의 다수가 군용



4) 全國陸軍博物館에서의 답장, “History of National Military Museum”에서.

기이고, 1980년대 전반 미소 군비확장 시대의 중거리 핵병기 미사일도 전시되어 있다.

에리조나 기념관은 1941년 하와이의 진주만 공격에서 침몰된 전함 아리조나호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 놓았다. 아리조나 기념관은 일본군의 펄 하버 기습작전의 순직자를 추모하고 현창하는 미국 내무부 관할의 시설이다.

에리조나 기념관은 1962년에 개관하였는데, 그 추모의 방 벽에는 에리조나호에서 죽은 승무원 전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해상의 에리조나 기념관 도선장에 1980년에 방문자 센터가 완성되었고, 그곳에는 진주만 공격의 다큐멘터리 상영실과 전시실이 있다. 에리조나 기념관에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매년 약 15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에리조나 기념관은 군사박물관인 동시에 전쟁 메모リアル이며, 현창의 기능이 강한 시설이다.

오하이오 주의 라이트패더슨 공군기지 내에 데이튼 공군박물관이 있다.⁵⁾ 이곳은 1923년에 개설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군박물관으로, 질과 양에서 세계 최대규모이다. 이곳에는 항공기와 미사일 등이 300기 이상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은 공군에서 건설하여 운영하다가 현재는 박물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재단은 군용기 제조회사와 다수의 봉사자 그리고 라이트패더슨 공군 기지학교 클럽 등에서 지원받고 있다. 박물관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용된 항공기가 다수 전시되어 있다. 전시장의 일부에 베를린 대공수작전 코너도 있다.

미국의 군사박물관은 일반 관람객에게 미국이 참전했던 전쟁과 자국 군대에 대해 전시하고, 군대의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평화박물관

평화박물관이라도 건설되기까지의 경과가 다르고, 설치목적과 전시내용도 다르다. 평화박물관에는 전쟁의 우매함과 공포를 전하는 ‘반전’의 태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 평화로운 사회와 국제 관계를 내세우는 ‘향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를 ‘반전평화박물관’, 후자를 ‘향평화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5) 藤原洋(1999), 『世界の軍事博物館シリーズ(3), 航空博物館・米國編(1)』, 『防衛技術ジャーナル』 19(1).

일본 평화박물관의 다수는 지역의 전쟁체험을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시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평화박물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체험을 계승하며, “전시하에서의 일본 국민의 (부정적) 전쟁체험기억을 보존하고 활성화한다”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는 관람객이 연간 10만 명 이상인 일본 평화기념관에 대해서 살핀 것이다. 가장 많은 것이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두 번째가 나가사키 원폭자료관(구나가사키 국제문화회관)이다. 현재까지의 누적 관람객 수를 보면, 2001년까지에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에 4,947만 명,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에는 4,425만 명이 되어 합계 9,372만 명이다. 수학적으로는 현재 일본 인구의 7할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히로시마, 또는 나가사키의 평화기념관에 입관한 것이 된다. 이것만으로도 양 평화기념관은 일본인의 다수가 가진 반핵평화주의 형성에 일정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표 4 _ 일본의 평화박물관의 관람객 수

개설연도	시설명	1999년	2000년	2001년
1955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1,180,693	1,075,111	1,113,864
1955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891,108	835,200	808,444
1989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	1,006,660	918,469	758,194
1975	(지란 특공평화회관)	573,576	540,321	719,573
1975	오키나와 현립평화기념자료관	180,247	481,078	336,245
1998	지구시민 가나가와 프라자	176,612	123,673	221,084
1988	마이즈루 인양기념관	151,475	143,566	167,822
1976	第5 후쿠류마루 전시관	162,026	134,092	111,568

평화기념관이 개설되기 위해서는 특정 전쟁체험 계승의 중요성을 지역 주민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특히 공립 평화기념관은 지역 주민들의 개설에 대한 요망이 높아야 하고, 개설을 위한 주민 운동을 전개하는 것에 따라 수장과 의회가 움직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일본에서의 전쟁체험 계승은 피해체험의 계승이 전후 오랫동안 그 중심에 있었는데, 1980년대에 가해체험의 반성이 포함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오사카, 교토, 가와사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있는 각 평화박물관의 전시내용에 전쟁의 피해체험만이 아닌 가해체험도 더해지게 되었다.

세계 최초의 평화박물관 개설은 약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폴란드계 러시아인 블로흐(Jean de Bloch)가 1902년 스위스의 루체른 시에 개설한 국제전쟁평화박물관이 반전박물관

으로 평가되어 최초의 평화박물관이 되었다. 무기의 발달에 따라 국가 간의 전쟁이 파괴적이 되고, 전쟁은 큰 희생을 동반, 민간인의 살상과 함께 사회질서의 파괴를 가져다주었다. 그 전시 내용물에는 15세기 이후의 무기와 점차 파괴적이 되는 전쟁행위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더해져 있다.⁶⁾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에른스트 프리드리히가 1925년에 ‘반전박물관’을 개설했다. 이 평화박물관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비참한 전쟁 장면과 얼굴에 심한 부상을 입은 병사들, 공동묘지 등의 사진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다.

외국에 설치되어 있는 평화박물관은 설치목적과 계승의 대상, 전시방법 등이 나라에 따라, 박물관에 따라 다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수년이 지나, 각 나라에서 전쟁의 부흥이 진행되어 국민 생활이 안정되면서, 1950년대 이후 각국 각 지역에서 전쟁체험을 계승하는 장으로 평화박물관이 개설되었다. 1990년대에는 세계 각국에서 평화박물관의 개설이 보여진다.

세계 각국에는 전쟁체험을 전달하는 평화박물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향평화’의 평화박물관도 있다. 제네바와 이탈리아의 카스티오네에 있는 국제적십자박물관에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부상병을 구조한 적십자 활동을 소개 전시한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로 비폭력운동을 추진한 마하트마 간디를 소개하는 박물관이 인도에 있다. 그 외에 노르웨이의 노벨평화상 관련 박물관 프로젝트, 미국 멤피스에 있는 전국시민권운동 박물관 등도 향평화의 평화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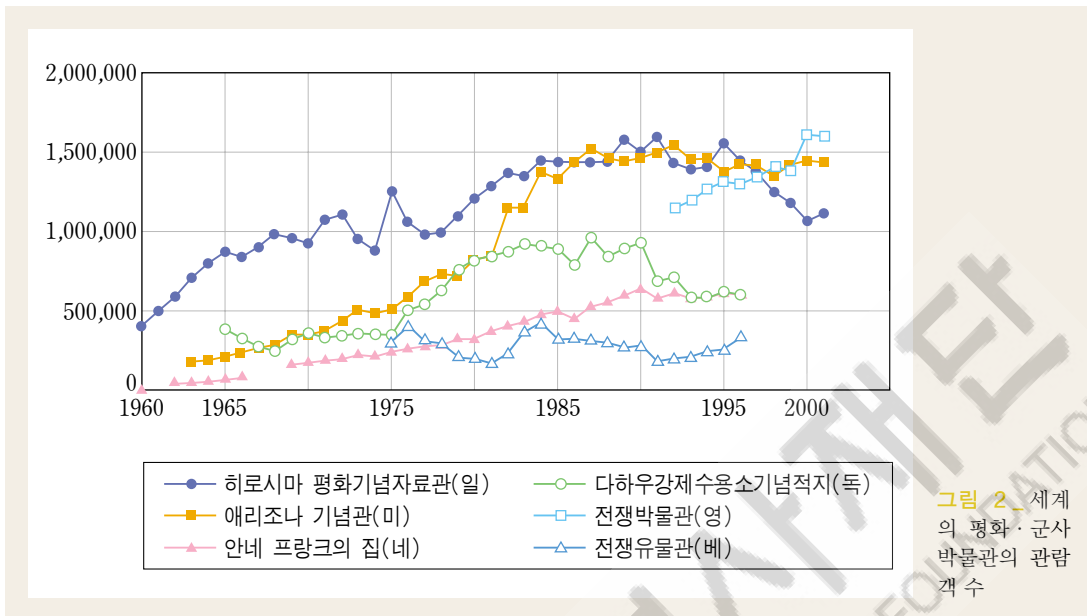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2의 세계의 평화·군사 박물관의 관람객 수를 보자. 영국의 제국전쟁박물관은 본관과 4개의 분관이 있다. 본관의 관람객은 2000년도에 가장 많은 66만 명, 전함 벨파스트는 2000년도에 25만 명, 전시내각의 방은 2000년도에 30만 명, 닥스포드는 2001년도에 가장 많은 43만 명, 북관은 개관 후 3개월 만에 19만 명의 관람객이 있었다. 그것을 모두 합하면 183만 명에 달한다.

미국 하와이에 있는 에리조나 기념관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매년 약 15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그것은 1990년대 전반까지의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의 연간 관람객 수와 비슷하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있는 안네 프랑크의 집은 1960년 5월에 개관하였는데, 1996년의 관람객 수는 62만 명에 달한다. 나치스 강제수용소의 하나인 뮌헨 근교에 있는 다하우 강제수용소



6) Peter van den Dungen(1999), "Peace Education : Peace Museum," *Encyclopedia of Violence, Peace, and Conflict*, Volume 2, p. 692.



기념지에는 특히 1980년대에 관람객이 9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홀로코스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의 ‘전쟁유물박물관’은 이전에는 ‘침략전쟁범죄전시관’이라고 하였다. 베트남전쟁은 1975년 5월에 종결되었는데, 침략전쟁범죄전시관은 그 해 9월 베트남의 사이공시(현 호치민시)에 개관하였다. 침략전쟁범죄전시관에는 베트남 전쟁에서의 미국군의 가해, 베트남인의 피해체험이 전시되어 있다. 다만 미국 시민의 반전운동이 전쟁을 종결시켰다는 것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전시로 접촉할 수 있다. 관람객은 연간 16만 명에서 43만 명이다.

전사자 이름을 새긴 기념비로서 오키나와의 ‘평화의 비’와 워싱턴에 있는 ‘베트남 귀환군인 기념비’는 대조적이다. 오키나와 ‘평화의 비’는 오키나와 전적지 마부니의 구릉(摩文仁の丘)에 있다. ‘평화의 비’에는 오키나와 전투의 전사자 이름을 전부 기재하고 있다.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았고 또한 일본인과 외국인, 연합군병사, 조선인, 대만인 등 희생자 전부의 이름을 새겼다. 그에 반해 ‘베트남 귀환군인 기념비’는 정치 중심지 수도 워싱턴의 국립공원에 1982년에 설치되었다. 기념비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죽은 미국 병사의 이름을 새기고, 국가를 위해 싸웠던 미국 군인을 현창하고 있다.

1. 평화박물관과 군사박물관의 유형화

일본과 해외의 군사박물관과 평화박물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5에서는 평화박물관과 군사박물관

표 5 _ 전쟁을 다루는 평화박물관과 군사박물관의 유형화

비교대조 항목		평화박물관	군사박물관
사회적 기능	명시된 기능 (설립목적)	전쟁체험의 계승 평화의 소중함의 확인	군대의 홍보 조국방위전쟁의 기록, 사료의 보관 국방의식의 계발
	죽은자의 기념	전쟁희생자의 위령과 추도	전쟁순직자의 추도와 현창
	잠재적 기능	평화주의로의 인도 전쟁에 관련된 애국심에 대한 불신 '평화문화'의 전달과 형성	염전기분을 방지 애국심의 함양, 정의전쟁론 긍정 '군사문화'의 전달과 형성
전시 내용	전쟁의 전시	침략전쟁, 식민지 지배, 군사적 점령	조국방위전쟁, 독립전쟁, 해방전쟁
	전쟁체험의 종류	비참한 전쟁피해체험 잔학한 전쟁가해체험	승리의 전쟁체험 용감한 전투체험 점령하 저항운동체험
	전시테마	도시공습, 원폭피폭, 강제노동, 주민학살, 홀로코스트	군사작전의 성공과 전과 군사작전의 프로세스
	전시물	유품, 사상을 보여주는 것, 무기·병기, 유 영, 피해자료	무구, 군기, 군복, 훈장, 무기·병기, 용맹스 러운 병사의 모습
	인물의 전시	민간인(비전투원)전사자, 전상병자, 평화운 동가	군인중심 영웅
	사람의 행위 전시	전쟁에서의 비인도적 행위 전쟁방지와 정전을 위한 인도적 행위	용감한 애국적 전투행위 국가를 위한 자기희생적 행위
개설 경위	개설시기	제2차 세계대전 후	제2차 세계대전 전부터
	개설장소	특정국에 편재	많은 나라에서 개설
	개설주체	지방자치체, 민간단체, 국가	군대(부대), 국방성, 민간단체

관의 사회적 기능, 전시내용, 개설경위를 유형화했다. 다만, 이러한 분류는 하나의 이념형으로, 실제 개설되어 있는 평화박물관이나 군사박물관이 표 5에서 기재된 특징을 전부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일본에 있는 평화박물관의 다수는 전쟁체험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고, 두 번 다시 전쟁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성의 의식과 평화회구의 의지를 전시방침으로 전면에 내세운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화기념관의 개설목적은 전쟁체험의 계승을 통해 ‘소극적 평화(전쟁이 없는 것)’의 중요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평화박물관에 부설된 기념비는 전쟁희생자의 위령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평화박물관에 전시한 전쟁체험은 비참한 전쟁피해자 중심으로, 잔학한 가해체험 등도 전시된다. 전시에서 채택한 구체적 장면으로 도시공습과 원폭피폭, 지상전에서의 피해상황, 강제노동과 포로학대의 형태, 억류체험, 홀로코스트의 실태, 주민학살의 모습 등이 전시되어 전쟁에서의 비인도적 행위를 고발한다.

전시물에는 전쟁장면에서의 희생자 유품과 유령, 부상자 사진, 혈흔이 묻은 의복과 유품 등 피해상황을 명시하는 자료 등이 있다. 평화박물관에 전시된 사진의 인물은 민간인이 중심으로, 상처 입은 어머니와 아이들과 노인 등 비전투원이 많이 채택되고, 군인의 경우에도 전투 중 사망자나 부상자이다.

평화박물관이 가진 잠재적 기능으로서는 어떤 전쟁에도 반대하는 평화주의에 관람객을 인도하거나, 전쟁에 관련된 애국심에 불신감 일으키기 등을 들 수 있다. 구미에 있는 평화박물관에서는 평화운동가, 평화운동, 인도적 활동과 행위를 소개하고, 사람들을 평화로운 사회 형성 운동으로 인도한다.

한편, 외국과 일본에 있는 군사박물관의 설치목적은 군대의 역사와 역할에 대한 홍보와, 자국이 행한 전쟁의 역사를 계승하여, 관람객의 국방의식을 계발한다고 할 수 있다. 군사박물관의 기념비는 조국이 행한 전쟁에서 전쟁순직자를 현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군사박물관에서 표현되는 전쟁의 전시는 조국방위전쟁, 독립전쟁, 해방전쟁 등이다. 군사박물관에 전시되는 전쟁장면은 승리의 전쟁,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작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적과 싸워 이긴 장면, 용맹한 전투장면 등으로, 그림과 사진, 모형에 의하여 전시된다. 용맹스러운 애국적 전투행위와 전쟁시 국가에 바친 자기희생적 행위가 그림과 사진, 시오라마 등으로 현창된다.

군사박물관의 전시물은 옛 무기와 무기, 화려한 군기와 군복, 훈장, 나아가서는 전투기와 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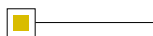
등 근대적무기 등이다(반짝반짝하게 복원한 것이 많다). 전시에서는 군사적전의 성공과 전과가 강조되고, 군사작전의 프로세스가 전시테마가 된다. 군함과 비행기의 위용, 군인의 용맹스러운 모습이 사진과 그림으로 전시되는 것도 많다. 규모가 큰 군사박물관에서는 전차와 군용기 등의 병기가 다수 전시된다. 미국 항공모함 인트레피드(Intrepid, 뉴욕), 영국 순양함 벨파스트(런던) 같은 큰 군함이라면 장비·병기와 함께 그 함내의 선실이 군사박물관이 되고 있다.

군사박물관에서는 인물로서 군인이 중심으로 전시되는데, 과거의 전쟁영웅, 유명한 장군, 승리에 기뻐하는 군인 등이고, 민간인이 전시되는 것은 적다. 전공이 있는 장군의 초상화가 걸리거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조국을 위한 방위전쟁에서 군인들의 용맹한 애국적 전투행위를 계승함과 동시에 현창된다.

이러한 군사박물관의 잠재적 기능으로는, 관람객에게 조국방위의 기강을 계발하여 애국심을 함양하고, 군사문화를 전달하여 그것을 지지하는 태도를 널리 사회적 성원에게 형성하는 것이다. 군사박물관은 조국방위와 해방을 위한 전쟁은 필요한 전쟁이라고 하여 ‘정의의 전쟁’으로 상정하는 입장에 있다.

전쟁가해에 대해서는 평화박물관과 군사박물관 모두에서 전시하고 있다. 다만 전쟁가해의 전시는 가해를 받은 측과 가해를 했던 측에서 그 의미(관람자에 대한 기능)가 다르다.

평화박물관에서는 ‘자국의’ 타국에 대한 전쟁가해의 반성은 자성이라는 형태로 행해진다. 그것에 따라 전쟁의 비인간성을 학습하고, 다음 전쟁에서 가해의 입장에 서지 않을 것을 마음에 명기하고, 반전평화의 필요성을 호소한다. 한편 군사박물관에서는 전쟁가해를 고발하고, 타국의 전쟁가해를 허용한 것을 반성하며, 전쟁가해(침략, 주민학살, 홀로코스트)를 당하지 않도록 방위력 강화를 위한 국방의식을 계발한다. 나아가 전쟁가해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개입을 통해 ‘정의 전쟁론’의 유용성을 관람객에게 보인다. 둔젠(Peter van den Dungen)은 지난날의 타국의 전쟁가해를 전하는 자료관은 가해국에 반감을 높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것은 ‘평화박물관’으로 분류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한다.⁷⁾



7) Peter van den Dungen(1999), p. 700.

2. 평화박물관과 군사박물관의 사회적 규정요인

일본과 외국의 군사박물관과 평화박물관의 사회적 규정요인으로는 역사적 요인, 정치적 요인, 지역적 요인 등이 있는데, 그 영향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이하 그 요인들이 양 박물관의 전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명제적으로 정리한다.

1) 역사적 요인

유럽의 주요한 나라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몇 개의 군사박물관이 개설되어 있다.⁸⁾ 미국과 일본에서도 1900년 이전에 이미 군사박물관이 개설되어 있었다. 그런데 세계각국에서 평화박물관을 개설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소규모 시설이 많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인 영국과 미국에는 반전평화주의적인 평화박물관은 거의 개설되지 않았다. 다만 향평화박물관이 개설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주요 작전을 기념하는 박물관이 전쟁종료 후 50년 이상을 지나서도 개설되고 있다(예를들면 미국과 영국의 D-Day기념관).⁹⁾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과 독일에서는 국민 중에 반전평화주의가 넓게 퍼져 있어, 반전적인 평화박물관(독일에서는 역사박물관)이 많이 개설되어 있다.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에서는 전쟁 전에 있었던 군사박물관이 패전 후 연합군 점령기간 중에 폐쇄되었다. 점령종료 후 10년 이상이 지난 후, 다시 이러한 군사박물관이 재개되었다(예를들면 일본의 야스쿠니신사의 유슈칸, 제1기술학교의 교육참고관 등).

특히 일본에서는 평화박물관이 다수 개설되어 있고, 평화박물관의 다수는 전쟁피해체험(피폭체험, 전장체험, 공습체험, 전시하 생활체험 등)을 계승한다. 전쟁가해의 반성을 행하는 전시는 적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난 전쟁과 분쟁이 종료된 후, 당사국에서는 군사박물관과 전쟁메



8) J. Lee Westrate(1961), *European Military Museums : A Survey of Their Philosophy, Facilities, Programs, and Management*, Washington : Smithsonian Institution.

9) 영국과 미국에서 통상 D-Day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이 프랑스에 상륙했던 날(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개시일)을 가리킨다.

모리얼이 개설되고 있다.

1990년대가 되어 다수의 평화박물관과 군사박물관이 개설되었다.

2) 정치적 요인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에서 군대를 보유한 국가의 다수는 자국이 과거 행한 전쟁의 사료 보관과 현장을 위해 군사박물관적인 시설을 개설하고 있다.

군대가 개설한 군사박물관은 군대의 홍보활동과 군인 모집활동을 위해 이용된다.

정보가 공개된 사회에서는 군대도 열리지 않으면 안 되어, 군대에 대해서도 홍보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이 해방군의 역할을 담당한 나라와 지역에서는 미군의 전쟁에서의 활약을 전시하는 친미적인 박물관이 개설되어 있다(예를 들면 한국의 인천상륙기념관, 영국의 전쟁박물관 닥스포드 내의 미국관, 룩셈부르크의 바스토뉴 역사센터 등).

군사박물관은 관람객에게 국방의식의 계발과 애국심의 함양 등의 정치적 사회화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동시에 일반대중의 군대에 대한 친근감을 증가시키고, 군사적 교양을 높이는 일을 한다.

영미에서는 정의를 위한 군사력의 행사는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대부분의 공통인식이 되어 군사박물관의 개설에 대해 폭넓은 지지가 있다.

정의를 위해서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관철해야 한다는 방침을 가진 나라에 미국이 있다. '정의의 전쟁'은 미국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는 외교정책이어서, 그것이 미국에서의 군사박물관의 개설과 전시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도 비전주의는 아니어서, 반전평화주의에 대한 지지는 강하지 않다.

3) 지역적 요인

평화박물관이 개설된 나라보다 군사박물관이 개설된 나라가 더 많다. 평화박물관이 없거나 극소수인 아시아, 중동, 동유럽 지역에도 군사박물관이 개설되어 있다.

전쟁이 일어난 지 수년(수십 년)이 지난 후, 역사적인 전적지에 그 전쟁(작전, 전투, 전제)에 대한 박물관이 개설되었다.

일본에서는 과거 공습피해체험을 전시한다. 다수의 반전평화박물관이 개설되어 있다. 영미에서는 평화박물관의 관람객보다 군사박물관 관람객이 훨씬 많다. 미국에서는 군사박물관이 관광코

스와 오락시설로도 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오키나와의 평화기념관 몇 개 정도는 지역 관광코스로 되어 있다.

IV

결론

전쟁을 전시하는 박물관에서는 ‘전쟁에 관한 집합적 기억’을 현재까지 보존·활성화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원폭피폭의 집합적 기억이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과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에 보존·활성화되어 있다. 진주만 기습공격이 하와이의 애리조나 기념관으로, 유대인 등 민족학살이 아우슈비츠 박물관, 독일의 다하우 강제수용소 기념적지, 워싱턴의 홀로코스트 박물관, 영국전쟁 박물관의 홀로코스트 전시실 등으로 계승되고 있다. 난징학살이 난징학살기념관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쟁체험을 전시하는 박물관들은 다수의 관람객을 모으고 있고, 각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집합적 기억이 관람객에게서 재생되어 계승됨으로써 활성화되고 있다.

전쟁체험은 평화지향의 시점에서만 계승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평화박물관과 군사박물관은 전쟁의 표현이 다르다. 일본 등에 있는 평화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은 전쟁체험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고,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성의식과 평화회구의 의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박물관이 가진 잠재적 기능으로는 어떤 전쟁에도 반대하는 평화주의에 사람들을 인도하거나, 전쟁에 관한 애국심에 불신감을 일으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군사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은 자국이 행한 전쟁의 역사를 계승하고 특히 조국방위전쟁과 해방전쟁을 전달하여 사회적 기능으로서 관람객의 국방의식을 계발하고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이다. 군사박물관의 순직한 영웅들의 전시와 전쟁기념상, 그리고 병사를 위한 국립묘지는 조국이 행한 전쟁에서의 순직자를 추모, 현창하는 쓰임새가 있다.

세계각국에는 평화기념관보다도 군사박물관이 더 많이 있고, 평화박물관보다 군사박물관이 더 오랜 시기 전부터 개설되어 있다. 결국 평화박물관에 비하여 군사박물관이 더 많고, 역사도 길고 규모도 크다. 거기에서 군사박물관은 사람들에게 대한 사회적 기능이 강하게 작용하고,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군사박물관은 미국 국민에게 폭넓게 지지를 얻고 있고, 다수의 미국인

이 오락을 위해서도 방문하고 있다.

일본에는 외국과 비교해서 현재까지 평화박물관이 더 많이 개설되어 있다. 일본에는 규모가 큰 평화박물관이 몇 개 있고, 평화박물관 관람객 수가 군사박물관 관람객 수보다 많다. 전후 일본인의 평화주의적 인식이 평화박물관의 개설을 지지하고 전시내용을 발전시키며, 이러한 평화박물관이 관람객을 통해서 평화주의적 의식을 넓게 사회구성원에게 형성하는 순환작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순환작용을 국제적으로 넓혀 가는 것이 일본의 현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大阪國際平和研究所(1991), 『世界平和ミュージアム交流會議報告書』.
- 大阪國際平和研究所(1999), 特集 第3回世界平和博物館會議報告書 『戰爭と平和'99』, 大阪國際平和研究所紀要 Vol. 8.
- 西田勝・平和研究室 編(1995), 『世界の平和博物館』, 日本圖書センター.
- 歴史教育者協議會(2000), 『新版 平和博物館・戰爭資料館ガイドブック』, 青木書店.
- Bjerstedt, Å(1993), "Peace Museums as Potential Instruments of Peace Education : Viewpoints Expressed by Members of the PEC Network," *Education and Debate*, No. 102, Sweden : Lund University.

※ 출전 : 『廣島平和科學』 제25호, 2003년. 원제는 「平和博物館と軍事博物館の比較－比較社會學的考察」

수도권에 개설이 기대되는 평화박물관 기본구상 · 시안

I. 지금, 왜 평화박물관인가-개설 취지와 목적

최근 몇몇 대도시를 포함한 자치단체에서 ‘평화자료관’, ‘국제평화관’ 등 명칭은 여러 가지이지만 소위 평화와 전쟁에 관한 여러 자료와 정보를 집적하여 그것을 전시, 일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그것을 총칭하여 여기서는 평화박물관(The Peace Museum)이라 부른다-의 개설을 기획 ·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재촉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각 도시가 과거에 체험한 공습 · 전재(戰災) · 전시생활 등 전쟁의 비참함을 다음 세대에 다시금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시민의식과 활동의 고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지방의 시대’라는 외침 가운데 두 번에 걸친 유엔 군축특별총회, 국제평화의 해를 거쳐 각지에서 지역 주민(草の根)을 포함한 새로운 시민 레벨의 평화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촉발된 자치단체와 의회가 평화선언 · 비핵선언을 하고 평화를 위한 다양한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평화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시민들을 계발(啓發)하려는 의식적 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날의 평화박물관은 이러한 시민, 자치단체, 국제상황의 움직임 등의 통합체로서 구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를 평화박물관을 만드는 모임은 이러한 시민들의 움직임과 각 자치단체의 노력을 중심으로 환영하며 경의를 표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수도권 내의 각 자치단체가 개설할 경우의 「평화박물관(같은 종류의 시설을 총칭함) 기본구상」안의 작성을 시도해 보았다. 이 기본구상은 자그마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난 10년간 우리들의 활동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86명의 평화박물관을 만드는 모임과 발기인의 의견을 집약하고 동 이사회의 토의를 거쳐 작성한 하나의 시안이며 수도권 각 자치단체에 대한 제안이기도 하다.

1. 수도권의 도시로서 국제평화에 공헌한다

오늘날 세계는 핵 광란의 시대라고 할 만큼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핵탄두의 증가뿐만 아니라 핵공격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핵의 겨울’이라는 비참함이 지구 전체를 파멸로 인도하는 것으로서도 경고를 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의 수도권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운용은 강화되고 항구화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머지않아 수도권 주민은 전쟁준비를 한 핵무기 체계의 망 속에서 계속 살아야만 한다는 위험한 상황을 말한다. 핵전쟁시 초기 파괴목표지역이 될 것이라는 목소가 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날과 같은 핵위협 시대에는 이미 평화는 일본뿐만 아니라 인류사회의 존재를 위해서도 불가결한 절대조건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핵무기도 전쟁도 없는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인식이 21세기의 시대인식이다. 그래서 평화와 전쟁을 둘러싼 여러 문제는 오늘날 국제적인 문제인 동시에, 특히 직접적으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관련이 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희구하는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1,100개소를 넘는 ‘평화·비핵선언’ 자치단체의 존재가 이러한 활동의 필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세계최대의 인구가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에는 세계의 중추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러한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바람과 활동을 기초로 자치단체와 시민이 각종 조직·단체와 더불어 보다 긴밀하게 연계·협동하여 다양한 분야, 영역, 레벨에서의 평화에 대한 대처를 통해서 세계평화에 적극적으로 공헌해 간다는 것의 의미는 한없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평화를 위한 모든 창조활동을 보장하고 상황에 걸맞게 향상 발전시켜 갈 수 있을 평화기능을 도시기능의 하나로서 가져야만 할 때이다. 그것은 ‘평화 속에서 생존할 권리’를 확인하고, ‘평화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일본국헌법하에서 자치단체에 과해진 책무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를 위한 거점 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다.

2. 전쟁체험에 입각해서 전쟁의 비참함을 전한다

수도권은 태평양전쟁시에 도시권이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전시생활을 강요당했다. 전국적으

로 공통적인 전시체험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 학생[學童]의 건물 등 다양한 소개(開)체험, 군수공장으로의 동원, 식량난, 그리고 연합군의 점령기 체험 등 다른 지역에 못지않은 심각한 체험을 했다. 게다가 하룻밤 사이에 1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증유의 경험을 하게 된 도쿄의 서민 거주 지역, 혹은 요코하마[橫濱]·구마가야[熊谷]·지바[千葉] 등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비롯한 각지의 공습은 많은 파괴와 희생, 그리고 수많은 비참함을 초래했다. 이러한 도시에서의 심각한 체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평화를 희구하는 원점·원동력이며, 또한 전쟁의 실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다음 세대로 전하려고 할 때의 원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쟁체험 기억이 사라져 가는 것이 오래전부터 염려되어 왔는데, 그것이 지금 전쟁을 겪은 고령자 사이에서 새로이 위기감을 수반한 우려의 목소리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시간과 더불어 확실하게 그리고 급속하게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風化] 버릴 우려가 있다. 전쟁체험의 풍화는 체험자 내부의 인구 구성의 변화 측면에서도 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최근 과거의 전쟁체험을 미래를 위해 바르게 전하고 활용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문에 대한 엄청난 수의 투고, 자비출판의 수기 발행, 전사한 병사가 최후를 맞이한 땅을 찾아가는 유족들, 목소리를 녹음하여 ‘영원한 이야기꾼’으로 남기고 싶다는 피폭자의 등장 등과 같이, 전달하려고 하는 측의 위기의식은 이전에 예가 없을 정도로 고조되어 있다.

청일전쟁에서 시작되는 근·현대의 전쟁이 미래를 위해 계속 전승되어야만 할 역사상의 국민적 체험이며, 한편으로는 그 전쟁체험의 풍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의 사회적 조치와 방법이 취해져야 할 것이다. 개개인의 노력에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달하는 측과 이어가는 측을 확실하게 연결하는 접점[場]이 존재하여, 전달해야만 할 내용을 가능한 한 풍부하고도 정확하게 집적하여 미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갖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따라서 전쟁체험의 확실한 계승은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교육 시스템과 다양한 평화운동, 사회교육운동 속에서, 혹은 매스컴을 통하여 행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남긴다=전한다=계승한다’는 운동이 계속적으로 보장되고 표현될 수 있는 사회적인 장소, 사회적인 장치를 도시기능 가운데에 갖추어야만 할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화박물관의 설치와 운영·활동의 필요성이 발생한다.

게다가 거기에는 시간적 요소가 불가분의 문제로서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보를 남기는 측의 고령화와 죽음이 확실하게 진행되어 그들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체험을 바르게 후세에 전달할 수 있을지는 길어 봐야 앞으로 10년 정도로, 전시에 사용했던 유품(물품자료와 그에 관한 데이터)의 산일(散逸), 사람들의 기억 감 등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아마도 앞으로 수년이 역사적으로 결정적 의미를 갖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쟁체험의 풍화를 방지하고 전해 주어야 할 평화에 도움이 되는 여러 정보(물품자료를 포함)를 미래를 위해 무너지지 않는 창고(校造)로 만들 수 있을지는 지금을 제외하고는 기회가 없다. 사람들의 개인체험과 그들의 마음을 포함한 평화를 위한 문화적 유산이 다음 세대의 사회적 체험으로 계승되는 일 없이 영구히 잃어버리는 것을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때이다.

3. 전쟁의 전체상·실상을 전한다

태평양전쟁 후 4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전쟁을 체험한 세대’에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로 세대교체는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이 다른 나라와 교전을 한 근대전쟁은 청일전쟁에서 시작되어 15년 전쟁을 거쳐 패전하기에 이르렀다. 위에서 언급한 전쟁에 따른 수도권의 비참함은 15년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 일어난 사건들이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기에 일본 국내에서 경험한 가장 최악의 체험은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 겪은 원폭피폭의 체험이다. 그것은 단순히 두 개의 도시에서 겪은 전쟁체험에 머물지 않고 그것이 기점이 되어서 오늘날의 핵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면 세계평화를 희구하는 일본 국민 전체의 원점이 되어야만 할 역사적 사실이다. 또한 섬 전체가 전쟁터가 되었던 오키나와현의 체험도 국내에서 태평양전쟁의 비참함을 상징하는 것을 수가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러나 전쟁체험을 생각할 때에 당시의 군대경험, 특히 해외에서의 일본인 자신의 전쟁체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른 나라에서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의 전투체험을 포함한 침략과 지배의 체험이다. 당시 국가의지로 전쟁에 참가하게 된 일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같은 인간끼리 적·아군이라는 관계가 되어 서로 죽이는 극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과 타국 민중과의 이중의 전쟁체험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체험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며, 또 일본의 가해자로서의 입장을 분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마음의 동요를 유발하여 전쟁체험 가운데서 무의식적이기는 하나 결락시켜 버리려고 하는 시민감정이 일부에 보이기도 하는 심각한 체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두 번 다시 반복하게 해서는 안 되는 체험이기도 하며, 전쟁의 가장 비참한 실상을 분명히

하는 체험이다. 패전에 이은 억류, 외국에서의 귀환과 관련된 체험도 포함해서 그러한 것의 역사상의 사실과 체험의 집적을 제외하고서 전쟁의 참모습을 알고 계속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도시로서의 전쟁체험은 15년 전쟁 중에 자리매김되고 일본 국민 전체의 전쟁체험과의 관계에 따라 파악되어야 한다. 이것은 같은 시기에 전쟁터가 되었던 아시아와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의 전화(戰火)의 비참함에 주목하는 것과 연결이 되며, 전쟁에서 피해와 가해라고 하는 양 측면을 정확하게 전달해 보다 심도 있게 전쟁의 실상에 접근해 가는 것이다. 또 전쟁의 전체상을 명백하게 밝히는 데 전쟁에 도달하게 되는 내외의 상황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체험을 계승시킬 때 전쟁의 실상을 전체로서 파악하는 입장에서, 태평양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의 시기를 최대의 초점으로 하는 15년 전쟁 중에서 일본 민중이 관계를 한 국내외에서의 전쟁체험과 전쟁의 실상을 전달해 가는 기본적인 시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전후 이미 41년, 그 사이에 수도권의 인구이동의 움직임은 격심해졌고, 또 일본 전국으로부터 인구유입 경향이 계속되었다. 이것은 당시 수도권 내 각 도시에서의 전쟁체험자의 유동과 인구비 감소를 예측하게 하는데, 다른 한편 더 넓은 지역, 다수의 전쟁체험이 집적되고 있는 것도 예측된다. 이 점에서 오늘날의 전승(傳承)은 전쟁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느 지역의 어떠한 전쟁 체험일지라도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전쟁의 전체상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시점(點)은 핵무기 폐기라고 하는 국민 공통의 바람의 원점(原點)인 원폭피폭 체험의 적극적인 계승의 중요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오늘날 피폭자의 6%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이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실상을 전달하는 일은 수도권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히로시마·나가사키 양 자치단체만이 짊어져야 되는 책무는 아니며, 또한 양 시의 자료관(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나가사키 국제문화회관)을 방문하지 않으면 피폭의 실상을 전해 주는 자료에 접할 수 없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4. 평화의 노력을 집적·보급하여 전쟁의 위험에 경종을 울린다

세계평화의 실현에서 과거의 전쟁에 관한 각종 자료·정보가 소중하다면, 현재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희구하는 모든 분야에서의 활동, 행동과 노력에 관한 다양한 사실과 자료·정보,

이것의 소개와 보급도 또한 필요하다. 최근의 경우를 보면 전후 40주년을 전후해서 문학이나 르포르타주(reportage) 분야에서의 무수한 작품들, 10피트 영화운동과 그것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진 영화와 텔레비전 영상작품군이 생겨나고, 그리고 평화미술전·평화 포스터전 운동이 있었고 반핵평화 콘서트도 활발해졌다. 더욱이 평화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의식되고 새로운 학문영역으로서 평화학(平和學)이 탄생되어 학문[學際] 간의 연구로서 평화학회의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상적인 평화를 위한 여러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영화·영상·사진, 회화, 포스터, 만화, 공예, 조각, 음악, 문학, 연극, 그리고 보도 등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적 활동 분야, 동시에 학술·연구 분야에서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활동 성과를 일본 내외를 불문하고 집적하고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자체가 평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음과 동시에, 게다가 그것은 살아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키워 가고 내일을 향한 평화에 대한 노력을 격려하고 평화적인 국제사회를 창조하는 모든 분야에서의 노력을 활성화하는 결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다양한 요인 속에 여러 가지 전쟁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을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서 배움과 동시에 현재의 위험과 전쟁의 움직임을 사실을 통하여 명백하게 하고,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서 경종을 울려가는 것도 필수적이다.

5. 국제적인 상호 이해와 협력·연대를 추진한다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고도로 긴밀한 상호 의존과 다양한 문화의 중복 속에 움직이고 있다. 게다가 이미 국제사회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일본으로서는 세계의 평화는 불가결한 조건이다. 국가 간의 전쟁수단을 줄이고 제거하는 노력과 함께, 국경을 초월해 시민과 시민, 도시와 도시가 교류하여 급속하게 상호 이해를 심화시켜 가는 노력과 계속적인 활동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었다. 이것은 평화를 위한 노력에서도 의식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최근에 평화운동 분야에서 국제회의나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인적 교류, 활동경험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핵문제를 테마로 사진집과 영화 등의 국제적인 보급·교류 노력이 바다를 건너서 직접 시민이나 서클, 단체 사이에서 활발해져 가는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자치단체에도 반영되어 ‘세계평화연대 도시시장(市長)회의’(히로시마·나가사키), ‘평화서밋’(히로시마), ‘심포지엄-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변혁·자립’(가나가와),

‘세계평화를 생각하는 오사카회의’(오사카), 맨체스터와 콜드바에서의 비핵자치단체 국제회의에 이어서 개최된 ‘비핵도시선언 자치단체전국대회’(히로시마) 등등의 의욕적인 대처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대처는 국제적인 교류와 연대를 희구하며, 민간외교를 추진하는 새로운 지향성을 낳고 있는 중이다.

사회체제가 다른 국가들도 포함해 모든 국가의 시민, 세계 도시와의 평화와 연대를 의식한 활발한 교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정보의 교환, 경험의 교류, 평화에 도움이 되는 영화·영상을 비롯한 문화작품 등의 상호 보급이 한층 더 의식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상호 노력이 일반시민의 눈에 익숙해지는 형태로 축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국제적 연대와 행동의 폭을 시민 레벨에서 확대하는 데 공헌하는 것이 ‘국제화’ 시대의 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또 남북문제, 환경문제, 인권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그러한 것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기 쉽게 조건을 정비해야 한다.

6. 광범위한 시민참가, 활발하고도 장대한 시민(도쿄도민·현민)운동 속에 개설·운영한다

이상의 것을 종합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써 평화박물관이 구상되었다. 바로 민속자료관과 미술관, 각종 박물관 등이 인간 활동으로서의 문화유산을 수집·보존·공개·연구활동을 수반하면서 과거로부터 미래로 계승하고 있듯이, 전쟁체험과 평화에 대한 노력이 개인체험이나 한정된 사람들, 지역의 체험으로서 머무르는 일 없이 사회적인 체험, ‘전쟁을 모르는 세대’도 포함하는 공통의 경험으로 넓혀지고 고양되는 기능과 기구를 가진 공공적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평화박물관은 단순한 전쟁유품 자료 보존관·진열관이 아니라 동시에 평화와 전쟁 문제에 관한 정보관·학습관이며, 평화에 대한 다양한 노력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학습과 연구·교류, 그리고 행동을 위한 능동적인 센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오늘날 아직도 이러한 종류의 국가 차원의 시설이 없을 때에 수도권에 설립되어야 할 박물관은 그 시설 존재 자체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의 세계평화에 공언해 가고자 하는 의지를 집중적이고도 상징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내용·설비·기능에서도 국제적인 관심에 걸맞은 시설이 되어야 한다. 단순한 기념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평화박물관 개설의 기초가 시민의 전쟁체험, 때로는 전쟁을 헤쳐 나오면서 피해를

입은 학교나 행정기관, 기업 등의 체험도 모으는 것이라면 박물관 개설을 목표로 하는 활동은 도시 전체가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박물관의 평화시설 내용을 충실히 하고 운영과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시민의 참가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자료의 수집이나 전쟁체험의 발굴·수록 활동 등이 그 자체가 시민운동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민운동의 핵이 되고 동시에 시설의 개설, 운영·활동에 협력하며 개설 사업을 지원하는 자발적인 시민조직 활동이 시설의 기획 단계부터 선행되어 조직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개설 후의 시민의 활용상황과 시설의 활성화를 결정할 것이다. 또 평화박물관 구상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활동 그 자체가 21세기를 향한 수도권 시민의 평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시민운동으로서 구축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후 반세기에 가까운 오늘날의 단계에서 시민의 평화의 목소리를 자치단체의 규약에 집결·집약하는 장대한 사업이 됨과 동시에, 도시로서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중요한 계기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민운동은 개인이든 단체나 기업이든 간에 광범위한 참가를 촉발하여 연령과 계층, 전문분야, 사상·신앙·가치관의 차이를 초월한 운동으로 발전해 갈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실현은 그 시설을 거점으로 한 또 다른 무수한 희망찬 평화에 대한 젊은 시민의 활동과 힘을 만들어 갈 것이다.

평화박물관의 개설은 평화를 지키고 구축하기 위해 자치단체로서 대처해야 할 '조건 만들기'의 핵심이 될 당면 과제이다. 게다가 그것은 시급히 서둘러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 주 : 평화박물관이라는 용어에 대해 위에서 밝힌 구상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일본어가 발견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는 평화기념 '記念'(혹은 기념 '祈念')관, 평화자료관 등이 있다. 평화정보관, 평화관 등도 고려될 수 있는데, 평화정보관은 물건 자체도 정보라고 하는 이해는 아직 일반적이지 못하고, 평화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위한 글 속에서는 너무나 일반적일 것이다. 영어로 표기한다면 분명히 아카이브스(archives)는 아니고 뮤지엄(museum)이나 센터(center)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평화센터라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 내용이 이미지로서 부각되지 아닐까 염려가 있다. 그래서 뮤지엄의 번역어 중 하나인 '박물관'을 충칭적인 의미로 사용했다. 제실(帝室)박물관적인 시대는 이미 과거로, 오늘날의 박물관의 내용·기능·이미지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박물관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와 이미지도 변해 가는 것이다.

II. 개설의 기본적인 방침과 박물관의 성격

1. 다음 세대에 전쟁의 실상과 비참함, 평화의 고귀함을 전한다

수도권(각 부현(府縣))에서 과거의 전쟁체험을 기초로 전쟁의 실상·전체상을 명백히 하는 것을 통하여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고귀함을 '전쟁을 모르는 세대', 나아가서는 후세에 남기고 전한다. 그것은 평화와 전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둘러싼 오늘날을 생각하고 21세기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세대에게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구축하여 넘겨주기 위함이다.

2. 수도권(각 부현)의 지역성을 일본 전체 속에 자리매겨 국제적인 시야에서 파악한다

수도권의 전쟁체험을 15년 전쟁의 역사적 흐름 속에 자리매김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전쟁의 참화를 겪고 전쟁의 피해를 입은 일본 전국, 나아가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범위에서 파악하는 시점을 가진다. 또 제1차·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터가 되었던 동서 유럽과의 관련에서 파악한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도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평화와 전쟁의 문제를 둘러싸고 놓인 처지가 어떠한 것인지, 전쟁의 위험과 수도권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국제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한 수도권 시민의 평화에 대한 염원과 노력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자리매겨지고 어떠한 의의와 역할을 가지는지를 명백히 한다.

3. 평화에 도움이 되는 여러 자료·정보를 집적하고 시민에게 보급하여 일반 이용에 도움을 준다

근·현대에서 지금까지의 각색각양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발굴하고 오늘날과 미래에도 살아 있는 평화와 전쟁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각종 자료·정보를 수집, 정리, 보관, 전시, 공개하여 일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그러한 자료·정보가 오늘날의 시점에서 이용자들이 쉽게 인출할 수 있는 선진적인 장치(仕組)와 체제를 정비한다. 또한 내외의 유사한 평화시설·단체가 갖는 소재자료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평화에 도움이 되는 시민을 위한 풍부하고도 정확한

정보미디어 ·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한다.

4. 내외의 평화에 대한 대처 · 노력의 교류 · 보급을 도모하고, 평화를 위해 시민과 세계를 연결하는 장소로 한다

수도권(각 부현) 내의 서민[草の根] · 시민 레벨에서의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평화에의 대처, 혹은 환경 · 인권 · 남북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력을 잇고 교류하며 보급한다. 또 마찬가지로의 노력을 일본 전국과 세계의 도시로 확대한다.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의 사람, 물자, 정보가 직접적으로 상호 교류를 하기 위한 장소로 한다. 특히 세계의 사람과 평화에 대한 대처에 관한 정보, 세계 각지에서의 도시로서의 평화실현 노력, 또 내외의 문화 · 예술 · 학술연구 · 보도 등의 분야에서의 평화에 공헌하는 성과, 평화활동에 도움이 되는 여러 자료를 집적하고, 시민과 그리고 때로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에게 공개 · 제공함으로써 수도권 시민의 평화를 희구하는 마음과 세계의 사람들과 마음을 잇는다.

5. 평화문제에 관한 시민의 관심을 고양하고 자주적인 학습의 장으로 한다

전쟁과 평화에 관한 현대적 과제의 전시, 강연회, 간담회, 심포지엄, 상설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평화의식을 고취하고, 어머니와 자식, 가족, 혹은 청소년, 학생, 주부, 사회인 등 각자의 관심에 따른 학습의 장으로 한다. 또 각 지역(都縣) 내의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각종 학교와 협력 · 제휴관계를 강화하여 학교교육의 일환으로서의 활용을 도모한다. 또 개발 · 환경 · 인권문제의 학습 등 생애 교육의 장으로 한다. 동시에 도서관 · 공민관 · 학교 등 다른 자치단체 시설과 제휴하여 이동평화박물관 활동 등 각 지구 시민에 대하여 능동적인 보급 · 서비스를 꾀한다.

6. 평화박물관을 충실화하기 위한 조사 · 연구기능을 갖춘다

평화박물관의 내용 · 기능 · 활동을 충실화하여 미래에 도움되기 위하여 국제적인 평화의 추진

에 필요한 폭넓은 지식과 국제적인 능력, 적극적인 의욕, 참신하고도 유연한 감각이 뒷받침된 조사·연구·서비스 기능을 갖추어 항상 매력이 넘치는 활기찬 평화의 ‘관’으로 한다. 또 내외의 각종 평화교육·평화연구기관·단체와의 교류와 연계활동을 추진한다.

7. 시민의 참가·협력하에 개설을 준비하고 운영한다

이미 수도권 가운데서 활발히 평화박물관 개설을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와 활동에 의거하여 개설을 추진하기 위한 중추적 요소가 될 시민운동의 전개를 기대한다.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를 생각하며 행동함으로써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입장의 실현이며, 도정(都政)·현정(縣政)에 대한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나 요망, 활동을 이 평화시설의 개설 준비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개설 후의 운영에 반영시키는 효과적인 장치와 방책을 추구한다.

그 하나로써 박물관 활동에 의욕적인 시민과 다양한 전문분야, 활동영역에 있는 전문가 사이에 협력관계를 성립시켜 평화박물관의 전 활동을 항상적으로 발전·강화시키는 시민의 자발적인 협력조직(예를 들면, 평화박물관의 벗[友] 모임)을 만들어 제휴·협력하는 활동을 추진한다.

8. 수도권(각 부현) 시민의 세계평화를 희구하는 마음과 운동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체현됨과 동시에 그것 자체가 21세기를 향해 남기는 기념비가 될 수 있는 시설로 만든다

수도권 시민[도민(都民) 혹은 현민(縣民)]의 세계평화를 희구하는 마음과 운동에 입각해, 그것을 내용적으로도 건축의 설계·형태상으로도 표현한다면 그 시설은 수도권의 평화의 상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과거 전쟁의 희생자를 추도하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피폭자를 격려하며 평화를 기원하는 장소로 한다. 동시에 살아 있는 것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몸으로 느끼고 인류의 미래를 개척해 가는 수도권 시민과 세계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학습과 활동과 교류의 장, 항구적인 평화창조의 장이 되도록 한다.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한 특색 있는 평화박물관을 개설한다. 박물관의 존재 자체가 다음 세대에 남기는 최고의 선물이며 21세기에 남기는 최대의 기념비적 과업이 될 것이다.

Ⅲ. 기능과 활동

1. 전시 기능

1) 전시 구성

전시(展示)는 상설전시와 기획전시의 두 가지 계통으로 한다.

상설전시는, ① 15년 전쟁에 있었던 전쟁체험의 계승을 중심으로 하는데, 특히 공습전재(戰災)체험, 서민의 전시생활, 원폭피해의 실상, 평화에 대한 대처를 포함한다. ② 세계에 있었던 전쟁의 비참함을 상징적·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실, 도시로서의 평화에 대한 대처 등을 시각적으로 전시한다. 시민 요구의 증가와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순차적으로 충실화를 꾀한다.

기획전시는, 그때 그때 주로 평화에 관한 현대적·현재적인 테마의 전시를 한다. 본 구상의 I-4도 고려한다. 국내외의 유사한 평화시설과의 제휴전시, 시민의 자주기획전시도 고려할 수 있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 수집에도 도움을 준다.

2) 전시 방법

전시는 조사·연구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며, 명확한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알기 쉬운 것으로 해야만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실물자료뿐만 아니라 복원·모형자료(레프리카), 혹은 사진·슬라이드 등의 영상, 조명, 음향을 체계적으로 조합하여 구성한다. 해설문은 대충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내용·길이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하며,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한다. 또 한국어·중국어·러시아어 등으로 단문해설문(leaflet)을 준비한다. 기술전문가도 포함된 각 방면의 학제(學際)적 협력도 필요하다.

2. 수집·보관 기능

1) 수집·보관 자료의 종류와 범위

기본구상의 I-2~5, II-3~4의 입장에서 고려한다. 따라서 전쟁 중의 물품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국내외의 평화와 전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 ① 전쟁 중의 물품자료=군대, 일상생활, 공습전재(戰災), 군국체제, 전물유품관계자료 등. 그리고 해외의 물품자료 등도 포함한다.
- ② 문자자료=문학·기록서를 포함한 도서·문헌, 시민발행의 전단·팸플릿류, 그리고 신문·잡지 정보도 중요하다.
- ③ 영상자료=영화비디오 등 작품화된 물품뿐만 아니라 미편집된 영화필름 등도 보관한다. 특히 다큐멘터리 영상은 중요하다. 또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수록·라이브러리화(化), 음성자료 등도 고려한다.
- ④ 사진자료=특히 오리지널 네거티브, 오리지널 프린트를 중시한다.
- ⑤ 작품자료=포스터, 만화를 포함한 회화, 레코드판, 레코드 테이프, 악보 등 음악관계, 공예, 조각 등의 작품.

2) 수집·보관 방법

- ① 전쟁 중 자료는 우선 소재조사를 선행하고 제공 가능한 것부터 수집하여 체계적인 자료군(群)이 되도록 목표를 정한다. 제공받을 수 없는 것, 입수 곤란한 것은 품목의 등록·일시 위탁 등의 방법을 취한다. 자료의 발굴·제공운동을 추진한다.
- ② 수집 자료는 최적의 수단과 방법으로 정리·등록·보관하는데, 특히 그 배후에 있는 데이터(사진·영화·영상류는 피사체의 복사본도 포함)의 보존, 혹은 영상·사진필름, 사진 인화프린트 등은 내구성을 고려하여 피사체 보존 등이 중요하다.
- ③ 카피라이트 등 권리문제가 수반되는 자료류는 제공자와의 사이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여 활용하는 데 신중한 배려를 한다.
- ④ 국내외의 유사한 평화시설, 관계기관·단체 등과 자료·정보의 교환을 하고 여러 자료의 충실화를 꾀한다.

3. 정보·학습·교류 기능

1) 정보센터로서의 기능

시민들이 평화에 대한 대처에 필요로 하는 각종·다방면의 정보(가깝게는 시민단체의 활동, 평화에 대한 다양한 대처, 평화관련 여러 행사, 관련 평화시설·기관의 각종 자료와 활동 정보 등을 포함한다)를

수집, 정리, 보관함과 동시에 널리 시민에게 제공한다. 텔렉스나 컴퓨터와 연동하는 위성통신 등을 통하여 평화정보의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국내외의 여러 평화활동의 연대를 강화하고 정보전달의 스피드화와 집적능력·이용도를 높인다. 또 각종 자료의 정리·보관과 관련하여 누구나 효율적으로 인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검색과 제공 방법을 갖춘다. 예를 들면, 내용에서 도서명의 검색, 영상과 사진 등의 내용의 종류·성격별 정리와 열람 방법의 효율화, 컴퓨터의 이용 등이 있다.

2) 학습센터로서의 기능

- ① 개인·단체를 불문하고 평화학습을 위한 여러 자료의 열람, 대출, 컴퓨터 서비스를 행하고 각종 질문·상담에 응한다.
- ② 전시물의 해설원(시민 자원봉사자도 포함한다), 오디오가이드, 단문 해설서 등도 준비해서 내관의 관심과 세대별 수준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③ 각종 좌담회·강연회·영화감상회·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시민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해 간다. 특히 정기적으로 다면적인 다양한 내용을 가지는 시민들의 담화 모임, 평화강좌 등을 개설한다.
- ④ 시민과 학교 등을 위해 다양한 급수의 강사를 알선하고, 히로시마·나가사키·오키나와로 수학여행을 가거나 문화제의 사전학습 등에 협력한다. 또 다른 평화시설·기념물에 대한 견학과 아우슈비츠 박물관, 안네의 집, 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쟁유적 등 세계의 평화사적(史蹟)을 탐방하는 해외평화 투어 등도 민간외교의 일환으로서 기획하여 실시한다.

3) 교류센터로서의 기능

특별기획전시나 각종 문화적 행사를 기획하여 실시할 뿐만 아니라 시민이 자주적으로 기획하는 다양한 행사나 활동에 장소를 제공하는 등 평화를 위해 사람들이 수시로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교류하는 장소(젊은이나 시민끼리, 시민과 전문가, 세대 간의 교류, 그리고 국제적인 교류)가 되도록 운영한다.

4. 조사·연구·보급 기능

1) 내용과 활동 질의 향상

전시활동에 한정하지 말고 박물관 활동 전체의 양질성을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열의가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함과 동시에 조사·연구기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 사진이나 영상자료는 그 내용을 특별히 확정짓는 데에 시간적 요소를 포함하는 조사·연구를 수반하지 않으면 자료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있다. 원폭피폭 관계 자료가 하나의 예이다.

2) 통(通)학문적인 입장에서의 대처와 폭넓은 사람들과의 협력

평화와 전쟁에 관한 조사와 연구는 통(通)학문적인 성격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시민의 평화에 대한 활동과 박물관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폭넓은 연구자, 각 분야의 전문가, 전쟁시대의 체험자, 그리고 의욕적인 시민들의 협력관계를 성립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그 성과를 보급(普及)활동 속에 살려서 박물관의 활동 전체에 반영시켜 영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한다.

3) 박물관 활동에 관한 전체상의 소개와 보급

박물관의 안내서(가이드북)뿐만 아니라 기획전시를 비롯한 박물관의 동정, 자료수집과 조사·연구의 성과, 국내외의 새로운 정보 등 평화박물관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소개하고 보급한다. 그 자체가 평화활동을 일상화하기 위한 대처가 될 것이다. 그 때문에 홍보지·기관지·팸플릿·도서류의 발행, 평화에 관한 각종 자료의 작성 등을 시민의 협력과 참가하에 추진시킨다. 또 거리상으로나 시간상 박물관에 좀처럼 올 수 없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전시물을 테마별로 세트하여 이동전시하는 '이동평화박물관'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을 국제적으로 생각해 본다.

5. 추도·평화 염원의 요소

평화박물관의 개설 자체가 공습·전재에 따른 희생자, 전쟁으로 사망한 모든 희생자에 대한 추도와 다시는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는 의지를 담은 평화 염원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런

데도 박물관 내용의 중심적 요소로서 그러한 마음을 형태로 표현한 구조물, 혹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포용한 공간 등이 필요할 것이다. 박물관의 내부나 정원(庭園)에 박물관의 기능과 성격에 균형이 잡힌 구조물과 조용한 공간을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6. 해맑음과 지적 즐거움이라는 요소

이러한 종류의 시설은 자칫하면 강요적인 듯하고 음울하며 무서운 존재가 되기 쉽다. 인간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취급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가장 찾아 주었으면 하는 대상은 전쟁을 모르는 젊은 세대이다. 전시나 학습·교류·보급활동, 그리고 시설과 설비의 모든 면에서 젊은이들의 감각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서움’은 사실에 근거해서 한껏 무서워해도 전혀 상관없다.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감성에 호소할 뿐만 아니라 지적인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지적인 흥밋거리의 요소를 여기저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 시설과 설비면에서도 색조감 넘치는 모자이크 타일의 벽면을 가진 복도, 필요하다면 불투명유리 너머로 밝은 자연광이 들어오는 개폐가 자유로운 지붕을 한 기획전시실을 만든다든지, 녹음이 울창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뷔페시설이라든지, 평화에 관련된 책이나 세련되고 멋진 평화관련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매점 등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몇 번이라도 연인이나 친구들과 함께 오고 싶어하고, 돌아가는 길에는 평화에 대한 밝은 결의가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하는 그러한 평화박물관을 개설한다.

IV. 시설과 설비

시설과 설비로는 기능과 활동에 어울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은 생략한다.

1. 전시관련 시설

상설전시실(비디오부스를 포함)

국제전시실

기획전시실 전시준비실(전시용 비품수납고)

휴게로비

2. 보관관련 시설

물품류 수장고(收藏庫)(자료정리실)

영상관계수장고[공조(空調), 자기변동방지장치, 영상필름·비디오테이프 편집용 기기 포함]

3. 정보·학습·교류관련 시설

홀(영화·초대형 비디오 상영설비 포함. 적어도 하나의 학급이 들어갈 수 있는 50명 정도의 규모)

스튜디오(다목적 스페이스)

회의장(국제회의용 설비 포함)

도서자료실(열람 코너 포함)

영상·비디오 시사(試寫) 시청실(비디오부스, 음악·음성자료 등 녹음테이프 부스)

회의·연수실 자원봉사 휴게실

4. 조사·연구관련 시설

연구실(도서자료실 포함)

회의실

5. 관리·운영관련 시설

사무실 등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각 실, 공간 외에 컴퓨터실

운영위원회용 회의실

참관용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이동평화박물관용 자동차

평화세계일주선(세계이동평화박물관 · 해상평화대학 · 국제청소년교류 세미나, 해상페스티벌 등이 가능한 다목적 평화선의 건조를 검토함)

V. 관리운영 조직과 체제(생략)

학식경험자 · 시민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평화박물관사업추진재단, 평화박물관 벗의 모임(모두 가칭)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이 글은 平和博物館を創る會 編, 『市民 イブ リ2平和博物館を考える』(平和のアトリエ, 1994)에 수록된 「首都圏に開設が期待される平和博物館(總稱)基本構想・試案」을 번역한 것이다. 이미 10여 년 전의 글이지만, 평화박물관(기념)관의 설립시 생각해 보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게재하였다. — 편집자 주

○ 1. 평화기념전시자료관(平和祈念展示資料館)

○ 2. 쇼와관[昭和館]

○ 3. 나카노구 평화자료전시실[中野區平和資料展示室]

○ 4. 세타가야 평화자료실[せたがや平和資料室]

○ 5. 도쿄대공습·전쟁자료[東京大空襲・戦災資料]센터

○ 6. 쇼케이관[しょうけい館] - 전상병자(戰傷病者) 사료관

○ 7. 부흥기념관(復興記念館)

○ 8. 다이고후쿠류마루전시관[第五福龍丸展示館]

○ 9. 가와사키시평화관[川崎市平和館]

○ 10. 가나가와평화기념관[かながわ平和記念館]

○ 11. 지구시민 가나가와 플라자 국제평화전시실[地球市民かながわプラザ國際平和展示室]

○ 12. 도다평화기념관[戸田平和記念館]

○ 13. 사이타마현 평화자료관[埼玉縣平和資料館]

○ 14. 마루키미술관[丸木美術館]

○ 15. 시즈오카평화자료[静岡平和資料]센터

○ 16. 센다이시 역사민속자료관[仙台市歴史民俗資料館]

○ 17. 센다이시 전쟁부흥기념관[仙台市戦災復興記念館]

○ 18. 태평양전시관(太平洋戦史館)

○ 19. 기타가미평화기념전시관[北上平和記念展示館]

○ 20. 아오모리공습자료상설전시실[青森空襲資料常設展示室]

• 부록 1. 국제평화박물관 목록

• 부록 2. 일본의 평화기념관 목록



평화기념관 I
일본의 전쟁 기억과

자료관편



1. 평화기념전시자료관 (平和祈念展示資料館)

| 주소/연락처 |

도쿄도[東京都] 신주쿠구[新宿區] 니시신주쿠[西新宿] 2-6-1

신주쿠 스미토모[新宿住友]빌딩 31층 ☎ 03-5323-8710

일반 개요

1) 연혁

1984년 12월 21일	전후처리문제 간담회가 내각관방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
1985년 4월 10일	총리부에 특별기금검토조사실을 설치
1988년 5월 18일	평화기념사업특별기금 등에 관한 법률 성립
5월 24일	특별기금검토조사실이 특별기금사업추진실로 변경
6월 23일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인가허가
7월 1일	인가법인 평화기념사업특별기금 발족
2002년 11월 29일	평화기념사업특별기금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 법률 성립
2003년 10월 1일	독립행정법인 평화기념사업특별기금 발족

2) 설립 주체

독립행정법인 평화기념사업특별기금

3) 설립 목적과 배경

‘평화기념사업특별기금’은 1988년 7월 ‘평화기념사업특별기금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인가법인으로서 설립되었으나, 일본 정부개혁의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법률개정이 행해져 2003년

10월 새롭게 독립행정법인 평화기념사업특별기금(총무성 소관)으로 발족하였다.

주요 업무는 이른바 은급을 받지 못한 자[恩給缺格者], 전후 강제억류자, 귀환[引き揚げ]자 등 전쟁 관련 희생에 따른 노고에 대해 일본 국민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아울러 관계자들에 대한 각종 위로사업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시 내용

1) 전시실의 구분

‘평화기념전시자료관’은 크게 ‘은급결격자 코너’, ‘전후 강제억류자 코너’, ‘귀환자 코너’ 등 세 부분의 전시 코너로 구분되어 있고 이 전시 코너의 끝에는 당시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해 보거나 감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2) 전시 내용 소개

〈은급결격자 코너〉

은급결격자란 나라를 위해 가족을 남기고, 목숨을 걸고 군무에 종사하는 노고를 체험했으면서도 구군인·군속으로서의 재직기간이 정해졌던 연한에 이르지 않은 등의 이유로 은급과 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한다.

전시 코너의 중앙에는 당시 병사의 장비 등을 전시하는 것 외에도 징병검사통달서, 천인침(千人針, 센닌바리) 등의 징병·소집·출정에 관한 것, 인식표, 교과서 등의 군대생활·군대교육에 관한 것, 진중일지, 군사우편 등 전쟁생활에 관한 것을 전시하고, 나아가 역사적 자료로서 「중전의 조서」의 복제품 등도 전시되어 있다.

〈전후 강제억류자 코너〉

전후 강제억류자란 전쟁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몽골 지역에 강제적으로 억류된 사람들을 말한다. 수용소에서 혹은 혹한 속에서 가혹한 노동을 강제당하였다. 현지에서 죽은 사람도 많고, 일본과 소련이 국교를 회복한 쇼와 31년(1956) 말까지 귀국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또한 중앙에는 억류경험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재현한 제217분소의 전체 모형을 전시하고 있는데, 작업용 도끼와 삽, 작업용 장갑 등 혹한에서의 가혹한 작업에 관한 것, 식료와 교환했기 때문에 양 소매가 없는 방한외투 등 비참한 식량 사정에 관한 것, 손으로 만든 식기, 양말 등 신변소모품의 부족에 관한 것을 전시하고 있다.

〈귀환자 코너〉

여기서 말하는 귀환자(引き揚げ)란 전쟁의 종결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생활의 본거지였던 해외에서 일본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말한다. 신변에 위험이 닥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버리고 힘든 고생을 체험하면서 고국 일본으로 향하였으나, 건너오는 도중에 죽은 사람도 많았다.

또한 많은 귀환자를 이송한 ‘코우안마루’의 모형을 전시, 그 외에 세대도구 배급 점수표, 청년의용대원용 교과서 등 외지에서의 생활에 관한 것, 귀환증명서, 승선증명서 등 고국에의 귀환에 관한 것 등도 전시하고 있다.

이 평화기념전시자료관에서는 관계자들이 체험한 노고에 대해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하여 각종 실물자료, 그래픽, 영상, 모형 등의 전시를 하고 있으며 또한 상설전 외에도, 영화상영회, 토크쇼 등의 이벤트를 병행하여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자료



1. 체험 코너 2. 억류자들의 하루 배급 식사 3. 소련 억류자들의 배급량에 대한 안내문





4



5



6



7



8



9



10

4. 체험 코너-병사들의 일반복, 모자 등 5. 해외 귀환자 코너 포스터 6. 평화기념전시자료관 입구 안내판 7. 은급결격자 코너 안내 포스터 8. 귀환자 수송선 중 하나인 다카사고마루[高沙丸]의 모형 9. 평화기념전시자료관이 있는 신주쿠 스미토모 빌딩 앞 10. 전철 안에 부착된 평화기념전시자료관의 홍보 포스터

2. 쇼와관[昭和館]



| 주소/연락처 |

도쿄도[東京都] 지요다구[千代田區] 구단미나미[九段南]

1-6-1

☎ 03-3222-2577

일반 개요

1) 설립 시기 : 1999년 3월

2) 설립 경위

‘쇼와관’은 당초 일본 유족회가 전몰자의 유아(遺兒)들을 위한 사업을 정부에 처음 공식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시작된 것이었다. 도중에 명칭이 ‘전몰자추도 평화기념관’으로 바뀌어 추진되다가 완성시에는 쇼와관으로 다시 바뀌어 개관하게 되었다. 쇼와관의 설립 계기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979	일본 유족회가 ‘戰歿者遺兒들을 위한 慰藉 사업’을 정부에 요청
1985	후생성 장관이 ‘戰歿者遺兒 기념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
1987	동 간담회가 ‘전쟁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전하는 遺兒기념관의 설치’를 보고함.
1992	후생성이 기본 계획을 책정, ‘전몰자추도 평화기념관(가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
1993	일련의 역사학자들이 ‘가해 책임을 방치한다’며 비판 성명 발표
1994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의회가 건설 반대의 의견서 채택
	후생성의 자문기관 ‘기획검토위원회’의 2명이 항의 사임함
1995	‘기획검토위원회’가 건축계획을 수정, ‘역사적 평가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전시는 하지 않는다’고 결정

1996	주민 72명이 국가를 상대로 공사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
	본격 공사에 착수. 주민들이 항의 행동을 함
1997	주민 68명이 또 다시 공사 중지 요구하며 제소함
1998	'전몰자추도평화기념관' 완성 (다만 명칭을 '쇼와관' 으로 변경)
1999	'쇼와관' 개관 (*쇼와관의 부지는 국민공원 皇居外苑의 일부임)

※ 이 연표는 西川重則(1999), 「쇼와관과 우리들의 과제(昭和館と私たちの課題)」(『季刊 戦争責任研究』 제25호)에 있는 내용을 도표화한 것임을 밝혀 둔다.

3) 설립 목적과 배경

쇼와관의 현관 입구에 있는 안내판에는 “쇼와관은 전몰자 유족에 대한 원호 시책의 일환으로, 전몰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이 경험하였던 전중(戰中)·전후(戰後)의 국민생활상의 어려움에 관한 역사적 자료·정보를 수집, 보존, 전시하여 후세대의 사람들에게 그 노고를 알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헤이세이[平] 11년 3월에 오픈하였다”고 적혀 있다.

한편 쇼와관에서 발행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내 책자(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 『전해 두고 싶은 쇼와(昭和)의 생활 -전중(戰中)과 전후(戰後)-』)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이상 전에 큰 전쟁이 일어나, 1945년 8월 15에 끝났습니다. 그 무렵의 일본인들은 어떠한 생활을 보내고,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일까.

당 관에서는 1935년경부터 이후 30년(1935-1955)까지의 삶을 전쟁 중, 전쟁 후로 나누어 알기 쉽게 전하고 있습니다. 각 층마다 당시의 생활용품과 사진, 영상, 음악, 도서가 있고, 그것을 본 다거나 조사하거나 하여 당시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전시 내용

1) 전시관의 구성

1층 입구	종합안내
2층 광장	이벤트 장소 등 다목적으로 사용

3층 연수실	학교·단체 등에 해설회장 및 특별기획전시회장으로 이용
4층 도서실	“전쟁 중, 전후의 삶의 체험기와 각지의 전재기록을 위시하여 국민생활의 모습을 전하는 도서, 당시 간행된 잡지와 그 이해를 돕는 역사서, 都道府縣史 및 市町村史, 기업사, 公刊 戦史 등의 관련 도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참고도서, 신문축판, 지도, 축차간행물 등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층 영상, 음향실	“당시 기록사진, 뉴스 영화 등의 기록영상, 음악, 문헌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층·7층 상설 전시실	“국내, 국외 카메라맨이 촬영한 쇼와 10년경에서 쇼와 30년경을 중심으로 기록사진과 기록영상, 세상을 반영한 뉴스영화, 당시의 규격인 SP 레코드에 녹음된 음악을 위시하여, 공간전사와 육해군 부대의 행동기록, 당시 간행된 잡지 등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고, 빠른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상설전시실의 내용

7층의 상설전시실은 <전쟁 중의 생활>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소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1. 가족과의 이별〉, 〈2. 가족에의 그리움〉, 〈3. 1935년경의 가정〉, 〈4. 통제하의 생활〉, 〈5. 전쟁 중의 학동과 학도〉, 〈6. 후방(銃後)의 대비와 공습〉, 〈7. 1945년 8월 15일〉

6층의 상설전시실은 <전쟁 후의 생활>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소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8. 전화를 넘어 -옛 풍경, 지금의 모습〉, 〈9. 폐허에서 출발〉, 〈10. 남겨진 가족〉, 〈11. 아이들의 전후〉, 〈12. 부흥을 향해〉, 〈13. 체험광장〉, 〈14. 옮겨온 세상 -쇼와 10년~30년〉, 〈15. 가족의 걸음〉

특징

니시카와 시게노리[西川重則]의 논문 「쇼와관과 우리들의 과제[昭和館と私たちの課題]」(『季刊戦争責任研究』 제25호, 1999)에는 쇼와관에 대한 당시 어느 유학생 신문기자의 인상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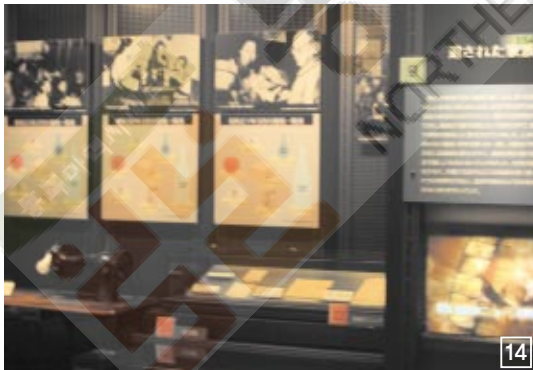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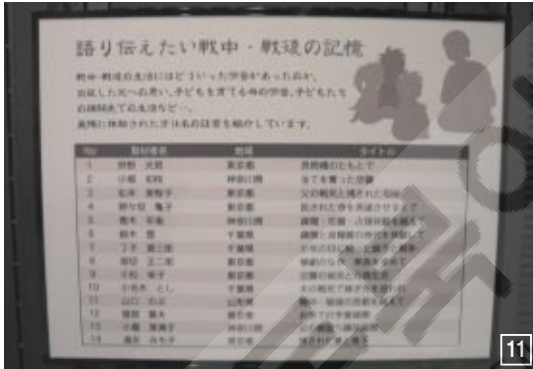
먼저 명칭이 이상하다. 쇼와(昭和)라는 시대 전체를 전시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전쟁자료관도 아니고 평화기념관도 아니라고 한다. 의미 불명이다. 전중, 전후의 국민생활의 노고라는 전

시는 사람을 때려 놓고 ‘손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 놓고 자신들의 고생한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상 어떠한 말을 늘어놓아 보아도 결국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은 지금까지와 별로 변한 것이 없는 인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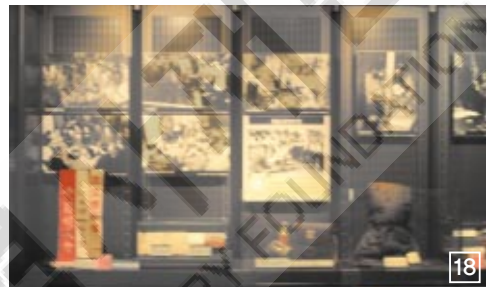
사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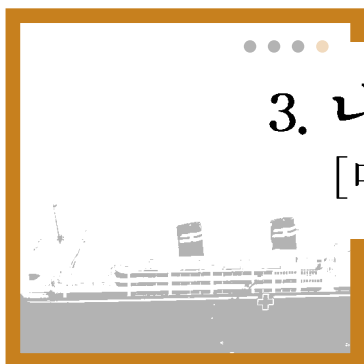
1. 쇼와관의 외부 모습 2. 쇼와관의 입구 모습
3. 쇼와관 입구의 상단 부분 4. 쇼와관 입구의 안내판 5. 1935년 무렵의 일반 가정의 생활 모습 6. 전시관의 내부 모습 : 통제하의 생활 코너



7~8. 전시관의 내부 모습 : 통제하의 생활 코너 9. 전시관의 내부 모습 : 후방의 대비와 공습 10. 1945년 8월 15일 일본 항복시의 사진과 신문 기사 11. 체험담 소개 코너 12~13. 체험 코너로서 당시의 복장과 생활용품을 진열해 놓고 직접 만지고 착용해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14. 전시하의 시기별 가격 일람표 15. 전시하 근검 절약을 강조하는 선전 문구



16. 전시관의 내부 모습 : 통제하의 생활 코너 17. 전시 자료 : 일본 전국의 공습 피해 지도 18. 후방에 남겨진 일본 국민들의 생활을 소개하고 있다. 애국부인회, 대일본국방부인회, 방화담당자 등의 띠도 전시되어 있다. 19. 세상의 변화를 각종 잡지와 생활용품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 20~21. 출정식과 관련된 〈가족과의 이별〉 코너 22. 쇼와관 홍보 포스터



3. 나카노구 평화자료전시실 [中野區平和資料展示室]

| 주소/연락처 |

도쿄도[東京都] 나카노구[中野區] 아라이[新井] 3-37-6

헤이와노모리[平和森]공원 사무소 내 ☎ 3228-8988

일반 개요

1) 설립 시기

‘나카노구 평화자료전시실’은 1989년 7월 20일 ‘평화의 숲[헤이와노모리]’ 공원관리사무소 내에 개설되었다.

2) 설립 주체 : 나카노구

3) 설립 목적과 배경

평화자료전시실은 2005년 ‘전후 60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들이 사는 곳 가운데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흔적은 대부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반이 전후 생겨난 지금, 전쟁의 참상, 평화의 소중함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이번에 내용을 새로이 하였습니다. (출전 : 평화자료전시실 안내문)

전시실은 상설전시 코너 4개의 주제실을 비롯하여 모두 6개의 전시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상설전시 코너는 〈1.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폭〉, 〈2. 나카노의 전재(戰災)〉, 〈3. 나카노의 생활〉, 〈4. 학동소개(學童疎開)〉이며 나머지는 〈5. 평화도서, 비디오〉 코너와 〈6. 기획전시〉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간단히 각 코너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폭〉 코너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60년, 히로시마에서 피폭으로 ‘녹아버린 안경렌즈’, ‘피폭 기와’, 나가사키의 ‘피폭 팽나무’ 등을 전시하고 있다.

〈2. 나카노의 전재〉 코너

나카노구의 공습피해는 1944년 11월부터 시작되어 1945년 5월 25일 야마노테 대공습까지 총 7회로, 구내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는데, 여기서는 ‘소이탄’, ‘전화(戰火)로 녹은 자명종’, ‘피해 상황을 기록한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다.

〈3. 나카노의 생활〉 코너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어 국민생활이 통제받던 당시의 삶을 보여주는 것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배급표 제도, 방공호, 금속의 공출 등 당시 구민의 삶을 보여주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다.

〈4. 학동소개〉 코너

전쟁으로부터 아동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1944년부터 학동 소개가 실시되었다. 당시 나카노구의 아이들은 나가노현과 후쿠시마현에 소개되었는데, 소개지에서 사는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과 편지로 보여주고 있다.

〈5. 평화도서, 비디오〉 코너

전쟁·평화에 관한 서적, 그림책, 비디오 등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코너이다.

〈6. 기획전시〉 코너

평화에 대해 폭넓은 테마로 일정 기간 전시하고 있는 공간이다.



1~2. 나카노구 평화자료실이 있는 평화의 숲 공원 안의 공원사무소
3. 요코스카의 해군 군복과 여러 사람이 기명한 일장기(寄書日章旗)
4~5. 공습 피해를 입은 도쿄도 지역구와 나카노구 지역 6. 소개 중인 어린 학생들이 집에서 수업을 받는 풍경 등을 담은 모습



7. 전시하의 각종 증명서 8. 통제 강화와 주민의 조직화(마부쿠로 미나미초카이의 깃발) 9. 나카노구의 공습피해 상황 10. 여성들의 축창훈련(야마토초 하치만신사) 11. 공습에 따른 나카노구의 피해 모습 12. 나카노구의 헌법 옹호, 비핵도시 선언 13. 나카노구의 공습 피해 14~15. 나카노구 평화자료실 입구와 내부 모습





4. 세타가야 평화자료실 [せたがや平和資料室]

| 주소/연락처 |

도쿄도[東京]都 세타가야구[世田谷區] 나카정[中町] 2-29-1
세타가야 구립 다마가와소학교[世田谷區立玉川小學校] 서관
1층 ☎ 3703-8100

일반 개요

1) 설립 시기 : 1995년 8월

2) 설립 주체 : 세타가야구

3) 설립 목적과 배경

‘세타가야 평화자료실’의 설명문은 다음과 같다.

전쟁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반성과 저 비참한 기억을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강한 결의 아래, 세타가야구에서는 1985년(쇼와60)에 ‘평화도시선언’을 행하고, 진실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와 평화의 실현을 향해 그 맹세를 내외에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이 취지에 의거하여 1995년(헤이세이7년) 8월 평화자료실을 개설하고, 후세에 전해 주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타가야 평화자료실은 상설전시와 기획전시 그리고 특별전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상설전시는 다시 <1. 전시하의 일본 사회>, <2. 도쿄대공습>, <3. 세타가야구의 군사시설과 전재(戰災)>, <4. 학동 집단소개>, <5. 전후의 발자취> 등의 세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상설전시 코너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시하의 일본 사회>

부국강병정책에 따라 구미 열강 제국과의 식민지 획득 경쟁에 편승한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어두운 전쟁의 시대에 돌입하였다. 여기에서는 ‘중전(戰)’에 이르는 연표, 당시 사회의 모습을 전하는 사진과 영상 등을 소개하고 있다.

<2. 도쿄대공습>

도쿄 공습은 1944년부터 본격화하였는데, 여기서는 1945년의 도쿄대공습의 피해상황을 기록한 사진, 도표와 함께 이재증명서, 소이탄 등을 전시하여 당시 상황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세타가야구의 군사시설과 전재>

산업, 교육, 쇼나이카이(町内會) 활동에 이르기까지 전쟁수행을 위한 체제가 강화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세타가야구에 있던 몇 개의 군사시설이 공습의 공격목표가 되었다. 여기서는 당시 세타가야구의 군사시설과 전재의 모습을 사진과 자료로 전시하고 있다.

<4. 학동 집단소개>

학동 집단소개는 1944년부터 실시되었는데, 세타가야구의 소개처는 니가타현과 나가노현이었다. 식료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의 소개지에서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5. 전후의 발자취>

안내문에는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과 평화를 구하는 강한 결의 아래, 일본은 기적적인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이 코너를 소개하고 있다.



1. 세타가야(世田谷) 평화자료실 입구 모습 2. 세타가야 평화자료실의 안내문 3. B29의 공습으로 폐허가 된 도쿄의 모습 4. 공습 피해를 입은 세타가야구의 모습과 이재증명서 5~6. 원폭 피해를 담은 사진과 그림들 7. 소개지에서의 생활을 담은 사진과 일지들



8~9. 소개지에서의 생활을 담은 사진과 일지들 10. 원폭 피해를 담은 사진과 원폭동의 모형 11~12. 전시하의 세타가야 구민들의 생활상(배급제도·등화관계) 13. 출정군인의 복장과 출정을 축하하는 깃발 14. 학교를 버리고 군로동원되는 소년들 15. 군국주의 교육과 전시하의 어린이들



16



17



18

16. 공습에 대비 중인 여자정신대 17. 전시 중과 전후의 식생활 모습
18. 전시하 학생들의 집단소개 모습



5. 도쿄대공습 · 전재자료 [東京大空襲 · 戦災資料]센터

| 주소/연락처 |

도쿄도[東京都] 고토구[江東區] 키타스나[北砂] 一丁目 5-4

☎ 03-5857-5631 fax 03-5683-3326

Homepage <http://www.tokyou-sensai.net>

일반 개요

1) 설립 시기 : 2002년 3월 9일

2) 설립 주체

‘도쿄공습을 기록하는 모임’은 1970년부터 도쿄 공습, 전재의 문헌과 물품을 폭넓게 수집하여 왔으나, 1999년에 도쿄도의 ‘평화기념관’ 건립 계획이 동결되고 말았다. 그래서 ‘도쿄공습을 기록하는 모임’과 재단법인 정치경제연구소는 민간모금을 통하여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협력으로 2002년 3월 9일 전화의 피해가 컸던 고토구[江東區]에 ‘도쿄대공습 · 전재자료센터’를 건립하였다. 부지는 한 독지가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한다. 2007년 3월에는 건물을 증축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건물의 입구에는 고노 신[河野新]이 제작한 모자상(母子像) ‘전화 아래에서[戦火の下で]’가 있고 반대편에는 ‘세계 어린이 평화상[世界の子ども平和像]’이 있다.

3) 설립 목적과 배경

도쿄대공습은 1945년 3월 10일 새벽에 이루어졌다. 약 300기의 미군 폭격기 B29가 도쿄 시타마치[下町]지구를 목표로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였으며 도쿄의 인구 과밀지대는 곧바로 화염에

힘쌌었다. 이재민은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약 1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3월 10일의 공습을 포함해, 도쿄는 100회 이상이나 공습을 받아, 시가지의 6할이 소실되었다.

이러한 도쿄대공습의 참상에 대하여 <도쿄대공습·전재자료 센터>는 안내문에서 “생명과 평화의 바통을 미래에 정확히 건네주기 위해서”라고 센터의 존재 의의를 강조하면서 관장 사오토메 가쓰모토(早乙女勝元)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특별전시와 전쟁재해의 조사·연구를 시작으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생명의 소중함을 기본으로 ‘알고 있다면 전하자, 알지 못하면 배우자’의 정신으로, 당 센터를 크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전쟁·공습의 참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민간인이 입은 전화를 평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계승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사람들 간의 교류에도 역할을 다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합니다.

4) 기타 활동

연구활동

2006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전쟁재해연구실’을 중심으로 공습과 재난체험의 기록을 수집, 정리하여 분석하는 것과 공습을 둘러싼 논고의 검토 등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정례연구회와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전쟁재해연구실 소식(戦争災害研究室だより)』과 보고서도 발행하고 있다.

출판활동

공습체험자에게서 듣고 쓴 것을 모아 소책자와 이벤트 보고서 등 각종 출판물을 간행하고 있다. 당시를 회상하기 위한 가이드북 『전재자료센터에서 도쿄대공습을 걷다(戦災資料センターから東京大空襲を歩く)』가 유명하다.

이벤트와 교류

매년 3월 10일을 전후하여 게스트의 강연과 젊은 세대의 활동을 소개하는 ‘도쿄대공습을 전하기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있으며 그 밖에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공습체험자의 이야기를 듣는 모임’, 5월 5일 ‘세계 아동을 위한 평화상’ 기념집회 등 여러 가지 테마의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전시 내용

2층 회의실은 영상자료를 관람하거나 단체관람을 희망하는 경우 체험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벽면에는 공습을 묘사한 여러 가지 그림과 재해를 당한 지역의 지도, 일본 공습의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다.

3층 자료, 전시보관실에서는 실제로 투하된 소이탄과 공습 피해품, 체험자의 수기, 사진, 전시하의 문서 등을 전시하여 도쿄대공습의 실상을 전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오토메 가쓰모토 관장의 저작물과 활동 등을 소개하는 〈전쟁과 평화를 생각한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며 〈전쟁과 어린이들〉 코너에는 전쟁 기간 중에 이루어진 교육과 학동소개 등을 테마로 한 전시가 기획되어 있다.

사진 자료



1~2. 도쿄대공습·전재자료센터의 입구 모습 3. 입구 우측에 있는 고노 신[河野新] 제작의 모자상 '전화 아래에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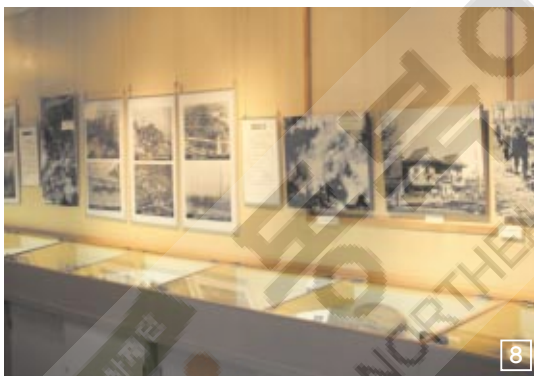
5



6



7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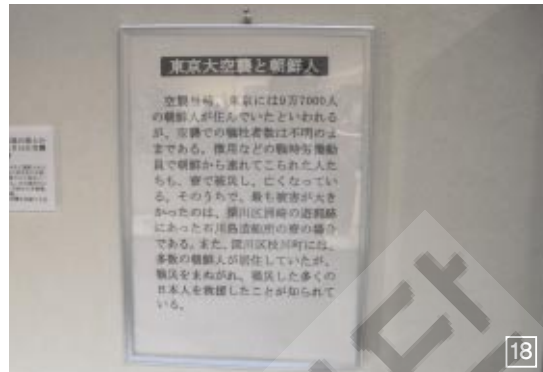
4. 입구 좌측에 있는 '세계의 어린이와 평화상'
5. 도쿄대공습 피해 지도 6. 나무에 각인된 도쿄대공습의 상처 7. 공습 후 초토화된 도쿄 시다마치[下町] 지역의 모습 8. 도쿄 야마노테 공습 사진 자료 9. 그릇과 녹아서 붙어버린 기와. 보통 기와가 녹는 온도가 1200~1300도인 점을 감안하면 대공습 당시 얼마나 고온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다. 10. 도쿄대공습 합성사진



11. 소이탄 투하 상황 12. 소이탄 13~16. 각종 내부 전시 모습



17



18



19



2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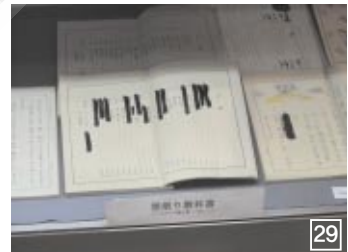


22



23

17. 각종 내부 전시 모습 18. 도쿄 구별(區別) 사망자 수와 도쿄 5대 공습의 비교 자료 19~20. 도쿄대공습과 조선인 희생자 관련 자료 21. 시다마치 지역의 피해 지도 22. 전제자료센터(파랑색) 인근의 피해 상황. 가장 큰 붉은 원은 사망자 10,000명 이상의 가매장지를 나타내며 작은 원으로 갈수록 각각 사망자 5,000명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의 가매장지를 나타낸다. 23. 2층 회의실 공간. 약 40명 정도 수용 가능하며 당시 체험담과 영상작품·기록 등을 감상하거나 학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4. 아동과 전쟁 25. 전쟁 종식 관련 자료 소개 코너 26. 아동들의 전쟁 희생에 관한 자료 소개 코너 27. 이재증명서 28. 신일본 건설의 교육 방침과 관련 사진 소개 코너 29. 일본의 교과서

6. 쇼케이관[しょうけい館]

－ 전상병자(戰傷病者) 사료관



| 주소/연락처 |

도쿄도[東京都] 지요다구[千代田區] 구단미나미[九段南] 1-5-13 교도[共同]빌딩 구단(九段)2호관 ☎ 03-3234-7821
Homepage <http://www.shokeikan.go.jp>

일반 개요

1) 설립 시기 : 2006년 3월

2) 설립 주체

재단법인 일본 상이군인회가 후생노동성에서 위탁받아 운영을 맡고 있다.

3) 설립 목적과 배경

‘쇼케이관’의 안내 책자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당 관(當館)은 전상병자(戰傷病者)와 그 가족들이 전쟁과 전쟁 이후에 체험한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한 증언, 역사적 자료, 서적, 정보를 수집, 보존, 전시하여 후세대 사람들에게 이 노고를 알 기회를 제공하는 국립시설입니다.

또한 쇼케이관 명칭에 대해서는 “계승, 전승한다는 의미의 ‘승계(承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상병자와 그 가족들의 노고를 알고, 전승해 간다는 취지에서 이 단어를 관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서 어른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도록 ‘しょうけい’의 히라가

나로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관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상병자 사료관’이라는 명칭을 부기하였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시 내용

1) 전시 내용 소개

전시실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의 전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층	전상병자와 원호의 걸음 증언영상 극장 평화의 메시지 작품에 들어간 노고 기획전시
2층	전쟁과 그 시대 전장에서 얻은 부상과 병의 치료 야전병원 지오라마 본국으로 반송 귀국 후의 노고 전후의 노고 하코네 요양소

2) 기획전시 내용

2008년 여름의 기획전시로서 <‘그날’의 기록-전상병자 사진전[‘あの日’の記録-戦傷病者の写真展]>이 7월 24일~9월 28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기획 전시의 안내문은 다음과 같이 전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중전에서 60여 년이 지나, 전쟁에서 당한 부상, 병으로 쓰러진 전상병자와 그 가족의 체험과 기억이 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승계하기 위해서 자료수집과 조사가 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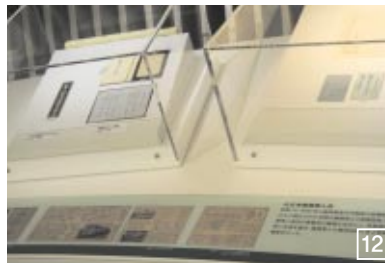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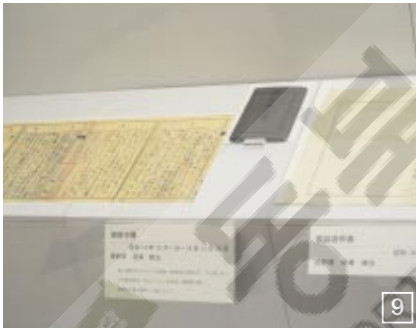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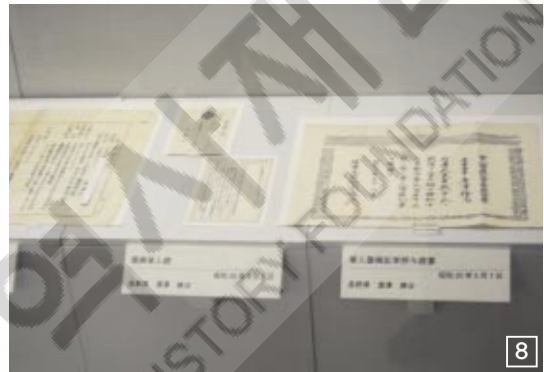
이런 중에 쇼케이관은 전상병자의 사진을 수집하여 왔습니다. 그 대부분이 개인의 앨범에 있던 것입니다. 전상병자는 전장에서 어떠한 체험을 하고 전후는 어떠한 인생을 가족과 함께 걸어왔을까요?

본 전시에서는 증언영상을 수록할 때에 수집된 인물사진을 중심으로, 관련된 자료, 증언영상, 도서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중(戰中), 요양 중, 전후(戰後)의 사진에서 전상병자와 그 가족의 ‘그날’의 기억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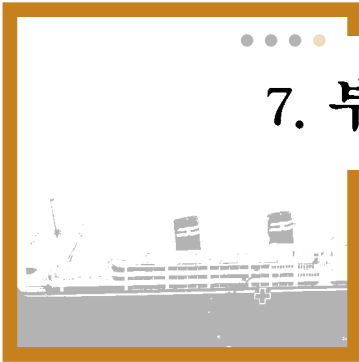


1. 쇼케이관의 외부 모습 2. 쇼케이관의 내부 입구 모습 3. 입구의 기획전 홍보 포스터 4. 아시아태평양전쟁과 관련한 내부 전시 모습



5. 과거 상이병사 관련 시설의 명패 6. 전시관의 내부 모습 7. 전쟁이 끝난 후에도 부상 등 상처를 안고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고통을 소개 8. 전시품의 일부: '상이군인증'과 '군인상이기장 수여증서' 9. 전시품의 일부: 군대 수첩 10. 기획전의 내부 포스터 11. 기획전의 내부 전시 모습 12. 기획전시품의 일부: 대일본 상이군인회 관련 자료. 대일본상이군인회는 1938년(쇼와 13) 육해군과 내무성 감독 아래 설립된 민간의 상이군인 수양단체

7. 부흥기념관(復興記念館)



| 주소/연락처 |

도쿄도[東京都] 스미다구[田區] 요코아미[横網] 2-3 요코
아미초[横網町]공원 내 ☎ 03-3622-1208(공원 사무소)

일반 개요

1) 설립 시기 : 1951년

2) 설립 주체 : 도쿄도

3) 설립 목적과 배경

1923년 9월 1일 간토대지진[關東大地震]이 일어났을 때, 이 장소는 사람들의 피난처였다. 가재 도구를 많이 가지고 들어왔으나 주위의 불길이 가재도구 등에 옮겨 붙어 이곳에 피난 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망하였는데, 이는 도쿄도에서 사망한 사람의 절반 이상인 3만 8,000명에 이른다.

지진 이후 사망자를 위령하고, 이러한 재해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기 위해 위령당을 지었는데, 관민의 협력과 많은 기부를 받았다. 도쿄진재기념사업협회에서 1930년 9월에 '진재기념당'으로 창건하여 도쿄시에 기부하였다. 신원불명의 유골이 납골되어, 1931년에는 진재부흥기념관이 건설되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1944년, 1945년의 공습으로 다시 도쿄가 초토화되고, 간토대지진을 넘어선 7만 7,000명이 사망했다. 1948년부터 각지에서 가매장된 신원불명의 유골을

납골당에 개장하고, 전재자정장사업이 완료된 1951년에 ‘도쿄도 위령당’으로 개칭하였다.

전시 내용

대부분은 간토대지진 때의 자료이다. 진재(震災) 후에 발굴된 것과 당시의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다. 원래는 간토대지진의 참상을 전하고 그곳의 부흥을 기념하여 지은 것이나, 도쿄대공습과 국내에서 일어났던 큰 지진에 대한 자료도 전시되고 있으며, 간토대지진 당시의 각종 분석도와 지진계의 기록지 등도 전시되어 있다.

위령당에 부속된 건물이기 때문에 부흥기념관 외에 위령당에는 간토대지진 때의 5만 8,000명의 유골과 도쿄대공습에서 사망한 유골을 합쳐 16만 3,000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다. 조선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비도 세워져 있다.

사진 자료



1~2. 도쿄도 부흥기념관의 위령당 전면 모습과 입구의 안내문 3. 도쿄도 부흥기념관의 입구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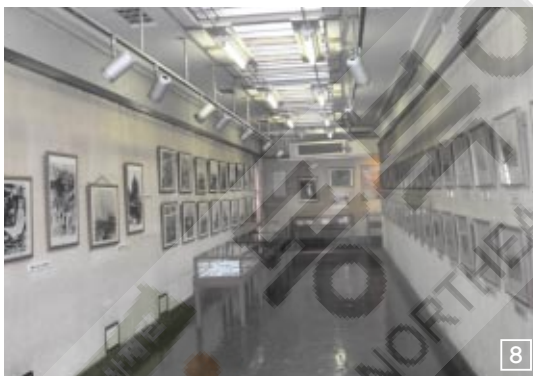
5



6



7



8



9



10

4. 간토대지진 때 쇼와 천황의 순시도
5~6 공습으로 폐허가 된 도쿄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 7.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여
학생(왼쪽), 군사훈련을 하는 여학생(가운
데), 니쥬바시를 행진하는 여학생(오른쪽)
8. 부흥기념관의 내부 전시 모습 9~10.
관동대지진 때 희생당한 조선인을 추모하
는 비문



8. 다이고후쿠류마루전시관 [第五福龍丸展示館]

| 주소/연락처 |

도쿄도[東京都] 고토구[江東區] 유메노시마[夢の島] 3-2

유메노시마[夢の島] 공원 내

☎ 03-3521-8494 FAX : 03-3521-2900

fukuryumaru@msa.biglobe.ne.jp

일반 개요

1) 설립 시기 : 1976년

2) 설립 주체 : 도쿄도

현재 관리 운영은 재단법인 다이고후쿠류마루평화협회[第五福龍丸平和協會]가 맡고 있다. 동 협회는 제5후쿠류마루의 보존운동 과정에서 선체의 유지 관리와 보존 시설의 건립 실현을 위해 1973년 도쿄도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이다. 1976년 6월 현재의 위치에 도립 다이고 후쿠류마루전시관[第五福龍丸展示館]이 개관된 후 전시관의 관리 운영을 도쿄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담당하고 있다.

3) 설립 목적과 배경

전시관의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이 전시관에서는 목조 참치어선 '제5후쿠류마루'와 그 부속품, 관계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5후쿠류마루'는 1954년 3월 1일에 태평양의 마셜제도에 있는 비키니환초에서 미국이 행한 수소폭탄 실험에 피해를 받았습니다.

목조어선으로 근해어업은 현재도 행해지고 있으나 당시에 이러한 목조선으로 먼 바다까지 물고기를 잡으려 갔던 것입니다.

‘제5후쿠류마루’는 1947년 와카야마현에서 건조되어, 처음은 가다랑어 어선으로 활약하다가 나중에는 참치 어선으로 개조되어 원양어업에 나갔었습니다. 수소폭탄 실험에 피폭당한 후에는 연습선으로 개조되어 도쿄수산대학에서 사용하였으나 1967년에 폐선된 것입니다.

도쿄도는 원양어업에 나가 있던 목조어선의 실물에 대해 알 수 있는 것과 함께, 원자 수소폭탄에 따른 참화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아, 이 전시관을 건설하였습니다.

1954년 미국이 비키니 섬에서 행한 수소폭탄 실험에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제5후쿠류마루호의 선원 23명 전원이 소위 ‘죽음의 재’에 피폭되었으며 무선장(無線長)이었던 구보야마 아이키치[久保山愛吉]가 6개월 후 피폭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나가사키·히로시마 원폭 투하에 대한 악몽이 강하게 남아 있던 터라 제5후쿠류마루호 사건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전시 내용

전시관 내에는 제5후쿠류마루 선체 실물, 수소폭탄의 피해, 승무원의 병상, 참치 소동, 방사능비, 원자·수소폭탄 반대운동, 태평양의 핵오염 상황, 미일정부의 사건 해결, 마셜제도의 핵피해, 세계의 핵실험 피해, 핵실험, 핵개발 연표 등의 전시물이 있다. 그리고 전시관 앞 광장에는 제5후쿠류마루의 무선장 구보야마 아이키치의 기념비, 제5후쿠류마루의 엔진, 참치 무덤 석비가 있다.



1. 전시관의 입구에 있는 안내판의 일부 2. 전시관의 전체 모습 3. 제5후쿠류마루의 선체 앞부분. 제5후쿠류마루는 총 톤수 140톤, 전체 길이 약 30미터, 높이 15미터, 선체의 폭 6미터이다. 4. 제5후쿠류마루의 선체 측면 부분 5. 전시관의 내부 모습 6. 제5후쿠류마루의 피폭 사실을 최초로 전하는 당시의 보도 자료 7. 제5후쿠류마루의 무선장 구보야마 아이키치의 인터뷰와 죽음을 전하는 당시의 기사



8. 수폭 실험 이후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소위 '참치 소동')과 방사능에 오염된 비 소식 등 당시 일본 국민의 불안감을 전하는 신문 기사. 생선 가게에서는 "우리 가게에서는 원자 참치는 판매하지 않습니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9. 핵실험과 핵병기 반대운동에 대한 소개와 함께 서명자 명부를 전시하고 있다. 비키니 섬 수폭 실험과 제5후쿠마루의 피폭 사실이 알려진 후 일본 국회와 전국 각지의 지자체에서 원·수폭 금지와 실험 금지를 요구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이듬해인 1955년 7월에는 버트란트 러셀과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주도하에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이 발표되는 등 세계 각지로 원·수폭 금지 운동이 확대되어 갔음을 소개하고 있다. 10. 태평양의 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되었음을 지도에서 보여주고 있다. 11~12. 전시관을 다녀간 아동들이 남겨 놓은 평화에 대한 메시지 13. 1969년 제5후쿠마루의 보존운동이 전개되었을 때 최초로 제작된 포스터





9. 가와사키시평화관 [川崎市平和館]

| 주소/연락처 |

가와사키시[川崎市] 나카하라구[中原區] 기즈키스미요시초
[木月住吉町] 33-1 나카하라[中原] 평화공원 내
☎ 044-433-0171

일반 개요

1) 설립 시기 : 1992년 4월 15일

2) 설립 주체 : 가와사키시

3) 설립 목적과 배경

평화관은 1992년 4월 15일 개관했습니다. 1945년 이날에 가와사키 대공습이 있었습니다. 가와사키시에서는 전쟁의 비참함을 전하고 평화에 대한 생각을 위해서 가와사키시 평화관을 만들었습니다.

전시 내용

〈1. 도입-세계에서의 목소리〉

여러 나라의 민족과 문화의 체험을 가진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에게 평화와 전쟁에 대한 살아 있는 목소리를 소개하는 코너

〈2. 가와사키 시민과 전쟁〉

1945년 4월 15일 대공습으로 가와사키 시민의 다수가 생명을 잃었는데, 이들의 생활을 소개하는 코너

〈3. 일본과 전쟁〉

1931년부터 1945년까지 15년에 걸친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전쟁이 일본과 아시아 나라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에서 무엇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지 생각하는 코너입니다.

〈4. 전쟁의 역사〉

〈5. 전쟁과 인간〉

전쟁은 전장이 된 토지를 파괴하고, 인간 등을 잃고, 생명을 빼앗아갔지만 평화를 기원하는 사람과 자신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

〈6. 대량살상병기의 시대〉

핵병기와 생물·화학 무기를 필두로 한 대량살상·대량파괴 무기 등의 실상을 소개

〈7. 또 하나의 전쟁〉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기아, 빈곤, 인종차별, 환경파괴 등으로 전쟁이 가져다주는 것과 같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수하고 있음을 환기시켜 주는 코너

〈8. 새로운 세계에〉

평화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연합 안에 조직된 여러 공적 기관과 대규모 국제적 조직의 활동을 소개하는 코너

〈9. 평화의 사상〉

평화란 무엇인가, 그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 여러 장해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논한 사상가들을 소개하는 코너

〈10. 평화에의 대처〉

친근한 평화활동과 많은 일반시민이 참가하는 NGO 활동 등을 소개하는 코너

〈11. 평화의 광장(옥내광장)〉

〈12. 비디오 코너〉

〈13. 평화관련 도서 검색 코너〉

〈14. 체험 코너〉

태평양전쟁 당시의 방공호를 재현해, 체험할 수 있는 코너

사진 자료



1. 평화관의 입구. 평화관의 입구 바로 앞에는 핵병기 철폐 평화도시선언상이 세워져 있다. 2. '요카렌(해군비행예과연습생의 약칭)' 평화기념관 개관 예정 포스터 3. '일본과 전쟁' 코너의 전시장 4. '일본과 전쟁' 코너 안내판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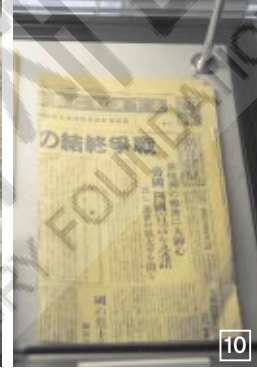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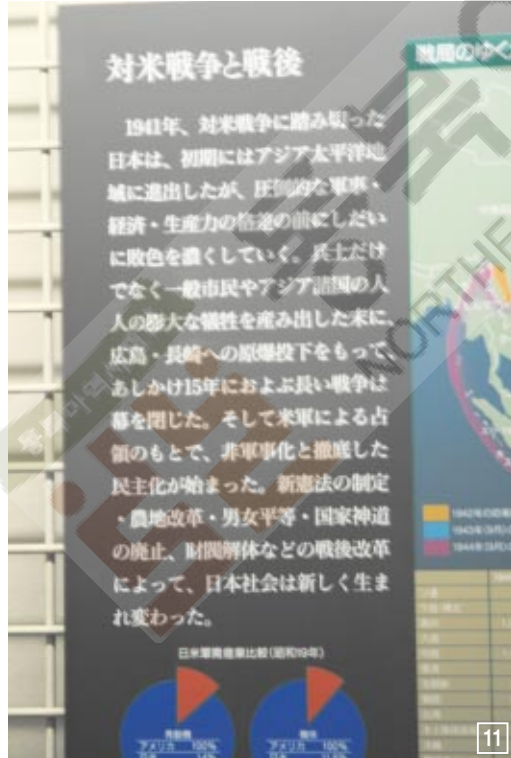
8



9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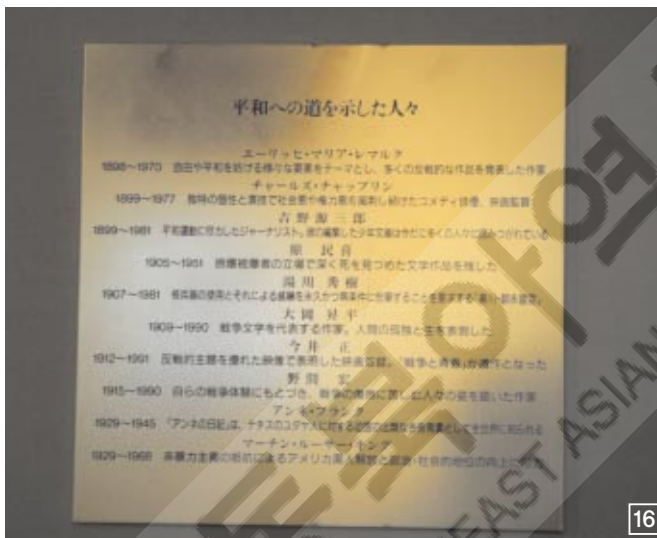


12

5. 방독면 등 전쟁 당시 쓰이던 물품 전시 6. '중국의 관계' 패널. 중일전쟁이 양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서술 7. '중국의 관계'에 대한 자료 8. '일본의 식민지 정책' 패널 9. 전시하 생활과 의식변화 패널과 전시품 10. 일본의 항복을 전하는 1945년 8월 15일자 『아사히신문』 11. 대미국 전쟁과 전후 패널 12. '대량살상병기의 시대' 코너 안내판 13. '민족분쟁, 테러리즘' 코너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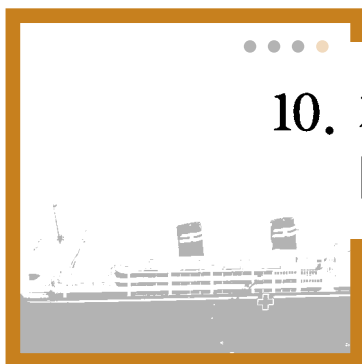


13



14. '평화예의 대처' 코너 전시장 15. '평화예의 대처' 코너 안내판
16. '평화예의 길을 보인 사람들' 패널, 평화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대한 소개문 17. 전시품 : 소집영장·중군증명서 등 18. 병사들이 소지했던 부적과 보내온 편지 등을 전시 19. 전시채권·전사통지서 등을 전시





10. 가나가와평화기념관 [かながわ平和記念館]

| 주소/연락처 |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요코하마시[横浜市] 고난구[港南区]
오쿠보[大久保] 1-8-10 ☎ 045-842-4243

일반 개요

1) 설립 시기 : 1995년

2) 설립 주체 : 가나가와현 전몰자 위령당 부속회관

3) 설립 목적과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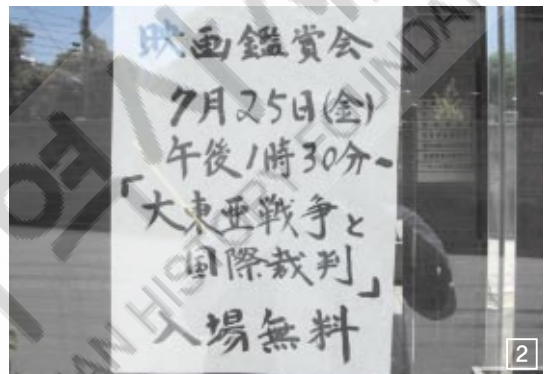
‘가나가와평화기념관’(가나가와 전몰자 위령당 부속회관의 애칭)은 1995년, 즉 전후 50년에 맞추어 종래의 가나가와현 전몰자 위령당 부속회관을 개축, 정비한 건물이다. 여기서도 전쟁체험을 풍화시키지 않고 차세대에 전한다는 목적의식이 강하다.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함으로써 15년 전쟁은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다. 일본의 희생자 수는 약 310만 명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피해는 심대했다. 이렇게 많은 희생을 낳은 비참한 전쟁의 기억을 언제까지라도 잊지 않고, 세계 평화의 바람을 이어가는 것이 새삼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시 내용

〈유품 전시 홀〉에는 전몰자들의 유품과 그 유래, 그리고 유족들의 전쟁체험 수기, 사진 등 200여 점을 관람할 수 있다.

사진 자료



1. 가나가와평화기념관 입구 2. 무료영화감상회를 알리는 포스터
3. 입영을 축하하는 깃발과 여러 사람이 기명한 일장기(寄書日章旗)
4. 오키나와전과 관련한 유품들 5. 전사자의 사망통지서와 훈장 등



6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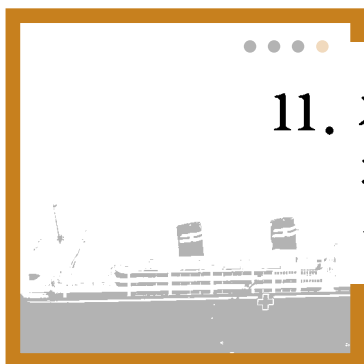


9

6. 전쟁터와 전사자 수를 표시한 지도 7. 군인
용품의 일부와 군사우편 8. 출정에 즈음해 무
운을 기원하는 물품들 9. 평화를 기원하는 심
볼



10~11. 평화자료관 벽면에 전시한 만주사변부터 패전까지를 다룬 신문기사 12. 평화기념관의 내부 전시 모습 13. 가나가와현 전몰자 위령당비 14~15. 가나가와현 전몰자 위령당의 모습



11. 지구시민 가나가와 플라자 국제 평화전시실[地球市民かながわ プラザ国際平和展示室]

| 주소/연락처 |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요코하마시[横浜市] 사카에구[栄区]

고스가야[小菅 栄] 1-2-1

☎ 045-896-2121

Homepage <http://www.pref.kanagawa.jp/osirase/plaza/>

일반 개요

1) 설립 시기 : 1998년

2) 설립 주체 : 가나가와현

3) 설립 목적과 배경

같이 사는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이 하나의 슬로건이다.

전시 내용

1) 전시 내용 소개

‘지구시민 가나가와 플라자 국제평화전시실’은 크게 <국제평화전시실>, <어린이의 국제 이해 전시실>, <어린이 판타지 전시실>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평화전시실>의 관련 안내문에 따르면 “쇼와시대 초기에 있었던 길고도 괴로운 전쟁을 가나가와 현민의 체험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사로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나타나는

지구 규모의 과제에 대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구시민으로서 지구 전체를 보는 것이 가능”하게 전시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국제평화전시실〉은 세 가지 큰 테마로 다시 나뉘는데 〈1. 전쟁의 세기〉, 〈2. 지구 규모의 과제〉, 〈3. 평화에의 길〉이다. 여러분과 함께 과거를 배우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전시가 되어 있다.

〈1. 전쟁의 세기〉는 이른바 ‘과거를 배우다’는 취지에서 설정되었다. 20세기는 양차 세계대전 외에도 많은 전쟁과 분쟁이 일어난 ‘전쟁의 세기’라고도 부를 수 있는 만큼, 전쟁 중의 사람들의 삶과 과거의 역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2. 지구 규모의 과제〉는 이른바 ‘현재를 안다’는 취지이다. 지금도 끊이지 않는 ‘전쟁과 분쟁’, 도망치며 헤매는 ‘난민’,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빈곤’, ‘인구증가’, ‘개발과 환경’ 문제 등 지구 규모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자신의 과제로서 생각해 보게 하는 코너이다.

〈3. 평화에의 길〉은 이른바 ‘미래를 생각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는 물론 국제적인 기관, NGO로 불리는 시민단체들이 다양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공헌도 소중한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 자료



1. 지구시민 가나가와 플라자 국제평화전시실 입구 모습
2. 전시실 입구 벽에 전시된 가나가와 비엔날레 국제야동 그림전





3



4

3. 소개지(疏開地)의 아동에게 보낸 부모와 친척들의 편지·위문품류 4~5. 소개처에서의 기념사진 6. 전시 중 어린이용 그림책 7. 전시 중 부인용 잡지류 8. 출정을 축하하는 물품들 9. 국가에 충성으로 보답하자는 문구가 적힌 일장기와 관련 물품들 10. 192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의 세계사의 흐름을 요약한 설명도



5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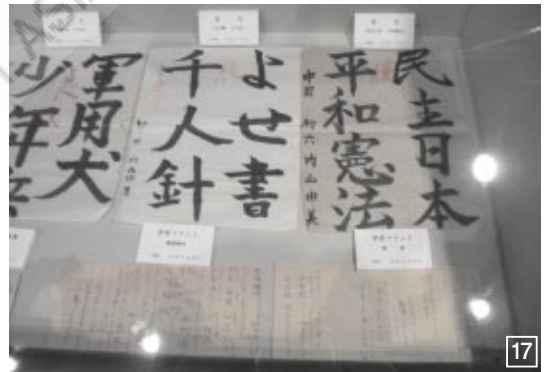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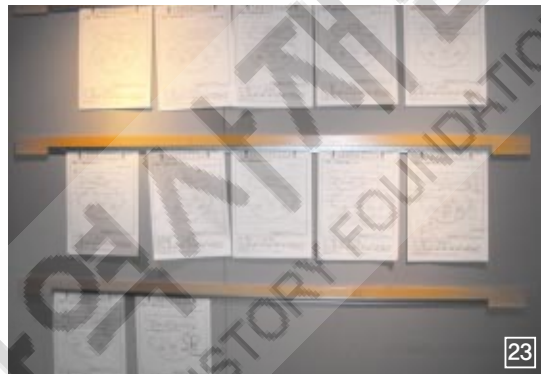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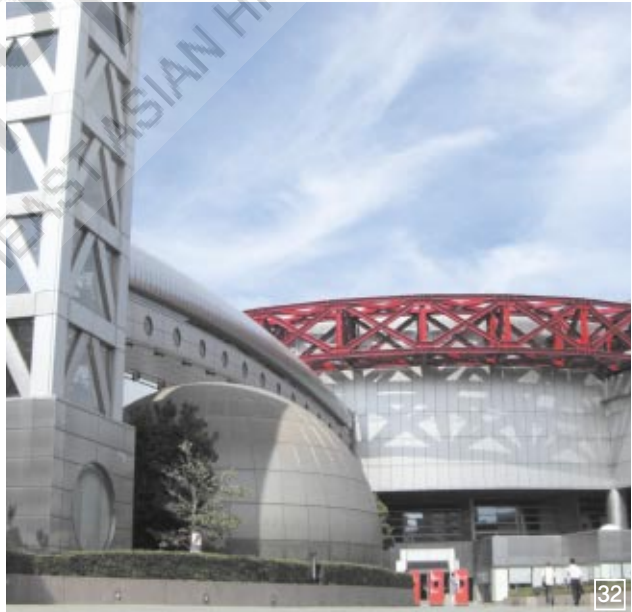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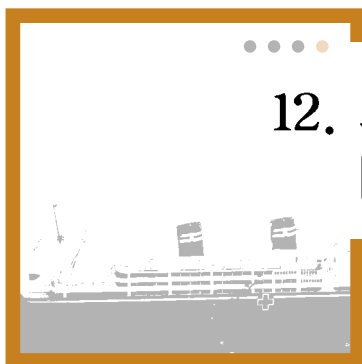
11~12. 192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의 세계사의 흐름을 요약한 설명도 13. 공습에 폐허가 된 시가지 모습 14. 화재를 진화하는 대일본국방부인회 부녀자들 15. '전쟁의 상처와 기억'이라는 제하의 사진 16. '전쟁 시대의 여성과 어린이들'이라는 제하의 사진 17. 초등학교생들이 쓴 습자용 글씨 18. 어린이들의 놀이기구 19. 냉전 후의 세계를 담은 사진



20~22. 냉전 후의 세계를 담은 사진 23. 전시관 관람자들의 감상과 의견서 24~26. 전쟁상황을 알리는 당시의 신문기사와 화보집



27. 중군기장(記章)과 기장증 28. 군대수첩과 가미카제특공대 입대 허가증 등 29. 훈장·적십자사원증 등 30.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일본군의 군표(軍票) 종류와 지폐 31~32. 지구시민 가나가와 플라자의 외관과 방향안내 표시



12. 도다평화기념관 [戸田平和記念館]

| 주소/연락처 |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요코하마시[横浜市] 나카구[中区] 야
마시타초[山下町] 7-1 ☎ 045-640-4500

일반 개요

1) 설립 시기 : 1979년

2) 설립 주체 : 창가학회

3) 설립 목적과 배경

‘도다평화기념관’에 대한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창가학회 도다평화기념관은 창가학회 제2대 회장 도다 죠세이[戸田城聖]가 1957년에 ‘원자수소 폭탄 금지선언’을 발표한 요코하마에 그 평화사상을 남기기 위해 1979년 설립되었습니다.

이 선언을 발표할 당시 세계는 냉전 중으로, 대국이 군비확장에 열심이었고, 원자수소폭탄은 인류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원자수소폭탄 금지선언’은 핵억제론으로 상징되는 핵병기를 정당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민중의 생존의 권리를 지킨다고 하는 입장에서 불법의 평화주의에 기반하여 핵병기의 존재 자체를 ‘절대악’으로 규정, 그 완전부정을 선언한 것입니다. 보편적인 생명존엄이라는 결원에서 전시를 통해 이데올로기와 국가, 민족의 차이를 넘어서는 평화 연대를 넓혀 가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전시 내용

상설전시는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평화에 대한 생각〉에서는 인간·자연·우주의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과 평화와 희망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전쟁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므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많은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아시아의 자비에서 인류의 희망이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

〈제2장 평화에 대한 자각〉에서는 소위 ‘이지메’와 차별, 지구 규모의 분쟁과 빈곤 등 평화를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자각에 기초한 행동이 지역과 세계를 착실하게 바꾸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3장 평화를 형태로〉 이 코너에서는 왜 창가학회가 평화에 진지한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창가학회 3대 회장인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의 사상과 행동도 소개하고 있다.

사진 자료



1. 도다평화기념관의 안내판. 기념관 건물은 1922년 무렵에 건축된 구영국 7번관으로, 과거 요코하마 외국인 거류지의 옛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관동대지진 이전의 외국 상관 건물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2. 도다평화기념관의 입구 모습 3. 도다평화기념관의 외관 4. 구영국 7번관 안내판 5. 평화기념관의 입구에 있는 어린이를 위한 평화 게시판 6. 평화기념관의 내부 모습(1층 입구)

13. 사이타마현 평화자료관 [埼玉縣平和資料館]



| 주소/연락처 |

사이타마현[埼玉縣] 히가시마쓰야마시[東松山市] 다이지이와
도노[大字岩殿] 241-113 ☎ 0493-35-4111
Homepage <http://homepage3.nifty.com/saitamapeacemuseum/>

일반 개요

1) 설립 시기 : 1994년 8월 1일 개관

2) 설립 주체 : 사이타마현

3) 설립 목적과 배경

‘사이타마현 평화자료관’을 소개하는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한 지 반세기가 경과하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전 대전의 참상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평화로운 사회 변영의 이면에는 전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과거의 비참한 전쟁체험에서 얻어지는 귀중한 교훈을 살려, 평화로운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이타마현 평화자료관은 ‘현민에게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는 것으로써 현민의 평화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고, 좀 더 평화로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1994년 8월 1일 개관했습니다.

본관은 전쟁체험의 풍화를 방지하기 위해 당시의 생활용구와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전시

하고, 전쟁체험자의 증언 등을 기록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현민에게 전쟁과 평화에 관한 학습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운영의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시 내용

상설전시는 1920~1940년대, 쇼와 시대 초기부터 종전(終戰)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현민생활과 전쟁의 관계를 역사적 추이 속에서 이해하도록 전시하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세계와 일본의 움직임 가운데 사이타마현의 시점을 중시한 전시구조로, 서민의 눈에 비친 당시 모습의 재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전시실 안에는 1945년 이전의 주택의 모습, 전시체제하의 교실과 방공호 등도 재현해 놓아 일종의 체험 학습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즉, 15분 정도 초등학교의 교실 안에서 수신(도덕) 수업을 보면서 전시교육의 일단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중에 공습경보가 울려 방공호에 대피하게 하여, 빛과 진동으로 공습 상황을 체험해 볼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전쟁으로의 길>에서는 쇼와 시대의 개막부터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 발발까지의 기간을 ①불황과 만몽개척, ②강해지는 군국주의-2·26 사건과 향토병, ③전시체제와 삶이라는 세 가지 코너로 전시하고, 불황으로 말미암아 1931년의 만주사변을 계기로 군국주의가 강해지고 결국 중국과 전면전에 돌입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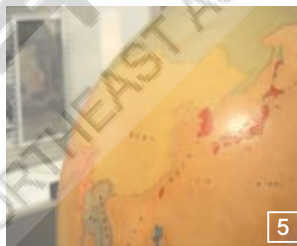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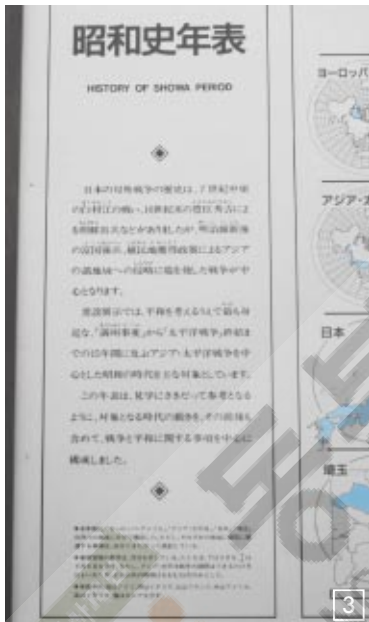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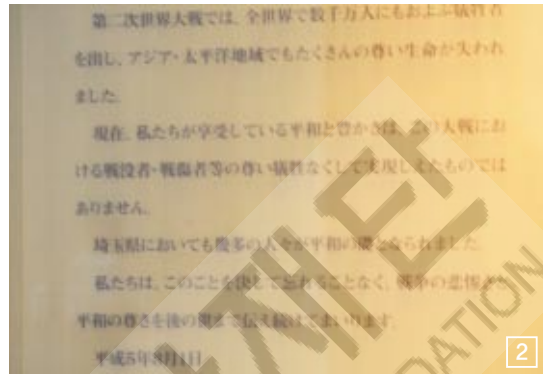
이어 <태평양전쟁>에서는 1941년부터 1945년 태평양전쟁의 기간을 ①사이타마의 군사시설, ②아이들과 전장, ③사이타마현민과 전장, ④사이타마의 공습이라는 4개의 코너로 전시하고 있다. 전쟁의 격화로 인해 군국주의적인 통제가 더욱 심해져 가고 그 과정에서 고통스러웠던 현민의 인내생활과 전쟁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다.

2) 기획전의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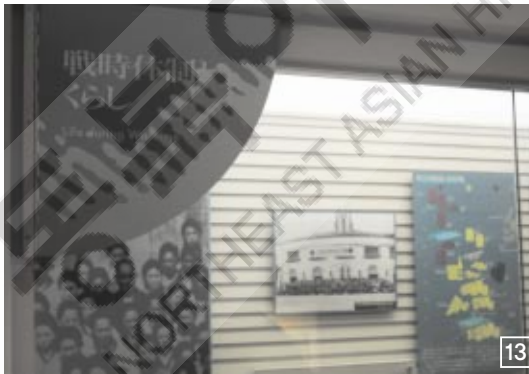
연도	기간(월일)	내 용
1993	8. 1~10. 3	아우슈비츠는 경고한다
1994	7. 26~10. 2	學畬의 아이들
	11. 1~1995. 2. 26	전쟁으로 잃어버린 문화재
1995	7. 1~7. 9	오키나와전투 순회전
	7. 29~9. 24	사이타마의 부흥
	11. 7~ 1996. 1. 28	수도권의 공습
1996	6. 19~7. 19	갤러리전 오키나와전투와 사이타마
	7. 20~9. 23	전쟁과 서민생활
	9. 24~10. 27	갤러리전 쇼와 20년대의 사이타마
	10. 29~1997. 2. 23	치치부 戦中の 기록
1997	2. 25~5. 6	갤러리전 테레진의 아이들과 소개 학동의 회화전
	6. 17~7. 21	갤러리전 전시 포스터전
	7. 23~9. 21	종전과 귀환
	9. 23~10. 26	갤러리전 전쟁을 말하는 검은 칠의 벽
	10. 28~1998. 2. 22	전쟁과 종이연극
1998	2. 24~5. 31	갤러리전 히키 지방의 전쟁유적
	6. 16~7. 20	갤러리전 '주사위 놀이'에서 보는 세상
	7. 25~8. 31	푸른 눈의 인형과 시부사와 에이치
	9. 15~10. 18	소장품전
1999	6. 29~7. 20	갤러리전 전시하에서 그려진 스케치
	7. 27~9. 19	전시하의 삶과 바람
	9. 28~10. 24	갤러리전 사진으로 본 전시하의 아이들
	10. 26~2000. 2. 6	전쟁과 사이타마의 지장산업-行田足袋과 의복
2000	2. 25~4. 9	사진에서 그리워하는 파란 눈의 인형
	7. 20~8. 31	그림에서 더듬어보는 일본의 싸움 I
	9. 12~10. 9	사이타마 메가폰
	10. 24~12. 10	그림책, 잡지에서 보는 쇼와의 세상
2001	2. 14~3. 11	추억의 답례인형
	7. 24~8. 31	그림에서 더듬어보는 일본의 싸움 II
	10. 23~12. 2	사이타마에 疎開된 문화인들

연도	기간(월일)	내 용
2002	2. 9~3. 10	종전 후, 혼란기의 교과서전
	7. 23~9. 1	무기 없는 전쟁-정보, 모략서전
	10. 22~12. 1	아이들의 놀이와 삶-戰中・戰後의 완구를 중심으로
2003	2. 12~3. 9	전쟁터, 외지에서 온 편지
	7. 23~9. 15	여성들의 戰中・戰後
	10. 21일 ~12. 7	잡지의 표지에서 보는 세상-아사히 그래프를 중심으로
2004	2. 3~3. 7	사이타마 군정부와 전후 사이타마 부흥
	7. 24~9. 12	쇼와 전기의 아이들과 전쟁-학교와 놀이
	10. 19~12. 5	광고에서 본 전중・전후의 세상-포스터, 광고지를 중심으로
2005	2. 5~3. 7	해외에서의 인양과 복원-사이타마의 경우를 중심으로
	4. 23~6. 12	파란 눈의 인형 이야기와 소장 자료전
	7. 23~9. 25	전쟁의 기억-205인의 증언
	10. 15~12. 11	산간벽지의 아름다운 唱歌의 세계
2006	2. 14~4. 9	그림 주사위 놀이에서 보는 쇼와의 세상
	4. 29~6. 11	시대의 기록자-그림엽서에서 보는 쇼와와 신수집자료
	7. 22~9. 24	전쟁 중의 장신구-그때 일본인은 무엇을 입고 있었나
	10. 21~12. 3	사이타마의 戰中과 戰後
2007	2. 17~4. 8	잡지, 신문에서 보는 동 시대의 세상
	4. 28~6. 24	전후 일본의 국제공헌
	7. 21~9. 9	전시구호-일본 적십자 간호사들의 궤적
	10. 20~12. 26	전시 사이타마의 식탁
2008	3. 8~5. 6	광고매체에서 본 전후 사이타마

사진 자료



1. 자료관 입구 2. '평화사이타마현선언 [平和埼玉縣宣言]'의 일부,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나 되는 희생자를 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많은 존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향유하고 있는 평화와 윤택함은 이 대전에서의 전몰자·전상자 등의 고귀한 희생이 없는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사이타마현에서도 많은 사람이 평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결코 잊지 않고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존귀함을 다음 세대에도 계속 전해 갈 것입니다." 3. 쇼와사 연표, 여기서는 일본의 대외전쟁이 주로 아시아 여러 지역에 대한 침략의 전쟁이었음을 명기하고 있다. 4. 쇼와의 개막(평화에의 기대) 5. 쇼와 시대의 개막(1926) 당시 일본 영토 표시 지구본, 한반도의 영역 표시에 오류가 있음이 금방 눈에 들어온다. 6. 전시기의 국민학교 교실 재현 공간



7. 전쟁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다 8. 불황과 만몽개척 코너 9. 만몽개척에 대한 포스터 10. 실업자 파업 포스터 11. 2·26사건 관련 『아사히신문』 호외 '반란진정' 12. 군국주의의 대두 13. 전시체제와 통제 14. 전쟁의 확대 15. 사 이타마현에서 실시된 배급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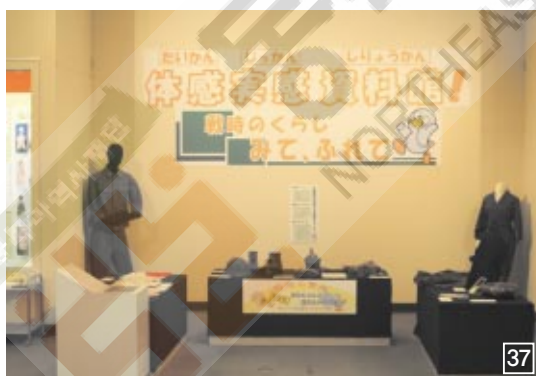
16. 태평양전쟁의 발발 17. 사이타마현의 군대 시설 18~19. 전장(戰場) 20. 일반병사의 복장과 사이타마현 출신이 각 전장에서 죽은 전사자 수 21. 사이타마의 공습 22. 사이타마 공습피해 지역과 공습용 전 등커버 23. 나가사키 원폭 피해도 24. 평화자료관의 옥외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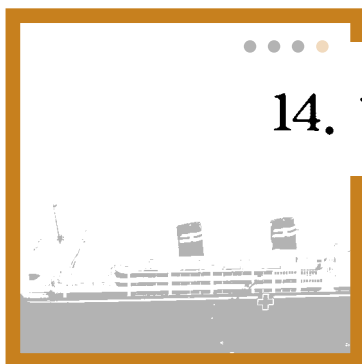


25. 파란 눈의 인형의 현재 26. 전시관 관람 아동용 코너의 주안점
27. 아동용 '전시의 생활과 사람들' 28. 아동용 -협동의 중요성 29. 아동용 - 금속 수집과 대용품 만들기
30. 아동용 - 전시의 아이들 모습 31. 아동용 - 전시의 아이들 32. 아동용 -소개지의 아이들



33. 아동용 - 지금도 남아 있는 소개지 34. 평화를 기원하며 35. 구마가야의 공습 36. 전시실의 내부 모습 37. 체험 자료관 38. 분류 전시실. 1,200여 점의 각종 자료가 용도와 목적에 따라 분류되어 수납되어 있다.





14. 마루키미술관[丸木美術館]

| 주소/연락처 |

사이타마현[埼玉縣] 히가시마쓰야마시[東松山市] 시모카라코

[下唐子] 1401

☎ 0493-22-3266

Email marukimsn@aya.or.jp

Homepage <http://www.aya.or.jp/~marukimsn>

일반 개요

1) 설립 시기 : 1967년

2) 설립 주체 : 마루키 이리[丸木位里] · 마루키 토시[丸木俊]

3) 설립 목적과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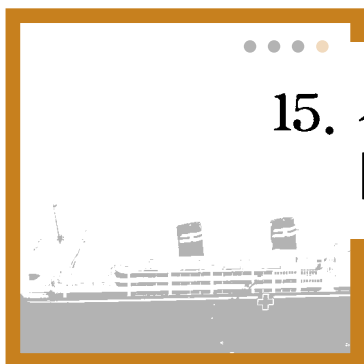
‘마루키미술관’은 마루키 이리 · 마루키 토시 부부가 만들었으며, 세계에 평화를 호소하는 미술관으로 알려져 있다. 히로시마에 태어난 수묵화가 마루키 이리와 서양화가 마루키 토시는 원폭투하 직후 히로시마에 들어가 참상을 눈으로 보게 되었으며 그 후 피폭된 사람들의 괴로움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두 사람이 그린 것이 대작 ‘원폭의 그림’이다.

“이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지옥도(地獄圖) 속에 넣어 묘사함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미와 희망을 보여주고 싶다”며 ‘원폭의 그림’ 전 15부를 30년에 걸쳐 그려 온 것이라고 한다.

마루키 부부는 피해자의 모습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난징대학살의 그림’, ‘아우슈비츠의 그림’, ‘오키나와전투의 그림’ 등도 그려, 가해의 입장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평가를 받아 마루키 부부는 1995년에는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올랐다.

사진 자료





15. 시즈오카평화자료 [静岡平和資料]센터

| 주소/연락처 |

시즈오카현[静岡縣] 시즈오카시[静岡市] 아오이구[葵區] 덴

마정[町] 10-25 주오[中央] 빌딩 90 2F

☎ 054-271-9004

Email shizuoka-heiwa@nifty.com

Homepage <http://homepage2.nifty.com/shizuoka-heiwa/>

일반 개요

1) 설립 시기와 주체

‘시즈오카 평화자료센터’는 시민의 뜻으로 만든 ‘시즈오카 평화자료관을 만드는 모임’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모임의 전신은 ‘시즈오카시 공습을 기록하는 모임’이며 1971년에 결성되었다. ‘시즈오카시 공습을 기록하는 모임’은 시즈오카 공습의 참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공습체험화집(空襲體驗畫集)』 등을 출판하고, 공습전(空襲展)을 열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귀중한 자료를 계속 기증하였으며 ‘시즈오카시 공습을 기록하는 모임’은 2005년에 ‘평화도시선언’을 결의한 바 있는 시즈오카시에 평화자료관의 설립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2) 설립 목적과 업무

시즈오카 평화자료센터는 일본국 헌법을 근간으로 하여 과거의 역사와 체험을 배우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개설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주요 업무	내 용
상설전시와 기획전시	시즈오카·시미즈 공습의 체험 그림과 소이탄(Incendiary bomb) 등의 실물자료를 전시하는 상설전시와 테마별 기획전시를 개최
단체견학의 접수	학교나 각종 동아리의 학습 장소로써 이용
전시자료의 수집, 보존, 대출	전시자료들을 계속 수집하고 그것을 정리, 보관하며 학교와 각종 동아리 등에 자료를 대출
평화문고의 운영	전쟁과 평화에 관계된 출판물과 비디오의 자유로운 열람과 대출
조사, 연구, 출판	전시자료의 조사와 연구, 전쟁체험의 발굴, 타 단체와의 공동연구, 각종 관련도서의 출판
다른 단체와의 교류, 정보의 교환	전쟁과 평화에 관계된 학습회, 상영회, 필드 워크를 수행

전시 내용

1) 전시 내용 소개

시즈오카 평화자료센터에는 시즈오카 시민에게서 기증받은 아시아태평양전쟁 중의 군대와 일반시민의 삶과 관련된 유품과 기록, 사진 등 3,000여 점이 있다.

이들 자료를 이용한 평화자료센터의 전시는 주로 시즈오카 대공습에 대한 전시가 중요 부분을 이루고 있다. 팸플릿 등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45년 6월 20일 오전 0시 반이 지나 시즈오카의 중심가는 123기나 되는 B29의 공습을 받았다. 10만 발이나 되는 소이탄 무차별 공습으로 거리는 화염에 휩싸여, 사람들은 불길의 회오리에 전신이 타고, 또한 소이탄의 직격을 받아 사지가 날아갔다. 불과 2시간여 만에 2,000명 이상이 희생되고, 2만 5,000채의 가옥이 소실되었다. 거리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다.

비참한 공습체험을 바람에 날려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시즈오카 시민은 '체험화(體驗畵)'를 그렸다. 그 체험화들을 당시의 사진과 시민에게 기증받은 전시 자료와 함께 상설 전시하고 있다.

시즈오카 평화자료센터의 전시 내용에는 유럽의 공습 사실과 함께 일본군의 중경 무차별 폭격 사실도 같이 지적하고 있음은 흥미롭다. 즉 여기서는 (대)공습도 당시 일본군이 개시한 하나의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2008년 6월 13일~11월 23일에는 시즈오카 평화자료센터 개설 15주년을 기념하여 “시즈오카시민이 남긴 전쟁자료전(제1부) 시즈오카·시미즈에도 무차별 공습이 있었다”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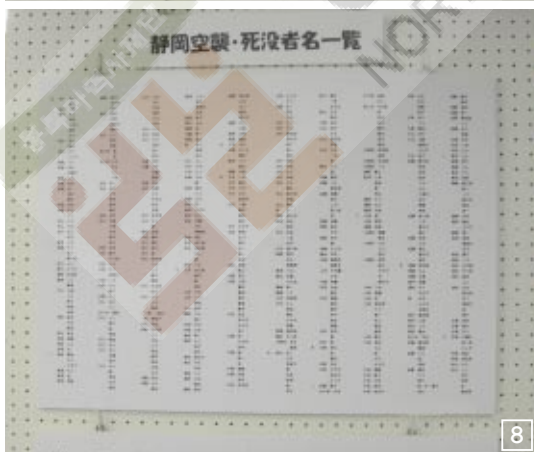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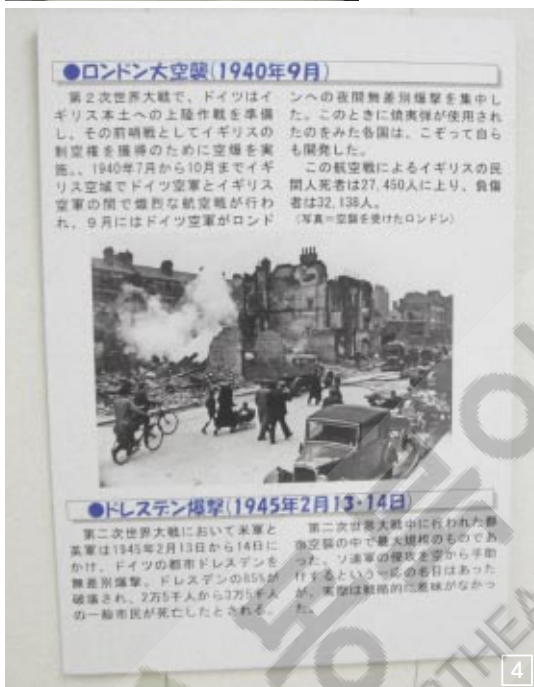
이 전시에서는 시민이 묘사한 공습체험의 원화(原畵), 미군이 촬영한 사진, 시민에게서 제공 받은 실물 자료 등을 통해 시즈오카, 시미즈 공습의 실재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전시 중의 소이탄 투하와 공습 후의 시즈오카 시내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도 준비되어 있다.

2) 과거 전시의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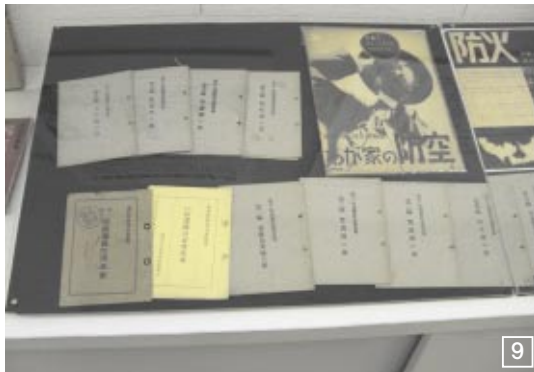
시즈오카 평화자료센터가 지향하는 바는 과거의 기획 전시 내용을 살펴보면 나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1996년 이후의 주제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연도	기간	주 제
2007	2007. 3. 2~2007. 10. 28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시즈오카의 전쟁Ⅱ 〈미쓰비시공장에의 폭격 전〉
2006	2006. 3. 17~6. 25	〈현재를 묻는다, '시즈오카시 대공습 체험화' 전〉
	2006. 7. 7~10. 8	젊은이에게 전하고 싶다. 〈시미즈공습과 함포사격의 원화전〉
	2006. 10. 20~2007. 2. 25	〈풍선폭탄과 시즈오카〉
2005	2005. 2. 18~6. 26	〈전시하의 아이들〉
	2005. 8. 13~8. 21	전후 60년 기념전시 〈시즈오카·시미즈 공습체험화·사진전〉
	2005. 7. 1~10. 4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사진전〉
	2005. 10. 14~2006. 3. 12	〈2000여 명의 생명을 빼앗아간 시즈오카 공습〉
2004	2004. 4. 9~2004. 7. 11	〈전쟁과 시즈오카의 가수들〉
	2004. 7. 25~2005. 1. 30	〈사진가게 주인이 본 전쟁 중의 시미즈 사람들〉
2003	2003. 3. 21~6. 8	〈땅에 숨다-대인지뢰전Ⅱ〉
	2003. 6. 19~10. 26	〈공습 아래 살아남은 나〉
	2003. 11. 7~2004. 3. 28	〈바다를 넘어온 '우정의 인형'〉

연도	기간	주 제
2002	2001. 11. 6~2002. 5. 26	〈소장품전-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시즈오카의 전쟁〉
	2002. 6. 14~9. 29	〈'銃後'의 삶-시타마치의 사진사가 본 시즈오카 사람들〉
	2002. 10. 11~2003. 3. 2	〈'시베리아 억류라는 것은...'〉
2001	2001. 1. 12~2001. 5. 27	〈소장품전-시즈오카와 전쟁 I : 15년전쟁과 생활展〉
	2001. 6. 15~2001. 9. 30	〈縣下の 공습(Ⅱ)-시즈오카 · 시미즈 · 유이 · 간바라 · 후지 · 시모다 · 이나토리〉
	2001. 10. 5~11. 4	〈'세계의 피폭자' 사진전〉
2000	2000. 2. 11~2000. 4. 30	〈땅에 숨다-대인지뢰전〉
	2000. 6. 20~2000. 6. 25	〈전후 55년 기념전시-전쟁의 기억 'SHIZUOKA'〉
	2000. 10. 6~2000. 12. 17	〈아이들이 본 홀로코스트 · 시즈오카전〉
1999	1999. 4. 23~1999. 8. 29	〈縣下の 공습(Ⅰ)-시즈오카 · 하마마쓰 · 누마쓰 · 시마즈 · 시마다〉
	1999. 9. 10~1999. 10. 10	〈지금, 코소보는〉
	1999. 10. 22~2000. 1. 16	〈내일을 향한 그림책전〉
1998	1998. 4. 17~1998. 7. 12	〈10주년 기념 소장품전-소집영장이 왔다〉
	1998. 8. 1~1999. 11. 1	〈잘린 손이 말하는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1998. 11. 20~1999. 3. 28	〈아이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전쟁전〉
1997	1997. 2. 28~1997. 5. 18	〈燒津 제5후쿠류마루와 화가 벤 샨(Ben Shahn)〉
	1997. 6. 13~1997. 10. 19	〈전장으로 간 시즈오카 시내의 남자들〉
	1997. 11. 7~1997. 3. 29	〈전쟁과 아이들-잃어버린 어린시절〉
1996	1996. 10. 25~1997. 2. 16	오프닝 특별전시 〈'공습은 말한다'-시즈오카 그리고 세계에 현재도 계속되는 도시 무차별 공습〉



1~2. 시즈오카 공습에 대한 각종 그림 3. 시즈오카 평화자료센터의 내부 전시 모습 4. 런던 대공습 등 유럽의 공습 5. 공습경보 관련 자료 6. 시즈오카 공습의 피해상황 지도 7. 공습시 투하된 소이탄 8. 시즈오카 공습 사망자 명단



9



10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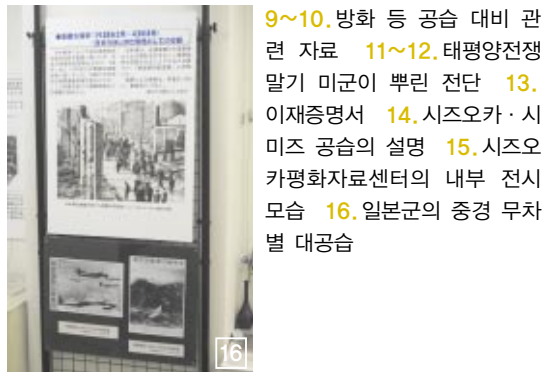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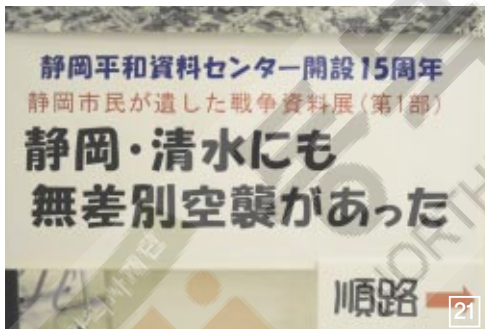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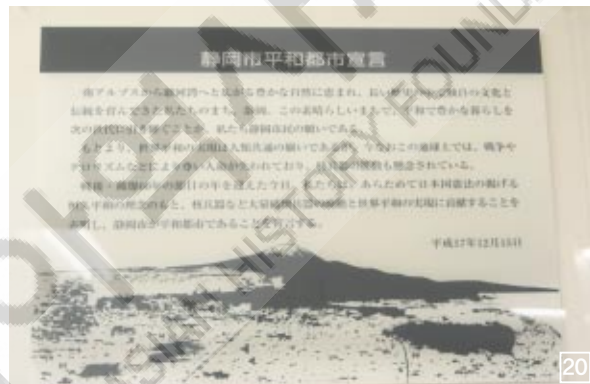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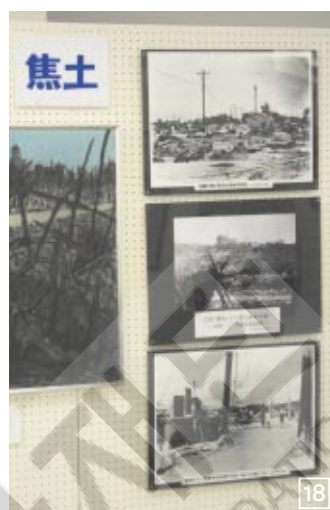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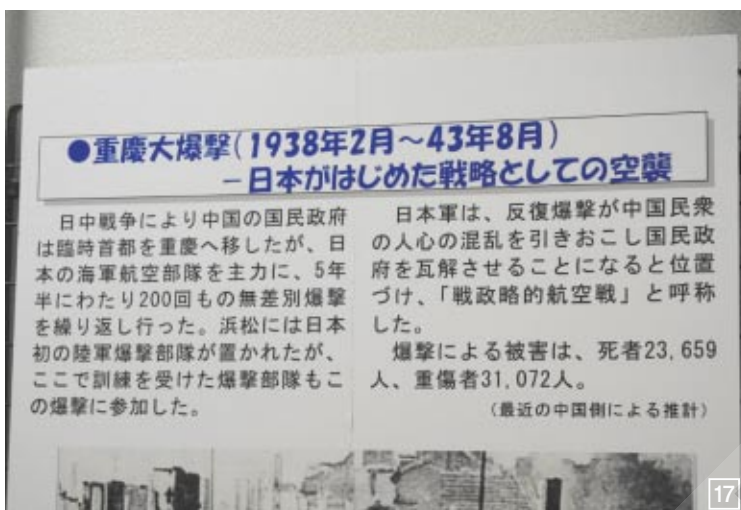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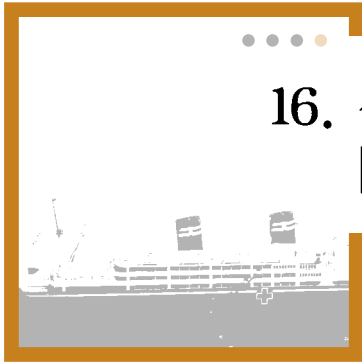


16

9~10. 방화 등 공습 대비 관련 자료 11~12. 태평양전쟁 말기 미군이 뿌린 전단 13. 이재증명서 14. 시즈오카·시미즈 공습의 설명 15. 시즈오카평화자료센터의 내부 전시 모습 16. 일본군의 중경 무차별 대공습



17. 일본군의 중경 무차별 대공습 18~19. 시즈오카 공습 후의 초토화된 모습 20. 시즈오카시 평화도시 선언의 내용 21. 전쟁자료전 홍보 포스터의 일부 22. 시즈오카평화자료센터의 외부 모습



16. 센다이시 역사민속자료관 [仙台市歴史民俗資料館]

| 주소/연락처 |

미야기현[宮城縣] 센다이시[仙台市] 미야기노구[宮城野區]

고린[五輪] 1-3-7 쓰쓰지가오카[榴岡] 공원 내

☎ 022-295-3956

Homepage <http://www.city.sendai.jp/kyouiku/rekimin/>

Email folk muse@deluxe.ocn.ne.jp

일반 개요

1) 설립 시기

‘센다이시 역사민속자료관’은 1979년 11월 3일 개관하였으며 2000년도에 건물의 보강, 개수 공사를 거쳐 2001년에 새로 문을 열었다.

2) 설립 주체 : 센다이시

3) 설립 목적과 배경

센다이를 중심으로 메이지[明治] 시대 이후의 서민생활 자료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자료관이지만, 자료관의 건물 자체가 구일본 육군의 건물이었던 관계로 군대와 평화에 대한 내용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전시 내용

전시는 크게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로 구분되어 있다. 상설전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센다이 지방의 농구와 농가의 생활> 코너, <2. 센다이 상가지역(町場)의 생활> 코너, <3. 구4연대> 코너, <4. 체험학습실> 코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3. 구4연대> 코너는 일본 육군 제2사단 보병 제4연대의 병사(兵舎)였던 당시의 내무반의 모습을 복원, 전시하고 있다. 이 코너에는 ‘평화를 위한 전쟁전시’로서 군사 자료를 포함하여 전쟁과 서민의 관계를 보여주는 등 다양한 전시 관련 자료들을 순차 소개해 나가고 있다. 센다이시 역사민속자료관은 이 코너를 상설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이 자료관의 특색의 하나로 들고 있다.

한편 2008년도의 기획전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월 1일 ~ 4월 13일	테마전 ‘그 시절 그 무렵-사진 속의 어린이들’
4월 26일 ~ 6월 1일	기획전 ‘歴民尋常小學校 -근대의 교과서와 증서와 교육과도’
6월 21일 ~ 11월 3일	기획전 ‘전쟁과 서민의 생활’
7월 19일 ~ 8월 31일	기획전 ‘燈(あかり)展’
11월 22일 ~ 2009년 4월 12일	특별전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기원해 왔는가’

사진 자료



1. 센다이시 역사민속자료관의 입구 2. 센다이시 역사민속자료관의 전경 3. 4연대 코너의 입구



4~5. 4연대 병사(兵舍)의 내무반 복원 모습 6. 일본군 병사들의 복장 7. 4연대 코너 입구의 전시 모습 8. 기획전시실의 단면. 제일 앞의 그림은 입대하는 장면을 담은 것이다. 9. 기획전 '전쟁과 서민의 생활' 전시 코너 입구 10. 센다이의 시(市)와 촌(村) 소개 11. '무운장구'를 새긴 천일침(千人針, 센닌바리) 12. 입영하는 병사에게 준 '무운장구'를 쓴 히노마루 13. 교과서를 통해 본 학교교육과 전쟁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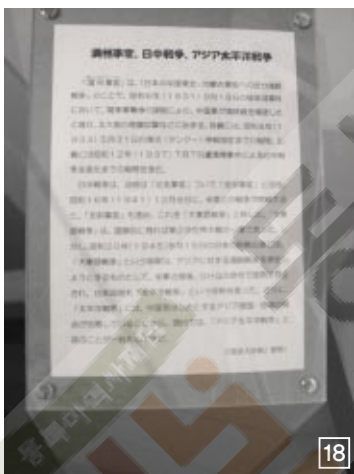
15



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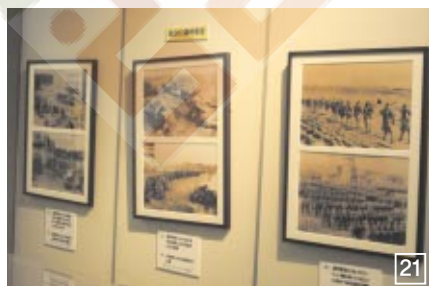
18



1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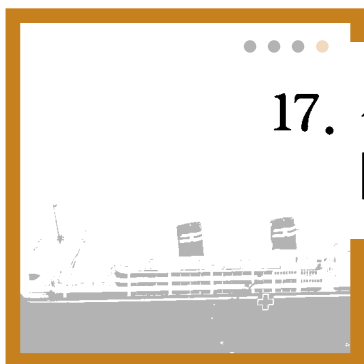


21

14. 아시아태평양전쟁 기간 동안에 나온 각종 잡지들 15. 출정군인 위문 포대 16. 호신용 부적과 각종 문패 등 17. 만주사변, 중일전쟁, 아시아태평양전쟁 관련 사진 18. 『국사대사전(國史大辭典)』을 인용하여 만주사변이 일본의 무력 침략전쟁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또 대동아전쟁, 태평양전쟁 모두 적절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현재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이란 명칭이 일반화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19. 남만주철도 주식회사의 포스터 20. 각종 잡지로 보는 태평양전쟁 21. 센다이와 만주사변



22. 『사진주보(寫眞週報)』의 표지(323·327호) 23. 『부인구락부』 26권 3호와 주부도 모두 생산에 나설 것을 독려하는 『부인구락부』 26권 2호 24. 『부인구락부』 25권 6호의 뒷표지 광고(“지금 보여라. 황국여성의 저력!”). 동 25권 9호는 생활물자도 전장으로 보낼 것을 독려하고 있다. 25. 대일본국방부인회 센다이 지부의 깃발과 방공 두건 등 26. 태평양전쟁 당시 은배(銀盃) 등의 공출에 대한 사례장(뒷면에는 계산서가 있음) 등 27. 원호 표어 28. 만주사변 이후의 전쟁 관련 전시물



17. 센다이시 전재부흥기념관 [仙台市戦災復興記念館]

| 주소/연락처 |

미야기현[宮城縣] 센다이시[仙台市] 아오바구[青葉區] 오오
마치[大町] 二丁目 12-1 ☎ 022-263-6931

일반 개요

1) 설립 시기 : 1981년

2) 설립 주체 : 센다이시

3) 설립 목적과 배경

센다이시는 공습으로 피해를 받았던 때부터 그 이후 훌륭하게 부흥을 수행하기까지의 자료, 기록을 전시하고 그때까지 걸어온 길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재부흥기념관을 건설하고, 1981년 개관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자료전시실에서는 공습을 받은 거리의 사진, 유품 등과 함께 전후 부흥의 걸음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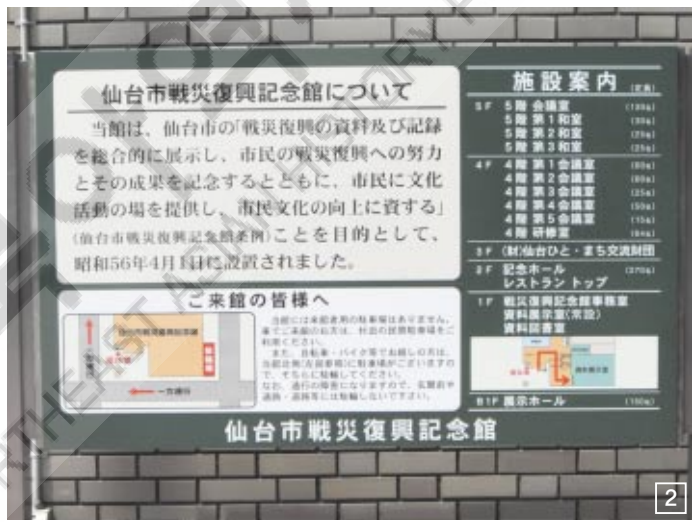
전시 내용

전시실은 크게 세 부분의 소주제 <전쟁과 센다이 공습, 그리고 종전(終戰)>, <전재(戰災)에서의 부흥, 전후의 삶(1945~1955년경)>, <발전의 시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발전의 시대> 코너 안내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현재 센다이시의 거리는 이러한 전쟁의 피해로 한번 잃어버리고 재건한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거리를 다시금 재건한 것은 비참한 전쟁을 체험하고 전후의 혼란을 극복하며, 살면서도 아이들과 손자들을 생각하며 힘을 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또한 아버지, 어머니인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센다이의 거리가 전쟁으로 파괴된 것, 그것을 재건하기 위해 많은 사람의 힘든 노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참한 사건을 두 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계속 이야기를 전하였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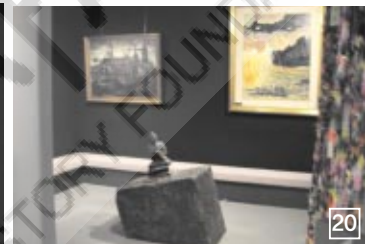
사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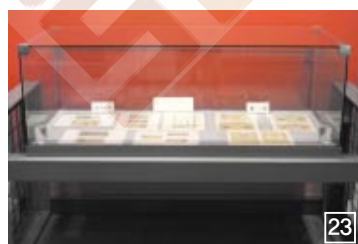
1. 기념관 정문 2. 전쟁기념관에 대한 안내 3. 전시실 입구 4. 전시실 모습 5. 에도시대 조카마치[城下町]로서의 센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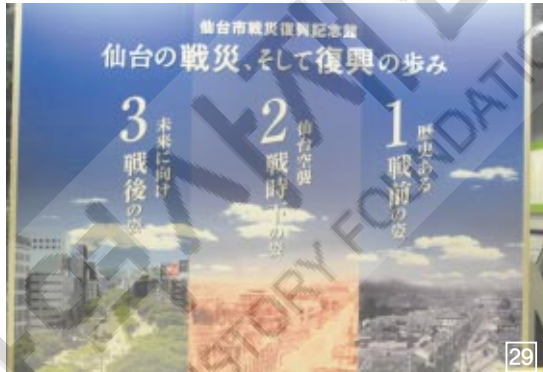


6. 메이지 시대의 센다이 7. 다이쇼·쇼와 시대 초기의 센다이 8. 전시실의 내부 모습 9. 군사도시 센다이의 면모 10. 메이지·다이쇼·쇼와 초기의 건축물 11. 센다이 제2고등학교 12. 센다이 공습 관련 자료 13. 소이탄 투하 모습 14. 각종 폭탄



15. 제2차 세계대전으로의 도정(道程)
16. 방공연습 사진 17. 센다이 공습
18. 공습 의 모습 19. 소실지역 구
역도 20. 공습 묘사 그림 21. 패전
의 날 22. 공습받은 도시들 23. 당
시 돈과 채권 24. 전후의 생활 25.
'전후 부흥'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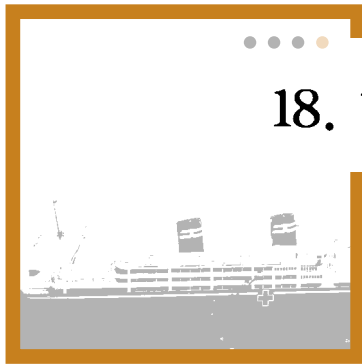


26. 전후의 부흥계획 27. 전후 부흥 계획도 28. 센다이 전재부흥기념관의 외관 29. 센다이 전재부흥기념관의 소개 포스터 30. 전시하의 군사훈련 31. 센다이 대공습 사진 자료 32. 방공호 모형



33. 가복구한 센다이역 34. 부흥 모습 전시실 35~37. 전시장 내부 모습 38. 공습 관련 서적

18. 태평양전사관(太平洋戦史館)



| 주소/연락처 |

이와테현[岩手縣] 오슈시[奥州市] 고로모가와구[衣川區] 진
바시타[陣場下] 41

☎ 0197-52-3000 Fax 0197-52-4575

Email mppjapan@cameo.plala.or.jp

일반 개요

1) 설립 시기 : 1995년

2) 설립 주체

특정비영리활동법인 ‘태평양전사관’의 설립자는 전사관의 회장이사로 있는 이와부치 노부테루[岩淵宣輝]이다. 1941년생인 그는 전적지(戰迹地) 조사, 현지순방 등 다양한 활동의 소유자이며 특히 뉴기니 도항은 200회를 넘었을 정도로 뉴기니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2006년 『이와테일보[岩手日報]』 문화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NPO법인 태평양전사관 회장이사로 있으면서 강연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태평양전사관은 회보 『전사관 소식(戦史館だより)』을 발행하고 있다.

3) 설립 목적과 배경

자체 홈페이지에는 “태평양전사관은 평화를 위한 기념관입니다. ‘잊지 말고 전하자 다음 세대에, 그리고 플러스 교류’를 내걸고 활동하고 있습니다”라고 전사관을 소개하고 있다.

전시 내용

태평양전쟁 당시 뉴기니 전선을 중심으로 한 전적지 조사와 유해 발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 내용을 유품과 사진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전시하고 있다.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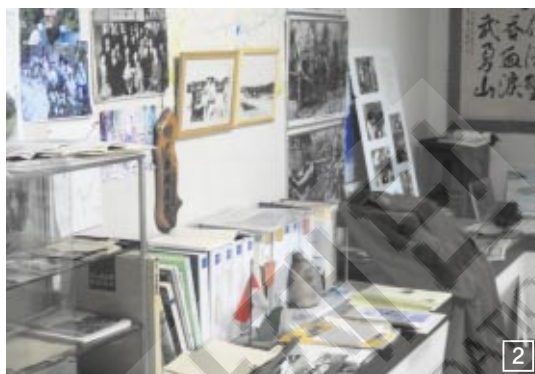
태평양전사관은 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뉴기니에 아직도 많은 일본군의 유해가 방치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로 하여금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하고 있다. '인명 존중의 입장'에서 전적지 조사 활동을 전개하여 그 결과를 후생노동성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사관은 일본 사회가 아직도 태평양 도처에 흩어져 있는 일본군 유해에 관해 이런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인정받아 이와부치는 제59회 『이와테일보』 문화상을 수상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수상 소감의 변을 『전사관 소식』(2006년 12월 제58호)에서 발 ,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금회 수상은 이와부치 노부테루[岩淵宣輝] 개인의 상이라고 하기보다, 활동을 이어온 평화기념관, NPO법인 태평양전사관의 회원 전원에게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60년 이상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100만 명 이상의 일본 병사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에서는 '사회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현대 일본이 안고 있는 '큰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병사를 맞이하러 가지 않은 수상의 신사참배……전사자에게 감사와 추모의 정성…… 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금월 하순 22일부터 다시 정부파견 유골수집으로 비아크(Biak) 섬에 갑니다. 유골수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생명의 중요성을 알고 전쟁의 어리석음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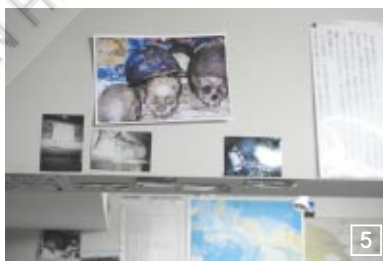
2



3



4



5



6

1. 태평양전사관의 외관 2~3. 태평양전사관 내부의 전시 모습 4. 뉴기니 전선의 구일본군 사진 자료 5. 유해 발굴 사진 자료 6. 서부 뉴기니 이브린 하천 유역 유해 발굴 조사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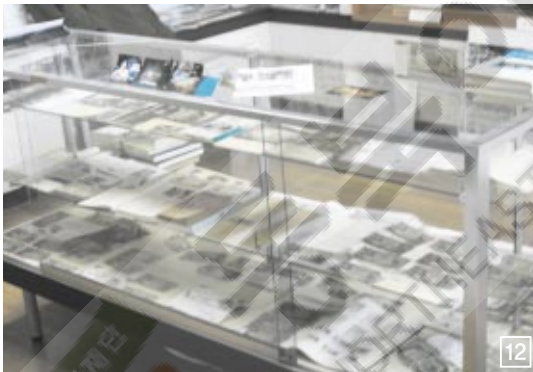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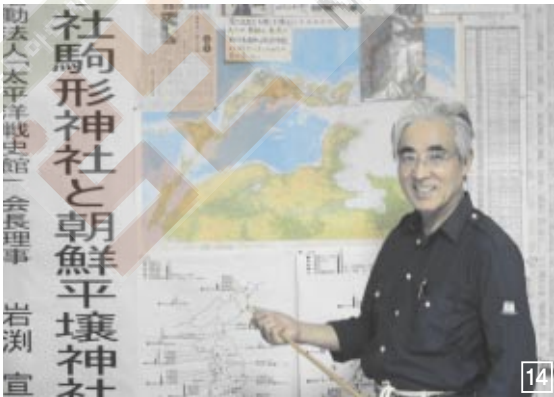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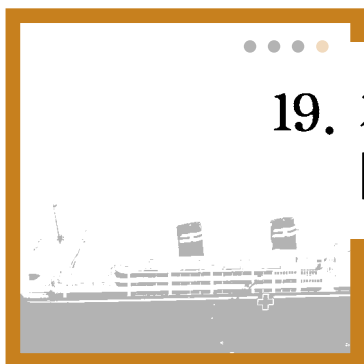


13



14

7. 뉴기니 유해 발굴 사진 8. 뉴기니 발굴 과정에서 나온 구일본군 보급품(수통) 9. 뉴기니 유해 발굴. “전사자의 인권은 누가 지켜 주는가?” 10~11. 뉴기니 발굴 과정에서 나온 구일본군의 각종 보급품들 12. 뉴기니에서 사용된 구일본군 발행의 군표(軍票) 13. 구일본군 소년병에 관한 자료 14. 조선 신사 관련 문구 앞에서 포즈를 취해 준 이와부치 노부테루 회장이사의 모습



19. 기타가미평화기념전시관 [北上平和記念展示館]

| 주소/연락처 |

이와테현[岩手縣] 기타가미시[北上市] 와가정[和賀町] 후지
네[藤根] 14-147-3 ☎ 0197-73-5876

일반 개요

1) 설립 시기

‘기타가미평화기념전시관’은 다카하시 미네지로[高橋峰次郎, 1883~1967]가 수집한 7,000통의 군사우편’과 전쟁체험에 관한 자료를 그 유족에게서 기증을 받아 2002년 4월에 개관하였다.

2) 설립 주체

후지네 자치진흥회

기타가미평화기념전시관 관리운영위원회

3) 설립 목적과 배경

전쟁체험을 후세에 전한다.

전시 내용

전시관은 후지네 생활센터 안에 있으며 군사우편, 전사(戰史), 교과서, 향토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가미평화기념전시관에서 간행된 소개 책자에서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군사우편의 영구보존을 목적으로 1981년부터 조사활동을 시작했던 「和我のぺん」 대표 菊池敬一(회원 13명)은 일본방송협회의 협력으로 1984년 『농민병사의 목소리가 들린다』를 출판하고 7,000통의 군사우편의 존재를 세상에 소개하게 되었다. 이 저서와 같은 타이틀로 1982년 센다이방송국이 특별방송으로 전국에 방영, 이것이 같은 해 일본 문화청 예술제의 영화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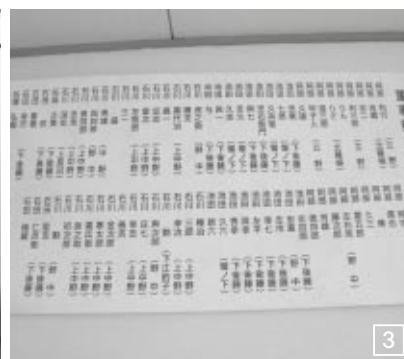
1996년부터는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기간연구로써 조사활동을 행하여, 모든 자료를 마이크로필름으로 수집, 보존하게 되었다.

1998년 후지네 진흥회와 사업추진관계자 등에 의해 기타가미평화기념관 건설검토위원회가 설치되어 기타가미시의 전면적인 지원에 따라 귀중한 자료수집, 조사를 하여 '군사우편'의 남긴 뜻을 회고하면서 그 보존과 활용을 모색하기 위해, 농민병사의 실정을 후세에 전하는 것이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기원하는 지역주민의 염원이기도 하였다.

여기는 평화의 중요함을 배우는 곳이며, 세계의 영원한 평화에 기여하는 곳이다.

(출전 : 『七〇〇〇通の軍事郵便 若き農民兵士の聲』, 北上平和記念展示館, 2002)

사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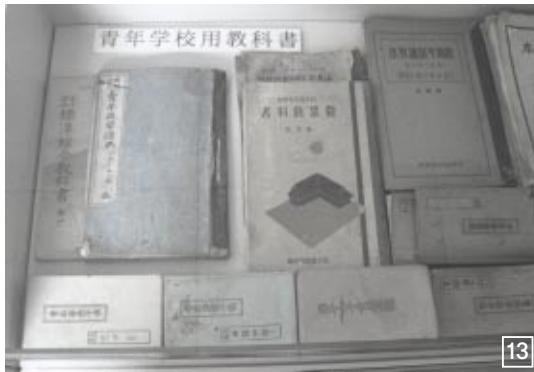


1. 기타가미평화기념전시관 입구 모습 2. 기타가미평화기념전시관의 홍보 포스터 3. 군사우편을 보낸 기타가미 출신 병사들의 이름



4. 구일본 육군 군복과 외투
5. 입영 후의 편지 6. 장정들의
입영하는 모습 7. 소집영장 순
서표 8. 군사우편을 읽고 즐거
워하는 일본군 9. '지나사변'
을 알리는 화보 10. 징병검사
를 전후한 후지네촌[藤根村]의
장정들 11. 출정군인의 사진과
군사편지 12. 군사편지





13



14



15



16



1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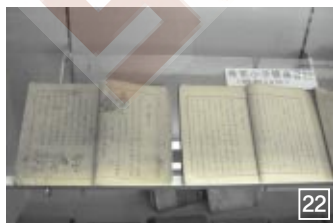
19



20



21



22



23

13~14. 청년학교용 교과서 15~18. 전시하의 화보집 19. 메이지 시대의 교과서 20. 다이쇼 시대의 교과서 21. 1937년 소학교(초등학교)용 국어책 22. 1939년 소학교(초등학교)용 수신책 23. 소학교(초등학교)용 국어·이과·산수책



24



25



26



27



28



29



30

24. 패전 후의 소학교(초등학교)용 교과서 25~28. 구일본군 군복과 계급제도 29. 천황의 항복방송 재가문(裁可文) 30. 구일본군 장교 유품



20. 아오모리공습자료상설전시실 [青森空襲資料常設展示室]

| 주소/연락처 |

아오모리현[青森縣] 아오모리시 마쓰하라[松原] 一丁目 6-15

아오모리시 중앙시민센터[青森市中央市民センター] 내

☎ 017-734-0163

일반 개요

1) 설립 시기 : 1995년

2) 설립 주체

아오모리시 ‘아오모리 공습을 기록하는 모임(青森空襲を記録する會)’

3) 설립 목적과 배경

1989년 3월 아오모리 시의회 정례회에서 ‘평화도시선언에 관한 결의’가 채택된 것에 호응하여, 아오모리시는 1990년 아오모리시의 공습기념일에 해당하는 7월 28일 시민의 생활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과 함께, 세계의 영원한 평화실현의 염원을 넣어 ‘평화도시’를 선언하였다.

‘아오모리 공습을 기록하는 모임’에서는 아오모리시의 평화도시선언에 따라, 소장 자료의 대부분을 아오모리시에 기증함과 동시에 아오모리시와 공습자료전을 공동 개최, 아오모리시 중앙시민센터 내에 ‘아오모리공습자료상설전시실’을 설치하였다.

실내에는 공습을 전하는 약 50매의 사진 패널 외에, 소이탄을 비롯한 당시의 여러 가지 생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2003년도에 개최된 아오모리 공습전의 초대글을 통해 이 전시실의 존재 의의를 엿볼 수 있는데, 참고로 당시의 초대글과 아오모리시의 <평화도시선언>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오모리 공습전 개최에 임하여>

아오모리시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7월 28일 밤, 미국군 B29 폭격기 61기의 공습으로 하룻밤 만에 시가지의 대부분이 초토화되고, 귀중한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날’부터 올해까지 58회째 더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훌륭하게 부흥한 현재의 아오모리시에서는 당시의 참상을 전하는 것은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번영이 어떤 폐허 속에서 살아남았는가를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무차별 폭격으로 쏟아지는 소이탄과 맹화 속을 도망치려고 갈팡질팡함, 생명을 잃은 많은 사람들, 가족과 친구를 잃은 많은 사람들, 모든 재산을 잃은 아오모리 시민.

그 아픔과 슬픔, 노여움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성과 아이들, 일반 시민을 무차별로 살상한 잔학하고 잔혹한 공습과 전쟁, 그 잘못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생각으로 공습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아오모리 공습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공습전이 아오모리 공습을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전해져, 평화를 생각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2003년 7월 28일

아오모리 공습을 기록하는 모임 회장 今村修

평 화 도 시 선 언

아오모리시는 1945년 7월 28일의 대공습으로 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진흥을 이루게 된 오늘날, 다시 발전을 지향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고, 활력 있고, 매력 넘치는 '반가운 도시'로 크게 비약하려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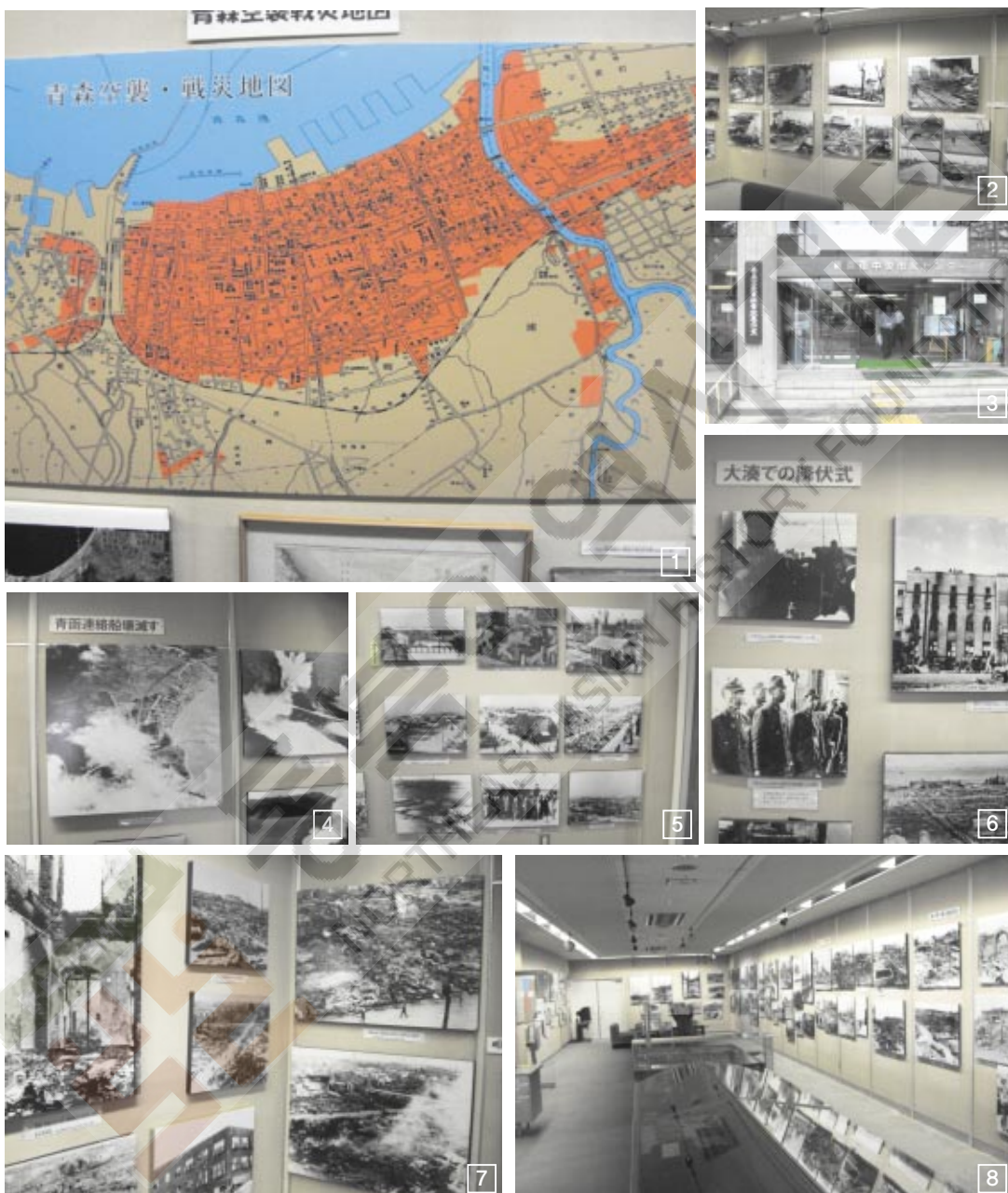
우리들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푸른 하늘 푸른 바다 푸른 숲'에 안겨 있는 이 향토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다른 것과 바 수 없는 향토를 다시 저 전화(戰火)에 소실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본국 헌법의 이념이자 인류공통의 염원인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장래에도 비핵 삼원칙(非核 三原則)이 준수되어, 모든 나라의 핵병기 폐기와 군비축소를 희망하며, 이곳에서 평화도시가 됨을 선언합니다.

平成 2(1990)년 7월 28일

아오모리시



1. 아오모리 공습 피해 지도 2. 공습 피해 사진 3. 아오모리 중앙시민센터 입구(전시실 입구) 4. 아오모리-하코다테 연락선의 침몰 5. 공습 후의 아오모리시 6. 아오모리에서의 행복식 모습 7. 공습으로 파괴된 시가지 8. 전시실 모습



9. 시민센터 모습 10. 밖에서 본 전시실 모습 11. 전시실 출입구 12. 공습으로 폐허가 된 시가지 입구 13. 아오모리 공습전 포스터

부록 1. 국제평화박물관 목록

평화박물관 이름	도시	나라	설립년
The International Museum of War and Peace	루체른(Luzern)	스위스	1902
Peace Palace and Library	헤이그(The Hague)	네덜란드	1913
Imperial War Museum	런던(London)	영국	1917
Peace Memorial Museum	잔지바르(Zanzibar)	탄자니아	1925
International Esperanto Museum	빈(Vienna)	오스트리아	1927
The Ljzer Tower	딕스모이데(Diksmuide)	벨기에	1930
The League of Nations Museum	제네바(Geneva)	스위스	1946
Gandhi Memorial Museum	마두라이(Madurai)	인도	1959
International Museum of The Red Cross	만토바(Mantova)	이탈리아	1959
National Gandhi Museum and Library	뉴델리(New Delhi)	인도	1960
Anne Frank House	암스테르담(Amsterdam)	네덜란드	1960
Berlin Wall Museum	베를린(Berlin)	독일	1963
Gandhi Smarak Sangrahalaya	아흐메다바드(Ahmedabad)	인도	1963
War Remnants Museum	호치민(Ho Chi Minh)	베트남	1975
Peace Museum, Lindau	린다우/보덴제(Lindau/Bodensee)	독일	1980
Bridge at Remagen Peace Museum	레마겐(Remagen)	독일	1980
Anti-War House & Peace Center	지버스하우젠(Sievershausen)	독일	1981
The Peace Museum, Chicago	시카고(Chicago)	미국	1981
Anti-War Museum, Berlin	베를린(Berlin)	독일	1982
Peace Museum	메더(Meeder)	독일	1982
Peace Library and Anti-War Museum	베를린(Berlin)	독일	1984
侵華日軍南京市大屠殺遇難同胞記念館 (Memorial Hall of the Victims in the Nanjing Massacre by Japanese Invaders)	난징(Nanjing)	중국	1985
Sword Into Plowshares Peace Center and Gallery	디트로이트(Detroit)	미국	1986
International Museum of Peace and Solidarity	사마르칸트(Samarkand)	우즈베키스탄	1986
Kathe Kollwitz Museum	베를린(Berlin)	독일	1986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서울(Seoul)	한국	1987
中國人民抗日戰爭紀念館(The Memorial Hall of China's war of Resistance Against Japan)	베이징(Beijing)	중국	1987

평화박물관 이름	도시	나라	설립년
Caen Memorial	캉(Caen)	프랑스	1988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useum	제네바(Geneva)	스위스	1988
Children's Friendship Museum Tashkent	타슈켄트(Tashkent)	우즈베키스탄	1989
Museum of Compassion	뉴욕(New York)	미국	1990
National Civil Rights Museum	멤피스(Memphis)	미국	1991
나눔의 집(The House of Sharing)	광주(廣州, Kwangju)	한국	1992
Franz Jägerstätter House	오스터미팅(Ostermiething)	오스트리아	1993
First Austrian Peace Museum	볼프세크(Wolfsegg)	오스트리아	1993
World Centre for Peace, Freedom and Human Rights	베르됴(Verdun)	프랑스	1994
Prairie Peace Park	링컨(Lincoln)	미국	1994
Peace Museum	뉘른베르크(Nürnberg)	독일	1995
Yi Jun Peace Museum	헤이그(The Hague)	네덜란드	1995
Bradford Peace Gallery	브래드퍼드(Bradford)	영국	1996
Robben Island Museum	벨빌(Bellville)	남아프리카공화국	1997
In Flanders Fields Museum	예페르(leper)	벨기에	1998
Gernika Peace Museum	게르니카(Gernika)	스페인	1998
Peace History Museum	힌더랑(Hindelang)	독일	1999
Bethlehem Peace Center	베들레헴(Bethlehem)	팔레스타인	2000
Peace Museum	라 발(La Vall d'Uixó)	스페인	2000
African Peace Museum	나이로비(Nairobi)	케냐	2001
Nobel Museum	스톡홀름(Stockholm)	스웨덴	2001
European Museum for Peace	슈타트슬라이닝(Stadtschlaining)	오스트리아	2001
Dayton International Peace Museum	데이턴(Dayton)	미국	2004
Nobel Peace Center	오슬로(Oslo)	노르웨이	2005
Museum of Tolerance	뉴저지(New Jersey)	미국	2006
Tehran Peace Museum	테헤란(Tehran)	이란	2006
Peace House (La Filanda) with International Peace Posters Documentation Center	카살레치오디레노(Casalecchio di Reno)	이탈리아	2006
慰安婦資料館(Museum to "Comfort Women")	상하이(Shanghai)	중국	2007

부록 2. 일본의 평화기념관 목록

소재지[都道府縣]	평화박물관명	설립년
히로시마[廣島]	廣島平和記念資料館	1955
나가사키[長崎]	長崎原爆記念館	1955
사이타마[埼玉]	丸木美術館	1967
야마구치[山口]	陸奥記念館	1972
오키나와[沖縄]	沖縄縣平和祈念資料館	1975
도쿄[東京]	東京都立第五福龍丸展示館	1976
후쿠오카[福岡]	大刀洗平和記念館	1979
가나가와[神奈川]	創價學會戸田平和記念館	1979
후쿠오카[福岡]	兵士・庶民の戦争資料館	1979
미야기[宮城]	仙台市歴史民俗資料館	1979
미야기[宮城]	仙台戦災復興記念館	1981
효고[兵庫]	神戸市戦災記念資料館	1981
도쿄[東京]	The Japan Peace Museum -平和博物館を創る會	1983
오키나와[沖縄]	누치두타카라의 집	1984
오사카[大阪]	大阪人權博物館	1985
홋카이도[北海道]	平和記念館	1985
나가사키[長崎]	浦頭引揚記念資料館	1986
가고시마[鹿兒島]	知覽特功平和會館	1986
히로시마[廣島]	大久野島毒ガス資料館	1988
와카야마[和歌山]	寺中美術館	1988
시즈오카[静岡]	浜松復興記念館	1988
도쿄[東京]	平和祈念展示資料館	1988
고치[高知]	平和資料館・草の家	1989
오키나와[沖縄]	ひめゆり平和祈資料館	1989
교토[京都]	丹波マンガン記念館	1989
도쿄[東京]	中野區平和資料展示室	1989
오키나와[沖縄]	南風原文化センター	1989
나가사키[長崎]	小國民資料館	1990
고치[高知]	高知市立自由民權記念館	1990
오사카[大阪]	大阪國際平和センター	1991
와카야마[和歌山]	石垣記念館	1991

소재지[都道府縣]	평화박물관명	설립년
오사카[大阪]	財團法人大阪國際平和センター	1991
히로시마[廣島]	三良坂平和美術館	1991
오사카[大阪]	吹田市平和祈念資料館	1992
교토[京都]	立命館大學國際平和ミュージアム	1992
가나가와[神奈川]	川崎市平和館	1992
홋카이도[北海道]	No More 피폭자 회관	1992
도쿠시마[徳島]	市ドイツ館	1993
사이타마[埼玉]	埼玉縣平和資料館	1993
오키나와[沖縄]	佐喜眞美術館	1993
시즈오카[静岡]	静岡平和資料センター	1993
히로시마[廣島]	福山市人權平和資料館	1994
오사카[大阪]	堺市平和と人權資料館	1994
나가사키[長崎]	岡正治平和記念館	1995
가가와[香川]	高松市民文化センター平和記念室	1995
이와테[岩手]	太平洋戦史館	1995
도쿄[東京]	せたがや平和資料室	1995
아오모리[青森]	青森空襲資料常設展示室	1995
히로시마[廣島]	ホロコースト記念館	1995
효고[兵庫]	姫路市平和資料館	1996
사이타마[埼玉]	翁抗日反戦美術館	1996
후쿠오카[福岡]	確井町立平和祈念資料館	1996
오사카[大阪]	平和人權こどもセンター	1997
나가노[長野]	戦没畫學生慰靈美術館 無言館	1997
오이타[大分]	佐 市平和祈念館やわらぎ	1997
가나가와[神奈川]	地球市民かながわプラザ國際平和展示室	1998
교토[京都]	舞鶴引揚記念館	1988
도쿄[東京]	ホロコースト教育資料センター	1998
나가사키[長崎]	童話館祈りの丘繪本美術館	1999
도쿄[東京]	昭和館	1999
기후[岐阜]	杉原千畝記念館	2000
효고[兵庫]	戦没した船と海員の資料館	2000
후쿠이[福井]	ゆきのした平和文化資料館	2001
도쿄[東京]	高麗博物館	2001

소재지[都道府縣]	평화박물관명	설립년
도쿄[東京]	東京大空襲・戦災資料センター	2002
기후[岐阜]	岐阜市平和資料館	2002
히로시마[廣島]	國立廣島原爆死沒者追悼平和祈念館	2002
효고[兵庫]	西宮市平和資料館	2002
나가사키[長崎]	國立長崎原爆死沒者追悼平和記念館	2003
나가사키[長崎]	長崎平和資料館	2003
니가타[新潟]	長岡戦災資料館	2003
나가사키[長崎]	ナガサキピースミュージアム	2003
이와테[岩手]	北 平和記念展示館	2004
오키나와[沖縄]	對馬丸記念館	2004
홋카이도[北海道]	樺太關係資料館	2004
도쿄[東京]	女たちの戦争と平和の資料館	2005
오카야마[岡山]	岡山空襲平和資料館	2005
도쿄[東京]	わだつみのこえ記念館	2006
도쿄[東京]	しょうけい館 戦傷病者史料館	2006
아이치[愛知]	Peace Aichi[ピースあいち]	2007
야마나시[山梨]	山梨平和ミュージアム	2007

일본의 전쟁기억과 평화기념관 I
－關東・東北 지역 편

초판 제1쇄 인쇄 2009년 4월 16일

초판 제1쇄 발행 2009년 4월 23일

편 찬 동북아역사재단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87

e-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09

ISBN 978-89-6187-113-6 03900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